

#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적색자료집 조류

Red Data Book of  
Endangered Birds in Korea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적색자료집  
**조류**

Red Data Book of  
Endangered Birds in Korea



## 발간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는 인간을 포함한 많은 생물들이 무생물적 환경요인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을 하는 곳입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 다른 생물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생물은 우리에게 의식주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정신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자원입니다. 최근에는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많은 생물자원이 제약, 화장품, 식품 및 기능성 제품으로 개발되며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은 산소를 만들고 환경을 정화하며 생태계가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물의 이러한 기능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화와 도시화가 일어나며 생물이 살아가고 있는 서식지가 파괴되었으며, 화석연료의 급격한 사용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는 수많은 야생동식물을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유엔이 발표한 '제3차 세계 생물다양성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조류 1만여 종, 양서류 5천여 종, 포유류 5천여 종이 멸종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생물의 멸종속도는 이전보다 1,000배 정도 빨라졌습니다. 야생동식물의 멸종 즉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생물자원의 감소를 의미하며 우리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보다 심각한 일은 몇몇 종의 멸종으로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생태계는 젠가(Jenga)라는 놀이와 비유되는데, 차곡차곡 쌓아올린 나무 조각을 하나씩 빼내다보면 어느 순간 모두 무너집니다. 나무 조각 하나를 한 종으로 보면, 놀이에서처럼 생물의 멸종으로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야생동식물의 멸종과 생물다양성 감소가 심각해지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범지구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으로 유엔에서는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2010년을 생물다양성의 해로 정했고, 2011년부터 2020년을 생물다양성 10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CBD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했습니다. 나고야 의정서의 채

택은 국제 사회에서 생물자원의 경제적 가치와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에서는 야생생물의 멸종을 방지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멸종 위험이 높은 생물을 선정하고 이들 종의 분포·서식 현황을 수록한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1966년 처음 발간한 자료집의 표지가 위기를 나타내는 붉은색이어서 Red Data Book(적색자료집)이라고 부릅니다. IUCN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의 상태를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보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이 책을 발간합니다. 멸종위기종 보호에 관심 갖는 사람은 적색자료집을 통해 멸종위기종과 관련된 정보를 얻습니다.

IUCN에서 지구상의 멸종위기종을 수록해 적색자료집을 발간한다면, 세계 각국에서는 자신의 나라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을 수록한 적색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자료집 발간을 완료하고 개정판을 발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국가 차원에서 적색자료집 발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작년에서야 적색자료집을 발간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해, 이제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에 대한 적색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9월에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 World Conservation Congress)가 제주도에서 개최됩니다. 세계자연보전총회는 IUCN에서 자연보전,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4년마다 개최하는 자연, 환경 분야의 올림픽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계자연보전총회를 개최하는 IUCN은 적색자료집을 발간해 왔습니다.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제주도에서 개최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적색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어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적색자료집 발간으로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국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으며, 세계자연보전총회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적색자료집 발간을 위해 노력하신 순천향대학교 신현철 교수님을 비롯한 연구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 ‘국가 멸종위기종 총서’가 될 적색자료집의 발간이 한국의 모든 생물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물자원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국립생물자원관장  
김종천

1. IUCN 적색목록 범주와 지역적색목록 범주	7
2. 우리나라 조류 연구 현황	11
3. 적색목록 선정 과정	12
4. 적색목록	13
4.1. 개요	13
4.2. 적색목록	13
4.3. 범주별 증명서서	17
5. 연구진	259
5.1. 참여 연구진	259
5.2. 집필진	259
6. 적색목록 분류체계	261
7. 참고문헌	265
8. 찾아보기	270
8.1. 국명 찾아보기	270
8.2. 학명 찾아보기	271

RED DATA BOOK OF

ENDANGERED

B I R D S

I N K O R E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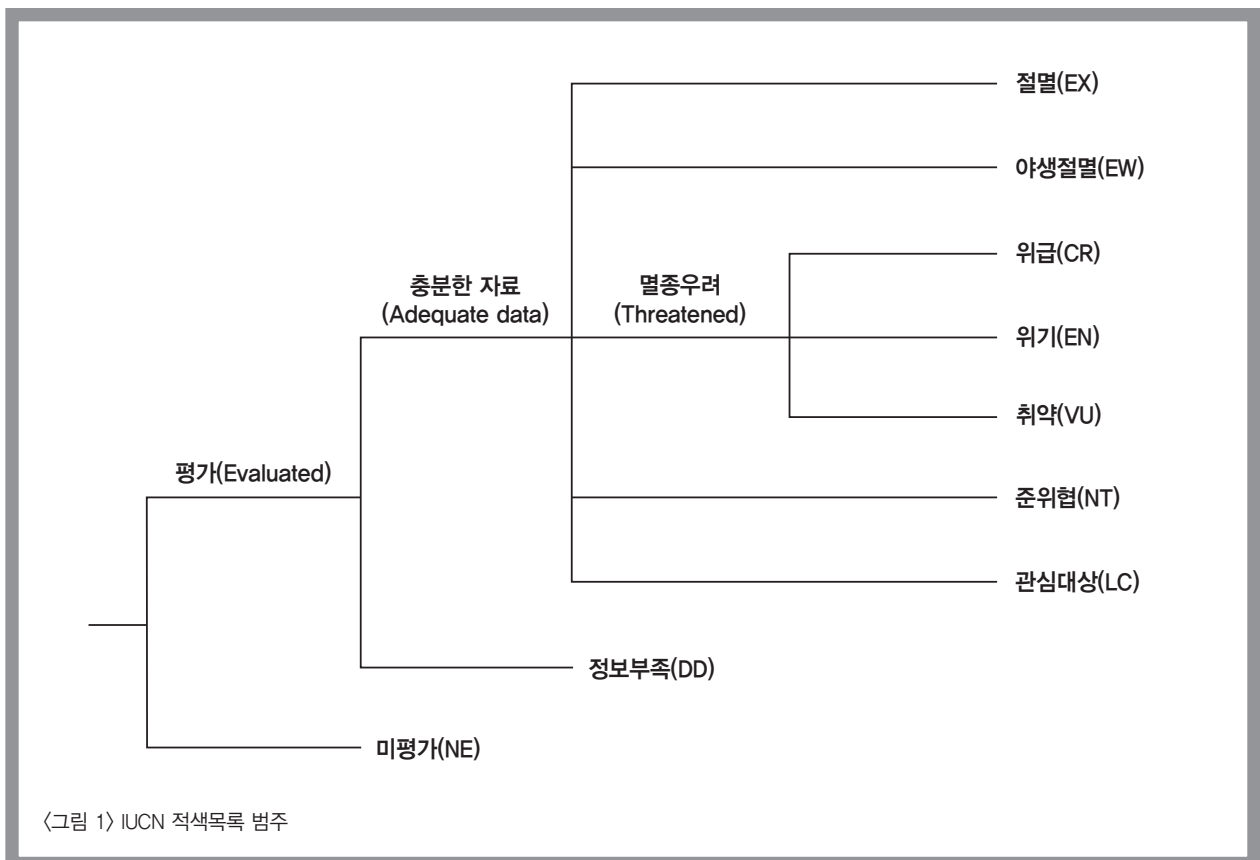


# 1. IUCN 적색목록 범주와 지역적색목록 범주

## 1.1 전 세계적 범주와 기준

전 세계적 IUCN 적색목록 범주와 기준은 6년간에 걸친 연구와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해진 뒤 1994년 처음 발행되었다. 1994년판 IUCN 범주와 기준은 종의 보전 상태를 평가할 때 객관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개발되었고, 따라서 사용자들의 일관성과 이해를 증진하고자 했다. 그리고 1996년도판 적색목록 작성을 위해 많은 종을 대상으로 범주와 기준에 맞추어 평가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1998년부터 1999년에 걸쳐 검토가 진행되어 IUCN 적색목록 범주와 기준 3.1판(2001년)이 새롭게 발표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 세계에 분포하는 분류군(미생물은 제외)을 9개 범주로 규정하도록 했다(그림 1). **절멸(Extinct, EX)**은 마지막 개체가 죽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야생절멸(Extinct in the wild, EW)**은 분류군이 자연 서식지에서는 절멸한 상태이나, 동물원이나 식물원 등지에서 생육 또는 재배하는 개체만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위급(Critically Endangered, CR)**은 가장 유효한 증거가 위급에 해당하는 기준 A부터 E까지의(표 1) 그 어떤 하나와 일치한 상태로, 위급으로 평가된 분류군은 야생에서 극단적으로 높은 절멸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간주한다. **위기(Endangered, EN)**는 가장 유효한 증거가 위기에 해당하는 기준 A부터 E까지의 그 어떤 하나와 일치한 상태로, 야생에서 매우 높은 절멸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간주한다. **취약(Vulnerable, VU)**은 가장 유효한 증거가 취약에 해당하는 기준 A부터 E까지의 그 어떤 하나와 일치한 상태로, 야생에서 높은 절멸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간주한다. 위급, 위기, 그리고 취약 범주를 합해 **멸종우려(Threatened)**라 하나, 멸종우려는 IUCN 적색목록 범주는 아니다.





**준위협(Near Threatened, NT)**은 기준에 따라 평가했으나, 현재에는 위급, 위기 그리고 취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 상태로, 가까운 장래에 멸종우려 범주 중 하나에 근접하거나 멸종우려 범주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는 상태이다. **관심대상(Least Concern: LC)**은 기준에 따라 평가했으나, 위급, 위기 그리고 취약 또는 준위협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로, 널리 퍼져 있고, 개체수도 많은 분류군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 **정보부족(Data Deficient, DD)**은 확실한 상태 평가를 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한 분류군을 강조하기 위한 범주이다. 그리고 **미평가(Not Evaluated, NE)**는 적색목록 기준에 따라 아직 평가하지 않은 분류군에 적용하는 범주이다. 정보부족과 미평가 범주는 분류군의 위협 정도를 반영하지 않는다.

**<표1> 분류군이 속한 위협 범주(위급, 위기 또는 취약)를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5종류 기준(A-E)에 대한 요약**

사용가능한 기준 A-E	위급(CR)	위기(EN)	취약(VU)
<b>A, 개체군 축소</b>	지난 10년 또는 3세대에 걸쳐 측정된 하락		
<b>A1</b>	> 90%	> 70%	> 50%
<b>A2, A3 &amp; A4</b>	> 80%	> 50%	> 30%
<b>A1.</b> 축소 원인들이 아래 사유 중 어떤 한 가지에 근거하거나 특정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역전되고, 이해되며, 중단되는 지난 과거에 관찰된, 추정된, 추리된 또는 추측된 개체군 축소; (a) 직접 관찰 (b) 분류군에 적합한 풍부도 지수 (c) 점유면적(AOO), 출현범위(EOO) 그리고/또는 서식지 질의 하락 (d) 남획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 수준 (e) 도입 분류군, 잡종화, 질병원, 오염원, 경쟁자나 기생자의 영향 <b>A2.</b> 축소 원인들이 A1에 따른 (a)에서 (e)까지의 사유 중 어떤 한 가지에 근거해 중단되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거나 역전되지 않는 지난 과거에 관찰된, 추정된, 추리된 또는 추측된 개체군 축소 <b>A3.</b> 미래에(최대 100년까지) 기준 A1에 따른 (a)에서 (e)까지의 사유 중 어떤 한 가지와 부합된 투영되거나 추측된 개체군 축소 <b>A4.</b> 축소 원인들이 기준 A1에 따른 (a)에서 (e)까지의 사유 중 어떤 한 가지에 근거해 중단되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거나 또는 역전되지 않으며, 시간 간격에 과거와 미래를 반드시 포함한(최대 100년간), 관찰된, 추정된, 추리된, 투영된 또는 추측된 개체군 축소			
<b>B, B1(출현범위) 또는 B2(점유면적) 중 한 가지 유형의 지리적 영역</b>			
<b>B1. 출현범위</b>	< 100km <sup>2</sup>	< 5,000 km <sup>2</sup>	< 20,000 km <sup>2</sup>
<b>B2. 점유면적</b>	< 10 km <sup>2</sup>	< 500 km <sup>2</sup>	< 2,000 km <sup>2</sup>
그리고 다음 3가지 중 2에 해당			
(a) 심각한 조각화 또는 지역 수	= 1	= 5	= 10
(b) (i) 출현범위, (ii) 점유면적, (iii) 서식지 면적 그리고/또는 질, (iv) 지역 수 또는 아개개체군, (v) 성숙한 개체수의 지속적인 하락 (c) (i) 출현범위, (ii) 점유면적, (iii) 서식지 면적 그리고/또는 질, (iv) 지역 수 또는 아개개체군, (v) 성숙한 개체수의 극단적인 변동			
<b>C, 소개체군 크기와 하락</b>			
성숙한 개체수와 C1과 C2 중 하나	< 250	< 2,500	< 10,000
<b>C1.</b> 최대 100년간 과거의 추정된 지속적인 하락	3년간 또는 1세대에 25%	5년간 또는 2세대에 20%	10년간 또는 3세대에 10%
<b>C2.</b> (a) 그리고/또는 (b)의 지속적인 하락			
(a i) 가장 큰아개체군의 성숙한 개체수	< 50	< 250	< 1,000
(a ii) 한 아개체군에 있는 성숙한 개체수 % =	90-100%	95-100%	100%
(b) 성숙한 개체수의 극단적인 변동			
<b>D, 극소 또는 제한된 개체군</b>			
(1) 성숙한 개체수 또는	< 50	< 250	< 1,000
(2) 제한된 점유면적	na	na	전형적으로: AOO < 20km <sup>2</sup> 또는 지역 수 = 5
<b>E. 정량 분석</b>			
최소한으로 일어날 야생에서 절멸 확률을 나타냄	10년 또는 3세대 내에 (최대 100년간) 50%	20년 또는 5세대 내에 (최대 100년간) 20%	100년에 10%

## 1.2 지역 적색목록 범주와 기준, 평가

IUCN 적색목록 범주와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절멸 위험에 처한 종들을 분류하기 위해, 즉 전 세계적 수준에서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따라서 일부 지역이나 국가 또는 지방에 분포하는 분류군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적색목록 범주와 기준 그리고 평가 방법이 개발되어 지침으로 보급되었다. 여기에서 지역이란 전 세계적인 지리적으로 규정된 면적으로, 대륙, 나라, 주 또는 주보다 작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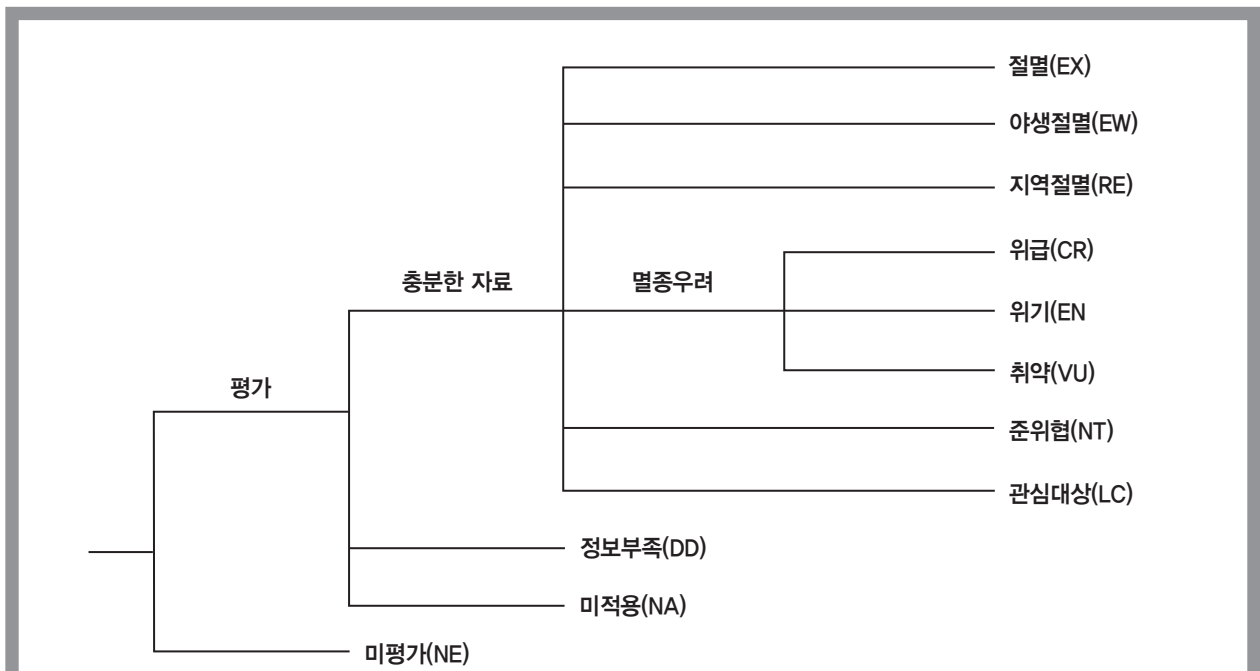
지역적색목록 범주와 기준 적용은 자연 영역 내에 있는 야생 개체군과 현지의도입 결과 형성된 개체군의 평가로 한정해야만 한다. 지역의 주변부에만 분포하는 분류군은 평가 대상이나, 지역 내에서 좋은 환경 조건에서만 드물게 번식하나 주기적으로(지역적으로) 절멸하는 분류군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또한, 현재 지역 바깥까지 분포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분류군과 지역 내에서 정착 단계를 보이는 분류군은 지역 내에서 몇 년 동안(전형적으로는 적어도 연속해서 10년간) 번식하기 전까지 지역적색목록 평가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 그러나 과거에 지역절멸(RE)로 고려되었으나, 자연적으로 지역에 다시 정착한 분류군은 번식이 일어난 첫 해 다음부터 평가할 수 있다.

이전에 지역절멸로 평가되었으나, 재도입된 분류군은 적어도 개체군 일부라도 직접적인 도움 없이 성공적으로 번식하고 자손이 생존 가능성을 보이는 순간 평가할 수 있다. 방문자 분류군은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으나, 방랑자 분류군은 평가해서는 안 된다. 교배 또는 방문자 분류군을 지역적색목록 범주와 기준으로 평가할 때에는 전 세계 또는 대륙 개체군 비율에 대한 미리 조정된 역치값을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개체군의 1% 미만으로 지역 내에서 지난 100년 이내에 나타났거나 현재 나타나는 종을 평가할 수도 있고 평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역치값을 명확하게 기록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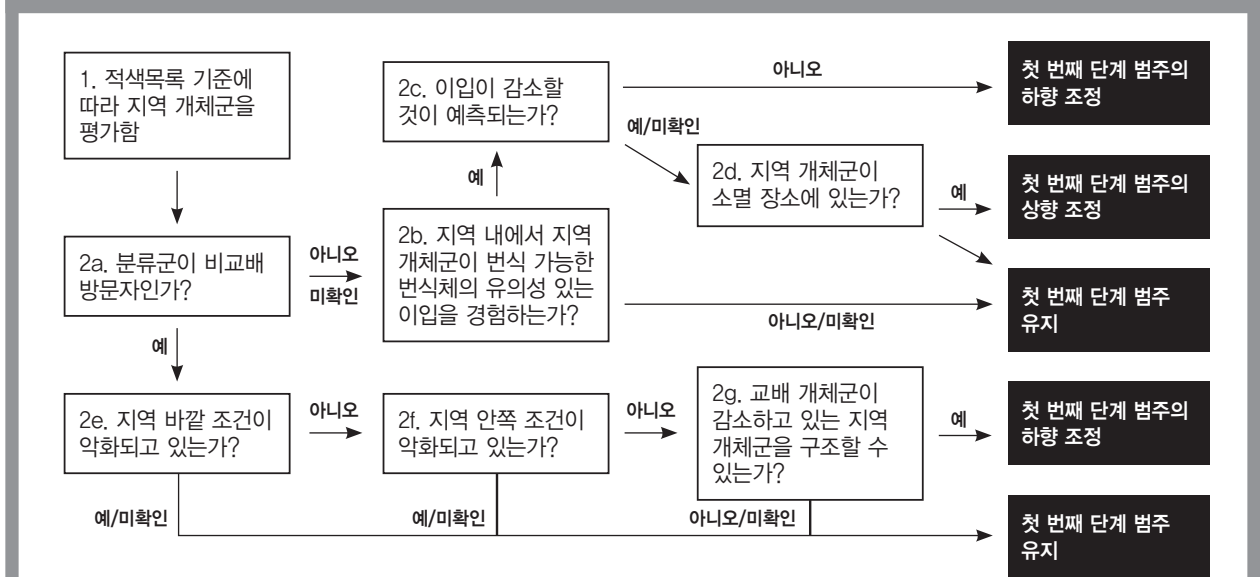
지역적색목록 범주에는 전 세계 적색목록에는 없는 지역절멸(RE)과 미적용(NA) 범주가 있는데, 전 세계 적색목록 범주를 그대로 사용한다(그림 2). **지역절멸(Regionally Extinct, RE)**은 지역 내에서 잠재적인 번식 능력을 가진 마지막 개체가 죽거나 지역 내 야생 상태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점에 대해 의심할 이유가 없을 경우, 또는 만일 이전에는 방문자 분류군이었으나 지역 내 야생 상태에서 마지막 개체가 죽거나 사라진 분류군에 적용된다. 지역절멸로 등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한계는 일반적으로 서기 1,500년 이후이다. 지역적색목록 범주는 반드시 지역을 포함해 자연 영역 전체에 걸쳐 야생에서 절멸된 분류군에만 적용되어야 하나, 과거 영역 이외의 곳에서 재배, 사육 또는 귀화 개체군(또는 개체군들)은 생존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만일 한 분류군이 전 세계적으로 절멸하였으나, 지역 내에 하나의 귀화 개체군으로 생존한다면, 지역 개체군은 반드시 현지의도입 결과로 처리되어야만 하며, 결과적으로 적색목록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미적용(Not Applicable, NA)**은 지역 수준에서 평가하기가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분류군에 해당하는 범주이다. 분류군이 야생 개체군이 아니거나 또는 지역 내 자연 영역에 속하지 않을 때 또는 지역의 방랑자일 때 미적용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지역 내에 극도로 적은 개체가 존재하거나(즉, 평가 이전에 지역적색목록 평가에 사용된 역치값으로 분류군을 배제하기로 결정했을 경우), 또는 분류군의 분류학적 수준이 종 또는 아종보다 낮은 분류군일 경우에도 미적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역적색목록 범주는 전 세계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데, 지역 내에서 교배하는 개체군과 교배하지 않는 비교배 개체군을 약간 달리 해 두 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그림 3). 교배 개체군의 경우, 첫 번째 단계에서는 IUCN 적색목록 기준을 분류군의 지역 개체군에 적용해 예비 범주로 평가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역 내 절멸 위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지역 바깥에 있는 동종 개체군의 존재와 상태에 따라 평가한다. 만일 분류군이 지역의 고유종이거나 또는 지역 개체군이 격리되어 있다면, 기준에 따라 정의된 적색목록 범주는 변경하지 않고 수용한다. 이와는 반대로, 만일 지역 바깥에 있는 동종의 개체군이 지역 절멸 위험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면, 평가된 예비 범주를 조정해야만 한다. 대부분 경우, 첫 번째 단계에서 평가된 범주를 하향 조정하게 되는데, 지역 내에 있는 개체군들은 지역 바깥에 있는 개체군들로부터 '구조 효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역 바깥에서 지역 안으로 개체들이 유입됨으로써 절멸 위험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그림 2〉 지역적색목록 범주



〈그림 3〉 지역 수준에서 IUCN 적색목록 범주 평가 과정을 보여주는 개념 체계도.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 세계 개체군이 아닌 지역 개체군에서 추출한 자료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

## 2. 우리나라 조류 연구 현황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서해안을 중심으로 넓은 갯벌이 분포한다. 더불어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여러 산맥이 형성되어 있어 산림 면적도 넓다. 한반도는 동물지리구 상 구북구에 속하며, 지리적으로는 유라시아대륙 동북단에 위치한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철새 이동경로 상 북반구와 남반구를 오가는 많은 철새의 중간 기착지 및 월동지, 번식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텃새를 비롯한 여름철새, 겨울철새, 통과새 등 다양한 야생조류들을 쉽게 관찰할 수 있으며, 지리적인 중요성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류에 관한 연구는 19세기 유럽의 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이루어 졌으며, 조류에 국한된 첫 번째 보고는 1885년에 Henry B. Tristram이 Ibis에 발표한 것이 처음이다. 이후 몇몇 학자에 의해 지속적인 표본수집과 종목록이 기술되었고, 20세기 초에는 일본인들에 의해 채집하거나 박물관의 표본들을 대상으로 외국의 학술지에 보고되기도 했다. 20세기 중반에는 미국인 조류학자 Oliver L. Austin이 우리나라에서 총 90종 492점을 채집했고, 일본과 미국 박물관에서 한국관련 표본과 주변국가의 조류 표본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통해 1948년 <한반도의 조류(The Birds of Korea)>에 337종을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19세기와 20세기 중반까지 우리나라 조류에 관한 연구는 주로 외국의 학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1960년대에 접어들어 경희대학교 원병오 교수 및 임업연구원 우한정 박사를 비롯한 국내 연구자들에 의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원병오 교수는 철새이동경로 연구를 위한 가락지 표시연구를 시작으로 1969년에는 <한국조류분포목록>을 발간했다. 1971년에는 Michael E. J. Gore와 함께 한국의 조류 366종을 발표했으며,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종합해 1981년 문교부에서 발행한 <동식물도감>의 '조류생태편'에서는 375종을 발표했다. 또한 원병오 교수는 많은 제자를 양성해 우리나라 조류연구의 기반을 다졌으며, 1980년대 접어들어 질적, 양적으로 발전했다. 우리나라의 각 대학교에 교수로 재직 중인 교수와 제자들에 의해 제주도를 비롯한 국내 주요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조사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 접어들어 한국조류학회가 창립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으며, 2000년대 들어서면서 탐조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한국에 기록된 조류의 종수도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우리나라의 조류 중 멸종위기종에 관한 것은 2005년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구체적인 지정 목록과 보호에 대해 체계화되었다. 환경부에서는 멸종위기 I 급 13종, II 급 48종이 수록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화보집>(2005)과 포스터 등을 발간해 일반인에게 멸종위기종의 중요성과 보호에 대해 널리 알렸다. 최근 국내에 도래하는 조류의 종수와 개체수에 대한 비교적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에 도래하거나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본 <한국의 적색자료집(Red Data Book of Korea)>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관찰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조류 중 기준에 조사된 국내자료와 국제기준(IUCN)을 검토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기준으로 재조정 작성했다. 향후 우리나라의 조류연구가 지속되고 국제적 기준이 변화됨에 따라 재정립의 필요성이 요구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조류의 관리와 보호에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서 참고문헌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3. 적색목록 선정 과정

조류 적색목록은 국내 서식하는 536종의 조류를 대상으로 검토했다. 536종의 조류 중 텃새는 물론 겨울철새, 여름철새, 통과새(나그네새) 전 범위에서 국내에 도래하는 종을 적색목록 검토 대상으로 했다. 동아시아 집단 의 1% 미만의 집단이 도래했으나 번식기록이 있거나 소규모 번식이 확인되고 있는 종은 적색목록 대상에 포함 했으며, 비록 소수의 개체가 도래하나 10년 이상 정기적으로 도래하는 종도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 집단 산정 의 근거는 IUCN 적색목록과 Wetlands International, Birdlife International 등의 자료를 활용했다. 1차 추출된 목록 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흔하게 관찰되거나 확연하게 개체군의 증가가 눈에 띄는 종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과거 10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개체군이 감소하고 있거나 흔히 관찰되지 않는 종을 우선적으로 선별해 총 132종을 2차 검토대상으로 한정했다. 132종을 대상으로 조류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환경부 전 국자연환경조사, 겨울철새 조류동시센서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모니터링 등 전국 규모의 모니터링 자료와 각 종 논문을 대상으로 개체수 현황과 변화에 대한 검토를 시행했으며, 최종적으로 95종의 적색목록집 대상종을 확 정했다.

95종의 적색목록집 집필 대상종에는 현재 환경부의 멸종위기 I·II급 중 외에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거나 보호가 시급한 종들을 포함했다. 특정시점에서부터 최소 20년 이상 관찰기록이 없는 종은 지역절멸로 규정했다. 또한, 현재 멸종위기종에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개체수가 증가하는 종들에 대해서는 절멸 위험이 낮아졌다고 판단해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적색목록집 집필을 위한 등급은 IUCN 적색목록 등급 기준과 지역적색목록 지침을 함께 적용해 지역절멸(RE), 위급(CR), 위기(EN), 취약(VU), 준위협 (NT), 관심대상(LC), 미적용(NA)의 7등급으로 분류했다.

〈표2〉 평가결과

분류	종수	비율(%)
절멸(Extinct, EX)	0	0
야생절멸(Extinct in the Wild, EW)	0	0
지역절멸(Regionally Extinct, RE)	3	3.2
위급(Critically Endangered, CR)	1	1.0
위기(Endangered, EN)	18	18.9
취약(Vulnerable, VU)	36	37.9
준위협(Near Threatened, NT)	8	8.4
관심대상(Least Concern, LC)	28	29.6
미적용(Nat Applicable, NA)	1	1.0
<b>합계</b>	<b>95</b>	<b>100</b>

## 4. 적색목록

### 4.1. 개요

국내에 서식하는 조류 중에서 적색목록집에 수록되는 대상종은 총 95종이다. 이중 지역절멸종은 원앙사촌, 크낙새, 따오기 3종으로 세계적으로 절멸종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20년 이상 관찰된 기록이 없으며 앞으로 다시 관찰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종들이다. 위급종은 넓적부리도요 1종이며, 우리나라에서 급격히 감소해 절멸위험이 아주 높은 종이다. 위기종은 개리 등 총 18종이며, 절멸위험이 높아 시급한 보호대책이 필요한 종이다. 취약종은 검은머리물떼새 등 총 36종으로 개체수가 적고 절멸의 위험이 비교적 높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종들이다. 준위협종과 관심대상종은 각각 8종과 28종으로 개체군의 크기가 크지 않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지만 당장의 절멸위험은 높지 않은 종들이다. 미적용종은 시베리아흰두루미 1종으로, 이 종은 국제적으로는 위급종이나, 우리나라에는 부정기적으로 도래하는 미조로 판단되어 멸종위기상태를 판정할 수 없었다.

### 4.2. 적색목록

#### 지역절멸(Regionally Extinct, RE) 3종

따오기	<i>Nipponia nippon</i>
원앙사촌	<i>Tadorna cristata</i>
크낙새	<i>Dryocopus javensis richardsi</i>

#### 위급(Critically Endangered, CR) 1종

넓적부리도요	<i>Eurynorhynchus pygmeus</i>
--------	-------------------------------

#### 위기(Endangered, EN) 18종

개리	<i>Anser cygnoides</i>
검독수리	<i>Aquila chrysaetos</i>
검은머리갈매기	<i>Larus saundersi</i>
고대(적호)갈매기	<i>Larus relictus</i>
긴점박이올빼미	<i>Strix uralensis</i>
노랑부리백로	<i>Egretta eulophotes</i>
느시	<i>Otis tarda</i>
두루미	<i>Grus japonensis</i>
먹항새	<i>Ciconia nigra</i>
붉은가슴흰죽지	<i>Aythya baeri</i>



붉은해오라기	<i>Gorsachius goisagi</i>
빨쇠오리	<i>Synthliboramphus wumizusume</i>
재두루미	<i>Grus vipio</i>
참수리	<i>Haliaeetus pelagicus</i>
청다리도요사촌	<i>Tringa guttifer</i>
호사비오리	<i>Mergus squamatus</i>
흑고니	<i>Cygnus olor</i>
황새	<i>Ciconia boyciana</i>

#### 취약(Vulnerable, VU) 36종

검은머리물떼새	<i>Haematopus ostralegus</i>
검은머리족새	<i>Emberiza aureola</i>
고니	<i>Cygnus columbianus</i>
긴꼬리딱새	<i>Terpsiphone atrocaudata</i>
까막딱다구리	<i>Dryocopus martius</i>
노랑부리저어새	<i>Platalea leucorodia</i>
독수리	<i>Aegypius monachus</i>
뜸부기	<i>Gallinix cinerea</i>
매	<i>Falco peregrinus</i>
무당새	<i>Emberiza sulphurata</i>
물수리	<i>Pandion haliaetus</i>
벌매	<i>Pernis ptilorhynchus</i>
붉은배새매	<i>Accipiter soloensis</i>
빨중다리	<i>Galerida cristata</i>
새매	<i>Accipiter nisus</i>
새홀리기	<i>Falco subbuteo</i>
섬개개비	<i>Locustella pleskei</i>
솔개	<i>Milvus migrans</i>
쇠검은머리쭈새	<i>Emberiza yessoensis</i>
수리부엉이	<i>Bubo bubo</i>
알락꼬리마도요	<i>Numenius madagascariensis</i>
올빼미	<i>Strix aluco</i>
저어새	<i>Platalea minor</i>
조롱이	<i>Accipiter gularis</i>
참매	<i>Accipiter gentilis</i>
큰고니	<i>Cygnus cygnus</i>
큰덤불해오라기	<i>Ixobrychus eurhythmus</i>

팔색조	<i>Pitta nympha</i>
항라머리검독수리	<i>Aquila clanga</i>
흑기러기	<i>Branta bernicla</i>
흑두루미	<i>Grus monacha</i>
흑비둘기	<i>Columba janthina</i>
흰꼬리수리	<i>Haliaeetus albicilla</i>
흰목물떼새	<i>Charadrius placidus</i>
흰이마기러기	<i>Anser erythropus</i>
흰죽지수리	<i>Aquila heliaca</i>

#### 준위협(Near Threatened, NT) 8종

비둘기조롱이	<i>Falco amurensis</i>
쇠황조롱이	<i>Falco columbarius</i>
알락쇠오리	<i>Brachyramphus perdix</i>
알락해오라기	<i>Botaurus stellaris</i>
큰눈병아리	<i>Podiceps grisegena</i>
홍여새	<i>Bombycilla japonica</i>
흰기러기	<i>Anser caerulescens</i>
흰줄박이오리	<i>Histrionicus histrionicus</i>

#### 관심대상(Least Concern, LC) 28종

가창오리	<i>Anas formosa</i>
개구리매	<i>Circus spilonotus</i>
검은목두루미	<i>Grus grus</i>
노랑때까치	<i>Lanius cristatus</i>
말뚝가리	<i>Buteo buteo</i>
밀화부리	<i>Eophona migratoria</i>
붉은발도요	<i>Tringa totanus</i>
붉은뺨멧새	<i>Emberiza fucata</i>
빨눈병아리	<i>Podiceps cristatus</i>
소쩍새	<i>Otus sunia</i>
쇠뿔부기사촌	<i>Porzana fusca</i>
쇠부엉이	<i>Asio flammeus</i>
쇠제비갈매기	<i>Sterna albifrons</i>
알락개구리매	<i>Circus melanoleucos</i>
양비둘기	<i>Columba rupestris</i>



왕새매	<i>Butastur indicus</i>
원앙	<i>Aix galericulata</i>
갯빛개구리매	<i>Circus cyaneus</i>
종다리	<i>Alauda arvensis</i>
청머리오리	<i>Anas falcata</i>
참부엉이	<i>Asio otus</i>
큰기러기	<i>Anser fabalis</i>
큰까도요	<i>Gallinago hardwickii</i>
큰말똥가리	<i>Buteo hemilasius</i>
큰소쩍새	<i>Otus bakkamoena</i>
털발말똥가리	<i>Buteo lagopus</i>
호사도요	<i>Rostratula benghalensis</i>
흰눈썹황금새	<i>Ficedula zanthopygia</i>

미적용(Not Applicable, NA) 1종

시베리아흰두루미	<i>Grus leucogeranus</i>
----------	--------------------------

### 4.3. 범주별 증명세서

# 따오기

*Nipponia nippon* Temminck, 1849

## 분류학적 위치

황새목(Ciconiiformes) 저어새과(Threskiornithidae)

영명: Japanese Crested Ibis

지정현황: 천연기념물 제19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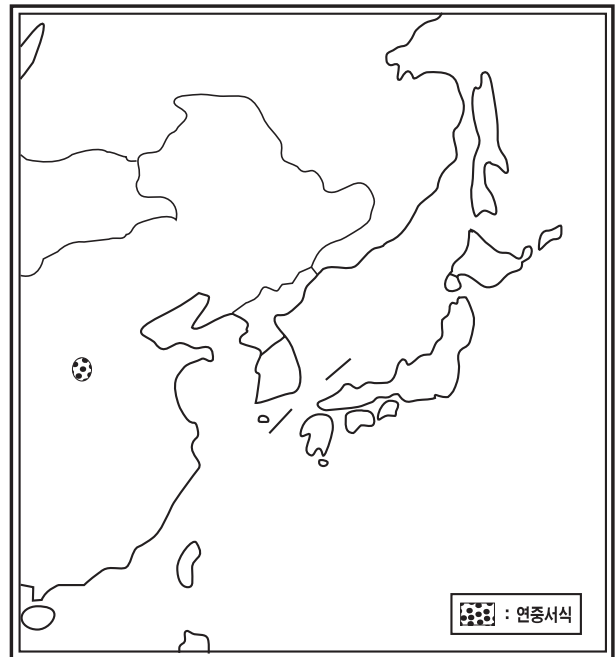
IUCN 범주: EN (위기종)

## ● 요약

19세기 말까지는 소규모의 무리가 전국에서 관찰되었으나 1979년 1월 이후 자연 상태에서 관찰기록이 없는 국제적으로 절멸위기에 처한 조류다. 인간과 생활 범위가 겹치는 종으로 비교적 행동이 느려 사냥에 의해 많이 희생되거나 농지정리로 인해 서식지가 감소됨에 따라 개체수가 급감해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절멸(RE)에 이르게 되었다.

## ● 형태

몸길이는 70cm 정도이며, 백색형과 회색형이 있다. 백색형 암컷과 수컷의 겨울깃은 몸 전체가 옅은 붉은색을 띤 흰색이다. 부리 뒷부분에서 눈 주위 사이에는 붉은색 피부가 넓게 드러나 있다. 뒷머리와 뒷목의 각 깃털은 10cm 정도의 가늘고 긴 관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옅은 붉은색을 띤 흰색이다. 부리는 검은색이고, 끝은 붉은색이다. 다리는 갈색을 띤 붉은색이다. 회색형 겨울깃은 뒷머리의 관모양 깃, 목, 등, 어깨 부분이 회색이며, 기타 부분은 백색형과 유사하다(원 1996; 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번식기에 단독 또는 쌍으로 생활하지만, 그 이외에는 작은 무리를 이루어 생활한다. 등지는 소나무, 밤나무 등에 나뭇가지와 마른 덩굴을 이용해 접시모양으로 만든다. 알 낳는 시기는 3월 중순부터 5월까지다. 알은 청색 바탕에 미세하고 흐린 갈색 얼룩점이 있으며, 2-3개를 낳는다. 작은 민물고기, 개구리, 올챙이 등을 주로 먹는다. 어미 새는 자신의 입 속으로 새끼의 부리를 넣게 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먹이를 토해 내 새끼에게 먹인다(이 등 2000; 창녕군 2008).

## ● 분포 현황

비무장지대, 부산시, 대전시, 서울시, 인천시 팔미도 등 전국에 소규모로 분포한 기록이 있다.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에 알려진 번식지는 없다.

## ● 서식지 동향

키 작은 나무나 대나무가 우거진 소나무 숲 같은 곳을 일정한 잠자리로 사용하며, 이른 아침에 습지대나 논, 소택지에서 먹이를 잡는다. 현재는 자연 상태에서 관찰되지 않고 있다(이 등 2000).

## ● 개체수 현황

19세기 말 폴란드 조류학자 타크자노우스키(Taczanowski)는 서울시 근교에서 50여 개체로 구성된 무리를 쉽게 볼 수 있다고 했으며, 1883년 12월 부산시에서 1개체가 처음 확인되었다. 1966년 2월 10일 판문점 부근에서 1개체가 발견된 바 있다. 1974년 12월 8일, 1979년 1월 경기도 문산 판문점 부근에서 각각 1개체가 관찰된 이후 기록이 없다(원 1996; 문화재청 2009).

## ● 국제 동향

한국, 중국, 일본에 서식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현재 자연 상태의 개체가 남아 있는 곳은 중국 산시성 양현과 그 인근 지역뿐이다. 2002년 중국에 남은 야생 따오기는 약 120개체였으며, 중국은 산시성 따오기복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따오기 증식 및 야생 방사를 시도하고 있다. 2006년 중국에서 야생 방사된 개체가 약 500개체에 달하며, 사육센터에서 사육되고 있는 개체도 약 500개체에 달한다. 일본은 1981년 야생에 남은 니가타 현 사도섬의 따오기 5개체를 모두 포획해 인공증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며, 중국에서 재도입해 2005년에는 약 107개체로 증식하는데 성공했다.

## ● 위협 요인

비교적 행동이 느리고, 인간의 생활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조류여서 사냥에 의해 쉽게 희생되었으며, 주요 먹이 활동지인 농경지가 관개수로 등 농지정리를 통해 획일화 되고, 쌀 생산에서 기타 작물로의 작물전환 등이 개체수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창녕군 2008; 문화재청 2009).

## ● 특기 사항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198호로 지정·보호하고 있으나 자연 상태에서는 이미 사라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2008년 중국 양현 따오기사육센터에 사육 중인 2개체를 도입해 우포늪에 따오기복원센터를 설립하고 복원연구에 돌입했다(창녕군 2008). 2009년 3월말부터 5월 말까지 3차에 걸쳐 알 11개를 낳았으나 일부는 폐사, 일부는 부화 실패 등으로 2010년 현재는 총 5마리가 사육되고 있다(창녕군 2008).

## ● 평가 결과: RE

한국, 일본, 중국에 서식했으나 우리나라에 알려진 번식기록이 없으며, 1979년 이전의 관찰기록 또한 1-2건으로 극히 적고, 197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관찰기록이 없어 자연 상태에서는 이미 사라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는 자연 상태에서 관찰 및 개체 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해 중국의 개체를 도입해 증복원이 진행 중인 개체인 점 등을 고려해 지역절멸종(RE)으로 평가했다. IUCN 적색목록에는 위기종(EN)으로 평가되어 있으며, 이는 중국에 자연 상태에 서식하는 개체가 존재하고 일본과 중국의 복원연구를 통해 자연 방사 개체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EN으로 평가되어 있어 국내 실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 ● 참고문헌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2009. 천연기념물 · 명승-동물. pp.92.
-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320pp.
- 원병오. 1996. 한국의 조류. 교학사. 453pp.
- 창녕군. 2008. 우포늪 따오기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한국환경생태연구소. 135pp.

*Nipponia nippon* occurred throughout Korea-DMZ, Busan, Seoul, Daejeon etc- in the late 19th century. In 1996, 1974 and 1979, it occurred each individual. But now this species extinct in almost all of its former range. The direct causes were reducing the available area of feeding habitat and occasionally shotted by hunters. Most remaining rice-paddies are in mountain areas with poor irrigation facilities. The only known remaining wild population is in Shaanxi province in central mainland China. Birds are shot by hunters. Since In 2008, Its artificial increase was attempted at Woopo wetland. It meets the criteria for RE.

집필자: 이기섭(한국물새네트워크), 송민정(한국생태환경연구소)

# 원앙사촌

*Tadorna cristata* Kuroda, 1917

## 분류학적 위치

기러기목(Anseriformes) 오리과(Anatidae)

영명: Crested Shelduck

지정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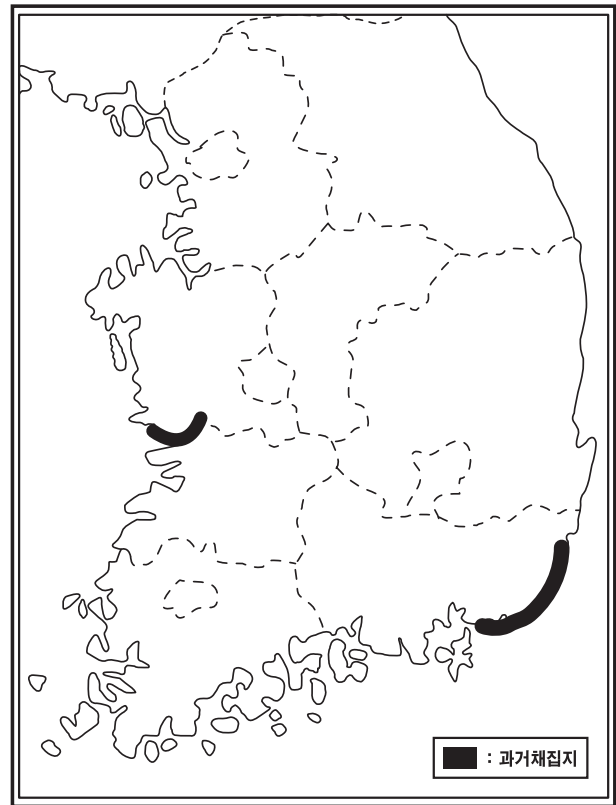
IUCN 범주: CR (위급종)

## ● 요약

과거 채집기록으로 볼 때 겨울철새로 판단되며, 전세계에 표본이 3점만 있고, 1916년 부산시 부근 낙동강 하류에서 1개체가 채집된 이후 발견 또는 채집된 기록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절멸(RE)로 판단된다.

## ● 형태

수컷의 이마는 검은색이고 암컷의 이마는 흰색이며, 머리꼭대기는 검은색이다. 수컷은 뒷머리와 뒷목에 덩기모양의 깃이 있으며 광택이 있다. 수컷의 부리는 갈색이고, 암컷의 부리는 황색이다. 수컷은 가슴에 검은색 가슴 띠가 있으며, 암컷은 띠가 없고 어두운 갈색 바탕에 가느다란 흰색 파도모양 무늬가 있다. 홍채는 어두운 적갈색이고 다리는 황갈색이다(원 1981; 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우리나라의 낙동강 하구와 금강 하구에서 포획된 기록으로 판단해 볼 때 일반 오리류와 같은 월동 조류로 판단된다.

## ● 분포 현황

낙동강 하구에서 암컷 1개체와 금강 하구에서 수컷 1개체가 포획되어 표본으로 남아있으며, 1916년 부산시 부근 낙동강 하류에서 1개체가 채집된 이후 발견 또는 채집된 기록이 없다.

## ● 번식지 동향

번식지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다.

## ● 서식지 동향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부근, 우리나라의 낙동강 하구와 금강 하구에서의 채집기록이 있을 뿐 알려진 바가 없다.

## ● 개체수 현황

세계적으로 표본이 3점 있고, 1916년 이후 발견 또는 채집된 기록이 없다.

## ● 국제 동향

1964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림스키 코르사코프열도에서 3개체를 관찰했다고 하나 증거가 희박하며, 1971년 함경북도 명천의 보천강 하구에서 6개체를 관찰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재검토가 필요하다(BirdLife International 2000).

## ● 위협 요인

지역절멸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위협 요인은 없다.

## ● 특기 사항

1916년 부산시부근 낙동강 하류에서 1개체가 채집된 이후 발견 또는 채집된 기록이 없어 지역절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 평가 결과: RE

우리나라에서는 1916년 이후로 관찰기록이 없어 지역절멸종(RE)로 판정했으며, IUCN(2010) 적색목록에는 일부 관찰기록을 고려해 위급종(CR)로 평가되어 있다.

## ● 참고문헌

BirdLife International. 2000. Threatened birds of the world. Lynx Edicions. pp.94.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pp.434-436.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74.

*Tadorna cristata* is known from a small number of records from Primorye, Russia, Hokkaido, Japan (single 19th century record) and South Korea. The most recent was a sighting of a male and two females in May 1964, on islands south of Vladivostok, Russia. There have been no confirmed records of this species since 1964, and it could be extinct. If it remains extant, the population must be tiny. It meets the criteria for RE.

집필자: 김창회(국립환경과학원), 김인규(한국환경생태연구소)

# 크낙새

*Dryocopus javensis richardsi* Tristan, 1879

## 분류학적 위치

딱따구리목(Piciformes) 딱따구리과(Picidae)

영명: Tristram's Woodpecker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1급, 천연기념물 제19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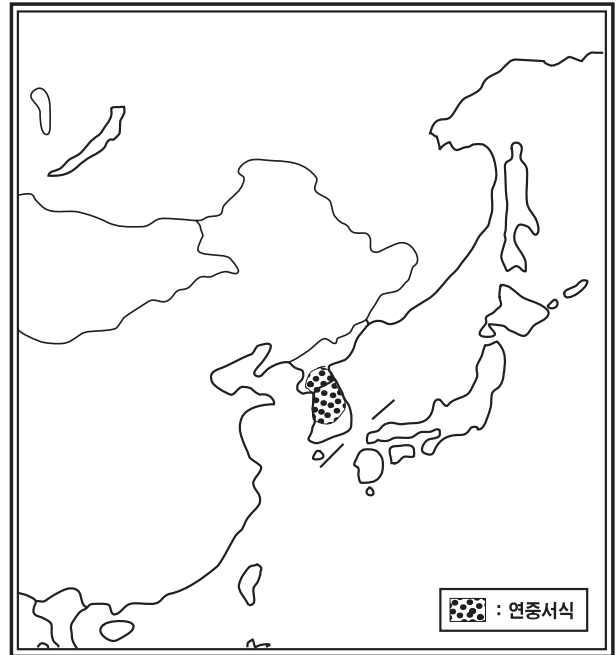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경기도 광릉에서 번식기록이 있으며, 고지대 산림에 제한적으로 서식한 기록이 있는 희귀조류다. 분포역이 제한되어 있는 아종으로 1981년 이후에는 관찰기록이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절멸(RE)로 평가했다.

## ● 형태

몸길이는 46cm이고, 수컷은 이마, 머리꼭대기, 뒷머리가 진한 붉은색이며, 뺨 선은 어두운 붉은색이다. 암컷과 수컷의 아래 등, 허리, 위꼬리덮깃, 가슴, 윗배는 흰색이며, 그 밖에는 모두 검은색이다. 부리는 검은색이며, 다리는 검은색을 띤 회색이다(원 1971, 1996; 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전나무, 잣나무, 소나무, 참나무, 밤나무 등의 활엽수와 침엽수가 함께 자라는 숲 속에 서식한다. 주로 이른 아침과 저녁에 활동하지만 흐린 날이나 비가 올 때는 낮에도 활동한다. 나무줄기를 나선형으로 기어 올라가 주위의 나무로 옮겨간다. 나무껍질을 벗기고 구멍을 파서 큰 딱정벌레 애벌레를 잡아먹는다. 민첩해 접근이 어렵다. 둥지는 참나무, 전나무, 소나무 등의 나무 구멍을 이용하거나, 직접 구멍을 만든다. 알 낳는 시기는 5-6월이다. 알은 흰색이며, 2-5개 낳아 14일 동안 품는다(원 1971, 1996; 함 1982; 이 등 2000).

## ● 분포 현황

경기도 광릉, 양평, 군포, 수원, 충청남도 천안, 전라북도, 부산시 부근 등 여러 지역에서 많이 서식한 바 있다(원 1971, 1996; 함 1982; 이 등 2000).

## ● 번식지 동향

크낙새의 번식이 확인된 장소는 경기도 광릉이 유일하며, 1974년 번식에 대한 조사가 최초로 이루어진 이래 1쌍이 해마다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둥지를 새로 만들어 번식했다. 확인된 번식실태는 1974년 1쌍, 1979년 수컷 2개체와 암컷 1개체였으며, 1981년 1쌍이 둥지를 떠난 이후 1989년 여름부터는 크낙새에 대한 확인 자료가 없다(원 1971; 함 1982).



## ● 서식지 동향

수령이 100-300년 된 고목이나 반고사목이 있는 산림이 잘 발달된 지역에 서식한다. 경기도 광릉을 비롯해 수원, 부산시 등 여러 지역에 서식했으나 1989년 여름부터 크낙새에 대한 관찰 정보가 없다(원 1971; 함 1982; 문화재청 2009).

## ● 개체수 현황

1950년대에는 경기도 광릉과 충청북도 속리산에서 관찰되었으나, 1960년대에는 속리산에 서식하던 크낙새는 자취를 감추었고, 경기도 광릉과 강원도 설악산에서만 관찰되었다. 설악산에서는 1966년 5월에 1개체가 관찰된 바 있다. 경기도 광릉에서는 1974년 7월 4개체, 1976년 12월 5개체, 1977년 2월 2개체, 12월 2개체 등을 관찰한 기록이 있다(함 1982; 윤과 장 1994; 문화재청 2006, 2007).

## ● 국제 동향

크낙새는 동아시아에 국한되어 분포하며, 그 중 일본의 쓰시마 섬에 서식하던 개체군은 절멸되었고(원 1981), 한국에만 분포하는 개체군은 1989년 이후 개체를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관찰되지 않고 있다(IUCN 2010). 북한 지역에는 개성 일대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자료는 없다.

## ● 위협 요인

울창한 산림에 서식하는 습성이 있어 산림의 파괴와 같은 서식지 상실과 함께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제한된 지역에서 적은 수만 서식하는 종의 포획 압력이 증가한 것도 감소의 요인으로 추정된다(윤과 장 1994; 문화재청 2009).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 급,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197호로 지정·보호하고 있으나 현재는 자취를 감추고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과거 크낙새의 서식지로 알려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부평리 일원은 1962년 천연기념물 제11호로 지정된 바 있다(문화재청 2007).

## ● 평가 결과: RE

경기도 광릉에서 번식기록이 있는 종으로 1981년 마지막 번식 쌍이 이소하고 1989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관찰기록이 없다. 분포역이 매우 한정된 종이나 지속적인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아 IUCN 적색목록 분류 기준에 의해 지역절멸종(RE)로 평가했다. IUCN에서는 크낙새 아종 단위로는 평가하지 않았다.

## ● 참고문헌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2009. 천연기념물·명승·동물. pp.62.
- 문화재청. 2006. 2006년 천연기념물 모니터링. 문화재청. 124pp.
- 문화재청. 2007. 중장기 천연기념물(동물) 분포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 182pp.
- 원병오. 1971. 천연기념물로 된 새들. 새가정사. pp.25-29.
-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1,126pp.
- 원병오. 1996. 한국의 조류. 교학사. 453pp.

윤여창, 장호찬. 1994. 광릉 크낙새의 보존가치 평가. 한국환경경제학회지. pp.87-105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320pp.  
함규황. 1982. 크낙새 생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Dryocopus javensis richardsi* inhabits dense mountain forests. It is commonly found in areas with chestnuts, oaks, poplars, and elms. It prefers dead trees, where it nests in the hollow trunk and searches the bark for insects. In Korea, it breeds for the first in Gwangneung, in 1974. But since 1989, it didn't find. The global population size has not been quantified, but the species is reported to be local and uncommon throughout its range. It meets the criteria for RE.

집필자: 백운기(국립중앙과학관), 송민정(한국환경생태연구소)

# 넓적부리도요

*Eurynorhynchus pygmeus* Linnaeus, 1758

## 분류학적 위치

도요목(Charadriiformes) 도요과(Scolopacidae)

영명: Spoon-billed Sandpiper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I 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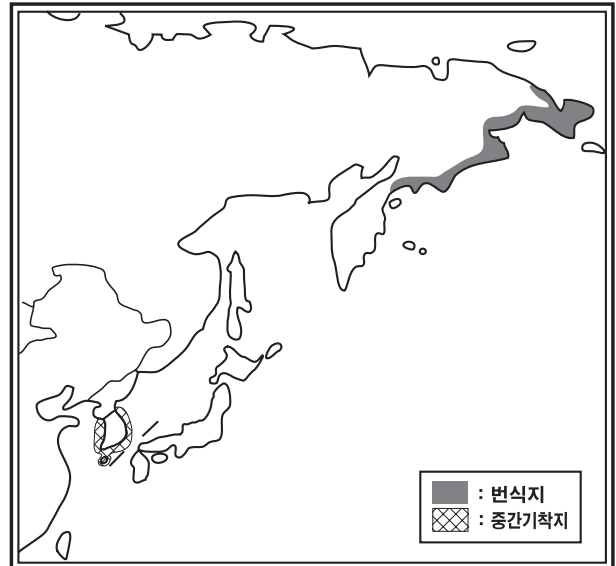
IUCN 범주: CR (위급종)

## ● 요약

나그네새이며,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의 펄이 많은 갯벌지역에 소규모 도래한다.

## ● 형태

몸길이 14.5cm에 부리 색이 검고 끝이 주걱모양으로 생긴 것이 특징이다. 여름철 번식기에는 얼굴, 가슴, 등이 붉은 갈색이며, 가슴 옆에는 작고 어두운 회색빛 얼룩무늬가 있다. 겨울에는 머리가 얇은 회색으로 변하며, 눈썹선과 가슴은 모두 흰색으로 변한다. 다리는 검은색이다(원 1996; 이 등 2000; 이와 이 2009).



## ● 생물학적 특성

6월 하순에서 7월 중순 사이에 번식하며, 번식기에는 수컷이 하늘로 100m 가량 높이 올라갔다 급강하하는 과시행동을 한다. 알은 2-4개를 낳으며, 붉은 갈색 바탕에 어두운 갈색 무늬가 있다. 포란은 수컷이 전담하며, 먹이는 갑각류를 즐겨 먹는다. 작은 물고기, 개구리, 올챙이, 조개류 등을 잡아먹는다. 4-5월, 9-10월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무리가 좁도요나 민물도요 무리 속에서 관찰된다(원 1996; 이 등 2000; 이와 이 2009).

## ● 분포 현황

서해안과 남동 해안의 갯벌과 하천에 넓게 분포하지만 그 수가 매우 적다.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에서의 번식이 확인되지 않은 종이며, 국제적으로도 그 수가 매우 적어 번식에 대한 자료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 ● 서식지 동향

해안의 간척지, 염전, 소택지, 하구, 해안 등 주로 모래가 섞인 갯벌을 선호하며, 봄·가을 강화 남단, 새만금, 낙동강 하구, 옥구염전, 제주도, 유부도 등 국내 주요 하구갯벌에서 주로 관찰된다. 그러나 서해안의 대규모 갯벌 매립에 따라 넓적부리도요의 먹이 활동지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원 1996; 이 등 2000; 이와 이 2009).

## ● 개체수 현황

1998-1999년에 개체수가 200개체(만경강 하구 150개체, 동진강 하구 100개체)로 추정되었지만, 현재 이 지역의 갯벌이 매립된 상태이고, 소수 개체가 관찰되었던 남양만과 강화갯벌도 개발되거나 개발계획으로 인해 서식지가 감소되어 최근에는 거의 관찰되지 않고 있다. 강화남단을 비롯한 국내 주요 하구갯벌에서 매년 단독 또는 20개체 이내의 소수 무리가 관찰되고 있다(환경부 1997-2009; 박 2002; 김 등 2010).

## ● 국제 동향

동북 시베리아 북극권과 알래스카 등 매우 좁은 범위에서 번식하는 개체로 1970년대에는 2,000-2,800쌍이 번식했으나 2000년에는 1,000쌍, 2003년에는 402-572쌍, 2005년에는 350-380쌍, 2008년 기록에는 세계적으로 150-320쌍(450-1,000개체)이 남아있다. 번식을 마친 개체는 러시아, 일본, 북한, 한국, 중국, 홍콩, 타이완 등을 거쳐 방글라데시, 미얀마, 태국 등지에서 월동한다(IUCN 2010).

## ● 위협 요인

우리나라 갯벌의 매립에 따른 먹이원의 감소가 서식에 위협을 주고 있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 급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 ● 평가 결과: CR D(1)

서해안의 갯벌 매립으로 인해 해안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이 종의 먹이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1999년에는 약 200개체에 이르는 수가 도래했으나 현재는 20개체 미만이 국지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IUCN 적색 목록 분류 기준의 위급종(CR) D(1)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김창희, 강종현, 이윤경, 김동원, 서재화, 김명진. 2010.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멸종위기조류의 국내 분포현황. 한국조류학회지. 17: 67-137.
- 이기섭, 이종렬. 2009. 새. 필드가이드. 288pp.
-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320pp.
- 원병오. 1996. 한국의 조류. 교학사. 453pp.
- 환경부. 1997-2009.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Eurynorhynchus pygmeus* is a small shorebird. Its special tip is a uniquely spatulate bill. This species has a naturally limited breeding range on the Chukotsk peninsula and southwards up to the isthmus of the Kamchatka peninsula, in north-eastern Russia. It migrates down the western Pacific coast through Russia, Japan, North Korea, South Korea, mainland China, Hong Kong and Taiwan, to its main wintering grounds in Bangladesh and Myanmar. According to, It visits southern Korea in spring and autumn. It is observed at sandy tidal flat, estuary, saltern and others. It feeds on benthic creatures at the tide line along sandy beaches by sweeping its bill from side to side in shallow water. Little is known of its breeding biology, but its population is very small and declining. Numbers have dropped in recent years and surveys on the breeding grounds have revealed a dramatic decline from 2,000-2,800 pairs in the 1970s to fewer than 1,000 pairs in 2000, 402-572 pairs in 2003, 350-380 pairs in 2005 and not more than 150-320 pairs in 2008. This is because of a number of factors, including habitat loss in its breeding, passage and wintering grounds, which is compounded by disturbance, hunting and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great reclamation project is direct cause of the loss of stopover sites. It meets the criteria for CR D(1).

집필자: 김진한(국립생물자원관), 송민정(한국환경생태연구소)

# 개리

*Anser cygnoides* Linnaeus, 1758

## 분류학적 위치

기러기목(Anseriformes) 오리과(Anatidae)

영명: Swan Goose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Ⅲ급, 천연기념물 제325-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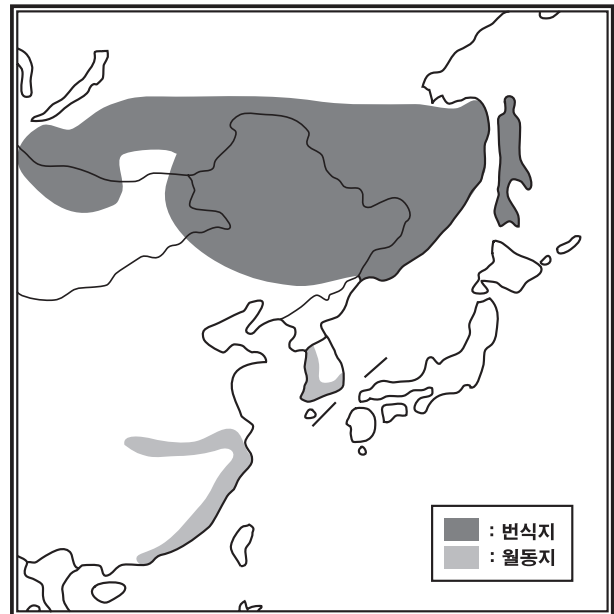
IUCN 범주: VU (취약종)

## ● 요약

겨울철새이며, 한강 하구와 임진강지역에서 월동하는 국제적 보호조류다. 기러기류에 속하며, 다른 기러기류에 비해 밝게 보인다. 국내에 도래하는 개리는 500여 개체이며, 대부분이 중간기착지로 이용하고 월동 개체는 100여 개체로 추정된다. 최근 들어 서식지 훼손이 심해 집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IUCN 적색목록 기준보다 높은 위기종(EN)으로 평가했다.

## ● 형태

머리와 목 부분은 앞쪽과 뒤쪽의 색깔 차이가 뚜렷해 다른 기러기류보다 밝게 보인다. 부리는 검은색으로 길며, 기부에는 흰 띠가 있다. 어린 새의 경우 부리 기부의 흰 띠가 없다(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번식은 5월에 시작하며, 강이나 하천의 섬 또는 작은 도서에서 움푹 들어간 땅 위에 마른 풀을 이용해 둥지를 접시모양으로 만든다. 한배 산란 수는 5-6개이며, 알은 흰색이다. 포란기간은 28-30일이며, 암컷이 전담한다. 식성은 수생식물의 잎이나 줄기 및 뿌리, 풀, 벼, 보리, 밀 등을 먹는다(문화재청 2009).

## ● 분포 현황

과거에는 전라남도 무안군 신정리 해안과 충청남도 천수만 일대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원 1992), 현재에는 임진강과 한강 하류지역이 최대 월동지이며, 그 외 낙동강 하류, 금강 하류, 영산강 유역, 주남저수지 등 제한된 도래지에서 월동하고 있다(IUCN 2010).

## ● 번식지 동향

몽골과 러시아지역에서 번식하며, 국내 번식기록은 없다.

## ● 서식지 동향

다양한 서식지를 이용한다. 일반적으로는 수변지역을 선호하며, 산림지역, 대초원지대, 범람원 등지에서도 서

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대규모 습지에서 관찰된다(del Hoyo *et al.*, 1992).

## ● 개체수 현황

개리는 생존 집단이 감소하고 있는 겨울철새다. 1967년 전라남도 무안군 신정리 해변의 논에서 최초 7개체가 확인되었고, 최근 자료로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한강 하류, 임진강 하류, 낙동강 하류, 금강 하류 등지에서 통과시기에 500여 개체가 관찰되었으며, 국지적으로 전라남도 강진만, 정암저수지, 영산호, 영암호 지역에서도 간혹 확인되고 있다(환경부 1999-2010). 우리나라의 월동 개체수는 100여 개체로 추정하며, 대부분은 중간기착지로 이용하다가 통과해 중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이 등 2000; 박 2002).

## ● 국제 동향

국제적으로 60,000-100,000개체가 서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중국 내 번식지의 농지 개발과 서식지 파괴 등으로 30년 동안 90%정도 번식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IUCN 2010).

## ● 위협 요인

국내 하구의 댐 건설, 하구 갯벌의 개발, 호수와 저수지의 준설로 인해 수심이 깊어져 먹이가 되는 수생식물이 감소하고 있다(IUCN 2010).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I 급,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325-1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 ● 평가 결과: EN A1c

과거에는 전라남도 무안군 신정리 해안과 충청남도 천수만 등 여러 지역에서 월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한강-임진강 하구, 금강 하구 지역에서 소수의 무리가 월동하고 있다. 다수의 개체는 중간기착지로 이용하며, 일부 개체들만이 월동지역으로 이용한다. 이들 중의 경우 댐 건설, 호수와 저수지 등의 준설로 인해 수심이 깊어지고 먹이가 되는 수생식물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위기종(EN) A1c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2.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1. Lynx Edicions, Barcelona. pp.180-181.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박진영. 2002. 한국의 조류 현황과 분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68-69.

원병오. 1992. 천연기념물: 동물편. 대원사. 392pp.

문화재청. 2009. 문화재대관 천연기념물·명승-동물. 문화재청. pp.140-141.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

*Anser cygnoides* is a rare large goose with a natural breeding range in inland Mongolia, northernmost China, and southeastern Russia. It is a migratory bird and winters mainly in central and eastern China. Vagrant birds are encountered in Japan and Korea (where it used to winter in numbers when it was more common), and more rarely in Kazakhstan, Laos, coastal Siberia, Taiwan, Thailand and Uzbekistan. International population size estimated about 60,000-100,000 individuals. It observed about 500 individuals in Korea, every year. Aad one-fifth of them stay in Korea durning winter. It meets the criteria for EN A1c.

집필자: 김창회(국립환경과학원), 조해진(한국환경생태연구소)



# 검독수리

*Aquila chrysaetos* Linnaeus, 1758

## 분류학적 위치

매목(Falconiformes) 수리과(Accipitridae)

영명: Golden Eagle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1급, 천연기념물 제243-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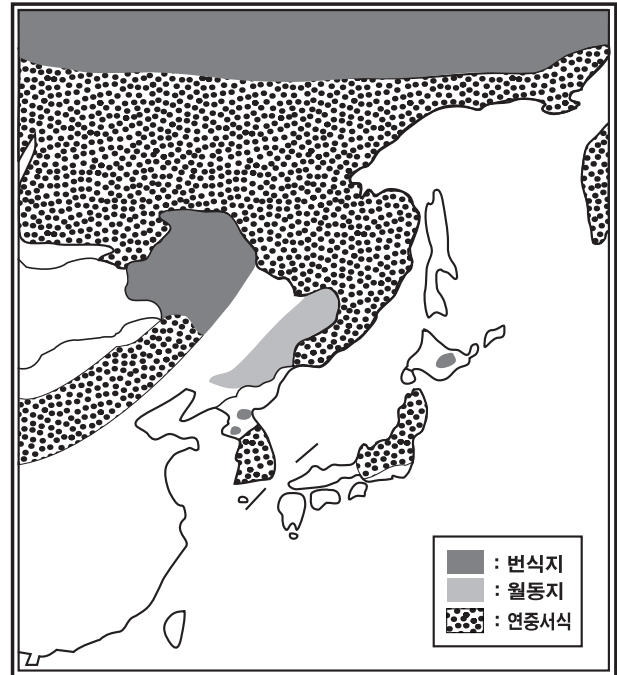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우리나라의 민간인통제지역이나 산악지역에 드물게 번식하는 텃새이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번식기록이 없다. 2010년 7개체가 기록되었으며, 월동하는 개체수는 안정적이지 않고 매년 도래하는 개체수에 변동이 크다. 각종 개발로 인한 서식지의 축소로 보호가 요구된다.

## ● 형태

암갈색 대형 수리로 뒷머리에서 목에 걸쳐 황갈색이며, 몸 아랫면은 암색이다. 날개가 길며, 발가락을 제외하고 발목은 모두 깃털로 덮여있다. 활공할 때 날개를 위로 약간 들어 올려 밧밧한 V자 모양을 이룬다. 어린 새는 첫째날개깃의 기부가 흰색이고, 흰색의 꼬리 끝에는 폭 넓은 검은색 띠가 있다(원 1981; 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산악지대의 암벽에서 번식하고 겨울에는 하천, 평야, 해안이나 평지에서 생활하며 토끼, 다람쥐, 꿩, 오리류 등을 먹는다. 3월 중순부터 4월 하순에 번식하며, 둥지는 암벽이나 나무 구멍에 마른 나뭇가지로 쌓고 버과 식물의 잎이나 줄기 등을 깔아 알자리를 만든다. 알은 보통 2개이며 드물게 3-4개를 낳기도 한다. 알은 푸른색을 띤 흰색이다. 포란기간은 44-45일이며, 육추기간은 77일이다(원 1981).

## ● 분포 현황

강원도 철원평야, 경기도 연천, 경기도 파주, 충청남도 서산, 전라남도 영암, 경상북도 구미, 부산 등 해안과 내륙지역까지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 ● 번식지 동향

전국 산악지역의 암벽 등에서 번식하며, 과거에는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번식기록이 있으나 최근에는 번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이 등 2000).

## ● 서식지 동향

번식기에는 보통 산악지형의 암벽 등에서 주로 서식하며, 월동기에는 하천, 해안, 평지에 서식한다.

## ● 개체수 현황

1999년 3개체, 2002년 4개체, 2003년 6개체, 2005년 1개체, 2006년 5개체, 2008년 6개체, 2010년 7개체로 소수이며, 안정적이지 않고 매년 도래하는 개체수의 변동이 크다(환경부 1999-2010).

## ● 국제 동향

1980년대 후반 유럽 지역에 4,500-5,000쌍, 스페인에 1,192-1,265쌍, 스코틀랜드에 425쌍, 그 외 서러시아 등과 유럽에 일부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일본은 370-500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북아메리카 군집은 최대 70,000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했으나 20세기 들어오면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del Hoyo *et al.* 1994).

## ● 위협 요인

산림과 경작지의 감소, 농약이나 독극물의 피해, 한약재나 박제품을 위한 밀렵, 사냥을 위한 밀거래 등이 주요 위협 요인이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 급,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243-2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 ● 평가 결과: EN D(1)

2010년에 7개체가 관찰되었으며, 국한된 분포지역 및 서식지의 감소 등으로 다양한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IUCN 적색목록 기준에 따라 위기종(EN) D(1)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4.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2. Lynx Edicions, Barcelona. pp.197-198.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pp.518-521.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92.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

*Aquila chrysaetos* is winter visitor and resident bird in Korea. Wintering population size very small. Not globally threatened. The population size is extremely large, and hence does not approach the thresholds for Vulnerable under the population size criterion. It lives in rugged steppes and mountains with cliffs and open country where it feeds on game birds, mammals. Builds massive nests with thick boughs on inaccessible rocks or high trees. Golden Eagle specially protected at all times. In winter 2010 census, 7 birds counted in South Korea. It meets the criteria for EN D(1).

집필자: 박진영(국립환경과학원), 이시완(한국환경생태연구소)

# 검은머리갈매기

*Larus saundersi* Swinhoe, 1871

## 분류학적 위치

도요목(Charadriiformes) 갈매기과(Laridae)

영명: Saunders's Gull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II급

IUCN 범주: VU (취약종)

## ● 요약

우리나라 전역 특히 서남해안에서 월동하며, 서해안 일부지역에서 번식하는 종으로 갯벌이 있는 해안과 강 하구에서 수 개체 또는 수백 개체까지 무리지어 서식한다. 매년 1,200여 개체에서 2,000여 개체까지 월동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개발 및 매립 등으로 인해 서식지 축소가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어 위기종(EN)으로 평가했다.

## ● 형태

여름깃의 경우 머리는 검은색이며, 뒷목까지 내려온다. 흰색 눈테가 있다. 앉아있을 때 접고 있는 첫째날개 끝의 흰색 반점을 볼 수 있다. 겨울깃은 머리는 흰색이고 귀깃 부분에 검은색 반점이 있다(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일반적으로 30-50개체가 한 무리를 형성하며, 대집단 행동 시에는 120-250개체 단위로 움직인다. 갯벌 위를 저공으로 천천히 날면서 게, 갯지렁이 등을 급강하해 포획하거나, 갯벌 위를 걸어 다니면서 취식한다. 번식기는 4-6월이며, 알은 2-3개를 낳는다(박 2003).

## ● 분포 현황

우리나라 전역, 특히 서남해안에서 월동하며, 서해안 일부지역(영종도, 송도매립지)에서 번식한다.

## ● 번식지 동향

검은머리갈매기는 해안 염습지 및 강 하구를 번식장소로 이용하지만 우리나라에 발견된 번식지는 모두 인공적인 매립지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다른 나라의 번식지와는 조건이 다르다. 우리나라에는 1998년에 번식했던 시화호 번식지, 송도 번식지 및 영종도 번식지가 있다. 1999년 영종도 간척지에서 100여 개의 둥지가 확인되었으며, 2005년도 송도매립지 내 번식지에서 185개의 둥지가 확인되었다. 현재는 매립과 개발로 인해 시화호 번식지는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종도 및 송도매립지의 경우에도 서식지가 축소되어 현재는 번식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추세에 있다(권과 정 2009, 박 2003).

## ● 서식지 동향

갯벌이 있는 해안과 강 하구에서 수 개체 또는 수백 개체까지 무리지어 서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번식하고, 순천만을 비롯한 일부 서남해안 연안 및 간척호에서 무리지어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개체수 현황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소수가 번식하며, 우리나라 전역에서 월동하는 개체로 환경부 겨울철새 동시센서스에 의하면 매년 1,200여 개체에서 2,000여 개체까지 월동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표적인 월동지로는 순천만 등지이며, 이 지역의 경우 2008년 660개체, 2009년 544개체, 2010년 447개체가 월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외에도 남양만, 유부도, 만경강, 동진강 등 서해안 연안 및 대규모 간척호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무리가 확인되고 있다(환경부 1999-2006; 환경부 2000-2006).

## ● 국제 동향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3,000여 개체로 추정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7,100-9,600개체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의 서해안 일부와 중국의 동북부해안에서 번식하고 동북아시아 일대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적으로 중요한 번식지로는 강소, 염성자연보호구, 대룡강 하구, 황하 하구, 로완강 하구, 요녕성 쌍태 하구 등이 알려져 있다(del Hoyo *et al.* 1996, IUCN 2010).

## ● 위협 요인

번식지 내 무단침입, 차량소음 및 경비행기 운행 등이 번식 실패의 중요한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으며, 개발 및 매립 등으로 인한 서식지 축소 또한 번식 및 서식에 있어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I 급으로 지정·보호하고 있으며, 매립 및 개발로 인해 번식지가 현저히 축소되고 있다.

## ● 평가 결과: EN A1ac

과거에는 다수의 번식지가 있었지만, 현재 그 수가 급감하고 있다. 또한 월동지도 개발 및 매립 등으로 인해 서식지 축소가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IUCN 적색목록 기준 위기종(EN) A1ac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6.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3. Lynx Edicions, Barcelona. pp.612-617.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권영수, 정훈. 2009. 서해안 송도매립지에서 번식하는 검은머리갈매기의 현황과 번식생태. 한국해양학회지 vol.31(3):277-282.

박현우. 2003. 한국에서 검은머리갈매기(*Larus saundersi*)의 번식생태 특성 및 보전방안.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158-159.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환경부. 2000-2006.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Larus saundersi* is a species of gull in the Laridae family. It is found in China, Hong Kong, Japan, North Korea, South Korea, Macau, Russia, Taiwan, and Vietnam. Its natural habitats are estuarine waters and intertidal marshes. Songdo and yeongjongdo reclaimed lands in the western coast of South Korea are the main breeding sites for these species. The global population is estimated to be 7,100-9,600 birds and appears to be declining. It meets the criteria for EN A1ac.

집필자: 백운기(국립중앙과학관), 이한수(한국환경생태연구소)

# 고대(적호)갈매기

*Larus relictus* Lönnberg, 1931

## 분류학적 위치

도요목(Charadriiformes) 갈매기과(Laridae)

영명: Relict Gull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II급

IUCN 범주: VU (취약종)

## ● 요약

겨울철새이며, 제주도를 제외한 한국의 해안 전역에서 관찰되는 국제적 보호조류다. 주요 관찰지역인 하구와 연안지역의 경우 갯벌의 매립으로 인해 서식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으로 개체군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번식지도 환경훼손이 심해지고 있어 종의 개체군 유지에 변수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IUCN(2010) 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위기종(EN)으로 평가했다.

## ● 형태

각이 진 머리 모양이 특징이며, 날 때 첫째날개 끝 부분의 검은색이 보이며, 끝에 크고 뚜렷한 흰색 반점이 있다. 여름깃은 머리는 검은색이고 흰색 눈테가 있다. 부리와 다리는 어두운 붉은색이다. 겨울깃은 머리는 흰색이고, 귀깃 부분에 검은색 반점이 있다(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20쌍 내외가 집단으로 등지를 튼다. 등지는 평지, 개활지와 호수의 섬 등지의 땅 위에 마른 풀과 깃털로 만든다. 대개 카스피제비갈매기와의 혼성된 번식 집단을 이룬다. 5월 중순 흰 바탕에 갈색이나 검은색 반점이 있는 알을 3개 낳는다(원 1996; del Hoyo *et al.* 1992).

## ● 분포 현황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의 해안에서 월동한다(이 등 2000).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새로 번식기록은 없다.

## ● 서식지 동향

일반적으로 하구, 해안 등지를 선호하며, 천수만과 같은 간척호 등에서도 확인된다.

## ● 개체수 현황

1990년 1월에 낙동강 하구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전국적으로 도래하는 드문 겨울철새다. 경기도 송도갯벌에서 2001년에 143개체가 확인되었으며, 충청남도 아산만에서 2000년도 4개체가 확인되었다. 전라북도에서는 금강 하구 1996년 6개체, 2001년 1개체, 동진강 1999년 1개체가 확인되었고,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2000년 1개체, 2001년 9개체, 영덕군(2001년)에서 1개체가 확인되었다. 경상남도는 낙동강 하구지역에서 1990년 8개체, 1991년 45개체, 1992년 5개체, 1995년 6개체, 1996년 9개체, 1997년 6개체, 1998년 6개체, 2000년 26개체, 2001년 21개체, 사천만(2001년)에서 4개체가 확인되었고, 최근에는 2010년 순천만에서 1개체, 천수만지역(2010년)에서 2개체가 관찰기록이 있다(박 2002; 환경부 1999-2010).

## ● 국제 동향

동아시아지역에 서식하는 종으로 주요 번식지는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지역이며 일부 몽골 지역과 내몽골지역에서 소규모로 번식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개체수는 약 12,000개체로 추정하며, 어른 새의 경우 10,000개체 이하로 추정한다(IUCN 2010).

## ● 위협 요인

번식지 내 수량의 변화로 인해 번식성공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와 중국 내 인간의 방해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번식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월동지인 낙동강 하구의 경우에도 매립, 해안오염 등으로 인해 서식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IUCN 2010).

## ● 특기 사항

현재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사냥을 금지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의 번식지도 보호하고 있다(IUCN 2010).

## ● 평가 결과: EN D(1)

현재 주요 관찰지역인 하구와 연안지역의 경우 갯벌 매립으로 인해 서식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어 개체군 유지에 변수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기종(EN) D(1)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6.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3. Lynx Edicions, Barcelona. pp.612-618.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박진영. 2002. 한국의 조류 현황과 분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158-159.
- 원병오. 1996. 한국의 조류. 교학사. pp.205
-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Larus relictus* breeds in several locations in Mongolia, two in Kazakhstan, one in Russia, and one in China. Small numbers appear to migrate to South Korea during the nonbreeding period. There is additional evidence that larger numbers may migrate to eastern China as well, but this is not verified. Population estimated at 12,000 individuals by Rose and Scott (1997). Changes in water-level affect breeding success, as does competition for breeding sites and predation by other gulls and mortality from hailstorms and flooding. In South Korea, most of the mudflats at the Nakdong estuary have been reclaimed and it is likely that many other coastal wetlands are under similar pressure from development. It meets the criteria for EN D(1).

집필자: 백운기(국립중앙과학관), 이한수(한국환경생태연구소)



# 긴점박이올빼미

*Strix uralensis* Pallas, 1771

## 분류학적 위치

올빼미목(Strigiformes) 올빼미과(strigidae)

영명: Ural Owl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II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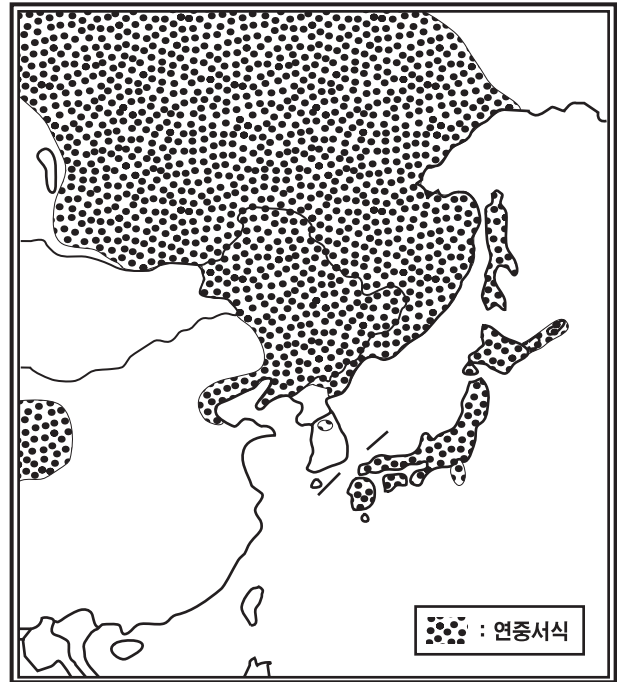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북한에서 채집기록이 있으며, 백두산 등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드문 텃새다. 최근에는 강원도 산간지역에서 관찰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11,000-14,000 쌍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기종(EN)으로 평가했다.

## ● 형태

암컷과 수컷의 이마, 머리꼭대기, 뒷머리, 뒷목은 옅은 황갈색으로 각 깃털에는 검은 갈색의 폭 넓은 세로 얼룩무늬가 있고 군데군데의 깃털 끝에는 흰색 얼룩무늬가 있다. 안반과 턱밑은 크림색이며 각 깃털에는 검은색 깃대가 있다. 안반 주위는 옅은 황갈색으로 검은색과 흰색 얼룩점으로 된 선이 둘러싼다. 목 앞쪽 중앙은 흰색으로 검은색 얼룩무늬가 있다. 등, 어깨깃, 허리는 옅은 황갈색이며 각 깃털에는 검은 갈색의 폭 넓은 얼룩무늬가 있다. 등과 허리어깨깃의 각 깃털 가장자리에는 흰색 얼룩무늬가 있다(원 1981; del Hoyo *et al.* 1992; 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주로 침엽수림에 서식하나 잡목림이나 낙엽 활엽수림에도 산다. 일본에서는 말뚝가리나 참매의 낮은 등지를 이용해 번식하며, 때로는 나무 밑의 땅 위, 농가의 창고, 버랑의 구멍 등에 번식한다. 한배의 산란 수는 2-4개다. 알은 흰색이고 긴 타원형으로 무게는 38-43.9g이다. 산란은 3-5일 간격으로 한다. 포란기간은 27-29일이고 육추기간은 30-34일이며 부화 직후의 새끼는 온몸에 흰 솜털이 나 있다. 식성은 설치류(쥐), 식충류(딱쥐, 뒤쥐), 작은 조류, 곤충류 등을 포식한다(원 1981; del Hoyo *et al.* 1992; 이 등 2000).

## ● 분포 현황

백두산 고산 지대에 서식하는 드문 텃새이며, 최근에는 강원도 산간지역, 충청남도 공주에서 관찰되기도 했다.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에서는 번식지나 번식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

## ● 서식지 동향

주로 고산지대의 침엽수림에 서식하나 잣목림이나 낙엽활엽수림에서도 서식한다.

## ● 개체수 현황

백두산 고산 지대에서 1912년 5월 29일 함경북도 포대동과 1920년 1월 대안산에서 각기 1개체와 경기도에서 2회 채집기록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강원도 고성, 1992년 강원도 홍천에서 채집기록이 있다. 최근 강원도지역을 중심으로 소수의 개체가 관찰된 기록이 있으며, 2007년 공주시 유구읍 인근에서 1개체를 관찰한 기록이 있다(박 2002; 환경부 2006-2008).

## ● 국제 동향

트란스바이칼리아, 아무르지역, 사할린, 몽골 동북부, 만주, 우수리지역 및 한국 등지에 분포한다. 전 세계적으로 11,000-14,000쌍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IUCN 2010).

## ● 위협 요인

산림 개발(간벌, 고목 제거, 임도 개설 등)에 따른 서식지 감소 및 단편화가 일어나고 있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I 급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CITES 부속서 II 에 수록되어 있다.

## ● 평가 결과: EN D(1)

분포역이 매우 한정되며, 인위적 또는 자연적 요인 등에 의해 우리나라에 멸종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IUCN 적색목록 기준에 따라 위기종(EN) D(1)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9.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5. Lynx Edicions, Barcelona. 759pp.
- 박진영. 2002. 한국의 조류 현황과 분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1,126pp.
-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320pp.
- 환경부. 2006-2008.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Strix uralensis* is rare resident in Korea. Habitat is boreal forest and mixed woodland, with some open areas such as bogs, clearings or small fields. Food are mammals from size of small rodents such as mice and voles, also birds. Not globally threatened. European population estimated at 11,000-14,000 pairs (Excluding Russia) in mid 1990's. In Korea, low density. It meets the criteria for EN D(1).

집필자: 백운기(국립중앙과학관), 이시완(한국환경생태연구소)

# 노랑부리백로

*Egretta eulophotes* Swinhoe, 1860

## 분류학적 위치

황새목(Ciconiiformes) 백로과(Ardeidae)

영명: Chinese Egret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1급, 천연기념물 제36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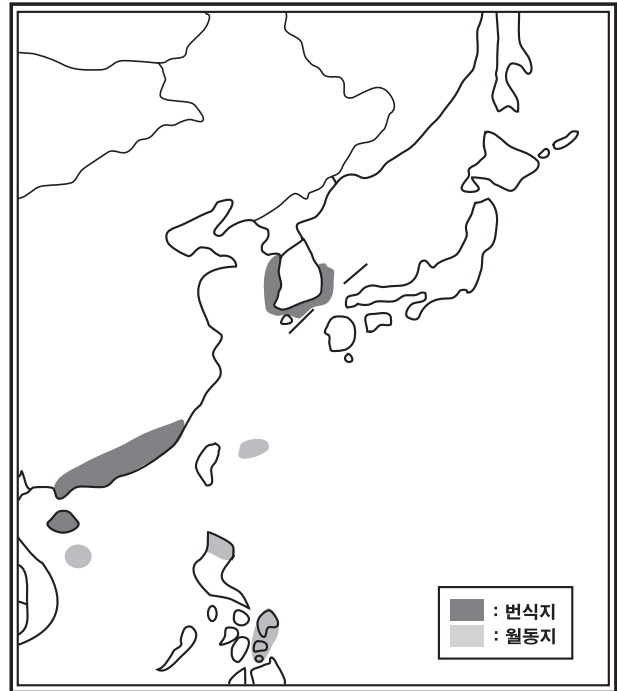
IUCN 범주: VU (취약종)

## ● 요약

여름철새이며, 서해안의 무인도서에서 번식하는 국제적 보호조류다. 국내 서해안을 중심으로 남해안 일대까지 해안을 따라 넓게 분포한다. 1987년 8월 12일 신도에서 최초로 번식이 확인되었으며, 현재는 칠산도, 목도, 섬업벌 등을 중심으로 100쌍 이상이 번식하고 있다. 무인도서의 좁은 공간적 제약과 서해안의 갯벌 매립, 인간의 번식지 침입 등으로 인해 번식지의 이동이 잦는 등 다양한 위협 요인으로 인해 종의 안정적 개체군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해 우리나라에서는 위기종(EN)으로 평가했다.

## ● 형태

몸은 흰색이며, 번식기에는 뒷머리에 20가닥의 장식깃이 발달하고 부리가 검게 변한다. 부리와 발은 노란색이며, 다리는 검은색이다(이 등 2000; 이와 이 2009).



## ● 생물학적 특성

3월 중순부터 도래하기 시작해 4월 중순이면 최성기를 이룬다. 4-5개체가 무리지어 생활하며, 빠른 동작으로 걸어 다닌다. 관목 위나 맨땅에 명아주나 비쭈 등 마른 가지를 모아 조잡한 둥지를 만들고 열은 청록색 알을 2-4개 낳는다. 알은 무늬가 없고, 열고 푸르스름한 회백색의 타원형이다. 해안가의 갯벌, 염전 등지에서 생활한다. 먹이는 주로 갯벌이나 바다가 가까운 논 등의 습지에서 물고기와 게, 새우 등의 갑각류, 갯지렁이 등을 잡아먹는다(원 1996; 이 등 2000; 이와 이 2009).

## ● 분포 현황

우리나라 서해안의 무인도서에서 번식하고 번식이 끝나면 갯벌지역과 갯벌과 인접한 농경지, 하구 등에서 관찰된다. 주로 칠산도, 한강 하구, 낙동강 하구, 속초, 안면도, 천수만, 하태도, 진도, 여수, 제주도 등 전국에서 먹이 활동하는 소수의 개체가 관찰되고 있다.

## ● 번식지 동향

서해안의 무인도서에서 번식한다. 국내 최대 번식지는 칠산도이며, 그 외 예도, 서만도, 남대기섬 등에서도 번

식한다. 과거에는 신도에서도 번식했으나 최근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신도는 1987년 8월 12일 최초 번식이 확인된 이후 1989년 5월에는 둥지 363개가 확인되었으며, 1991년에는 약 400개가 관찰되었으나, 1993년에는 200쌍 이하, 1995년에는 30쌍 이하로 급격히 감소되었다(박 2002). 1996년에는 신도에서 번식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나 1999년에는 번식 징후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2006년 재조사에서도 번식이 확인되지 않았다(문화재청 2006). 칠산도는 7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에는 1산도에서 25둥지, 3산도에서 20둥지, 6산도에서 4둥지가 관찰되었다. 그 외 예도에서는 2003년에 20둥지가 관찰되던 것이 2006년에는 10둥지로 감소했다. 납대기섬에서는 2004년부터 번식하기 시작해 2005년 80둥지, 2006년에는 150둥지가 확인되었다. 서만도는 2004년 90둥지 이상이 관찰되었고, 보령의 목도는 2004년 52둥지, 섬업벌은 2004년에 100둥지 정도가 확인되었다(김 2006).

## ● 서식지 동향

간조시 드러나는 갯벌이나 염전, 농경지, 저수지 등에서 먹이 활동을 하며, 서해안에 연안지역에서 주로 관찰된다. 강화남단 갯벌, 한강 하구, 안면도, 천수만 등에서 여름철 먹이 활동하는 모습이 종종 관찰된다.

## ● 개체수 현황

1985년 7개체, 1990년 699개체, 1991년 113개체, 1992년 40개체, 1993년 247개체, 1994년 359개체, 1995년 45개체, 1996년 251개체, 1997년 1,560개체, 1998년 64개체, 1999년 391개체, 2000년 19개체, 2001년 520개체, 2002년 359개체, 2003년 274개체, 2004년 908개체, 2005년 280개체, 2006년 418개체, 2007년 440개체 등을 관찰한 기록이 있다(박 2002; 강화군 2003; 문화재청 2006, 2007; 강 등 2008; 김 2009). 노랑부리백로에 대한 주요 관찰기록은 국내 주요 철새도래지 및 천연기념물 번식지 조사, 환경부의 전국자연환경조사 등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대부분이다.

번식지를 중심으로 한 개체수 현황은 1997년 신도에서 약 1,300개체가 확인되었으나 1999년에는 관찰되지 않았다(문화재청 2006). 2003년에는 칠산도 권역에서 380개체(칠산도 250개체, 예도 130개체)가 관찰되었고, 2004년에는 칠산도 99개체, 예도 32개체, 납대기섬 60개체 등 191개체가 관찰되었으며, 웅진군 서만도 180개체, 섬업벌 200개체, 보령 목도 104개체가 관찰되었다. 2005년에는 칠산도 130개체, 예도 28개체, 납대기섬 110개체 등 268개체가, 2006년에는 418개체가 칠산도 권역에서 관찰되었다(김 2006; 문화재청 2007). 그 외에도 국내 갯벌과 해안, 해안과 인접한 농경지를 중심으로 여름철에 단독 또는 소수의 무리가 관찰되고 있다.

## ● 국제 동향

전 세계에 2,600-3,400개체가 남아 있으며, 일본에서는 준위협종(NT), 중국에서는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목록 2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러시아, 중국, 한반도 일대에서 번식하며, 비번식기에는 일본, 홍콩, 타이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부르나이, 인도네시아로 이동한다(BirdLife International 2001; IUCN 2010).

## ● 위협 요인

번식지의 경우, 낚시나 알 채집 등 인간의 간섭, 식생 부족에 따른 둥지자원 부족, 무인도서 내에서의 좁은 서식공간으로 인한 동종간 또는 타종간 경쟁 심화 등이 번식에 위협이 되고 있다. 서식지의 경우에는 개발에 따른 갯벌의 감소가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 급,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361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집단번식지 장봉리 신도와 영광 칠산도는 각각 천연기념물 제360호, 제389호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신도에서 번식하지 않고 있다.

## ●평가 결과: EN A1ac

1997년 신도의 한 번식지에서만 1,300여 개체가 확인되었으며, 이 규모는 전 세계 집단의 약 70%에 해당하는 비율이었으나 1993년에는 200쌍 이하, 1995년에는 30쌍 이하로 급격히 줄어들어 1999년에는 신도에서 번식하는 개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문화재청 2006). 현재는 신도의 번식지는 번식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칠산도, 목도, 섬업벌, 서만도 등을 중심으로 매년 100동지 이상이 번식하고 있으나 개체수는 500개체 미만으로 개체수의 변동이 크다. 이들 중의 번식지 면적이 좁아 중간 경쟁이 치열하고, 번식지 내 인간의 잦은 출입에 따른 번식 포기 및 번식지 이동이 빈번하며, 갯벌 매립으로 인한 먹이자원 및 먹이 활동공간의 감소 등이 집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IUCN 적색목록 기준의 위기종(EN) A1ac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 BirdLife International. 2001. Threatened birds of Asia: The BirdLife International Red Data Book. Cambridge UK.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강정훈, 김인규, 유승화, 강태한, 백운기. 2008. 한국의 천연기념물 조류의 현황과 서식실태. 한국조류학회지, 15(1): 73-84.
- 강화군. 2003.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서식실태와 관리방안 연구. 612pp.
- 김동원. 2009. 봄철 하태도의 조류 번식 및 이동 양상. 한국조류학회지, 16(2): 93-106.
- 김성현. 2006. 칠산도 일대에 도래하는 멸종위기종 노랑부리백로(*Egretta eulophotes*)의 번식생태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희, 강종현, 이윤경, 김동원, 서재화, 김명진. 2010.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멸종위기조류의 국내 분포현황. 한국조류학회지, 17: 67-137.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2009. 천연기념물·명승·동물. pp.92.
- 문화재청. 2006. 2006년 천연기념물 모니터링. 문화재청. 124pp.
- 문화재청. 2007. 중장기 천연기념물(동물) 분포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 182pp.
- 박진영. 2002. 한국의 조류 현황과 분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기섭, 이종렬. 2009. 새. 필드가이드. 288pp.
-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320pp.
- 원병오. 1996. 한국의 조류. 교학사. 453pp.
- 환경부. 1997-2009.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
-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

*Egretta eulophotes* has a small, declining population. It visit southern Korea in summer. It occurs in shallow tidal estuaries, mudflats and bays, occasionally visiting paddy-fields and fishponds. Breeding records have been from offshore islands. It bred for the first time at Shin-do in 1987. The rapid decline of a colony at Shin-do, South Korea, in the early 1990s, was apparently a result of disturbance by photographers. Nowaday, It didn't breed any more at Shin-do and breeds at Chilsan-do, Ye-do, Napdaeki, Seoman-do, Seomeopbeol. The greatest threat is habitat loss and degradation through reclamation of tidal flats and estuarine habitats for infrastructure, industry, aquaculture and agriculture, and through pollution. Fishers collect eggs for food and breeding birds are threatened by disturbance. This species is required to conserve international cooperation. It meets the criteria for EN A1ac.

집필자: 이기섭(한국물새네트워크), 송민정(한국환경생태연구소)

# 느시

*Otis tarda* Linnaeus, 1758

## 분류학적 위치

두루미목(Gruiformes) 느시과(Otididae)

영명: Great Bustard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II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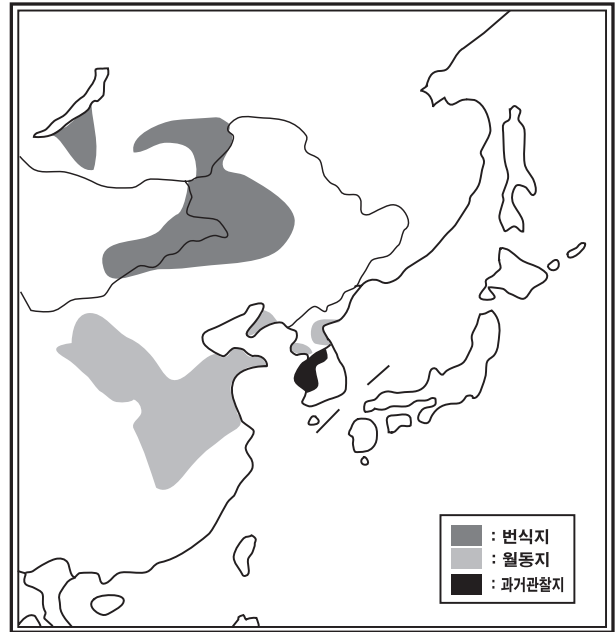
IUCN 범주: VU (취약종)

## ● 요약

넓게 트인 평지, 농경지를 좋아하며 20세기 초까지 우리나라의 흔한 겨울철새였으나 현재는 멸종위기에 처한 종이다. 최근 10년간 한 차례(2001년) 관찰한 기록이 있을 뿐이며, 분포역이 매우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해 위기종(EN)으로 평가했다.

## ● 형태

긴 목과 다리, 통통하고 큰 체형으로 인해 쉽게 구별된다. 부리는 노란색이며, 머리와 목은 푸른빛을 띤 연한 회색이다. 몸 윗면은 붉은 갈색에 검은색 얇은 띠가 비늘모양처럼 흩어져 있으며, 배는 흰색이다. 날 때 날개 윗면은 검은색 날개깃과 흰 날개덮깃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수컷은 아랫부리 기부의 흰색 깃은 길게 늘어서 턱수염처럼 보이며 가슴에는 적갈색 띠가 있다. 암컷은 가슴에 적갈색 띠가 없으며, 수컷보다 크기가 작다(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평원에서 번식하며 산란기는 5-6월, 한배 산란 수는 3-4개다. 알은 연한 녹색 또는 황록색 바탕에 어두운 갈색 얼룩무늬와 갈색 빛을 띤 회색 얼룩점이 산재하거나 밀생한다. 일부다처제로 생활하며 암컷이 단독으로 포란한다(원 1981).

## ● 분포 현황

20세기 초까지 경기도, 강원도 지방에서 흔한 겨울철새이었으나, 현재는 매우 희귀하다(원 1981; 이 등 2000; 박 2002). 최근(2001년)에는 철원지역에서 관찰기록이 있다.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에는 겨울에 도래하는 철새로 국내 번식기록이 없다.

## ● 서식지 동향

광활한 평야, 건조한 구릉의 초지, 초원 등지에 서식하며, 유럽에서는 주로 온대의 건조한 황토지대에 서식했



고, 근래에는 농경지와 목초지에도 서식한다. 만주와 몽골에서는 관목이 산재하는 넓은 평원이나 경지에 살며, 산림이나 습지에 드물게 서식한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넓은 논이나 밭, 간혹 산림 속의 넓은 공지와 경지에서 관찰되었다(원 1981; 이 등 2000).

## ● 개체수 현황

과거에 흔한 겨울철새로 100개체 이상이 도래한 기록도 있지만(Austin, 1948), 점차 감소해 1868-1970년에 관찰된 이후로 거의 관찰되지 않다가 2001년 철원 민통선에서 1개체를 관찰한 기록이 있다(박 2002).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 전국적으로 다수가 도래해 월동했고, 그 이후에는 점점 희귀해져 1968년 2월 강원도 속초 부근에서 북상중인 4개체가 관찰되었으며, 1970년 11월 29일 강화도에서 남하 중인 7개체를 관찰한 기록이 있다(원 1981). 1977년에는 경기도 화성시에 도래한 적이 있다(동아일보 1977. 6.14일자).

## ● 국제 동향

구북구의 많은 지역에 적은 무리가 산재해 모로코, 독일, 헝가리에서 시베리아와 중국 동북부까지 분포한다. 전 세계적으로 45,000여 개체가 서식하며, 유럽지역에 26,000-32,000개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시아 지역의 집단은 4,200-4,500개체로 알려져 있다(BirdLife International 2001; IUCN 2010).

## ● 위협 요인

농업용지 개발, 농약 사용, 불법사냥, 과도한 방목 등 개발행위에 따른 서식지 감소가 주 위협 요인이다.

## ● 특기 사항

천연기념물 제206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CITES II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 ● 평가 결과: EN D(1)

아시아지역에는 4,000개체 이상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비행하는 개체만이 관찰되는 등 분포역이 매우 한정되고 목초지의 감소, 농지 개발, 농약 사용 등 위협 요인에 의해 개체수가 급감해 2001년 이후로는 관찰기록이 없다. 따라서 IUCN 적색목록 분류 기준에 의해 위기종(EN) D(1)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Austin, O. L. 1948. The Birds of Korea. Bulletin of the Museum of Comparative Zoology at Harvard College Vol. 101. No. 1. pp.301.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BirdLife International. 2001. Threatened birds of Asia: The BirdLife International Red Data Book. Cambridge UK.

박진영. 2002. 한국의 조류 현황과 분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320pp.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1,126pp.



Breeding male has upperparts barred black and gold, with broad white patch on closed wing, tail as back with broad black subterminal bar and white tips. Habitat is flat or rolling open short-grass plains, usually clear of trees. food is mainly plant material and invertebrates, although small mammals, amphibians and nestling birds sometimes taken. Laying in Apr-May. Migratory in Asia, where southward shifts occur, generally over limited distances, from Aug to early winter, with birds returning Mar-Apr. Status is vulnerable. It meets the criteria for EN D(1).

집필자: 김진한(국립생물자원관), 이한수(한국환경생태연구소)

# 두루미

*Grus japonensis* Müller, 1776

## 분류학적 위치

두루미목(Gruiformes) 두루미과(Gruidae)

영명: Red-crowned Crane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1급, 천연기념물 제20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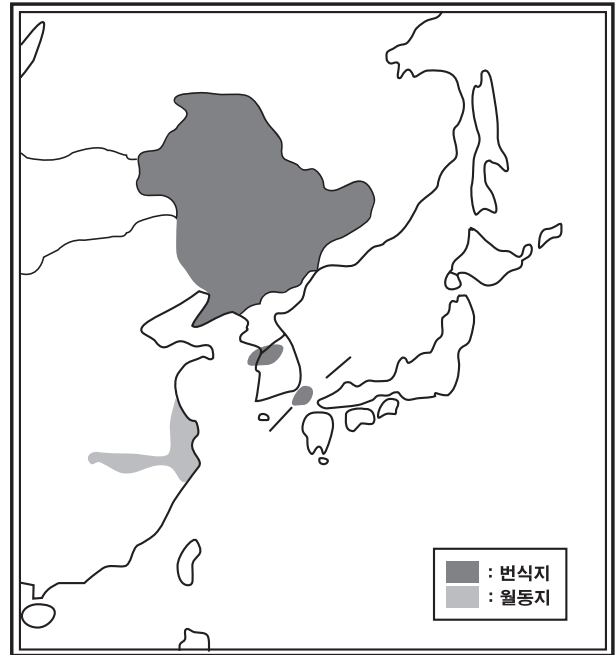
IUCN 범주: EN (위기종)

## ● 요약

겨울철새이며, 강원도 철원지역과 경기도 연천, 파주, 강화 등 주로 비무장지대와 민간인통제지역 일대에 월동한다. 1999년에는 382개체였으나 2010년에는 1,051개체로 점차 증가했다. 전 세계 개체수는 2,600-2,800개체로 추정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지역에만 월동하므로 월동지에 대한 지속적 보존이 요구된다.

## ● 형태

암컷과 수컷 모두 이마, 머리꼭대기, 눈앞에는 적색 피부가 드러나며, 이 부분의 앞 끝과 뒤 끝에는 검은색 뺨뺨한 털이 촘촘히 있다. 눈 뒤, 귀깃, 뒷머리, 뒷목은 흰색이다. 목과 목은 검은색이며, 몸은 흰색이고 둘째날개깃, 셋째날개깃은 검은색이다. 부리는 노란색을 띠며 녹색이며, 다리는 검은색이다. 어린 새의 경우 이마와 머리꼭대기는 붉은색을 띠는 황갈색이며, 이마, 목, 턱밑, 턱 아래 부위는 황색을 띠는 회색이다. 그 외의 깃털은 흰색이며, 그 끝은 황갈색을 띤다(원 1981; 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월동지에서는 하구와 하천의 모래, 갯벌, 풀이 우거진 습지, 농경지 등에서 생활한다. 암컷과 수컷 그리고 그들의 새끼로 형성된 가족이 행동 단위다. 2-3월에는 암수가 마주 본 상태에서 부리를 하늘로 향하고 수컷은 한번, 암컷은 두세 번 반복해 우는 구애 행동을 볼 수 있다. 둥지는 갈대가 우거진 곳에서 낮은 갈대가 많은 평지에 갈대를 이용해 접시모양으로 만든다. 알 낳는 시기는 3월 하순-4월 하순이다. 알은 흰색으로 1-2개 낳는다(원 1981).

## ● 분포 현황

강원도 철원지역과 경기도 연천, 파주, 강화 등 주로 비무장지대와 민간인통제지역 일대에 분포한다.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에서는 번식하지 않는 겨울철새다.

## ● 서식지 동향

월동지인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민간인통제지역 일대의 논, 울무 밭, 옥수수 밭 등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결빙된 저수지, 강의 모래톱 등을 잠자리로 이용한다. 강원도 철원 양지리의 경우 민간인통제지역 내의 일정지역에 먹이를 공급하고 있어 주기적으로 도래하고 있다. 강화도의 갯벌에도 소수가 도래한다. 민통선일대와 강화도 외에는 방해 요인으로 인해 도래하는 개체가 없다.

## ● 개체수 현황

국내 월동 개체수는 2007년의 경우 강원도 철원에 700개체, 경기도 연천, 파주, 강화 일대에 145개체로 845개체였다. 2010년의 경우 철원 882개체, 연천 144개체, 임진강 하구 11개체, 강화도 13개체, 낙동강 하류 1개체로 1,051개체가 월동했다. 1999년에는 382개체였으나 현재는 1,051개체로 개체수가 점차 증가했다(환경부 1999-2010; 문화재청 2007).

## ● 국제 동향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으로 한국, 중국, 일본에서 월동하며, 번식지는 아무르강과 송화강 유역의 습지이며, 중국의 자롱, 삼강평원과 러시아의 킨간스키자연보호구가 주 번식지다. 일본의 홋카이도에는 독립된 개체군이 있다. 대략적인 생존수는 한국이 2000년 까지는 400여 개체였으나 2010년의 경우 1,051개체가 관찰되었으며, 일본의 홋카이도가 1,000개체 내외, 중국이 800-1,000개체로 전체 개체수는 2,600-2,800개체다. 이 중 번식 가능한 개체수는 1,000쌍이 되지 못하므로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으로 보호하고 있다(BirdLife International 2000).

## ● 위협 요인

갯벌의 매립, 해안도로와 교각건설, 농경지의 감소에 따른 서식지 감소로 월동지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번식지의 경우도 개발 등의 압력으로 점차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그 외 월동지에서 독극물 중독, 전선 충돌, 밀렵 등 다양한 위협 요인이 있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 급,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202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전 세계 생존 집단의 규모는 2,600-2,800개체로 동아시아 일대에 서식하는 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두루미보호협회, 두루미네트워크 등을 통해 매년 월동 개체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 ● 평가 결과: EN B1b(i)

최근 2010년에 1,051개체가 관찰되었으며, 전 세계 개체수가 많지 않고, 국한된 분포지역 및 서식지의 감소 등으로 다양한 위협을 받는 상태다. 따라서 IUCN 적색목록 기준에 따라 위기종(EN) B1b(i)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BirdLife International. 2000. Threatened birds of the world. Lynx Edicions. pp.168.

문화재청. 2007. 중장기 천연기념물(동물) 분포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 pp.42.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pp.554-558.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119.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Grus japonensis* is wintering bird in Korea. It breeds in south-eastern Russia, north-east China and eastern Hokkaido, Japan. The Russian and Chinese populations mainly winter in the Yellow river delta, the coast of Jiangsu province, China, and the Demilitarised Zone, North Korea/South Korea. The population is estimated at c. 2,600-2,800 birds. This crane qualifies as endangered because it has a very small, declining population as a result of loss and degradation of wetlands through conversion to agriculture and industrial development. It meets the criteria for EN B1b( i).

집필자: 김진한(국립생물자원관), 김인규(한국환경생태연구소)

# 먹황새

*Ciconia nigra* Linnaeus, 1758

## 분류학적 위치

황새목(Ciconiiformes) 황새과(Ciconiidae)

영명: Black Stork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II급, 천연기념물 제200호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겨울철새이며, 전라남도 함평과 해남에서 드물게 월동한다. 주로 농경지, 강 하구, 저수지, 하천, 풀이 우거진 습지에 서식하고, 습지의 파괴와 하천의 개발, 농약 등의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기종(EN)으로 평가했다.

## ● 형태

부리와 다리, 눈 주위가 붉고 가슴과 배 부분이 흰색인 것을 빼면 몸 전체가 녹색 광택을 띠는 검은색이다. 어린 새는 부리와 눈 주위가 녹색을 띤 회색이며 다리는 녹색을 띤 노란색이다. 몸 윗면에 녹색 광택이 거의 없으며 목 부분에 작은 흰색 반점이 흩어져 있다.



## ● 생물학적 특성

주로 농경지, 강 하구, 저수지, 하천, 풀이 우거진 습지에서 산다. 예전에는 희귀한 텃새였으나 현재는 겨울철새다. 특히, 해남 일대에서 주로 볼 수 있다.

## ● 분포 현황

전라남도 함평과 해남, 경상북도 영주에서 경상남도 낙동강 하류까지 국지적으로 도래한다.

## ● 번식지 동향

1938년 3월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에서 번식한 이래 1965년 6월 가송리 천마산 절벽 위에 있는 새끼 2개체와 어미가 촬영되었고, 1968년까지 매년 주변의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번식했으나 그 후 번식기록이 없다.

## ● 서식지 동향

논과 하천 또는 얇은 물가에 내려 앉아 먹이를 찾아 먹는 것 외에는 나무 위나 절벽에서 휴식을 취한다. 경상남도 주남저수지와 경상북도 영주 내성천, 전라남도 함평 대동댐, 부산의 낙동강 하류에서 기록되었으며 최근 천수만 부남호에서 확인되었다.

## ● 개체수 현황

먹황새는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에서 4개체 이하(1999-2003년에 0개체, 2004년에 2개체, 2005년에 0개체, 2006년에 2개체, 2007년에 4개체, 2008년에 0개체, 2009년에 3개체)였다. 1979년 대성동 자유의 마을 북쪽 초습지에서 1개체, 1989년 경상남도 주남저수지에서 1쌍, 2002년 1월 3개체, 2003년 1월 경상북도 영주 내성천에서 1개체, 2003년 2월 전라남도 함평 대동댐에서 9개체 등이 관찰되었다. 최근에는 2007년 함평 대동댐에서 3개체, 영암호에서 1개체가 확인되었고, 2009년 11월에 천수만 부남호에서 어린 새 1개체가 확인되었다.

## ● 국제 동향

동아시아(시베리아, 몽골, 중국)에서 약 100개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국제적으로 남아프리카(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모잠비크, 짐바브웨, 잠비아, 나미비아)에서 1,560-4,050개체, 서남유럽(이베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에서 1,300-1,370개체, 중앙, 동유럽(스웨덴,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러시아)에서 19,500-28,000개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 위협 요인

초습지의 파괴, 하천의 개발 등 각종 개발압력으로 먹황새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으며, 농약 등 오염물질로 먹이원인 어류, 양서·파충류가 줄어들고 있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I급,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200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 ● 평가 결과: EN D(1)

아시아 생존개체가 100여 개체이며, 국내 도래 개체수도 극히 드물다. 따라서 IUCN 적색목록 기준에 따라 위기종(EN) D(1)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Wetlands International. 2002. Waterbird Population Estimates-Third Edition. Wetlands International Global Series No. 12, Wageningen, The Netherlands. pp.56
- 문화재청. 2009. 문화재대관 천연기념물·명승 동물. 문화재청. pp.68-69.
- 박진영. 2002. 한국의 조류 현황과 분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서울, 1,126pp.
-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320pp.
-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

*Ciconia nigra* is winter visitor in Korea. In Korea, this bird is a rare migrant. They feed on snake, frog in arable land and water. Wintering population observed at several sites in Ham-pyung, Nakdong-river. East Asia(China, Taiwan, Korea, Japan), population size estimated about 100 individuals. It meets the criteria for EN D(1).

집필자: 이기섭(한국물새네트워크), 신용운(한국환경생태연구소)

# 붉은가슴흰죽지

*Aythya baeri* Radde, 1863

## 분류학적 위치

기러기목(Anseriformes) 오리과(Anatidae)

영명: Baer's Pochard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II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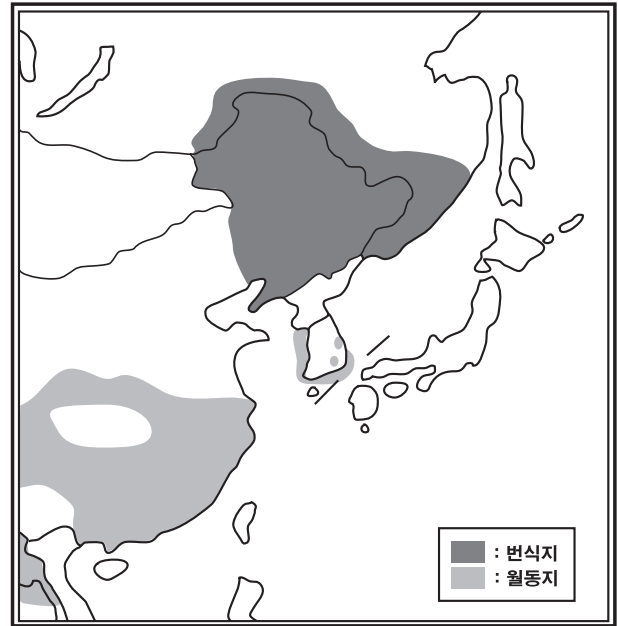
IUCN 범주: EN (위기종)

## ● 요약

우리나라의 호수와 강 하구 등에서 월동하는 드문 겨울철새다. 해안선 가까이 있는 호수나 강둑에서 보통 작은 무리로 생활하고, 소수의 개체가 도래하며, 매년 관찰되는 개체수의 변동이 크고 안정적이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는 위기종(EN)으로 평가했다.

## ● 형태

수컷의 머리에는 녹색 광택이 있으며, 가슴은 적갈색이다. 눈은 흰색 또는 흐린 노란색이다. 암컷은 균일한 어두운 갈색이며, 눈은 갈색이다. 아래꼬리 덮깃과 옆구리 아래 부분의 흰색이 특징이다. 날 때 날개깃의 흰 띠가 뚜렷하다(원 1981; 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번식기에는 호수나 나무가 적은 곳 또는 수초와 갈대가 있는 곳을 선호하며, 이동 시기에는 급류의 강가에서 관찰된다. 해안선 가까이 있는 호수나 강둑에서 보통 작은 무리로 생활한다. 잠수를 잘하며 위급할 때는 풀숲으로 숨는다. 둥지는 호수나 해안 등의 초지나 갈대밭에 둥지를 틀고, 산란 수는 6-9개다(원 1981).

## ● 분포 현황

우리나라 내륙의 댐 호소, 해안의 간척 호수 등에 주로 관찰된다.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에서 번식하지 않는 겨울철새다.

## ● 서식지 동향

댐 호소, 해안과 인접한 간척 호수에 주로 서식한다.

## ● 개체수 현황

경상북도 임하댐에서 2001년에 1개체, 경기도의 시화호에서 2005년에 2개체, 전라남도의 영암호에서 2007년에 2개체, 경상남도의 고성 당항만에 2007년에 4개체가 관찰된 기록이 있다(환경부 1999-2010).

## ● 국제 동향

번식지는 아무르, 우수리 일대와 중국의 북동부다. 우리나라, 홍콩, 대만, 일본, 네팔, 부탄, 태국, 베트남 등지에 분포한다. 전 세계 개체수는 10,000-20,000개체로 추정하며, 성체의 개체수는 10,000개체 이하여서 보호가 요구된다(BirdLife International 2000; IUCN 2010).

## ● 위협 요인

서식지 및 번식지의 소실 및 축소와 각종 개발에 의한 서식지 훼손이 주요 개체수 감소의 요인이다. 번식지에 서는 사냥에 의한 위협 요인이 있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II 급으로 개체수는 최대 20,000개체로 동아시아 일대에 서식하는 종이다. 우리나라에 서는 소수가 도래하는 겨울철새로 월동지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 ● 평가 결과: EN D(1)

국내에 기록된 개체수는 1-4개체로 소수가 도래하며, 매년 관찰되는 개체수의 변동이 크고 안정적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에도 IUCN의 적색목록 분류 기준에 따라 위기종(EN) D(1)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 BirdLife International. 2000. Threatened birds of the world. Lynx Edicions. pp.102.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pp.462-463.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82.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Aythya baeri* breeds around lakes with rich aquatic vegetation in dense grass or flooded tussock/shrubby meadows. In Liaoning, China, it is commonly found in coastal wetlands with dense vegetation, or on rivers and ponds surrounded by forest. The nest is built on a tussock or under shrubs, sometimes floating, and occasionally amongst branches. In winter, it occurs on freshwater lakes and reservoirs. It winters in Japan, North Korea, South Korea, eastern and southern mainland China, Hong Kong (China), Taiwan (China), India, Bangladesh, Nepal, Bhutan, Thailand, Myanmar and Vietnam and is a rare migrant to Mongolia. Its population has been estimated at 10,000-20,000 individuals, but could be fewer than 250 mature individuals. It meets the criteria for EN D(1).

집필자: 김창회(국립환경과학원), 김인규(한국환경생태연구소)



# 붉은해오라기

*Gorsachius goisagi* Temminck, 1835

## 분류학적 위치

황새목(Ciconiiformes) 백로과(Ardeidae)

영명: Japanese Night Heron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II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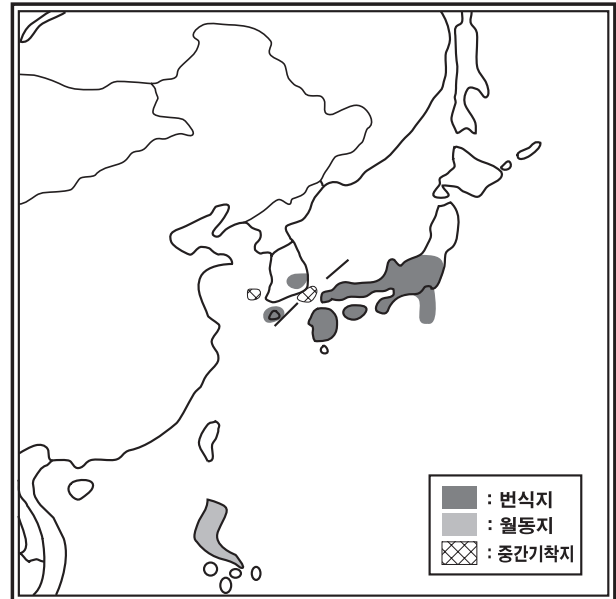
IUCN 범주: EN (위기종)

## ● 요약

봄철과 여름철 남해안의 도서지역과 부산, 제주도 중심으로 적은 수가 관찰되는 통과조류이나 2009년 부산과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번식이 확인된 바 있다. 남획과 산림 개발이 주요 위협 요인이 되고 있으며, 국내 번식 성공 확인, 소규모 무리의 한정된 지역에 지속적 도래, 주요 번식지인 일본의 개체수 감소, 도서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기록 부족에 따른 도래 개체군 증가 기대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종으로 판단해 우리나라에서는 위기종(EN)으로 평가했다.

## ● 형태

몸 전체는 붉은 색을 띤 갈색이고 부리는 짧고 두툼하다. 눈 앞부분은 노란색을 띠며, 목 앞부분 중앙에 어두운 갈색 줄이 있다. 날 때 날개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검은색 굵은 띠가 특징이다. 다리는 노란색을 띤 녹색이며, 홍채는 노란색이다(원 1996; 이 등 2000; 이와 이 2009).



## ● 생물학적 특성

삼나무나 그 밖의 침엽수 속의 어두운 계류, 연못 등 물가에 내려 먹이를 찾는다. 그러나 밤에는 먼 거리를 날아다니며, 지상을 조용히 걷기도 한다. 갑자기 날아오를 때는 날개를 몹시 펴려 소리 내지만 평상시는 조용하게 완만히 날며 목은 S자모양으로 움츠린다. 경계할 때는 머리와 목을 하늘로 뻗어 의태한다. 나뭇가지와 뿌리를 이용해 둥지를 만든다. 둥지의 크기는 외부지름이 30-45cm이며, 안지름이 25cm, 높이는 8.5-10cm이다(원 1996).

## ● 분포 현황

제주도, 부산, 하태도, 금오도 등 일부 남해안의 해안 도서에 비정기적으로 도래한다.

## ● 번식지 동향

2009년 제주시 아라동 한라산 해발 475m의 숲, 부산시 동구 구봉산에서 각각 6월에 처음으로 번식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Oh *et al.* 2010). 제주도의 경우, 낳은 알 3개 중 2개체가 부화 및 이소에 성공했으며, 부산에서도 2개체가 부화해 이소했다.

## ● 서식지 동향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늪이나 물웅덩이가 있는 숲을 선호하지만 야행성으로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단독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쉽게 관찰되지 않으며, 산림이 있는 해안 도서지역에서 땅속의 벌레나 곤충, 달팽이나 물고기 등을 먹는 모습이 간혹 눈에 띈다.

## ● 개체수 현황

1966년에 부산시 구덕산 유원지에서 1개체 채집기록이 있으며, 1994년 충청남도 외연도에서 발견되었으나 곧 죽고 말았다. 관찰기록은 1980년 4월 제주 안덕면 사계리에서 1개체, 1982년 7월 제주 안덕면 화순리에서 1개체, 1988년 11월과 1989년 7월 제주 하도리 양어장에서 각각 1개체, 1990년 5월 제주 한경면 용수리 1개체, 1994년 제주 5월 제주 한경면 사계리에서 1개체, 1997년 6월 제주 조천읍 선흘리에서 사체 1구, 2000년 5월 함평군 향교저수지에서 1개체, 2001년 4월 제주 성산읍 신산리 1개체, 2004년 봄철 전라남도 신안군 하태도에서 1개체, 2005년 6월 금오도에서 1개체, 2009년 6월 부산시 구봉산과 제주 아라동에서 각각 4개체가 관찰되었다 (박 2002; 김 2009; Oh *et al.* 2010).

## ● 국제 동향

전 세계 개체수는 1,000-2,500으로 추정하며, 일본에서는 준위협종(NT)으로 분류하고 있다. 주로 일본에 서식하는 여름철새로 봄과 여름철에 러시아와 우리나라에서 비정기적으로 발견된다. 1970년대에는 일본에서 흔하게 관찰되는 종이였으나 최근에는 1,000개체 정도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IUCN 2010).

## ● 위협 요인

남벌, 산림 개간 등에 의한 번식지 및 서식처 감소가 개체수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I 급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 ● 평가 결과: EN D(1)

2009년도까지는 국내에 소수의 무리가 남해안의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도래하는 종이였으나 2009년 제주도와 부산에서 번식이 확인됨으로써 통과조류이자 여름철새로써 가치가 상승된 종이다. 과거 관찰기록에 따르면 제주도와 부산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도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더 많은 개체가 남해안의 도서지역에 서식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 종에 대한 과거 조사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이 종의 국내 번식이 처음으로 확인됨으로써 전 세계 집단의 규모와 일본 번식지의 개체수 감소를 고려할 때 보호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IUCN 적색목록 분류기준의 D(1)를 적용해 위기종(EN)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Hongshik OH, Youngho KIM, Namkyu KIM. 2010. First Breeding Record of Japanese Night Heron *Gorsachius goisagi* in Korea. Ornithological Science, Vol. 9, No. 2, pp.131-134.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김동원. 2009. 봄철 하태도의 조류 번식 및 이동 양상. 한국조류학회지, 16(2): 93-106.

이기섭, 이종렬. 2009. 새. 필드가이드. 288pp.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320pp.  
원병오. 1996. 한국의 조류. 교학사. 453pp.

*Gorsachius goisagi* has a very small, declining population. In 2009, This species has bred for the first time in Jeju(Ara-dong) and Busan(Gubong mountain). It occurs irregularly in spring and summer. Mainly it occurred out-of-the-way place on the coast and it is observed 1 or 2 individuals at a time in Korea. It breeds mostly in Japan. Its international population is about now probably less than 1,000 mature individuals. The main threat is deforestation in both its breeding and non-breeding ranges. The development of dense scrub undergrowth in forest and on abandoned farmland is believed to reduce the suitability of these habitats for feeding. It has probably been hunted in many parts of its range. It meets the criteria for EN D(1).

집필자: 이기섭(한국물새네트워크), 송민정(한국환경생태연구소)

# 빨쇠오리

*Synthliboramphus wumizusume*  
Temminck, 1835

## 분류학적 위치

도요목(Charadriiformes) 바다오리과(Alcidae)

영명: Japanese Murrelet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II급, 천연기념물 제450호

IUCN 범주: VU (취약종)

## ● 요약

우리나라 남해안 도서지역에서 소수가 번식하고 때로 월동도 하는 텃새이자 국제적 보호조류다. 구골도와 독도에서 번식기록이 있으며, 1987년 최대 200개체가 관찰된 이후 10개체 미만이 관찰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위기종(EN)으로 평가했다.

## ● 형태

머리에 짧은 빨갛이 있다. 부리는 길고 회갈색이다. 머리는 검은색 바탕에 머리꼭대기에서 뒷목까지 뚜렷한 흰색 줄이 있다. 등, 어깨깃, 허리, 위꼬리덮깃은 어두운 회색이다. 아랫뺨, 가슴, 배, 아래꼬리덮깃은 흰색이며, 옆구리는 검은색으로 군데군데 회색빛을 띤다. 아랫날개덮깃은 흰색이고, 겨드랑이깃도 흰색으로 바깥쪽은 다소 검은색을 띤다(원 1981, 1996; 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암수 함께 또는 5-10개체가 작은 무리를 지어 해상에서 헤엄도 치고 잠수도 하면서 먹이를 찾는다. 잠수할 때에는 날개와 다리를 활발히 움직인다. 해상에서는 몸을 편평하게 해서 몸을 많이 노출시켜 뜬다. 경계심이 적어 바로 옆까지 접근할 수 있다. 위협할 때는 잠수해서 도망가는 경우가 많으나 때로는 날아 도망가기도 한다. 해상의 상당한 거리를 활주한 후에 날아오른다. 날아오른 후에는 해면을 스치듯 직진한다. 날 때에는 몸을 수평으로 하고 날개를 심하게 펴려서 신속하게 비상한다. 주로 해상에서 생활하는데 번식기에는 암초에 올라가서 몸을 수직으로 하고 부척을 굽혀 걷는다. 번식기는 보통 3월 중순에서 6월 말이나 7월초까지다. 일부일처로 추정하며, 번식지로의 귀소성이 매우 강하다. 알은 주로 야간에 7-8일 간격으로 낳고, 보통 1-2개를 낳는다. 먹이는 주로 갑각류이며, 불가리아나 소형 어류 등도 즐겨먹는다(원 1981, 1996).

## ● 분포 현황

남해, 오륙도 해상, 제주도 마라도와 지귀도 해상 등 남해안 일대의 해상 및 도서에 적은 수가 분포한다(원 1981, 1996; 이 등 2000).

## ● 번식지 동향

1986년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앞에 위치한 구굴도에서 최초로 3쌍이 번식했으며, 2005년에는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의 서도 북쪽 사면에서 번식 후 사망한 성체와 새끼가 확인되었다(원 1992; 권과 유 2005; 문화재청 2006, 2007).

## ● 서식지 동향

해상에 떠서 주로 생활하며, 잠수해 물고기를 잡아먹는 모습이 남해안의 일부 작은 도서지역에서 불규칙하게 관찰된다.

## ● 개체수 현황

1884년 4월 20일 경상남도 남해 앞바다에서 암컷 2개체가 채집된 이래 그 정체를 찾아볼 수 없었으나 1974년 3월 4일 경상남도 통영 앞바다의 해상에 떠있는 7개체가 관찰되었다. 1987년 10월 부산시 해운대와 오륙도 사이의 인근 해상에서 약 5,000개체의 바다쇠오리 무리 내에서 약 200개체가 관찰된 것이 지금까지 확인된 빨쇠오리의 최대 규모다. 2004년 1월 15일 제주도 애월읍 신업리 해상과 마라도에서 확인된 바 있으며, 2008년 2월 14일 제주도 지귀도에서 마라도에 이르는 해상에서 매에게 포식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체 1개가 관찰되었다(원 1992; 박 2002; 오 2004; 권과 유 2005; 문화재청 2006, 2007; 김과 오 2009).

## ● 국제 동향

일본의 동남부에서 주로 번식하며, 전 세계적으로 약 10,000개체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 ● 위협 요인

번식지 주변의 먹이 부족, 번식지 내 타 종에 의한 포식 등이 종의 감소 원인이다.

## ● 특기 사항

종 자체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II 급,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제45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내 최초로 번식지가 발견된 구굴도는 1984년 8월 10일 천연기념물 제341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 ● 평가 결과: EN A1a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최대 200개체가 관찰된 바 있으나 그 이후로는 2004년과 2008년에 10개체 미만의 소수 무리가 관찰되었다. 우리나라에 번식이 확인된 종으로 구굴도와 독도 두 곳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번식규모는 3쌍 이하로 매우 적다. 따라서 IUCN 적색목록 분류 기준의 위기종(EN) A1a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권영수, 유정철. 2005. 경상북도 독도에서 확인된 빨쇠오리의 번식기록. 한국조류학회지, 12(2): 83-86.  
김완병, 오흥식. 2009. 지귀도의 조류상. 한국조류학회지, 16(2): 115-121.  
박진영. 2002. 한국의 조류 현황과 분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흥식. 2004. 제주도에 도래하는 물새류 현황과 철새도래지 보호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조류학회지, 11: 11-32.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320pp.

원병오. 1996. 한국의 조류. 교학사. 453pp.

원병오. 1992. 여름철새도래지, 번식지 및 해조류 번식지 학술조사 보고서. 경희대학교 한국조류연구소, 연구보고 pp.16-17.

문화재청. 2006. 2006년 천연기념물 모니터링. 문화재청. 124pp.

문화재청. 2007. 중장기 천연기념물(동물) 분포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 182pp.

*Synthliboramphus wumizusume* breeds on uninhabited islands. Breeding has been recorded on Gugul Island off the southern coast of South Korea, in 1986.

And it may also breed on Dok-do, in 2008. It occurs Mara-do, Namhae, Jigwi-do, Oryuk-do offshore. The largest number of survey was 200 in October, 1987. Afterward it was observed 1-20 small group in the southern coast. It is endemic to the warm current regions near central and southern Japan. International population size is unlikely to exceed 10,000 birds. It meets the criteria for EN A1a.

집필자: 백운기(국립중앙과학관), 송민정(한국환경생태연구소)

# 재두루미

*Grus vipio* Pallas, 1811

## 분류학적 위치

두루미목(Gruiformes) 두루미과(Gruidae)

영명: White-naped Crane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II급, 천연기념물 제20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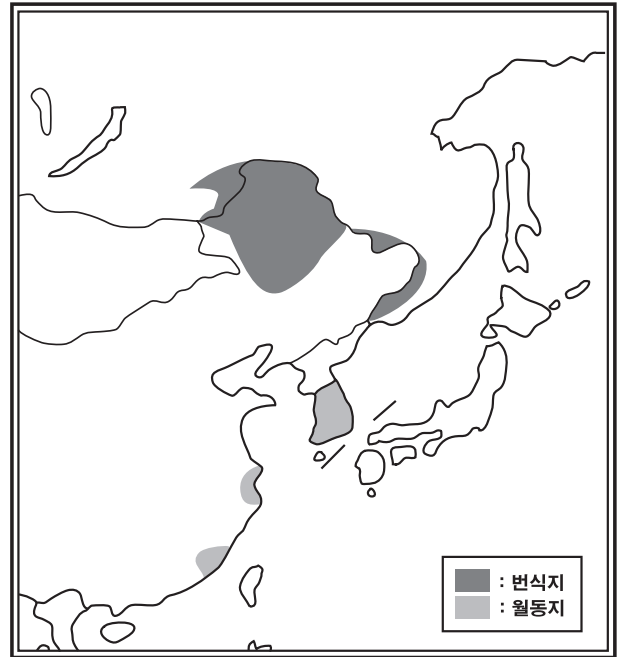
IUCN 범주: VU (취약종)

## ● 요약

국제적으로 절멸위기에 처한 종으로 우리나라에 는 겨울철새로 도래한다. 국내에 월동하는 개체수는 1,400여 개체로 판단되며, 철원, 한강 하구, 주남저수지 등 일부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도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기종(EN)으로 평가했다.

## ● 형태

몸은 암수가 같은 색깔로 푸른색을 띤 회색이며 이마와 눈 가장자리 그리고 짧은 피부가 노출되어 붉은 색을 띤다. 목은 흰색으로 가슴에서 이어지는 회색이 목 앞으로 뾰족한 모양으로 올라와 있다. 첫째날개깃과 둘째날개깃은 검은색이지만, 셋째날개깃과 등의 일부는 흰색이다. 어린 새는 머리꼭대기에서 뒷목까지 갈색이다. 부리는 황록색이고 다리는 붉은색이다.



## ● 생물학적 특성

강 하구, 갯벌, 개활지, 논, 초습지에서 생활하며 조개류와 곤충류, 옥수수, 벼의 낱알, 풀씨, 풀뿌리 등을 먹는다. 경계심이 매우 강하며, 사람이 접근하면 주위를 감시하던 개체의 신호에 의해 무리 전체가 목과 머리를 위로 들고 날아갈 준비를 한다. 산란은 4-5월에 개방된 습지 위에 풀과 마른 풀을 쌓아 올려 만들고 얇은 갈색 바탕에 암갈색의 얼룩무늬와 반점이 있는 알을 2개 정도 낳는다. 포란기간은 28-32일이며, 육추기간은 70-75일이다.

## ● 분포 현황

철원지역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가 관찰되며, 한강 하구, 임진강유역, 순천만, 구미 해평습지, 주남저수지, 낙동강 하구 등에 분포한다.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에서는 번식하지 않는 겨울철새다.

## ● 서식지 동향

갯벌, 강 하구, 농경지 등에서 월동한다.



## ● 개체수 현황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에서 387-1,790개체(1999년에 569개체, 2000년에 387개체, 2001년에 436개체, 2002년에 437개체, 2003년에 452개체, 2004년에 626개체, 2005년에 1,103개체, 2006년에 1,321개체, 2007년에 1,397개체, 2008년에 1,433개체, 2009년에 1,790개체, 2010년에 1,433개체)가 관찰되었다. 전국적인 조사결과 우리나라에 1,400여 개체가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국제 동향

국제적으로는 6,500여 개체가 있는 판단되며, 러시아, 몽골, 중국, 한반도, 일본에 분포한다. 3,500-4,000개체가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이동해 월동하고 나머지는 중국 남부지역으로 이동해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규슈의 이즈미 지방이 최근 최대의 월동지로 보고되고 있다.

## ● 위협 요인

도시화에 따른 농경지와 습지, 갯벌 등의 감소, 논에서 추수 후 벼짚의 수거, 수로와 도로의 시멘트화 등으로 서식지 감소와 단편화, 먹이의 부족이 주된 요인이 된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I 급,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203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한강 하구 재두루미 도래지는 천연기념물 제250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 ● 평가 결과: EN B1b(i)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에서 2005-2010년은 1999-2004년보다 개체수가 증가되기는 했지만 과거에 수렵허가가 되었을 때보다 적고(Austin, 1948), 도래지역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월동 개체가 대부분 우리나라를 통과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간기착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겨울철 내내 월동하는 지역은 한강 하구, 철원, 주남저수지 등으로 매우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IUCN 적색목록 기준에 따라 위기종(EN) B1b(i)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 Austin, O. L. 1948. The Birds of Korea. Bulletin of the Museum of Comparative Zoology at Harvard College Vol. 101. No. 1. pp.301.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6.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3. Lynx Edicions, barcelona. 821pp.
- 강태한. 2009. 한강 하구에 도래하는 재두루미(*Grus vipio*)의 서식지 이용에 관한 연구. 전라남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화재청. 2003. 천연기념물백서. 문화재청. 570pp.
- 문화재청. 2007. 중장기 천연기념물(동물) 분포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 182pp.
- 배성환. 2000. 비무장지대에 월동하는 두루미의 서식지이용에 관한 연구: 월동수용능력과 GIS를 이용한 공간분포분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진영. 2002. 한국의 조류 현황과 분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1,126pp.
-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320pp.
-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Grus vipio* is winter visitor in Korea. Population in Korea and Japan is estimated at 3,500 - 4,000 individuals. Wintering population in Korea is about 1,400 individuals. Habits is swamps and marshes near lakes and rivers. White-naped Crane usually eat seeds, roots, insects, snails and small fishes in open grassland and wetlands in winter in Korea. Major wintering areas is Gumi, Han-gang river estuary, Cheolwon, Suncheon bay, Junam reservoir in Korea. International population size estimated about 6,500 mature individuals in 2010. It meets the criteria for EN B1b( i).

집필자: 김진한(국립생물자원관), 이시완(한국환경생태연구소)

# 참수리

*Haliaeetus pelagicus* Pallas, 1811

## 분류학적 위치

매목(Falconiformes) 수리과(Accipitridae)

영명: Steller's Sea Eagle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1급, 천연기념물 제243-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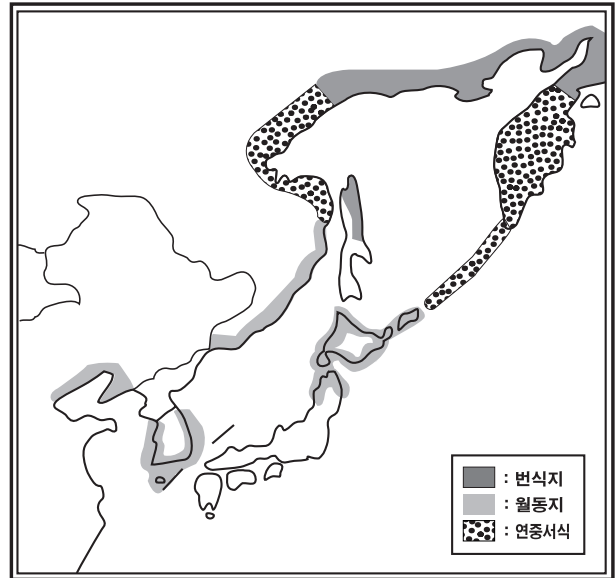
IUCN 범주: VU (취약종)

## ● 요약

겨울철새로 국제적으로 절멸위기에 처한 대형 수리류다. 소규모의 무리가 해안지역 및 해안과 인접한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도래하고 있으나 그 개체군이 매우 적고, 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위협받는 점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에서는 위기종(EN)으로 평가했다.

## ● 형태

몸길이 88-102cm이며, 부리가 노랗고 큰 대형 수리이다. 꼬리는 삐기형으로 길며 흰색이다. 이마와 어깨 그리고 허리와 윗꼬리덮깃은 흰색이다. 이외의 부분은 어두운 갈색이다. 날 때 날개의 뒤쪽이 둥글게 보이며, 날개 끝 쪽으로 갈수록 넓게 보인다. 어린 새의 몸은 전체적으로 검게 보이며, 꼬리는 흰색이지만 가장자리는 갈색이고 첫째날개깃과 날개덮깃은 부분적으로 흰색을 띤다(원 1996; 이 등 2000; 강 2004; 이와 이 2009).



## ● 생물학적 특성

해안가 절벽의 큰 나무나 해안 절벽에 나뭇가지를 썩아 둥지를 틀며, 매년 보수해 사용하므로 오래된 것일수록 둥지가 크다. 번식기는 4월 중순에서 5월 초순경이며, 보통 알을 2개 낳는다. 알 색깔은 청백색다. 먹이는 주로 물고기를 먹으며, 작은 포유류나 오리, 갈매기 등의 조류도 먹는다(원 1996; 이 등 2000; 이와 이 2009).

## ● 분포 현황

한강-임진강 하구, 강릉 남대천, 팔당, 연천군, 김제시, 예천시, 포항시, 제주도, 낙동강, 주남저수지, 임진강, 천수만, 만경강 등 우리나라 전역의 해안 및 하구, 대규모 간척해안 등에 불규칙하게 도래한다.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는 곳은 낙동강으로 매년 1-2개체가 꾸준히 도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 2010).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에서는 번식하지 않는 겨울철새다.

## ● 서식지 동향

해안, 하구, 하천, 석호, 저수지 등지에서 겨울철에 먹이 활동을 하거나 잠시 휴식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 ● 개체수 현황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에서 6개체 이하(1999년 0개체, 2000-2001년 각 2개체, 2002-2003년 각 3개체, 2004년 0개체, 2005년 5개체, 2006년 6개체, 2007-2008년 각 4개체, 2009년 3개체, 2010년 4개체)를 관찰한 기록이 있다(환경부, 1999-2010). 지역별로는 1968년 12월 강화도에서 2개체, 한강-임진강 하구에서 1968년 2월 4개체, 1998년 2월 2개체, 2005년 1월 3개체가 관찰되었다. 강원도에서는 소양호 주변에서 2001년 1월 1개체, 경포호에서 2000년 2월 1개체, 강릉시 남대천에서 2001년 1월 1개체, 2001년 12월 남대천에서 3개체가 관찰되었다. 충청남도 서산 간월호에서 1999년 12월 3개체, 2001년 3월 1개체가 관찰되었으며, 2009년 2월 예천에서 1개체, 2009년 3월 만경강에서 1개체, 경상북도 대구 달성습지에서 2000년 1월 1개체가 관찰되었다. 경상남도 낙동강 하구에서 1968년 1월 2개체, 1996년 11월 1개체, 1997년 2월 1개체, 1998년 1월 2개체, 1999년 12월 1개체, 2001년 12월 2개체, 2008년 3월 1개체가 관찰된 바 있다. 그 외 진주 진양호에서 2000년 12월 1개체, 2001년 1월 1개체가 관찰되었고 거제도에서 1968년 1월 2개체가 관찰되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 동부해안에서 1974년 1월 2개체가 관찰된 바 있다(우 등 1997; 환경부 1997-2009; 박 2002; 문화재청 2006, 2007; 오 등 2008; 김 2010).

## ● 국제 동향

동아시아, 오호츠크 해안, 캄차카 반도, 사할린, 우수리, 한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전역에 분포한다. 주요 번식지는 캄차카 반도, 오호츠크 해안, 일본 홋카이도 등이며, 전 세계적으로 약 5,000개체가 남아있다. 비번식기인 겨울철에는 전 세계 약 2,000개체가 일본 홋카이도와 쿠릴열도 남쪽에 분포하며, 100여 개체 정도는 캄차카 반도, 오호츠크 해 해안에 흩어져 분포한다. 그 외 중국, 북한, 한국 등에 적은 수가 분포한다(IUCN 2010; 김 2010).

## ● 위협 요인

해안과 인접한 산림의 개발 등 인간 활동에 의해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 급,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243-3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 ● 평가 결과: EN A1c

과거에는 많은 지역에서 관찰되었으나 최근에는 낙동강 하구와 일부 소수 지역에서 관찰되고 있어 분포지역이 감소하고 개체군의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등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어 우리나라에서는 IUCN 적색목록 분류 기준에 의해 위기종(EN) A1c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김성현. 2010. 멸종위기 수리과(Accipitridae) 조류의 분포와 이동 생태.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강승구. 2004. 참수리의 연령에 따른 날개깃 꼬리깃 변화의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섭, 이종렬. 2009. 새. 필드가이드. 288pp.
-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320pp.
- 원병오. 1996. 한국의 조류. 교학사. 453pp.
- 우용태, 이종남, 허위행. 1997. 낙동강 하구일대에서 기록된 조류. 경희대학교 한국조류연구소. 연구보고, 6(1): 21-34.
- 오태훈, 오수길, 백충렬, 조삼래. 2008. 진우도의 동계 조류상. 한국조류학회지, 15(1): 61-71.
- 문화재청. 2006. 2006년 천연기념물 모니터링. 문화재청. 124pp.
- 문화재청. 2009. 문화재대관 천연기념물 · 명승·동물. 문화재청. pp.102.
- 문화재청. 2007. 중장기 천연기념물(동물) 분포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 182pp.
- 환경부. 1997-2009.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Haliaeetus pelagicus pelagicus*, the largest fish-eating eagle in the world, occurs in Russian Far East and South Korea. Korea population is found estuary, bay, lake, lagoon in the whole country in winter. It is an uncommon winter visitor. It breeds on the Kamchatka Peninsula, the coastal area around the Sea of Okhotsk, the lower reaches of the Amur river and on northern Sakhalin and the Shantar Islands, Russia and in Hokkaido, northern Japan. The main threats to its survival are habitat alteration, industrial pollution and over-fishing. The current population is estimated at 5,000 and decreasing. It meets the criteria for EN A1c.

집필자: 박진영(국립환경과학원), 이한수(한국환경생태연구소)

# 청다리도요사촌

*Tringa guttifer* Nordmann, 1835

## 분류학적 위치

도요목(Charadriiformes) 도요과(Scolopacidae)

영명: Nordmann's Greenshank (Spotted Greenshank)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I 급

IUCN 범주: EN (위기종)

## ● 요약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에서 관찰되며, 번식하지 않고 통과하는 새다. 경기도의 강화도, 영종도, 남양만, 충청남도 아산만, 전라북도 만경강, 전라남도 순천만, 경상남도 낙동강 하구 등에 도래한 기록이 있다. 전 세계 개체수는 500-1,000개체로 추정하며, 갯벌의 감소와 사냥 등에 의해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 ● 형태

중형의 도요류이며, 몸길이에 비해 다리가 짧은 것이 특징이다. 암수 여름깃의 정수리와 뒷머리는 검은 빛이 도는 갈색이고 세로무늬가 있다. 얼굴, 턱, 목 앞부분은 흰색이며 검은 갈색 얼룩무늬가 있다. 꼬리깃은 가운데 1쌍이 회색빛인데, 역시 검은 갈색 얼룩무늬가 있고 다리는 노란색이다(원 1981; 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청다리도요사촌은 우리나라에서 봄가을에 30-40개체씩 무리를 지어, 서해안 일대를 지나가는 나그네새다. 번식지에서는 암컷이 높은 나뭇가지에 앉아 새끼를 감시하며, 주로 호수나 바닷가 습지에서 작은 물고기와 새우를 잡아먹는다. 5월 하순에서 6월 중순에 알을 4-6개 낳는다(원 1981).

## ● 분포 현황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남해안에 주로 분포한다. 경기도의 강화도, 영종도, 남양만, 충청남도 아산만, 전라북도 만경강, 전라남도 순천만, 경상남도 낙동강 하구 등에 도래한 기록이 있다.

## ● 번식지 동향

번식지로 알려진 곳은 사할린뿐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번식하지 않는 통과새다.

## ● 서식지 동향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남해안의 간척지, 초습지, 하구 및 하천에 서식한다.

## ● 개체수 현황

우리나라의 만경강 하구에 1995년 이전에 53개체, 아산만과 남양만에서 20-30개체가 관찰되었다(박 2002). 2008년 9월 낙동강 하구에서 1개체, 11월 송도갯벌에서 1개체가 관찰되었으며, 2010년 5월에도 송도갯벌에서 2개체가 관찰되었다.

## ● 국제 동향

사할린, 캄차카 반도, 오희츠크 연안, 아무르, 우수리,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 보르네오, 말레이반도, 미얀마, 인도 동부 등에서 기록되었다. 전 세계 개체수는 500-1,000개체로 추정하며, 갯벌의 감소와 사냥 등에 의해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BirdLife International 2001).

## ● 위협 요인

주요 서식지이자 도래지인 갯벌의 매립과 해안의 개발 등으로 인한 서식지의 감소와 이동지역에서의 사냥이 주요 위협 요인이다.

## ● 특기 사항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I 급으로 지정·보호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번식지인 사할린 등은 보호지역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이동경로인 중국, 홍콩,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의 사냥을 금지해 보호하고 있다.

## ● 평가 결과: EN A1c

낙동강 하구, 송도갯벌 등 서남해안 갯벌에서 소수가 관찰되고 있으며, 전 세계 개체수가 많지 않다. 새만금갯벌 매립 등 장기간에 걸친 국내 갯벌 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감소함으로써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IUCN 적색목록 기준에 따라 위기종(EN) A1c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BirdLife International. 2001. Threatened birds of Asia: The BirdLife International Red Data Book. Cambridge UK.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박진영. 2002. 한국의 조류 현황과 분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pp.637-638.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142.

*Tringa guttifer* breeds in eastern Russia along the south-western and northern coasts of the Sea of Okhotsk and on Sakhalin Island. Its non-breeding range is not fully understood, but significant numbers have been recorded in South Korea, mainland China, Hong Kong (China), and Taiwan (China) on passage, and in Bangladesh, Thailand, Cambodia, Vietnam and Peninsular Malaysia in winter. It probably has a population of 500-1,000 individuals. Its breeding habitat is a combination of sparse larch *Larix* forest for nesting, wet coastal meadows interspersed with piles of driftwood, and coastal mudflats which are used by the adults for feeding. Wintering birds usually frequent estuaries, coastal mudflats and lowland swamps, and sometimes damp meadows, saltpans and rice-fields. The key threats are the development of coastal wetlands throughout Asia for industry, infrastructure and aquaculture, and the degradation of its breeding habitat in Russia by grazing reindeer. Pollution in coastal wetlands, hunting and human disturbance are further threats. It meets the criteria for EN A1c.

집필자: 김진한(국립생물자원관), 김인규(한국환경생태연구소)

# 호사비오리

*Mergus squamatus* Gould, 1864

## 분류학적 위치

기러기목(Anseriformes) 오리과(Anatidae)

영명: Chinese Merganser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Ⅲ급, 천연기념물 제44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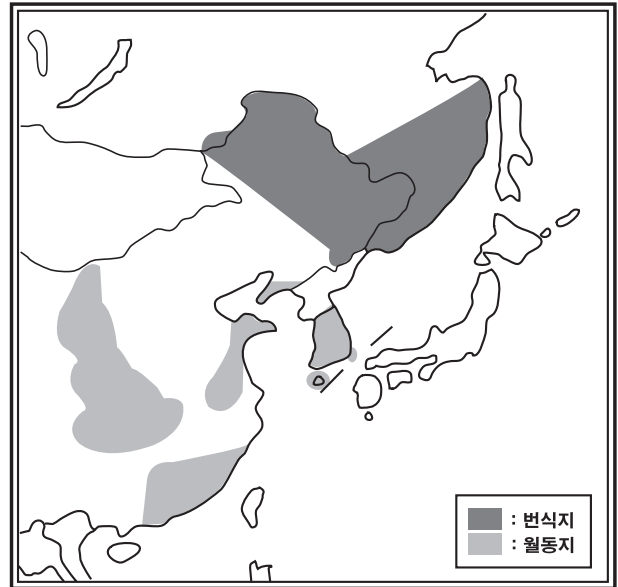
IUCN 범주: EN (위기종)

## ● 요약

물 흐름이 비교적 빠른 맑은 하천, 저수지, 호수, 육지와 인접한 해안에 국지적으로 도래하는 겨울철새이자 국제적 보호종이다. 전 세계 2,500개체가 생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2006년 최대 51개체가 관찰된 바 있다. 환경변화에 민감한 특성 때문에 하천정비와 같은 개발에 의해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최근에는 20개체 미만의 개체가 도래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위기종(EN)으로 평가했다.

## ● 형태

몸길이 약 60cm, 눈은 검은색이고, 붉은색 부리 끝에 노란 점이 있다. 수컷의 머리와 목은 검은색이고 초록색 광택이 난다. 앞목에는 뒷가슴으로 이어지는 흰색 세로띠가 있다. 허리와 옆구리에 검은색 반달무늬가 있고 가슴은 흰색이다. 암컷 머리는 연한 갈색이며 수컷에 비해 댕기가 짧다. 등은 회색이다(원 1996; 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시베리아의 산악하천 상류 침엽수림대 및 숲이 우거진 강변 독에 서식하며 중국 동북지방에서도 최근 번식이 확인되었다. 중국 동북지방에서 번식하는 개체들은 주로 중국 남부의 하천이나 호수에서 겨울을 난다. 각종 어류를 즐겨 먹고, 한배에 알을 8-10개 낳는다(원 1996; 이 등 2000).

## ● 분포 현황

서울, 강릉, 경상북도, 산청, 제주도 등 주로 맑은 하천 및 육지와 인접한 해안에 국지적으로 소규모의 무리가 분포한다.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에서는 번식하지 않는 겨울철새다.

## ● 서식지 동향

강원도, 대전, 경상북도 등지의 산악지역 맑은 하천에서 소수가 서식한다.



## ● 개체수 현황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에서 51개체 이하(1999-2000년 0개체, 2001년 13개체, 2002년 2개체, 2003년 0개체, 2004년 1개체, 2005년 18개체, 2006년 51개체, 2007년 18개체, 2008년 12개체, 2009년 14개체, 2010년 10개체)를 관찰한 기록이 있다(환경부, 1999-2010). 지역적으로는 1988년 남대천에서 농약에 중독되어 쓰러진 1쌍이 관찰된 바 있으며, 2006년 경기도 가평 북한강에서 최대 46개체가 관찰된 바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1995년 2월 2개체, 1997년 1월 2개체, 3월 2개체가 관찰되었다. 경상북도 임하호에서도 2001년 1월 12개체가 관찰되었으며, 경상남도 산청군에서는 1996년 1월 2개체, 2000년 11월 30개체, 2001년 10월 20개체가 관찰되었다(박 2002). 제주도에서는 표선면 해안에서 2001년 1월 1개체가 관찰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한강에서 2005년 2개체, 2008년 1월 2개체, 2009년 12월 2개체가 관찰되었다(문화재청 2006, 2007)

## ● 국제 동향

러시아 남동부와 몽골, 중국, 북한 등지에서 번식하며, 한반도에는 북쪽지역에서 일부 집단이 번식한다. 전 세계 2,500개체가 생존해 있으며, 감소추세에 있다(IUCN 2010).

## ● 위협 요인

환경변화에 민감한 특성 때문에 서식지 파괴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물의 흐름이 빠른 강이나 하천, 호수, 저수지에서 하천정비 사업으로 인한 수심 및 유속의 변화에 의한 영향이 크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I 급,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448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 ● 평가 결과: EN A1c

전 세계에 약 2,500개체가 있으며, 그 중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최대 51개체가 관찰된 이후 20개체 미만의 수가 관찰되고 있다. 비교적 맑은 담수에 서식하는 종으로 도래 개체수가 적고 서식환경도 제한적이며, 유속이 빠른 강, 하천 등지에서 하천정비 사업으로 서식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IUCN 적색목록 분류 기준의 위기종(EN) A1c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문화재청. 2006. 2006년 천연기념물 모니터링. 문화재청. 124pp.
- 문화재청. 2007. 중장기 천연기념물(동물) 분포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 182pp.
- 박진영. 2002. 한국의 조류 현황과 분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병오. 1996. 한국의 조류. 교학사. 453pp.
-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320pp.
- 환경부. 1997-2009.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Mergus squamatus* is has a very small population which is suspected to be undergoing a continuing and rapid decline as a result of habitate loss, illegal hunting and disturbance. It occurs irregularly with small numbers(usually 1 or 2 individuals, maximum 51 in 2006) in winter: Gangneung Namdaejeon, Bukhan river, Han river, Jeju Is., Sancheong-gun etc. It breeds in Khabarovsk, Amur, the Jewish Autonomous Region and Primorye in south-east Russia, North Korea and Heilongjiang, Jilin and Inner Mongolia in north-east China. The global breeding population is estimated at fewer than 2,500 individuals and declining. It meets the criteria for EN A1c.

집필자: 김창회(국립환경과학원), 송민정(한국환경생태연구소)

# 혹고니

*Cygnus olor* Gmelin, 1789

## 분류학적 위치

기러기목(Anseriformes) 오리과(Anatid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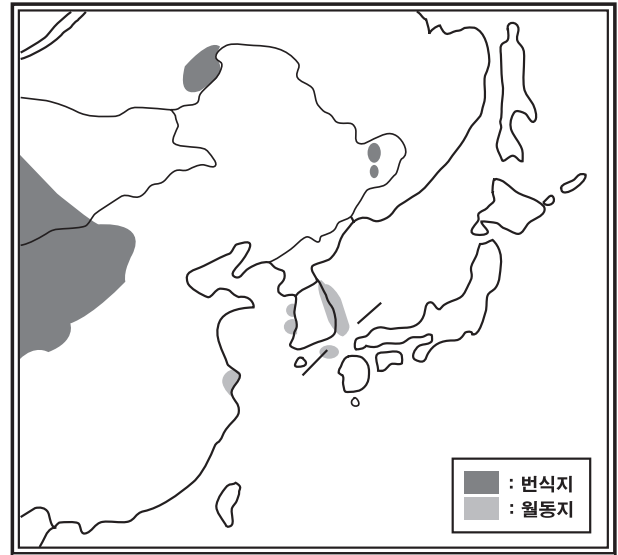
영명: Mute Swan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1급, 천연기념물 제201-3호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고니류 중 월동 집단이 가장 적은 겨울철새다. 동해안의 석호를 중심으로 도래하는 개체로 1980년 국내 관찰기록 중 가장 많은 145개체를 관찰한 기록이 있으나, 1999년부터 2010년 겨울철 조류동시센서스를 통해 2002년 최대 29개체가 관찰되는 등 최근에는 그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주요 위협 요인은 호수 주변의 일주도로 조성 및 관광지 개발, 호수의 잦은 결빙 등이다. 도래 집단의 급격한 감소 및 개발에 따른 출현지역의 변화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에서는 위기종(EN)으로 평가했다.



## ● 형태

대형 물새류로 몸길이는 약 152cm, 몸 색깔은 암수 모두 흰색이다. 눈앞의 피부와 윗부리 기부 양쪽, 윗부리 기부의 큰 혹, 아래 부리는 검은색이다. 윗부리의 나머지 부분은 붉은색을 띤 황색이고 다리는 회색, 발톱은 갈색이다(원 1996; 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우리나라에서는 6·25전쟁을 경계로 해 찾아오는 수가 많이 줄어들었으며, 강원도 화진포에서 강릉 경포호에 걸쳐 최대 145개체의 무리가 찾아와 겨울을 난다. 이들은 동해의 해안선을 따라 남하했다가 이듬해 다시 북쪽으로 올라간다. 먹이를 찾을 때는 몸을 거꾸로 해 물속에 머리를 목까지 넣어 먹이를 찾아 먹는다. 번식은 갈대와 수생식물이 무성한 호수나 습지의 작은 섬에서 풀잎과 줄기 그리고 흙을 이용해 둥지를 만든다. 번식기는 4월 중순에서 5월이며, 한 번에 알을 5-7개 낳는다. 알 색깔은 청록색을 띤 흰색이다. 암컷이 주로 포란하며, 포란 기간은 35-36일이다. 먹이는 수생식물을 주식으로 하고 수서동물도 먹는다(원 1996; 이 등 2000).

## ● 분포 현황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의 해안가에 위치한 호수, 저수지, 강에 도래한다. 특히 동해안의 해안선을 따라 강원도 화진포호, 송지호, 경포호 등지에서 다른 고니류에 섞여 적은 무리가 월동했으나, 1990년대 들어 청초호에 더 이상 도래하지 않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송지호에도 도래하지 않는다. 1990년 중반 이후 경기도 남양만, 충청남도 천수만, 대호저수지, 경상북도 형산강, 고성지역 등 전라도와 경상도의 해안과 하천에서 적은 수가 발견되고 있다(김 등 2010).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에서는 번식하지 않으며 겨울철에 비정기적으로 도래하는 겨울철새다.

## ● 서식지 동향

하구, 저수지, 호수 등지에 서식한다. 주요 서식지는 화진포호, 경포호 등이었으나 최근에는 화진포호와 천수만에서 드물게 관찰되고 있다.

## ● 개체수 현황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에서 최대 29개체(1999-2001년 0개체, 2002년 29개체, 2003-2004년 0개체, 2005년 1개체, 2006-2008년 0개체, 2009년 6개체, 2010년 7개체)를 관찰한 기록이 있다(환경부, 1999-2010). 지역적으로는 강릉 경포호에서 1968년 1월에 24개체, 1974년 2월에 8개체가 관찰된 바 있으며, 속초 청초호에서 1977년 1월 12개체가 관찰되었다. 화진포호에서 1980년 1월 145개체가 관찰되어 국내 기록 중 최대였으며, 그 이후로는 개체수가 급감했다(원 1992, 1993; 박 2002; 문화재청 2009). 2000년도 이후에는 전라남도 고흥 정암저수지에서 2002년 4개체가 월동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2003년 12월 시화호 어섬과 터미섬 사이에서 4개체가 처음으로 관찰된 바 있으며, 2005년 행주대교와 팔당댐 사이에서도 1개체가 관찰된 바 있다(이 등 2004; 문화재청 2006, 2007).

## ● 국제 동향

유럽 북부, 아프리카 북부, 러시아의 중남부, 몽골, 아시아 서남부, 한국, 일본, 인도 등지에 분포한다. 야생 상태의 전 세계 개체수는 약 500,000개체이며, 동아시아 개체군은 1,000-3,000개체다. 중국에서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목록 2급으로 보호하고 있다(國務院 1988; BirdLife International 2001; Wetlands International 2002; 自然環境研究センター 2002; IUCN 2010).

## ● 위협 요인

화진포 호수 주변 일주도로 개통, 관광지 조성, 수변 갈대나 수초 제거 등 서식환경의 악화, 호수 주변 개발에 따른 인간의 호수 내 접근용이 등으로 먹이 활동 및 휴식에 영향을 주고 있어 도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그 외 얇은 수심으로 인해 겨울철 호수 결빙이 잦아 종의 안정적인 서식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 급,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201-3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 ● 평가 결과: EN A1c

과거 동해안의 석호를 중심으로 1980년 최대 145개체가 관찰된 바 있는 겨울철새였으나 1999년부터 2010년 조사를 통해 국내에 도래하는 개체가 급감해 2010년에는 10개체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도래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한 개발에 의해 서식환경이 파괴됨으로써 도래 집단이 급격하게 감소되었으며, 안정적으로 도래할 수 있는 호수 및 습지를 찾아 흩어져 관찰되는 양상을 보이는 점, 개발에 따른 호수 및 습지 등의 축소 시 도래 집단이 사라질 가능성 등을 고려해 IUCN 적색목록 기준의 위기종(EN) A1c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 BirdLife International. 2001. Threatened birds of Asia: The BirdLife International Red Data Book. Cambridge UK.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Wetlands International. 2002. Waterbird Population Estimates-Third Edition. Wetlands International Global Series No. 12, Wageningen, The Netherlands. pp.69.
- 國務院. 1988. 中國國家重點保護野生動物名簿. <http://zh.wikipedia.org>.
- 김창희, 강종현, 이윤경, 김동원, 서재화, 김명진. 2010.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멸종위기조류의 국내 분포현황. 한국조류학회지, 17: 67-137.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2009. 천연기념물 · 명승-동물. pp.76.
- 문화재청. 2006. 2006년 천연기념물 모니터링. 문화재청. 124pp.
- 문화재청. 2007. 중장기 천연기념물(동물) 분포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 182pp.
- 원병오. 1992. 천연기념물: 동물편. 대원사. 392pp.
- 원병오. 1993. 한국의 새. 교학사. 447pp.
- 원병오. 1996. 한국의 조류. 교학사. 453pp.
- 이시완, 송민정, 이한수, 최종인. 2004. 시화간척지에 도래하는 물새류 현황 및 보전 방안. 한국습지학회지, 6(1): 73-87.
-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320pp.
- 自然環境研究センタ—. 2002. 改正・日本の絶滅のおそれのある(レッドデータブック)野生生物: 鳥類. 環境省. 日本. 278pp.
-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Cygnus olor* is a species of swan, and occurs irregularly with small numbers in winter. It found mainly at Kungpo lake, Chungcho lake, Songji lake along the coast of East Sea. Hwajinpo lake is the largest winter site. Since early in the 1990, it didn't find at Chungcho lake, Songji lake. In the middle of the 1990, it found a small population in now site: Cheonsu bay, Daeho reservoir, Hyeongsan river, Goseong etc at Jeonra Province and Kyungsang Province. It was occurred maximum 145 in 1980, nowadays less than 10. The global total native population of Mute Swans is about 500,000 birds. And East Asia population is about 1,000-3,000 individuals. It meets the criteria for EN A1c.

집필자: 김창희(국립환경과학원), 송민정(한국환경생태연구소)

# 황새

*Ciconia boyciana* Swinhoe, 1873

## 분류학적 위치

황새목(Ciconiiformes) 황새과(Ciconiidae)

영명: Oriental Stork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1급, 천연기념물 제19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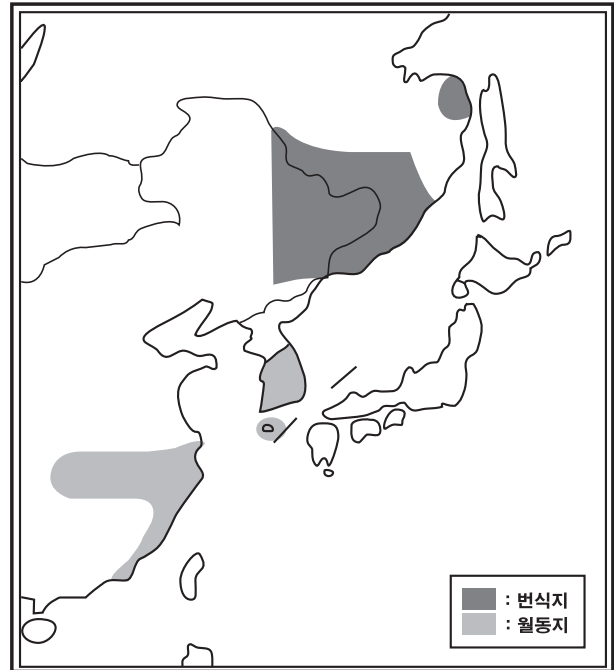
IUCN 범주: EN (위기종)

## ● 요약

과거 국지적으로 번식하던 흔한 텃새였으나, 1971년 이후 번식 쌍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현재는 소수의 무리가 겨울철에 월동하는 국제적인 희귀종이다. 개발에 따른 서식지 감소, 농약 사용으로 인한 먹이원 감소 등이 주 위협 요인이다. 최근에는 황새의 복원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전 세계 생존 집단 중 1%정도가 월동하고 있으나 월동 개체의 변동이 크고 분포역이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에서는 위기종(EN)으로 평가했다.

## ● 형태

몸길이는 112cm 정도로 대형이며, 땅에 앉아있을 때는 날개 뒤쪽과 꼬리가 검은색으로 보이지만 날 때는 날개 끝만 검은색이며, 온몸은 흰색이다. 암수가 같은 색이어서 야외에서 구별하기는 어렵다. 부리는 검은색으로 크고 뾰족하며, 다리와 눈 주위는 붉은색이다. 날 때는 목을 쭉 뻗고 난다(원 1996; 이 등 2000; 이와 이 2009).



## ● 생물학적 특성

넓은 초원이나 습지 등에서 어류, 양서류, 파충류, 곤충류 등 다양한 동물을 먹는다. 매년 같은 동지를 보수해서 사용하며 무리지어 번식하지 않는다. 번식기는 3월 중순부터 5월 사이이며, 초원이나 낮은 산 등지의 큰 나무나 인공철탑, 전신주 등에 나뭇가지를 이용해 동지를 짓는다. 번식기에는 부리를 부딪쳐서 '가락, 가락, 가락' 하는 소리를 낸다. 한 번에 알 3-4개를 낳으며, 알 색깔은 흰색이고, 낮에는 주로 암컷이 알을 품는다. 먹이는 주로 어류, 양서류, 연체동물, 곤충류, 들쥐와 같은 작은 포유류, 뱀류, 소형 조류의 어린 새를 잡아먹는다. 월동지에서는 붕어, 미꾸리, 살치와 같은 어류, 우렁이류, 말뚝게와 같은 갑각류, 땅강아지 등의 곤충류, 참개구리 등의 양서류, 무자치와 같은 뱀류를 먹는다(원 1996; 이 등 2000; 김 등 2008; 성 등 2008, 2009; 문화재청 2009; 이와 이 2009).

## ● 분포 현황

1950년까지 전국적으로 번식하는 텃새이자 겨울에는 일부 북쪽에서 번식한 무리가 도래해 월동하는 겨울철 새였으나 1970년대 말 번식 집단이 완전히 사라진 이후에는 천수만, 해남, 제주도, 순천만, 낙동강 하구, 대구, 우

포뉴, 울산, 사천, 주문진 등에 겨울철에 소수가 도래한다.

## ● 번식지 동향

현재 우리나라에 황새가 번식하고 있는 지역은 없으며, 과거 번식지로 알려진 지역은 4군데가 있다. 4군데의 번식지 중 하나인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켈곡리는 약 1936년부터 1945년 사이에 번식지로 이용되어 '제99호 천연기념물 예산 관(鵞)번식지'라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이곳 이외의 다른 번식지로는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로 약 1800년대 말부터 1952년까지 번식한 것으로 추정하며, 황새가 둥지를 튼 400년 정도 된 물푸레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 충청북도 음성에도 '제120호 천연기념물 음성 관(鵞)번식지' 비석이 세워져 있다.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중산리도 1920년경부터 1961년까지 황새가 번식했던 곳이며,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에서는 1971년 4월 1일 황새의 마지막 번식쌍이 발견된 곳이다. 그러나 4월 4일 밀렵꾼에 의해 수컷이 희생된 이후 해마다 암컷이 무정란을 낳았으며, 1979년 4월 초부터 5월 초까지 알을 6개 낳았다. 암컷은 계속 이 지역에서 서식하다가 1983년 농약에 중독된 것을 치료해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사육했으며, 1994년 10월 말 죽었다. 이후 번식이 확인된 적이 없으며, 현재는 한국에서 번식하던 텃새 집단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다(원 1971; 박 2002; 백 등 2004; 소 2007; 문화재청 2009).

## ● 서식지 동향

저수지, 하구, 초습지, 농경지 등 넓은 들판이나 습지대 물가에 서식하며, 간척사업 및 농지정리에 따른 소하천의 소실 등으로 서식지가 축소되거나 사라진 상태다(김 등 2008).

## ● 개체수 현황

우리나라 전역에서 1972년 5개체, 1973년 7개체, 1974년 1개체, 1976년 6개체, 1982년 3개체, 1984년 1개체, 1985년 1개체, 1988년 4개체, 1989년 9개체, 1990년 7개체, 1992년 5개체, 1993년 5개체, 1994년 5개체, 1995년 4개체, 1996년 7개체, 1997년 7개체, 1998년 6개체, 1999년 35개체, 2000년 24개체, 2001년 14개체, 2002년 10개체, 2003년 1개체, 2004년 10개체, 2005년 9개체, 2006년 6개체, 2007년 11개체를 관찰한 기록이 있다. 주요 관찰지역 중 천수만 농경지에서 1989년과 1990년 7개체가 처음 관찰된 이후 매년 소수가 월동하고 있으며, 1999년 11월 해남간척지에서도 13개체가 관찰되면서 꾸준히 소수의 무리가 관찰되고 있다. 그 외 2002년 2월에는 전라북도 익산의 어량천에서 12개체, 충청남도 보령에서 6개체, 천수만에서 4개체가 관찰된 기록이 있으며, 제주도에서도 적은 수가 관찰되고 있다(함 1997; 환경부 1997-2009; 환경부 1999-2010; 박 2002; 이와 이 2003; 김 2006; 문화재청 2006; 강 등 2008).

## ● 국제 동향

시베리아, 아무르강, 연해주 남부, 중국 동북부지방에서 번식하고, 한국, 홍콩, 일본 등지에서 월동한다. 황새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중국, 러시아, 몽골, 한국, 일본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 개체수는 3,000개체 정도로 추정된다(백 등 2004; IUCN 2010).

## ● 위협 요인

인가 주변에서 생활하며, 사람에 대한 공포심이 적어 쉽게 남획되어 희생되었다. 개발에 따른 서식지 감소와 농약 사용에 의한 논에서의 먹이 감소 등이 집단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문화재청 2009).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 급,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국지적으로 흔한 텃새였으나 그 이후 한국의 황새집단은 급격하게 감소했다. 1998년 5월 27일 천수만에서 번식지로 북상하지 않고 있던 1개체가 농약중독으로 쓰러진 것이 발견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황새를 복원하기 위해 1996년 한국교원대학교 내에 황새복원센터를 설립해 황새에 대한 증식 및 복원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충청남도 예산군에 황새마을 조성 계획이 있다(문화재청 2009).

## ●평가 결과: EN A1c

과거 국지적으로 흔하게 번식하던 텃새였으나 다양한 위협 요인에 의해 번식 개체가 사라져 전 세계 개체군의 1% 수준의 월동 개체가 관찰되고 있다. 197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자연 상태에서 번식 개체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종 복원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개체의 복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번식지에 대한 정보가 국지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월동 개체 중 많은 수가 천수만, 해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관찰되고 있으나 개체수의 변동이 심하며, 농지정리 등 농촌 환경변화로 인한 서식지의 축소 등이 종의 번식 및 서식에 외부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IUCN 적색목록 분류기준의 A1c를 적용해 위기종(EN)으로 평가 되었다.

## ●참고문헌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김수경, 김남신, 정석환, 김영훈, 성하철, 박시룡. 2008. GIS를 이용한 황새(*Ciconia boyciana*) 번식지의 환경특성-1970년대의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1(1): 125-137.
- 김수경. 2009. GIS 기반 다기준평가 기법을 이용한 황새(*Ciconia boyciana*) 재도입 적합지 평가.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희. 2009. 먹이 밀도와 수심의 변화에 따른 황새(*Ciconia boyciana*)의 섭식행동 특성.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현. 2006. 서산 A,B지구 간척지에 도래하는 황새(*Ciconia boyciana*)의 월동 생태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2009. 천연기념물·명승·동물. pp.66.
- 문화재청. 2006. 2006년 천연기념물 모니터링. 문화재청. 124pp.
- 문화재청. 2007. 중장기 천연기념물(동물) 분포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 182pp.
- 박진영. 2002. 한국의 조류 현황과 분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인환, 김세빈, 백운기. 2004. 천연기념물 황새의 종복원과 지역활성화에 대한 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지, pp.100-102.
- 성하철, 김정희, 정석환, 김수경, 조지연, 정미라, 최유성, 박시룡. 2009. 먹이 밀도와 수심에 따른 황새(*Ciconia boyciana*)의 섭식 행동에 대한 사례연구. 환경생물학회지, 27(2): 155-163.
- 성하철, 정석환, 김정희, 김수경, 박시룡. 2008. 자연상태에서 황새의 섭식 행동과 서식지 선택에 대한 사례연구. 환경생물학회지, 26(2): 121-127.
- 소문숙. 2007. 우리나라 문헌에 나타난 황새(*Ciconia boyciana*)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병오. 1971. 천연기념물로 된 새들. 새가정사. pp.25-29.
- 원병오. 1996. 한국의 조류. 교학사. 453pp.
- 이기섭, 이종렬. 2009. 새. 필드가이드. 288pp.
-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320pp.
- 이종남, 이시완. 2003. 울산시 태화강 하류의 철새 도래 양상. 한국조류학회지, 10(2): 87-95.



- 정석환. 2005. 황새(*Ciconia boyciana*)의 복원 및 보전을 위한 사육증식 기술개발 행동 생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함규황. 1997. 한국의 주남 · 동판저수지의 9년간('88-'96)의 천연기념물 현황. 경희대학교 한국조류연구소. 연구보고, 6(1) 63-71.
- 환경부. 1997-2009.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Ciconia boyciana* has a very small population. At one time, it breeds in South Korea. But after 1971, It couldn't be found breeding pair. Lately, it occurs irregularly a small population in winter: at Cheonsu bay, Haenam, Suncheon bay, Nakdong estuary, Jeju Is. etc. Deforestation and drainage of wetlands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are the main causes of decline in its breeding grounds. Another was hunting and collecting. The previous global population estimate for this species was 3,000 individuals. It is legally protected in Russia, Mongolia, China, including Hong Kong, Taiwan, North Korea, South Korea and Japan. Establish protected areas on the Sanjiang plain, China. Expand the Khanka State Reserve, Russia, to include all existing and potential nest-sites. Re-establish viable breeding populations in South Korea and Japan. In 1996, Korea Institute of Oriental White Stork Rehabilitation Research Center is found and trying to Rehabilitation of individuals and habitate. It meets the criteria for EN A1c.

집필자: 이기섭(한국물새네트워크), 송민정(한국환경생태연구소)

# 검은머리물떼새

*Haematopus ostralegus* Linnaeus, 1758

**분류학적 위치**

도요목(Charadriiformes) 검은머리물떼새과(Haematopodidae)

영명: Eurasian Oystercatcher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II급, 천연기념물 제32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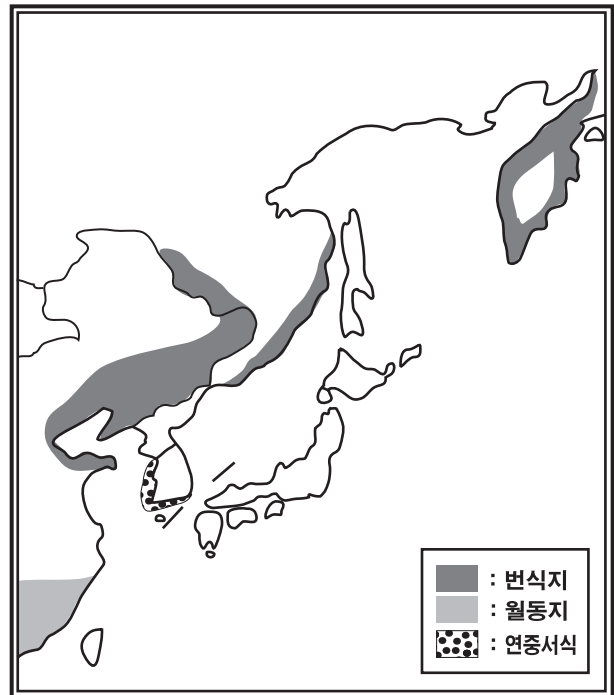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요약**

여름깃은 암컷과 수컷 모두 등 아래, 허리, 위꼬리덮깃, 가슴 아래, 배가 흰색이며 나머지 몸 깃털은 검은색이다. 무인도의 암초가 있는 곳, 하구의 삼각주, 갯벌 등지에서 작은 무리를 이루어 사는 텃새이며, 서해안 연안 갯벌지역과 일부 남해안의 갯벌지역에서 주로 분포한다. 매년 관찰되는 개체수의 변동이 크고, 국내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서식하는 종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취약종(VU)으로 평가했다.

**● 형태**

여름깃은 암컷과 수컷 모두 등 아래, 허리, 위꼬리덮깃, 가슴 아래, 배가 흰색이며 나머지 몸 깃털은 검은색이다. 부리와 다리는 홍색이며, 부리 끝이 검은색을 띤다(원 1981, 이 등 2000).



**● 생물학적 특성**

무인도의 암초가 있는 곳, 하구의 삼각주, 갯벌 등지에서 작은 무리를 이루어 사는 텃새다. 갯벌에 길고 뾰족한 부리를 깊숙이 넣어 먹이를 잡으며, 조개류의 껍데기 사이에 부리를 넣고 비틀어 연다. 번식기가 되면 수컷이 암컷 앞에 서서 머리를 숙이고 부리를 땅 위에 댄 채 좌우로 흔들어 구애한다. 둥지는 하구의 작은 섬이나 연안 무인도의 땅 위, 암초 위의 오목한 곳에 접시모양으로 만들고 안에 해안에서 얻은 풀을 깐다. 4월 중순-5월에 알 2-3개를 낳는다. 알은 황갈색 바탕에 크고 검은 갈색 무늬와 회색 얼룩점이 있다(문화재청 2009).

**● 분포 현황**

주로 서해안 연안 갯벌지역과 일부 남해안 갯벌지역에 분포한다. 금강 하구와 만경강, 순천만, 낙동강 하구에 서도 확인된 바 있다.

**● 번식지 동향**

1917년 영산강 입구 작은 섬에서 처음으로 알을 발견했으며, 1964년 6월 군산 앞바다 고군산 군도에서 20개체, 1971년 강화도 매송도 주변 작은 섬에서 번식을 확인했다. 같은 장소에서 1972년 18개체, 1973년 6개체와 암초에서 포란 중인 알 2개가 확인되었다. 1979년 7월 목포 비금도 사이의 갯벌과 1980년 7월 군산 선유도 등

해안 도서에서 100여 개체의 번식 집단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문화재청 2009).

## ● 서식지 동향

갯벌지역을 주로 선호한다.

## ● 개체수 현황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에서 526-5,504개체(1999년에 3,984개체, 2000년에 526개체, 2001년에 2,516개체, 2002년에 3,556개체, 2003년에 5,504개체, 2004년에 2,272개체, 2005년에 3,694개체, 2006년에 2,809개체, 2007년에 1,043개체, 2008년에 3,352개체, 2009년에 4,382개체, 2010년에 4,929개체)가 관찰되었다(환경부, 1999-2010).

## ● 국제 동향

유럽과 서북아프리카에서 약 1,020,000개체, 동북아프리카, 아바리안, 페르시안, 서북인도에서 약 100,000개체, 일본, 한국, 동중국, 대만에서 약 10,000개체가 확인되었다(Wetlands International 2002).

## ● 위협 요인

간척사업 및 해양환경 오염으로 서식지가 훼손되고 이들의 서식지인 무인도에 사람들의 출입이 증가하면서 위협을 받고 있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I 급,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326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 ● 평가 결과: VU A1c

매년 관찰되는 개체수의 변동이 크고, 국내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서식하는 종인 점을 고려해 취약종(VU) A1c로 평가 되었다.

## ● 참고문헌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Wetlands International. 2002. Waterbird Population Estimates-Third Edition. Wetlands International Global Series No. 12, Wageningen, The Netherlands. pp.141.
-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pp.585-588
-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128.
- 문화재청. 2009. 문화재대관 천연기념물·명승 동물. 문화재청. pp.144-147.
-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
- 환경부. 2000-2009.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Haematopus ostralegus* is large mudflat species that breeding in southern Korea. It has restricted distribution with a very small population. They feed on crustaceans in the shallow waters of mudflats. Nowaday, its habitate has been greatly reduced,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required to conserve this species. International population size estimated about 1,130,000 mature individuals in 2010. It observed more then 5,000 individual at West coast. It meets the criteria for VU A1c.

집필자: 김진한(국립생물자원관), 이한수(한국환경생태연구소)

# 검은머리촉새

*Emberiza aureola* Pallas, 1773

## 분류학적 위치

참새목(Passeriformes) 멧새과(Emberizidae)

영명: Yellow-breasted Bunting

지정현황: -

IUCN 범주: VU (취약종)

## ● 요약

주로 5월과 9월에 한국을 통과하며, 멧새과의 다른 종에 비해 작은 집단이 지나간다. 숲과 농경지, 갈대밭 등에서 주로 관찰되며, 통과시기에 따라 관찰되는 개체군수가 적어 우리나라에서는 취약종(VU)으로 평가했다.

## ● 형태

수컷은 얼굴과 턱이 검은색이고 배는 선명한 노란색이다. 가슴에는 갈색 띠가 있다. 이마, 머리꼭대기에서부터 등, 허리는 갈색이다. 등에는 검은색 줄무늬가 있다. 옆구리에는 어두운 갈색 줄무늬가 있다. 날개에는 선명한 흰색 띠가 두 줄 있다. 암컷은 눈썹선과 배는 연한 노란색이며 옆구리에 어두운 갈색 줄무늬가 있다(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여름에는 암수가 함께 생활하며 대개 군서 생활을 하지 않는다. 초지나 관목 초지 속 또는 숲속 초지의 땅 위에 둥지를 짓는다. 둥지는 키 작은 나무의 뿌리 근처에 마른 풀, 화분과 식물의 가느다란 풀줄기, 가는 뿌리 등으로 밥그릇처럼 오목한 둥지를 만든다. 번식기는 5월 하순에서 7월 중순이며, 한 번에 알 4-5개를 낳는다. 구북구의 동부 및 중부, 동남아시아의 열대 저지대에서 겨울을 지내며, 바닥에는 거의 내려오지 않는다(원 1981; 이 등 2000; 이와 이 2009).

## ● 분포 현황

한국의 전역에 분포하며, 이동 시기에는 농경지, 하천가, 갈대밭, 인가 부근의 소림, 구릉, 활엽수 및 혼효림 숲 속 등 도처에서 눈에 띈다.

## ● 번식지 동향

봄가을에 통과하는 철새로 국내 번식기록이 없다.

## ● 서식지 동향

흔히 땅 위에서 먹이를 찾으며 때로는 관목, 교목, 잡초의 이삭 끝에 앉기도 한다. 초지나 관목 초지 속 또는 숲속 초지의 땅 위에 등지를 튼다.

## ● 개체수 현황

1961-1963년 서울시 부근에서 9-10월에 80여 개체가 넘는 많은 수를 채집한 기록이 있으며(박 2002), 1993년 강화도, 영종도, 제주도에서 61개체, 1996년 천수만에서 1개체, 1997년 독도에서 1개체, 1998년 백령도와 대청도에서 8개체, 1999년 동진강에서 12개체, 2000년 천수만, 흑산도, 가거도에서 179개체, 2001년 천수만, 강화도에서 4개체, 2006년 서산, 근흥, 만리포 지역을 중심으로 56개체, 2007년에는 대청도에서 2개체, 2008년 연천 등지에서 8개체를 관찰한 기록이 있다(박 2002; 환경부 2006-2009).

## ● 국제 동향

캄차카 반도, 오후츠크해 연안, 아무르지역, 산타르 섬, 만주, 사할린, 쿠릴열도, 홋카이도 등지에서 번식한다. 만주, 한국, 중국 동부를 거쳐 이동 남하해 중국 남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월동한다(원 1981).

## ● 위협 요인

기온변화와 각종 개발에 따른 서식지 파괴로 개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 ● 특기 사항

국제적으로 2004년에는 준위협종(NT)이었으나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8년부터 취약종(VU)으로 분류되었다(IUCN, 2010).

## ● 평가 결과: VU A1c

봄가을 이동 시기에 잠시 관찰되는 종으로, 관찰시기에 따라 개체수의 변화가 크고 소수의 집단이 관찰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IUCN의 적색목록 분류 기준에 따라 취약종(VU) D(1)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박진영. 2002. 한국의 조류 현황과 분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264.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1,126pp.  
환경부. 2006-2008.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Emberiza aureola* breeds in wet meadows with tall vegetation and scattered scrub, riverside thickets and secondary scrub across the northern Palearctic. Its range includes Finland, Belarus and Ukraine in the west, through Kazakstan, China and Mongolia, to far eastern Russia, Korea and northern Japan. In the autumn, birds stop-over in large numbers to moult in the Yangtze Valley, China before continuing on to their winter quarters. It winters in large flocks in cultivated areas, rice fields, reedbeds and grasslands throughout a relatively small area in southern and south-east Asia which includes eastern Nepal, north-east India, Bangladesh, Myanmar, southern China, Cambodia, Laos, Vietnam and Thailand. Food includes small invertebrates. Breeding season late May to Jul. World population is gradually decreased. It meets the criteria for VU D(1).

채희영(국립공원철새연구센터), 이한수(한국환경생태연구소)

# 고니

*Cygnus columbianus* Ord, 1815

## 분류학적 위치

기러기목(Anseriformes) 오리과(Anatidae)

영명: Tundra Swan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Ⅲ급, 천연기념물 제201-1호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겨울철새이며, 한강 하구를 비롯한 남해안과 동해안 일대의 간척지 및 호수에 도래한다. 갯벌과 습지의 매립으로 얕은 수심이 소실되고 서식지의 단편화가 진행됨에 따라 취식지와 먹이원이 줄어들어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취약종(VU)으로 평가했다.

## ● 형태

어미 새는 온몸이 흰색이며 어린 새는 흰색 바탕에 검은 무늬가 있다. 언뜻 보면 큰고니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큰고니보다는 크기가 작고 노란색 부리 끝에 있는 검은색이 훨씬 깊게 들어와 있다. 암수의 깃털 색이 서로 비슷하며 야외에서의 구별은 어렵다.



## ● 생물학적 특성

얕은 호수나 늪지대 등에서 자맥질해 물풀의 잎, 줄기 또는 뿌리 등을 먹으며 가끔은 농경지나 초원에서 먹이를 구한다. 10월경에 찾아와 이듬해 3월 초까지 머무는 겨울철새다. 큰고니보다 북쪽(툰드라 지대)에서 번식하며 풀잎과 줄기, 흙을 이용해 화산모양의 둥지를 만든다. 호수에서 날아오를 때는 마치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것과 같다.

## ● 분포 현황

강원도 동해안의 화진포에서 강릉에 이르는 사이의 송지호, 봉진호, 경포호, 속초시 청초호 및 영랑호 등 크고 작은 석호와 습지에 최소 7-8개체, 최대 20-30개체로 분산해 월동하고, 부산시 낙동강 하구, 태화강, 주남저수지, 금강 하구, 천수만 등에도 큰고니 무리에 섞여 월동한다.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에서 번식하지 않는 겨울철새다.

## ● 서식지 동향

고니는 호수, 강 하구, 해안, 초습지, 농경지, 간척지 등지에 서식한다.



## ● 개체수 현황

고니는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에서 45-792개체(1999년에 792개체, 2000년에 397개체, 2001년에 301개체, 2002년에 219개체, 2003년에 220개체, 2004년에 56개체, 2005년에 72개체, 2006년에 177개체, 2007년에 61개체, 2008년에 48개체, 2009년에 65개체, 2010년에 45개체)가 관찰되었다.

## ● 국제 동향

일본과 중국 남부 등지에서 86,000여 개체가 확인된바 있다. 국제적으로 북미 동부에 98,000여 개체가 확인되었고 미국 서부지역에 90,000여 개체, 유럽 북서부지역에 1990년대 29,000여 개체, 카스피안해에 500여 개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 위협 요인

갯벌과 습지의 매립으로 서식지의 단편화가 진행됨에 따라 취식지와 먹이원이 줄어들고 있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I 급,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201-1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 ● 평가 결과: VU A1ac

과거에는 낙동강 하구에 500-1,000개체가 도래했으나(박 2002), 그 후의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에서 이보다 적은 개체수가 도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분포역이 제한되고 서식지도 훼손되고 있어 개체수 및 개체군 수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IUCN 적색목록 기준에 따라 취약종(VU) A1ac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Wetlands International. 2002. Waterbird Population Estimates-Third Edition. Wetlands International Global Series No. 12, Wageningen, The Netherlands. pp.70.
- 문화재청. 2009. 문화재대관 천연기념물·명승 동물. 문화재청. pp.70-71.
- 박진영. 2002. 한국의 조류 현황과 분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1,126pp.
-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320pp.
-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

*Cygnus columbianus* is winter visitor in Korea. Wintering population is very small in south Korea. Food is mainly leaves, roots. Wintering population observed at several sites in East coast, Junam lake, Cheonsu-bay, Nakdong-river. Nowadays,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required to conserve this species. This Tundra Swan qualifies as Vulnerable because it has a very small, declining population as a result of loss and degradation of wetlands through conversion to agriculture and industrial development. It meets the criteria for VU A1ac.

집필자: 김창희(국립환경과학원), 신용운(한국환경생태연구소)

# 긴꼬리딱새(삼광조)

*Terpsiphone atrocaudata* Eyton, 1839

## 분류학적 위치

참새목(Passeriformes) 긴꼬리딱새과(Monarchidae)

영명: Black Paradise Flycatcher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II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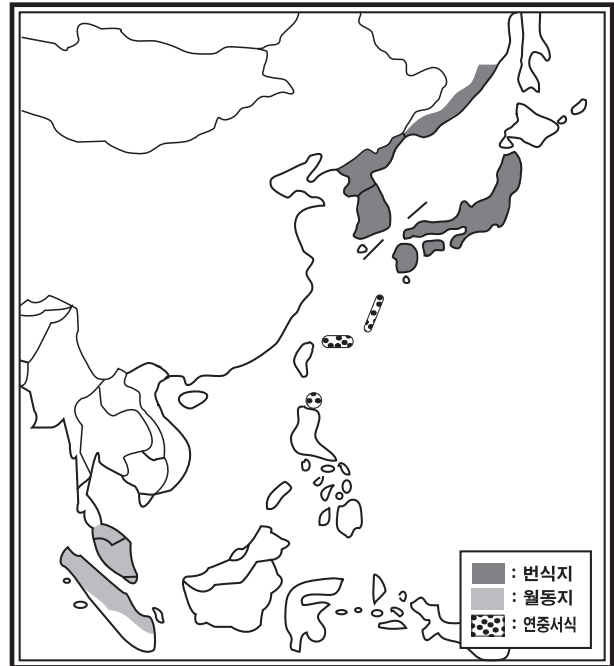
IUCN 범주: NT (준위협종)

## ● 요약

희귀한 여름철새이며, 한반도 전역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주로 남부 도서지역에서 번식 기록이 있다. 겨울에는 중국 동부와 대만을 거쳐 중국 남부, 말레이반도, 수마트라 등지에서 월동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취약종(VU)으로 평가했다.

## ● 형태

이 종의 수컷은 백색형과 밤색형 두 종류가 있다. 백색형의 겨울깃은 이마에서 뒷머리까지 푸른색 금속광택이 있는 검은색이며, 머리꼭대기 깃털은 관모양을 형성한다. 기타 몸 윗면은 흰색이지만 검은색의 깃 가장자리가 있어서 회색빛으로 보인다. 머리 옆, 목옆, 턱밑, 턱 아래 부위는 푸른색의 금속광택이 있는 검은색이다. 몸 아랫면은 흰색이다. 밤색형은 부리와 눈테는 파란색이며, 머리 전체, 목옆, 앞목은 금속광택이 강한 어두운 푸른색이다. 등과 어깨는 다소 자색 광택이 있는 붉은 밤색을 띤다. 암컷의 겨울깃은 머리 부분이 푸른색 광택이 있는 검은색으로 수컷보다 왕관모양의 깃이 짧다.



## ● 생물학적 특성

비교적 낮은 산의 어두운 숲에 서식한다. 둥지는 큰 나무의 작은 가지에 나무껍질을 주재료로 해서 컵모양으로 만든다. 알 낳는 시기는 5-7월이다. 알은 흰색이나 장밋빛 바탕에 붉은 갈색과 옅은 자주색 얼룩점이 있으며, 3-5개 낳는다.

## ● 분포 현황

우리나라 전역에서 번식하며, 특히 제주도 및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 ● 번식지 동향

제주도, 거제도, 함평군 등 활엽수림이 분포하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번식한다. 과거에는 전국적으로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원, 1981), 최근에는 제주, 경상남도 거제도, 남해안의 도서지역에 도래해 번식하고 있다.

## ● 서식지 동향

인공 조림지, 잡목림, 낙엽활엽수림에 서식한다. 물이 있는 저지대나 계곡이 있는 활엽수림 지역을 선호한다.

## ● 개체수 현황

2004년 제주도 서귀포에서 8개체, 2005년 금오도, 2006년 진안군에서 1개체, 2008년 부산, 진해지역에서 5개체를 관찰한 기록이 있다. 도래 개체수는 50개체 정도로 추정되지만, 정밀조사가 수행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홍도에서 2개체를 관찰한 기록이 있으며, 2009년 제주도에 12쌍, 함평에 1쌍이 번식한 기록이 있다(환경부 2005-2008; 김 등 2010).

## ● 국제 동향

일본과 한국에서 번식한다. 겨울에는 중국 동부와 대만을 거쳐 중국 남부, 말레이반도, 수마트라 등지에서 월동한다. 최근에 국제적으로 개체수가 감소해 멸종위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 위협 요인

기온변화와 각종 개발에 따른 서식지 파괴로 개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개체수와 개체군수도 매우 적어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I급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 ● 평가 결과: VU A1c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하지만 최근 제한적으로 번식지가 확인되고 있다. 골프장 건설, 도로개설 등 인위적 또는 자연적 요인 등에 의해 서식지가 훼손되어 우리나라에 멸종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IUCN 적색목록 기준에 따라 취약종(VU) A1c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del Hoyo, J., A. Elliott and Christie, D.A. eds. 2006.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11. Lynx Edicions, Barcelona. 798pp.
- 국립공원관리공단. 2009 조류 조사·연구 결과 보고.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
- 김영호, 오홍식, 장용창, 최수산. 2010. 삼광조(*Terpsiphone atrocaudata*)의 등지 장소 선택 환경. 한국조류학회지 17(1): 11-19.
- 박진영. 2002. 한국의 조류 현황과 분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1,126pp.
-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320pp.
- 환경부. 2005-2008.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Terpsiphone atrocaudata* is very rare, and many breed on Jeju Island. They food is Insects. Breeding season late May to Aug. It was migrates from Japan, East China, North part of Thailand and Peninsular Malaysia to non-breeding grounds in south Thailand, Peninsular Malaysia and Sumatral. Not globally threatened. Currently considered Near-threatened. It meets the criteria for VU A1c.

집필자: 채희영(국립공원철새연구센터), 강태한(한국환경생태연구소)

# 까막딱다구리

*Dryocopus martius* Linnaeus, 1758

## 분류학적 위치

딱따구리목(Piciformes) 딱따구리과(Picidae)

영명: Black Woodpecker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Ⅱ급, 천연기념물 제24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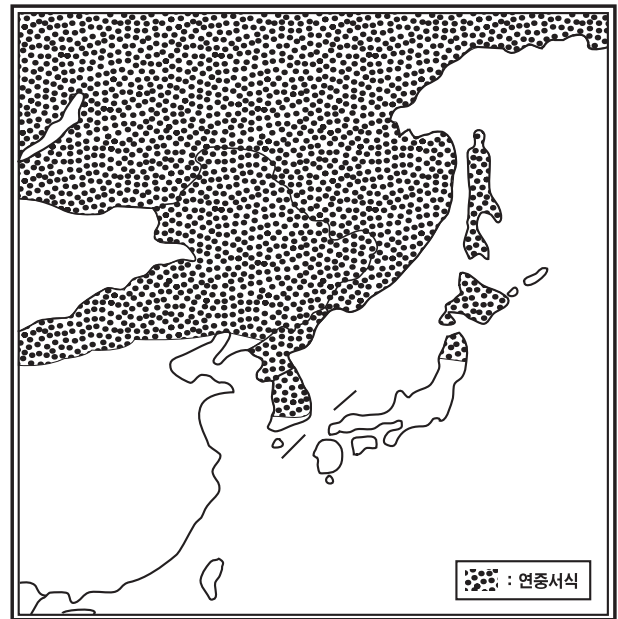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산림이 울창한 지역에서 번식하는 텃새다. 수령이 오래된 참나무, 소나무 등 고목이나 노거수가 있는 울창한 숲에 서식하며, 국내 번식기록이 있다. 러시아에 316,000쌍, 유럽에 233,000쌍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내 개체수의 밀도는 매우 낮다. 우리나라에 서는 취약종(VU)으로 평가했다.

## ● 형태

암컷과 수컷 모두 몸 전체 깃털이 검은색이다. 수컷은 이마에서 머리꼭대기를 지나 뒷머리까지 광택이 나는 어두운 붉은색이며, 암컷은 뒷머리만 붉은색이다. 부리는 회백색이며, 부리 등과 끝은 검은색이다. 튼튼한 다리는 시멘트 같은 회색이다.



## ● 생물학적 특성

활엽수와 침엽수가 함께 자라는 지역의 수령이 오래된 나무가 있는 곳을 선호하며, 산림의 평지에서 높고 험한 지대에 이르기까지 널리 서식한다. 몸을 수직으로 세워 나무줄기에 붙어 나선형으로 선회하면서 위로 올라가 인근 수목으로 옮겨간다. 부리로 나무줄기를 두들겨 가며 구멍을 파서 곤충 애벌레를 잡아먹는다. 둥지는 땅 위에서 4-25m 높이의 나무줄기에 암수가 공동으로 8-17일 동안 구멍을 파서 만든다. 알 낳는 시기는 4-6월이다. 알은 흰색으로 3-6개 낳아 14-16일 동안 품는다. 곤충류를 주로 먹으며, 식물의 열매도 먹는다.

## ● 분포 현황

강원도 삼척, 태백, 오대산 지역과 경기도 가평, 경상북도 울진, 충청남도 성주산, 충청북도 속리산 등에 분포한다.

## ● 번식지 동향

1980년 서울시 정릉, 1989년 강원도 영월, 1991년 속리산에서 번식한 기록이 있다.

## ● 서식지 동향

수령이 오래된 참나무, 소나무 등 고목이나 노거수가 있는 울창한 숲에 서식한다.

## ● 개체수 현황

전국적으로 1998년에 1개체, 2000년에 1개체, 2001년에 2개체, 2002년에 5개체, 2003년에 9개체, 2004년에 1개체를 관찰한 기록이 있다. 2006년에 강원도 춘천, 경기도 가평, 충청북도 충주 등에서 14개체, 2007년에 강원도 삼척과 태백에서 2개체를 관찰한 기록이 있다.

## ● 국제 동향

구북구의 스칸디나비아와 프랑스, 스페인에서 캄차카, 일본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분포한다. 1990년 후반에 러시아에 316,000쌍, 유럽에 233,000쌍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 위협 요인

대형 딱다구리가 서식할 수 있는 노거수나 고목 등의 자연림이 벌채에 의해 크게 훼손되어 서식지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II급, 천연기념물 제242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 ● 평가 결과: VU A1c

전국적으로 분포하나 서식지가 현재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IUCN 적색목록 기준에 따라 취약종(VU) A1c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2002.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7. Lynx Edicions, Barcelona. 613pp.
- 문화재청. 2006. 2006년 천연기념물 모니터링. 문화재청. 124pp.
- 문화재청. 2007. 중장기 천연기념물(동물) 분포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 182pp.
- 문화재청. 2009. 문화재대관 천연기념물·명승·동물. 문화재청. 291pp.
- 박진영. 2002. 한국의 조류 현황과 분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1,126pp.
- 환경부. 2006-2008.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Dryocopus martius* is rare resident in Korea. Habitat is all types of mature forest, to long as not extremely dense and gloomy also forest edge. Food is mainly ants and their brood. Breeding season are mid-Mar to mid-May. Population size estimated 316,000 pair in Russia and 233,000 pair in Europe. In Korea, low density. It meets the criteria for VU A1c.

집필자: 백운기(국립중앙과학관), 강태한(한국환경생태연구소)

# 노랑부리저어새

*Platalea leucorodia* Linnaeus, 1758

## 분류학적 위치

황새목(Ciconiiformes) 저어새과(Threskiornithidae)

영명: Eurasian Spoonbill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1급, 천연기념물 제205-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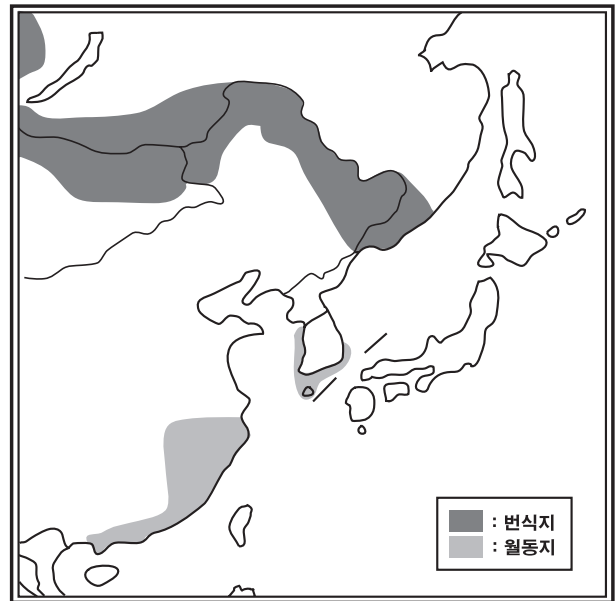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겨울철새이며, 습지나 물가 하구 등지에 서식하는 국제적 보호조류다. 물가에서 먹이를 찾으며, 겨울철에는 시화호, 순천만, 주남저수지에서 관찰된다. 동북아시아의 개체수는 6,500개체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취약종(VU)으로 평가했다.

## ● 형태

수컷은 겨울깃이 흰색이고, 눈언저리와 턱밑, 목의 중앙은 피부가 드러나 있다. 여름깃은 뒷머리에 긴 다발모양 노란 장식깃이 있으며, 목 아래 부분에는 노란 빛이 도는 갈색 목테가 있다. 암컷이 수컷보다 약간 작고 뒷목의 장식깃도 없다. 부리는 노랑고 끝이 평평한 주걱모양이다.



## ● 생물학적 특성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겨울철새다. 습지나 넓은 평지의 물가, 하구 등지에 서식하며 연못이나 습지에 가까운 숲 또는 호숫가 풀밭에 집단으로 번식한다. 알은 한 번에 3-5개 낳는다. 먹이로 물고기, 개구리, 올챙이, 조개류, 연체동물, 곤충 따위를 잡아먹고, 습지 식물과 그 열매를 먹는다.

## ● 분포 현황

영종도, 간월호, 부남호, 잠흥저수지, 금강 하구, 동진강, 곰소만, 만경강, 무안저수지, 우습제, 랑초저수지, 영암호, 금호호, 고흥만, 당두리, 순천만, 주남저수지, 동판저수지, 우포늪, 낙동강, 제주 하도리 등지로 전국에 걸쳐 월동한다.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에서 번식하지 않는 겨울철새다.

## ● 서식지 동향

개활 습지, 얕은 호소, 큰 하천, 하구의 진흙 또는 갯벌, 암석과 모래로 덮인 작은 해안의 섬 등지에 서식한다.



## ● 개체수 현황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에서 14-209개체(1999년에 22개체, 2000년에 14개체, 2001년에 32개체, 2002년에 26개체, 2003년에 24개체, 2004년에 146개체, 2005년에 139개체, 2006년에 191개체, 2007년에 147개체, 2008년에 182개체, 2009년에 209개체, 2010년에 137개체)가 확인되었다.

## ● 국제 동향

북쪽의 번식 집단은 겨울에 남하하는데 서부의 집단은 불확실하나 동부의 집단은 중국 남부 및 양쯔강 하류 지역에서 월동한다. 일본에서는 홋카이도에서 큐슈에 이르기까지 소수가 채집되었다. 구북구(중국 남부에서 인도에 이르는 지역을 제외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부 등지를 포함한 지역) 지역에 널리 서식한다. 동남아시아 6,500여 개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적으로 약 50,000개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 위협 요인

개발 습지와 습지의 감소, 강 하구의 갯벌 소실 등으로 취식지 및 휴식지가 사라졌고, 하천 인근의 농경지에서 사용하는 농약 등의 오염 물질로 인해 먹이원이 줄어들고 있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 급,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205-2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 ● 평가 결과: VU A1c

과거에는 충청남도 천수만, 금강 하구, 만경강 하구, 해남 간척지, 낙동강 하구, 주남저수지, 제주 등 20여개 지역에서 관찰된 기록이 있으나, 최근에는 충청남도 천수만, 전라남도 순천만, 주남저수지, 낙동강 하구, 제주 등 10여개 지역에서 관찰되고 있어(이 등 2000; 박 2002), 분포역 및 개체군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IUCN 적색목록 기준에 따라 취약종(VU) D(1)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Wetlands International. 2002. Waterbird Population Estimates-Third Edition. Wetlands International Global Series No. 12, Wageningen, The Netherlands. pp.64.
- 박진영. 2002. 한국의 조류 현황과 분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1,126pp.
-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320pp.
-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

*Platalea leucorodia* is winter visitor in Korea. In Korea, this bird is a rare migrant. They feed on small fish, frog in water. Wintering individuals observed at several sites in Shihwaho, Cheonsu-bay, Jeju-do. East Asia(China, Taiwan, Korea, Japan), population size estimated about 6,500 individuals. It meets the criteria for VU D(1).

집필자: 이기섭(한국물새네트워크), 신용운(한국환경생태연구소)



# 독수리

*Aegypius monachus* Linnaeus, 1766

## 분류학적 위치

매목(Falconiformes) 수리과(Accipitridae)

영명: Cinereous Vulture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Ⅲ급, 천연기념물 제243-1호

IUCN 범주: NT (준위협종)

## ● 요약

동절기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맹금류 중 가장 큰 종으로, 국제적으로 절멸위기에 처한 종이다. 위치추적장치 등을 이용한 연구 결과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집단은 몽골에서 월동하는 것이 규명되었으며, 경상남도 고성, 강원도 철원을 중심으로 독수리가 도래하는 주요 지역에서 실시되는 지속적인 먹이 공급으로 개체군이 유지되고 있다. 국내에 도래하는 집단의 대부분이 아성체로 우리나라에서는 취약종(VU)으로 분류되었다.

## ● 형태

전체가 검은색으로 날개의 폭이 넓고 길다. 머리는 피부가 드러나 회갈색으로 보이고, 어린 개체는 검은색에 가깝다. 등과 날개덮깃은 갈색, 부리는 검은색으로 매우 크며 기부는 연노랑색이다. 날 때 날개 끝이 갈라지고 위로 휘어져 있으며 폭이 넓고 길지만 꼬리는 짧다. 뒷머리와 목에는 긴 깃털이 나 있다(채 등 2009).



## ● 생물학적 특성

일반적으로 단독 혹은 쌍으로 생활하나 겨울철에는 5-6개체 가량의 작은 무리를 이루기도 한다. 사냥은 거의 하지 않고 동물의 사체 등을 먹는다. 먹이를 찾기 위해 초원이나 암벽을 이루는 산 등의 공중에서 상승기류를 이용해 유유히 비행한다. 소화되지 않는 먹이는 펠릿(Pellet)으로 토해낸다. 둥지는 지상으로부터 6-7m 높이의 교목 위나 암벽 위에 나뭇가지를 쌓아놓고 접시모양으로 만든다. 알은 2-3월 사이에 1-2개를 낳으며, 흰색 바탕에 어두운 갈색이나 붉은빛이 도는 갈색 얼룩무늬가 밀생한다. 포란기간은 54-56일이며, 육추기간은 104-120일이다. 성체가 되는 데는 6-7년이 걸린다(원 1981; 문화재청 2009; R. Morán-lópez *et al.* 2006).

## ● 분포 현황

지속적인 먹이공급을 하는 비무장지대 인근을 중심으로 많은 개체가 도래했으나, 최근에는 개체군 규모의 증가와 함께 분포가 남부지방까지 확장하는 경향을 보인다. 철원평야, 연천, 파주 등 경기도와 강원도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많은 개체군이 월동하고 있으며, 2000년대 중후반으로 들어와 경상남도 고성, 산청, 고령, 전라남도 광양, 순천, 경기도 안성, 이천 및 천수만 등 전국적으로 관찰되고 있다(김 2010).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에서는 번식하지 않으며, 국제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독수리들은 몽골에서 번식함이 규명되었다.

## ● 서식지 동향

개활 건조지대를 선호하며, 중앙아시아의 초원지대와 고산지대에서 생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하천, 하구, 농경지 등 개활지에서 월동한다.

## ● 개체수 현황

1989년 파주시 적성면 인근에 100개체 이상의 집단이 도래해 보호차원에서 먹이공급을 시작했고, 이후 철원, 문산, 연천, 양구 등지와 고성 등 접경지역 및 먹이주기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으로 많은 개체수가 나타나고 있다. 2002년 전국적으로 도래한 1,236개체 중 철원 인근 444개체, 연천 209개체, 고성 105개체가 보고되었고, 2003년에는 전체 1,199개체 중 문산, 장단 지역에서 518개체, 철원 266개체가 보고되었다. 2004년 도래한 1,602개체 중 장단, 문산 지역에서 1,100개체가, 양구에서도 178개체가 관찰되었으며, 2005년에는 총 1,602개체가 확인되었고 철원이 758개체로 가장 많았다. 2006년 관찰된 1,022개체 중 문산, 장단에서 301개체, 철원에서 222개체가 관찰되었고, 2007년에는 조류독감의 영향으로 먹이주기행사 등이 감소하면서 전체 506개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8년에는 전체 1,912개체로 다시 증가해 문산, 장단 770개체, 철원에서 457개체가 확인되었으며, 내륙지역인 산청과 고성에서도 각각 193개체, 105개체가 확인되었다. 2009년에는 전체 1,448개체로 철원에서 372개체, 고성 500개체, 포천 132개체가 확인되었으며, 2010년에는 전체 2,462개체로 경상남도 고성에 827개체, 장단 지역 691개체, 철원 415개체가 확인되었다(문화재청 2008; 문화재청 2009-2010).

## ● 국제 동향

전 세계적으로 40,000여 개체가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집단은 몽골지역에서 월동하는 집단으로 8,000여 개체로 추산하고 있다(del Hoya *et al.* 1994). 1999년 한국에서 인공위성추적장치를 부착해 방사한 독수리 2개체가 몽골까지 이동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2006-2009년도 몽골에서 개체인식표(wing-tag)를 부착한 독수리 개체들이 국내 주요 도래지를 중심으로 다수 관찰됨에 따라, 월동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독수리가 몽골에서 번식한다는 것이 규명되었다(Kim *et al.* 2007). 이에 따라, 몽골 번식지의 상황 및 번식 수용 가능 규모 등에 의해 국내에 도래하는 월동 집단의 규모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 ● 위협 요인

두 가지 주된 위협 요인이 거론되고 있는데, 하나는 인간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이며, 다른 하나는 먹이 감소다. 인간에 의한 직접적인 위협 요인은 천적퇴치를 위해 또는 고의적으로 사용하는 독성 미끼, 개발행위에 의한 서식처 파괴 및 사냥에 의한 개체수 감소가 있으며, 먹이 감소의 경우 근대화에 따른 농업형태의 변화 및 농업 종사자들의 감소로 인한 먹이부족 등에서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각지에서 먹이주기 행사를 하고 있으나, 2010년 12월 농약에 의한 2차 중독으로 39개체가 폐사하기도 했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I 급,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243-1호로 지정·보호하고 있으며, CITES 부속서 II에 포함된

국제적 보호종이다. 문화재청에서는 월동을 위해 국내에 도래하는 독수리의 개체수 및 동태파악을 위해 매년 전국을 대상으로 독수리 월동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 평가 결과: VU D(1)

개체수 및 분포역이 꾸준히 증가해 현재는 전국적으로 많은 개체가 관찰되고 있으나, 차후 자연적인 요인 보다는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개체수 및 분포역이 급감할 우려를 지니고 있다. 또한 국내에 도래하는 대부분의 개체는 아성체로 IUCN 적색목록 기준에 따라 취약종(VU) D(1)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 R. Morán-I · pez, J.M. Sánchez, E. Costillo, C. Corbacha, A. Villegas. 2006. Spatial variation in anthropic and natural factors regulating the breeding success of the cinereous vulture (*Aegypius monachus*) in the SW Iberian Peninsula. *Biological conservation*, Vol. 130, pp.169-182.
-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4.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2. Lynx Edicions, Barcelona. 638pp.
- [http://en.wikipedia.org/wiki/Aegypius\\_monachus](http://en.wikipedia.org/wiki/Aegypius_monachus)
- <http://www.birdlife.org/datazone/speciesfactsheet.php?id=3380>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Kim, J. H., O. C. Chung, W. S. Lee and Y. Kanai. 2007. Migration Routes of Cinerreous Vulture (*Aegypius monachus*) in Northeast Asia, *J. Raptor Res.* 41(2): pp.161-165.
- 김성현. 2010. 멸종위기 수리목(Accipitridae) 조류의 분포와 이동 생태.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화재청. 2008. 2008년 전국 독수리 월동실태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51pp.
- 문화재청. 2009. 2009-2010년 전국 독수리 월동실태 조사 1차 보고서. 문화재청. 69pp.
- 문화재청. 2010. 2010-2011년 전국 독수리 월동실태 조사 2차 보고서. 문화재청. 67pp.
-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1,126pp.
- 채희영, 박종길, 최창용, 빙기창. 2009. 한국의 맹금류. 국립공원관리공단. 164pp.

*Aegypius monachus* is one of the largest birds in the world and the world's heaviest flying birds. It breeds in high mountains and large forests, nesting in trees or occasionally on cliff ledges. The number of individuals of migratory birds has increased consistently every year. Its global population is estimated to 40,000 individuals, and population in Mongolia is approximately estimated to 8,000 individuals. Meanwhile, aims to calculate and preserve this large visitors,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has surveyed the migratory population numbers since 2002. It meets the criteria for VU D(1).

집필자: 김진한(국립생물자원관), 송민정(한국환경생태연구소)

# 뜸부기

*Gallicrex cinerea* Gmelin, 1789

## 분류학적 위치

두루미목(Gruiformes) 뜸부기과(Rallidae)

영명: Watercock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II급, 천연기념물 제44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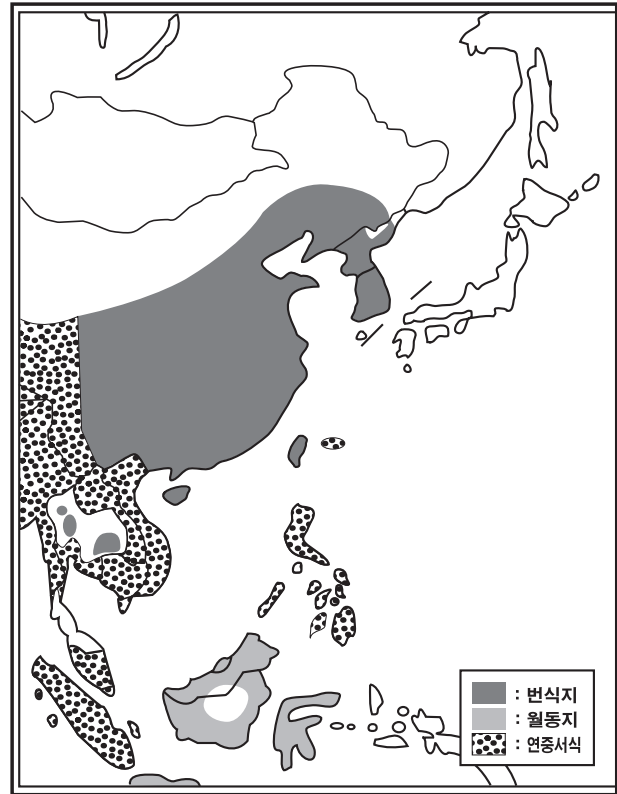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과거 우리나라 전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여름철 새였으나 최근 개체수가 크게 감소했다. 아침과 저녁에는 벼가 자라고 있는 논과 논둑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낮에는 주변 물가나 구렁의 풀숲 또는 논 부근의 덩불 속에 숨어 지낸다. 농지 및 하천정비 등을 통한 서식지 파괴가 종의 위협 요인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취약종(VU)으로 평가했다.

## ● 형태

수컷의 여름깃은 푸른색을 띤 검은색이며 날개는 갈색이다. 부리는 노란색이며 번식기에는 이마에서 머리꼭대기 위로 별모양의 붉은 이마판이 있다. 날개와 꼬리는 검은 갈색이다. 겨울깃은 암컷과 유사하나 부리가 더 굵고 노란색이며, 암컷은 노란갈색이다. 눈은 붉은색이다. 암컷의 몸은 황갈색이며, 등과 날개에는 진한 갈색 반점이 있다. 다리는 연한 녹색이며, 눈은 갈색이다.



## ● 생물학적 특성

아침과 저녁에는 벼가 자라고 있는 논과 논둑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낮에는 주변 물가나 구렁의 풀숲 또는 논 부근의 덩불 속에 숨어 있다.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암컷을 찾기 위해 '뜸북, 뜸북' 하고 소리를 낸다. 둥지는 논에서 벼 포기를 모아 만들거나 주변의 풀숲에서 풀줄기나 잎을 이용해 접시모양으로 엉성하게 만든다. 6-7월에 번식하며 한배 산란 수는 3-5개이고, 알 바탕색은 다양하고 적갈색이나 쥐색 반점이 산재한다. 곤충류, 어류, 양서류, 풀이나 식물의 종자 등을 먹는다.

## ● 분포 현황

과거 전국적으로 종종 확인될 정도로 분포권이 넓었으나, 근래 들어 서식지의 감소로 인해 강원도 철원평야 일대, 경기도 파주, 충청남도 서산 등지에서 국지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 ● 번식지 동향

과거 전국적으로 도래해 번식하는 흔한 여름철새였으나, 번식지로 선호하는 습지의 감소로 현재는 개체수가 급감했고, 일부가 서산 천수만 간월호 인근에서 번식하는 것이 확인 되었다.

## ● 서식지 동향

우리나라 전역의 논이나 습지에 서식한다.

## ● 개체수 현황

2000년 강원도 삼척에서 1개체, 2001년 경상남도 함안군 대평늪에서 1개체, 2005년 경기도 파주시 곡릉천에서 3개체, 2006년 충청남도 서산 간월호에서 2개체, 충청남도 당진에서 2개체가 관찰된 기록이 있다. 2008년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탈진된 1개체가 구조, 강원도 철원군에서 1개체가 관찰되었으며, 2009년 강화군에서 1개체가 관찰되었다. 2007년 이후 충청남도 서산 천수만 일대 간월호 인근 논에서 소수가 번식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전국적인 정밀조사가 수행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 국제 동향

국제적으로 파악된 개체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주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반도, 스리랑카 등지에 분포한다.

## ● 위협 요인

각종 개발과 도시화에 따른 논과 습지의 감소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먹이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I 급,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446호로 지정·보호한다.

## ● 평가 결과: VU D(1)

1960년대 이전에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해 번식했고 채집기록도 많지만(박 2002), 현재에는 일부 제한된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관찰하기 어려워 분포역 및 개체수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IUCN 적색목록 기준에 따라 취약종(VU) D(1)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6.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3. Lynx Edicions, Barcelona. 821pp.
- 문화재청. 2003. 천연기념물조류서식·번식지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문화재청. 150pp.
- 문화재청. 2007. 중장기 천연기념물(동물) 분포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 182pp.
- 박진영. 2002. 한국의 조류 현황과 분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1,126pp.
-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320pp.
- 환경부. 2006-2008.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Gallicrex cinerea* is summer breeding visitor on Korea. Most birds from N China and Korea apparently migrate or disperse S for winter. Nowadays it observed at several sites in Korea. It has declined in Korea and this is thought to be due to the loss of rice fields and wetlands. Feeds on a variety of small insects, small fish, seeds, etc. The international population size has not been quantified. It meets the criteria for VU D(1).

집필자: 김진한(국립생물자원관), 이시완(한국환경생태연구소)



# 매

*Falco peregrinus* Tunstall, 1771

## 분류학적 위치

매목(Falconiformes) 매과(Falconidae)

영명: Peregrine Falcon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1급, 천연기념물 제323-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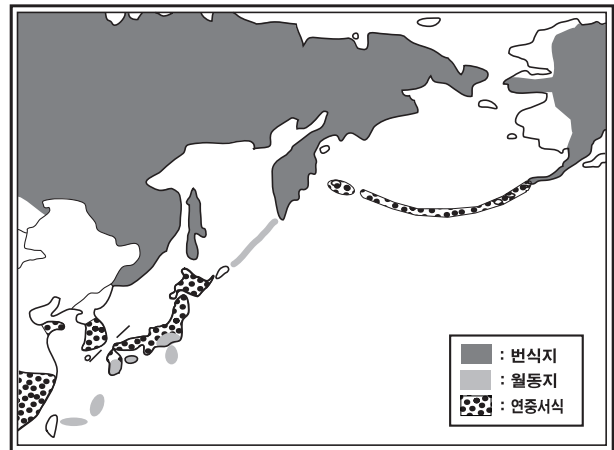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전국의 하구, 호수, 농경지 인근에서 주로 관찰되는 텃새로, 해안가의 가파른 절벽 틈새에 둥지를 만든다. 암수가 거의 비슷한 색깔을 띠며, 소형 포유류 및 조류를 사냥해 먹는다. 국내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약 10,000개체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0년대 중반 DDT에 의해 큰 타격을 입은 대표적인 종이다.

## ● 형태

몸 윗면은 어두운 청회색이며 몸 아랫면은 흰색에 검은 줄무늬가 있다. 암수가 거의 비슷한 색이다. 등, 날개, 꼬리는 푸른색을 띤 회색이고, 가슴과 배는 옅은 노란 갈색에 검은색 가로 줄무늬가 세밀하게 있다. 눈 밑의 검은 무늬는 크고 뚜렷하며, 눈테는 노란색이다. 특히 어린 새의 등은 갈색이며 배에는 굵고 어두운 갈색 세로줄이 있다(채 등 2009).



## ● 생물학적 특성

무인도를 중심으로 한 도서지역이나 가파른 해안가 절벽에서 번식한다. 개체에 따라 바위가 움푹 파인 곳을 특별한 재료 없이 그대로 이용해 산란하기도 하고, 식물의 줄기와 뿌리, 새의 털을 깔고 산란하기도 한다. 알을 한배에 3-4개 낳으며, 회색 바탕에 붉은 갈색 점이 산재한다. 포란기간은 29-32일, 육추기간은 35-42일이다. 특히 번식기에는 수컷이 잡은 먹이를 둥지 근처의 공중에서 암컷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비둘기, 어치, 꿩, 오리류 등과 멧토끼, 다람쥐, 쥐 등을 사냥해서 먹는다. 나무 꼭대기나 암벽지대 위 등 지형이 높은 곳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먹이를 찾는데, 먹이가 발견되면 공중에서 빠른 속도로 먹이를 잡는다(원 1981; 문화재청 2009).

## ● 분포 현황

해안 도서지역 및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 ● 번식지 동향

무인도나 가파른 해안가의 절벽 바위 등지의 움푹한 곳에 둥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국내 주요 번식지는 격렬비열도, 칠발도, 백도, 소매물도, 연평도 등 서남해안의 도서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10년 여름 서해안 덕적도 인근 굴업도에서 3쌍의 매가 관찰되어 세간의 이목을 모은 바 있다.

## ● 서식지 동향

국내에 서식하는 개체수가 많지 않은 편으로, 번식기에는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철새 이동경로상의 무인도에서 자주 관측되며, 겨울철에는 물새류 등 철새도래지 인근에 서식한다.

## ● 개체수 현황

관찰되는 지역은 많지만 개체수 및 관찰 빈도는 낮은 편이다. 한강, 영산강, 금강, 낙동강 하구 및 주남저수지, 천수만, 순천만 등 해안가에 인접한 지역 및 철새도래지 등지에서 관찰되고 있으며, 홍도, 흑산도, 제주도 등 도서지역에서도 꾸준히 관찰되었다. 천수만에서는 1999년 2개체 관찰이 처음으로 기록된 이후 매년 1-4개체가 관찰되고 있으며, 낙동강 하구에서는 2004년부터 매년 1-2개체의 관찰되고 있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2000년 7개체 관찰기록 이후 매년 2-7개체가 꾸준히 관찰되고 있으며, 홍도의 경우 1997년 4개체, 1999년 3개체가 발견된 후 2005년 한해에만 62개체가 관찰되기도 했다. 한편, 내륙지역 및 동해안 해안가에서는 관찰 개체수에 대한 보고가 비교적 적은 편으로, 고성, 속초, 양양, 울진 등 동해안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1-2개체가 관찰되고 있으며, 양구, 안동, 괴산 등 내륙지역도 드물게 1-2개체가 관찰되고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7a;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b; 문화재청 2006; 환경부 1997-2009; 환경부 1999-2010).

## ● 국제 동향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중앙열대림, 남아메리카를 제외한 전 세계에 분포한다. 전 세계적으로 약 120만 개체가 분포하고, 국내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는 약 10,000개체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del Hoya *et al.* 1994).

## ● 위협 요인

1950-60년대 전 세계적인 DDT의 사용으로 인해 번식에 큰 타격을 입었던 대표적인 맹금류다. 1970년대 들어 DDT의 사용이 제한되면서 개체수가 점점 회복되고 있는 추세다(Stroke and Stroke 1989).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개발 등으로 인해 번식지 및 서식지가 감소할 위험에 처해 있다(문화재청 2009).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 급,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323-7호로 지정·보호하고 있으며, CITES 부속서 I 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적 보호종이다.

## ● 평가 결과: VU D(1)

관찰되는 지역은 넓지만 개체수는 적은 편이다.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개체군 감소의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인위적인 서식처 훼손 및 개체군 급감의 가능성이 매우 큰 종이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취약종(VU) D(1)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 BirdLife International. 2001. Threatened birds of Asia: The BirdLife International Red Data Book. Cambridge UK.
-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4.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2. Lynx Edicions, Barcelona. 638pp.
- Stroke, D. W. & L. Q. Stroke. 1989. A Guide to Bird Behavior. Vol. III. Little, Brown and Company, Boston.



[http://en.wikipedia.org/wiki/Falco\\_peregrinus](http://en.wikipedia.org/wiki/Falco_peregrinus)

<http://www.birdlife.org/datazone/speciesfactsheet.php?id=3622>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전국 천연기념물 분포지도. 국립문화재연구소. 184pp.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중장기 천연기념물(동물) 분포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182pp.

채희영, 박종길, 최창용, 빙기창. 2009. 한국의 맹금류. 국립공원관리공단. 164pp.

문화재청. 2006. 2006년 천연기념물 모니터링. 문화재청. 124pp.

문화재청. 2009. 문화재대관 천연기념물 · 명승-동물. 문화재청. 291pp.

박진영. 2002. 한국의 조류 현황과 분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1,126pp.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환경부. 1997-2009.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Falco peregrinus* is a representative species of resident bird of prey in South Korea. It feeds almost exclusively on medium sized birds such as doves, waterfowl, songbird, waders and pigeons. Generally, It's nest locate on the ledges of steep cliff at rocky mountain. This species became an endangered species in many areas because of the use of organochlorine pesticides, especially DDT during the 1960s. Since the ban on DDT from the beginning of the 1970s onwards, the populations recovered slowly and constantly, supported by large scale protection of nesting places and releases to the wild. This species is registered at CITES; Appendix I . It meets the criteria for VU D(1).

집필자: 박진영(국립환경과학원), 이한수(한국환경생태연구소)

# 무당새

*Emberiza sulphurata*  
Temminck & Schlegel, 1848

## 분류학적 위치

참새목(Passeriformes) 멧새과(Emberizidae)

영명: Japanese Yellow Bunting

지정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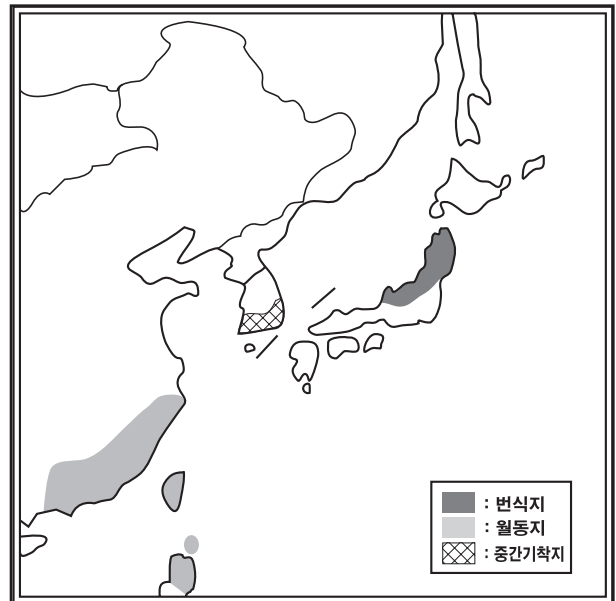
IUCN 범주: VU (취약종)

## ● 요약

우리나라의 거제도를 비롯한 남해안 일대에서 봄가을에 드물지 않게 관찰되며, 번식하지 않고 통과하는 새다.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개체수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과거 1967년 4월에 거제도에서 36개체를 포획해 가락지를 부착한 기록이 있다.

## ● 형태

겨울깃은 암컷과 수컷 모두 머리꼭대기, 머리 옆, 뒷목이 녹색으로 각 깃털 끝이 다소 진하다. 몸 윗면은 회색빛을 띤 녹색으로, 특히 등 깃털에는 축이 되는 검은색 반점이 있다. 눈 주위에는 흰색 고리모양 무늬가 있으며, 턱밑과 턱 아래 부위는 황색이다. 가슴과 배는 옅은 황색으로 회색빛 도는 녹색을 띠며, 옆구리에는 옅은 검은색 세로 얼룩무늬가 있다. 아래꼬리덮깃은 황백색이다. 부리는 비교적 가늘고 긴 편이며, 붉은 갈색이다. 다리는 살구색이다(원 1981; 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섬이 많은 지역의 키 작은 나무 숲, 키 작은 나무가 있는 풀밭, 초원 등에 찾아온다. 둥지는 키 작은 나무의 가지 위에 식물의 줄기나 마른 풀 등을 사용해서 밥그릇모양으로 만든다. 알 낳는 시기는 5월 중순-7월 상순이다. 알은 푸른빛과 회색빛이 도는 흰색 바탕에 어두운 갈색 얼룩무늬와 얼룩점이 있으며, 3-5개 낳는다(원 1981).

## ● 분포 현황

우리나라의 거제도를 비롯한 남해안 일대를 통과한다.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나그네새이며, 일본에서 번식한다.

## ● 서식지 동향

숲, 농경지 등 관목림이 있는 풀밭, 초원 등에 서식한다. 남해안의 하천 수변, 산림 가장자리 등에 주로 서식하나 각종 개발 등으로 인해 서식지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 ● 개체수 현황

거제도를 비롯한 남해안 일대의 하천 수변, 산림 임연부, 초지 등을 드물지 않게 통과하나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개체수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만 1967년 4월에 거제도에서 36개체를 포획해 가락지를 부착한 기록이 있다(원 1981).

## ● 국제 동향

일본에서만 번식하며, 일본 서남부와 중국 동부를 거쳐 중국 남부, 타이완, 필리핀 북부 등지에서 월동한다. 전 세계 개체수는 약 10,000개체이며, 번식지와 월동지를 이동할 때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에서 관찰된다(BirdLife International 2000).

## ● 위협 요인

우리나라에서는 서식지의 감소와 과도한 살충제의 사용 등이 개체수 감소의 위협 요인이며, 번식지의 경우 조류 매매를 위해 포획하는 경우가 위협 요인이다(IUCN, 2010).

## ● 특기 사항

일본과 북한, 홍콩에서는 법적보호종으로 지정·보호하고 있으나 전체 개체수는 감소추세에 있다.

## ● 평가 결과: VU D(1)

국내에 정기적으로 도래해 월동하는 개체군이 거의 없고 대부분 통과하며, 매년 관찰되는 개체수의 변동이 크고, 도래 개체군의 크기가 안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에도 IUCN의 적색목록 분류 기준에 따라 취약종(VU) D(1)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 BirdLife International. 2000. Threatened birds of the world. Lynx Edicions. pp.540.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pp.983-985.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260.

*Emberiza sulphurata* breeds in Japan, and is thought to winter mainly in the Philippines, although some birds have wintered in Japan and Taiwan (China) in the past. There are non-breeding records, mainly of birds on passage, from North Korea, South Korea, Hong Kong (China) and the coast of mainland China and Taiwan. It is generally uncommon in its restricted breeding range in Japan, and it appears to have declined significantly during the 20th century. Its decline has probably been a result of a combination of habitat loss, high levels of pesticide use and trapping for the bird trade. International population size estimated about 10,000 individuals. It meets the criteria for VU D(1).

집필자: 채희영(국립공원철새연구센터), 김인규(한국환경생태연구소)

# 물수리

*Pandion haliaetus* Linneaus, 1758

## 분류학적 위치

매목(Falconiformes) 수리과(Accipitridae)

영명: Osprey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II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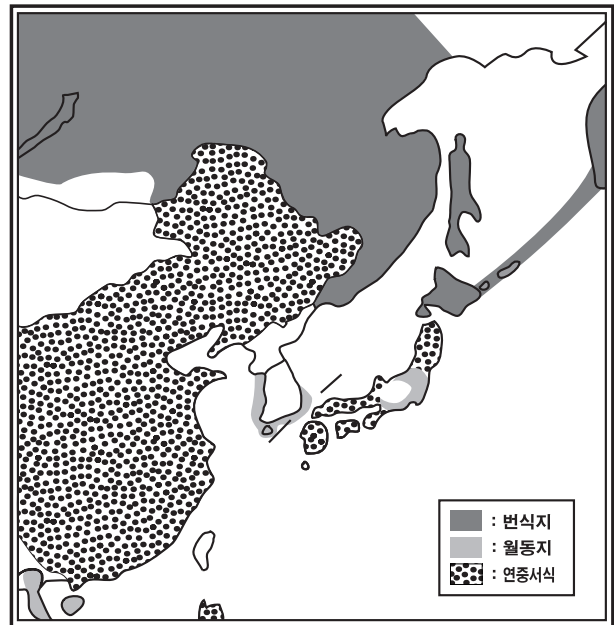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봄가을에 우리나라 해안가, 하구, 하천, 습지 등지에서 관찰되는 겨울철새 및 나그네새다. 해안가나 도서의 암벽, 호수와 하천 인근의 암벽, 큰 나뭇가지 위에 등지를 짓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낙동강 하류를 비롯한 남부 해안가에서 연중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번식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까지 번식지는 밝혀져 있지 않았다.

## ● 형태

날개가 가늘고 긴 형태의 수리과 조류로, 암수의 색상이 비슷하다. 머리가 흰색이며, 뒷머리에 짧은 관우가 있다. 등과 날개 윗면은 흑갈색이고 머리 윗부분과 몸 아랫면은 흰색이다. 가슴에 흑갈색 띠가 있다. 중앙 꼬리를 제외하고 몸 바깥쪽 꼬리는 흑갈색 또는 담갈색 반점이 있다. 날개 아랫면은 전체적으로 흰색이다. 날 때에 윗면은 어두운 흑갈색, 아랫면은 전체적으로 흰색을 띤다(채 등 2009).



## ● 생물학적 특성

해안가나 도서의 암벽, 호수와 하천 등의 유역에 있는 암벽, 큰 나무의 가지 위에 등지를 튼다. 나뭇가지, 해초, 마른 풀, 이끼류 등을 두껍게 쌓아 접시모양으로 등지를 만든다. 알을 낳을 자리에는 마른 풀, 깃털 등을 깬다. 매년 같은 등지를 이용하는 것이 많으며, 암수가 함께 등지를 튼다. 산란기는 2월 하순에서 6월 하순까지이며, 알은 한배에 2-4개 낳고, 흰색 또는 황색 빛이 도는 회색 바탕에 붉은 갈색을 띤 거친 얼룩무늬가 산재하며, 때로는 얼룩무늬가 알 대부분을 덮기도 한다. 포란 후 35일 정도에 부화하고, 56-70일 지나면 이소한다. 부화 직후에는 수컷이 잡아오는 먹이를 암컷이 부리로 찢어 새끼에게 먹이고, 40일이 경과하면 먹이를 그대로 놓아두어 새끼가 먹도록 한다. 주로 담수 및 해수 어류를 먹는다(원 1981).

## ● 분포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분포하지만 주로 해안가 일대에서 관찰되었고, 내륙의 경우에는 하천이나 댐 주변에서 관찰되었다. 이는 수면이 결빙되면 먹이사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안 하구와 남부지방의 대규모 하천, 댐 주변 등지로 개체들이 몰리는 경향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낙동강 하구, 울산시 태화강과 형산강 등 경상남도지역 하천에서 최근 물수리가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어, 이들 지역에서 물수리가 월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 번식지 동향

낙동강 및 제주도 등지에서 번식기를 비롯해 연중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일부가 남서해안 일부지역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번식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 ● 서식지 동향

월동기의 경우 1900년대에는 제주 및 전라남도 해남 해안가 일대의 관찰기록이 대부분이며, 강원도 강릉, 경기도 시화호, 부산시 등에서도 관찰기록이 있다. 2000년대 들어와서 관찰기록이 크게 증가해 서남해안 전역, 제주도, 동해안 일부 등에서도 쉽게 관찰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내륙의 큰 하천이나 댐 주변에서도 관찰되었다. 봄 이동 시기의 경우 백령도, 외연도, 전라남도 흥도, 흑산도, 가거도 등의 도서지역과 금강 하구 등 일부 해안가 지역에서 관찰되었으며, 가을 이동 시기의 경우 서남해안 도서지역 및 내륙에 넓게 분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김 2010).

## ● 개체수 현황

2000년 이후 관찰기록 및 이동 시 기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해안지역과 도서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2000년 겨울 16개체가 관찰된 이래 매년 10-15개체가 꾸준히 관찰되고 있으며, 낙동강 하구의 경우 2005년 7개체의 관찰기록 이후 적게는 5개체에서 많게는 19개체가 매년 동절기에 관찰되고 있다. 그 외에 남해안의 사천만 인근과 순천만, 영산강 하구 등에서 5-10개체의 관찰기록이 보고되었으며, 임진강 하구, 시화호, 천수만 등지에서도 간헐적으로 관찰되고 있다(환경부 2000-2009; 환경부 2000-2010).

## ● 국제 동향

세계적으로 분포가 넓은 종으로,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등 극지방 인근과 레바논, 북부 아프리카와 중국 내륙의 사막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에 분포한다. 전 세계 개체수는 약 50만 개체로 추산되고 있다. 60년대 전 세계적인 DDT의 사용으로 인해 번식에 큰 타격을 입었던 맹금류 중 하나다(del Hoya *et al.* 1994; Stroke & Stroke 1989).

## ● 위협 요인

어류를 주식으로 하는 생태적 특성상, 수질악화 등의 원인으로 인해 어류의 체내에 축적되는 각종 중금속 및 화학물질 등에 곧바로 노출되는 위험이 있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I 급으로 지정·보호하고 있으며, CITES 부속서 II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적 보호종이다.

## ● 평가 결과: VU D(1)

매년 일정 개체가 관찰되고 있으나 개체수가 많지 않고, 특정지역에 한해 관찰되고, 인위적, 자연적 요인 등에 의한 서식처 훼손의 우려가 높아 이에 따른 개체군의 급감이 우려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취약종(VU) D(1)으로 평가했으며, IUCN 적색목록에는 개체군의 분포 범위가 넓고 개체군이 큰 점을 고려해 LC로 평가되어 있다.

## ● 참고문헌

-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4.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2. Lynx Edicions, Barcelona. 638pp.
- Stroke, D. W. & L. Q. Stroke. 1989. A Guide to Bird Behavior. Vol. III. Little, Brown and Company, Boston.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http://en.wikipedia.org/wiki/Osprey>
- <http://www.birdlife.org/datazone/speciesfactsheet.php?id=3324>
- 김성현. 2010. 멸종위기 수리과(Accipitridae) 조류의 분포와 이동 생태.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진영. 2002. 한국의 조류 현황과 분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1,126pp.
- 채희영, 박종길, 최창용, 빙기창. 2009. 한국의 맹금류. 국립공원관리공단. 164pp.
- 환경부. 2000-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 환경부. 2000-2009.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Pandion haliaetus* is a migrant bird that visit in winter season in South Korea, also a resident bird which can find some individuals in Nak-dong river and northern coastal island in South Korea all the year, It shows a worldwide distribution and is found in temperate and tropical regions of all continents except Antarctica. It breeds by freshwater lakes, and sometimes on coastal brackish waters. Its global population is estimated to number 500,000 individuals. It was believed that decrease of individuals resulted from DDT derivatives that were ingested by the fish the hawks ate. It meets the criteria for VU D(1).

집필자: 박진영(국립환경과학원), 김달호(한국환경생태연구소)

# 벌매

*Pernis ptilorhyncus* Temminck, 1821

## 분류학적 위치

매목(Falconiformes) 수리과(Accipitridae)

영명: Oriental Honey Buzzard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II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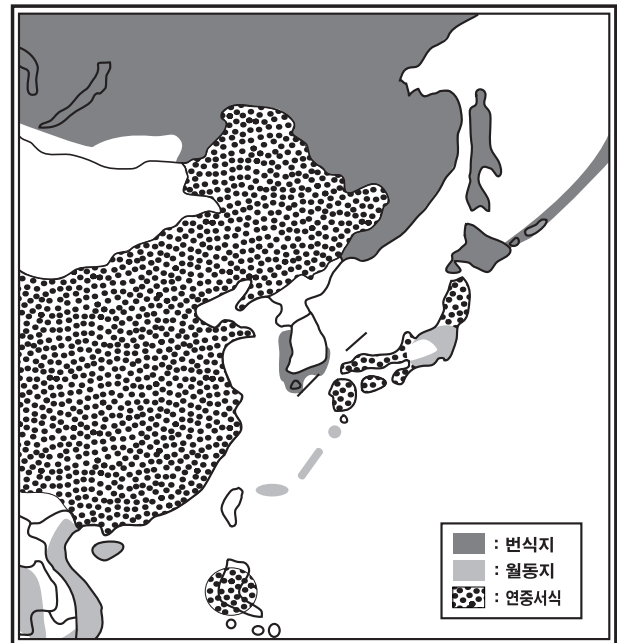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봄과 가을 이동 시기에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나그네새로 알려져 있다. 부리 또는 다리로 땅 속의 벌집을 파헤치고 땅벌의 유충이나 번데기, 땅벌, 어른 새를 먹는다. 단독으로 생활할 때가 많으며 이동 시기에는 대규모 무리를 이루는 것이 관찰되기도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번식지가 확인되어 연중서식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 형태

깃털 색의 변이가 매우 다양하다. 몸 윗면은 갈색 또는 흑갈색이다. 목이 길며 날개는 몸에 비해 길고 폭이 넓다. 꼬리는 약간 길며 둥근 형태다. 깃털색의 유형에 따라 밝은색개체, 어두운색개체, 갈색개체형으로 구분된다. 암색형은 몸 아랫면과 아랫날개 덮깃이 전체적으로 매우 진한 갈색 또는 검은색이고, 담색형은 몸 아랫면과 아랫날개덮깃이 전체적으로 흰색 또는 연한 황갈색으로 보이며 턱에 검은 세로 줄무늬가 뚜렷하게 보인다. 중간형은 몸 아랫면과 아랫날개덮깃이 전체적으로 갈색 줄무늬가 있다(채 등 2009).



## ● 생물학적 특성

단독으로 생활할 때가 많다. 나는 모습은 말뚝가리와 유사하며 공중에서 정지비행을 하기도 한다. 주식은 땅벌이며 부리 또는 다리로 땅 속의 벌집을 파헤치고 그 속의 유충이나 번데기, 다 자란 벌 등을 먹는다. 개구리나 곤충을 잡아먹기도 한다. 낙엽활엽수 및 침엽수림에 둥지를 만든다. 말뚝가리나 참매의 옛 둥지를 이용해 그 위에 구축하는 경우가 많고, 산란기에는 낙엽활엽수의 푸른 잎을 깎는다. 산란기는 5월 하순에서 6월 하순이며, 알은 한배에 1-3개 낳는다. 알은 엷은 회색빛이 도는 황색 바탕에 붉은 갈색이며 진한 갈색 얼룩점이 밀생한다. 알을 품은 지 30-35일이면 부화하고 40-45일이면 이소한다. 암수가 함께 포란하고 포란 중에 수컷은 먹이를 운반한다(원 1981; 문화재청 2009).

## ● 분포 현황

이동 시기에는 서해안의 도서지역, 남해안 등지에서 흔히 관찰된다.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광릉에서 1958-1970년까지 번식기에 여러 차례 관찰되었고, 1957년에는 어린 개체가 포획되어 국내에 번식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번식 등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2000년대 들어 경기도, 강원도 지역 산림지대 및 제주도, 백령도 등 여러 지역에서 번식기 관찰 빈도가 증가했고, 2009년 강원도 홍천에서 번식하는 1쌍의 벌매가 관찰되어 인근 지역에 추가적으로 번식하는 개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김 2010; 조 등 2009).

## ● 서식지 동향

열대, 아열대의 습윤한 산림지역 및 건조한 초지 등지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단독으로 생활하지만 이동 시기에는 대규모 무리를 짓는다.

## ● 개체수 현황

최근 이동 시기의 관찰기록이 증가함에 따라 봄, 가을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수가 규칙적으로 한반도를 통과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1900년대의 경우 백령도, 영종도, 거제도, 부산, 제주도 등지에서 몇 차례 관찰기록만이 보고되었고, 1997년 봄 이동 시기에 거제도에서 관찰된 254개체가 가장 많은 관찰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2000년대 들어 봄 이동 시기에는 부산시 및 거제도, 가을 이동 시기에는 소청도, 어청도, 홍도, 가거도 등 서해안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이동 집단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2009년 봄 거제도에서는 하루 1,597개체의 대이동이 관찰되었으며, 2009년 가을 소청도에서는 4,372개체의 대이동이 확인되었다. 또한, 어청도, 홍도, 흑산도, 가거도, 제주도 등지에서도 일일 100개체 이상의 이동이 확인되기도 했다(김 2010; 최 등 2009; 환경부 1997-2009; 환경부 2000-2010).

## ● 국제 동향

세계적으로 번식지가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극동은 바이칼호 서부에서 아무르강 하류, 우수리지역, 사할린 까지, 남쪽은 몽골 동부, 중국 하북, 황하 하류, 한반도, 일본에 걸쳐 번식하는 집단과 인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번식하고 연중 같은 장소에 서식하는 이동성이 약한 집단이 있다. 전 세계 개체수는 100,000개체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del Hoya *et al.* 1994).

## ● 위협 요인

우리나라에 확인된 벌매의 번식지는 참나무류와 소나무 혼효림으로, 교목 상부에 등지를 만드는 종 특성상 산림훼손에 의한 서식지 감소가 우려된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I 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CITES 부속서 II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적 보호종이다.

## ● 평가 결과: VU D(1)

이동 시기를 중심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관찰 개체수가 많지 않고,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인위적, 자연적 요인 등에 의한 서식처 훼손의 우려가 높고 이에 따른 개체군의 급감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 취약종(VU) D(1)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4.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2. Lynx Edicions, Barcelona. 638pp.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http://en.wikipedia.org/wiki/Pernis\\_ptilorhynchus](http://en.wikipedia.org/wiki/Pernis_ptilorhynchus)
- <http://www.birdlife.org/datazone/speciesfactsheet.php?id=3335>
- 김성현. 2010. 멸종위기 수리목(Accipitridae) 조류의 분포와 이동 생태.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진영. 2002. 한국의 조류 현황과 분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1,126pp.
- 조해진, 이영석, 강태한, 김인규, 우희철, 이한수. 2009. 벌매(*Pernis ptilorhynchus*)의 번식보고. 한국조류학회 2009 가을 학술발표대회.
- 채희영, 박종길, 최창용, 빙기창. 2009. 한국의 맹금류. 국립공원관리공단. 164pp.
- 최영복, 채희영, 김성현. 2009. 전라남도 흥도를 통과하는 벌매(*Pernis ptilorhynchus*)의 이동 양상.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3(1): 50-55.
- 환경부. 2000-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 환경부. 1997-2009.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Pernis ptilorhynchus* is a migratory bird in South Korea. In South Korea, This species is observed in migration season; spring and autumn, and it make a large flocks generally. Spring in 2009, 1,597 individuals were found at Geoje island, located in Southern Korea. In addition, autumn in 2009, 4,372 individuals were found at Socheong island, located in Western Korea. It breeds in Asia from central Siberia east to Japan. It is a summer migrant to Siberia, wintering in tropical southeast Asia. It meets the criteria for VU D(1).

집필자: 박진영(국립환경과학원), 김달호(한국환경생태연구소)

# 붉은배새매

*Accipiter soloensis* Horsfield, 1821

## 분류학적 위치

매목(Falconiformes) 수리과(Accipitridae)

영명: Chinese Sparrowhawk

지정현황: 천연기념물 제323-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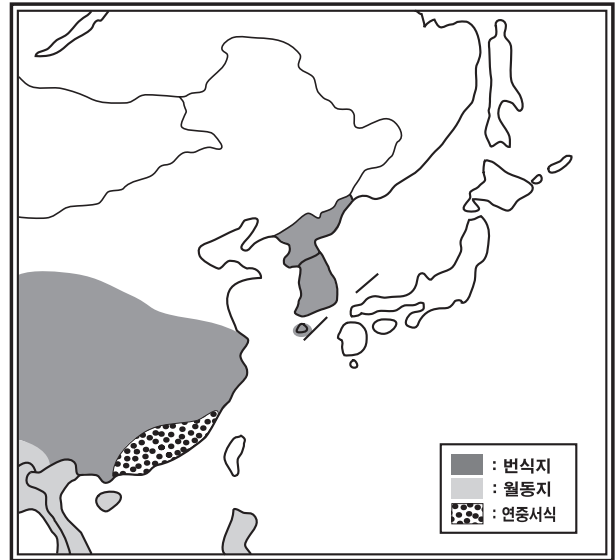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여름철새이며, 전국의 평지와 야산의 숲, 숲 주변의 논, 개활지에서 번식한다. 한국을 통과해 일본 규슈를 지나 대만까지 이동한다. 지역에 따라 관찰 개체수의 차이가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취약종(VU)으로 평가했다.

## ● 형태

머리꼭대기, 뒷목, 등, 어깨, 허리, 위꼬리덮깃은 청색을 띤 어두운 회색이다. 가슴과 배는 소량의 회색을 띤 황갈색 내지는 회색을 띤 붉은색이다. 부리는 검은색이며 기부 색은 옅다. 날막, 부척, 발가락은 황색이고, 발톱은 검은색이다. 수컷의 홍채는 어두운 붉은색이고 암컷의 홍채는 황색이다.



## ● 생물학적 특성

4월 하순에서 5월 초순에 도래해 9월 하순경에 대부분 남하한다. 산란기는 5월이며, 지상에서 평균 11.7m 높이의 나무줄기 중추부 가지에 둥지를 튼다. 알은 한배에 평균 4.1개, 포란기간은 평균 19.5일이다. 새끼의 먹이는 개구리이며 박새, 붉은머리오목눈이 등 작은 새도 먹인다.

## ● 분포 현황

우리나라 전역에 흔히 도래해 번식하는 종이며, 5월이면 대부분 지역에서 관찰된다. 중부지역의 평지, 구릉, 농촌 인가 부근의 참나무와 소나무 등 낙엽활엽수와 침엽수림에 서식한다.

## ● 번식지 동향

전국의 평지, 구릉, 농촌 인가 부근의 낙엽활엽수와 침엽수림에 번식한다.

## ● 서식지 동향

주로 평지, 구릉, 농촌 인가 부근의 낙엽활엽수와 침엽수림에 서식한다.

## ● 개체수 현황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 2004년 61개체, 2005년에 192개체, 2006년에 76개체, 2007년

220개체, 2008년 233개체가 관찰되었다.

## ●국제 동향

온대에서 아열대에 이르는 아시아 동부 만주 남부에서 중국, 한국 타이완 등지에 분포한다. 월동지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뉴기니아 등지다. 지역적으로 관찰되는 개체군의 차이가 크다. 일본에서는 가을철 이동 시기에 10,000개체 이상이 관찰된다.

## ●위협 요인

먹이인 개구리 등이 농약에 오염되면서 크게 줄어들어 서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

## ●특기 사항

천연기념물 제323-2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CITES II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 ●평가 결과: VU D(1)

전국적으로 분포하나 서식지가 현재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우리나라에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IUCN 적색목록 기준에 따라 취약종(VU) D(1)으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4.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2. Lynx Edicions, Barcelona. 638pp.
- 김성현. 2010. 멸종위기 수리목(Accipitridae) 조류의 분포와 이동 생태.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화재청. 2007. 중장기 천연기념물(동물) 분포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 182pp.
- 박진영. 2002. 한국의 조류 현황과 분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1,126pp.
-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320pp.
- 환경부. 2006-2008.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Accipiter soloensis* is summer breeding visitor in Korea. This bird is almost completely migratory. Major migration route through Korea, W Kyushu (Japan) and Ryukyu Is towards Taiwan. Not globally threatened. Common at least in some areas, and total population probably sizeable. It meets the criteria for VU D(1).

집필자: 박진영(국립환경과학원), 강태한(한국환경생태연구소)

# 뿔종다리

*Galerida cristata* Linnaeus, 1758

## 분류학적 위치

참새목(Passeriformes) 종다리과(Alaudidae)

영명: Crested Lark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II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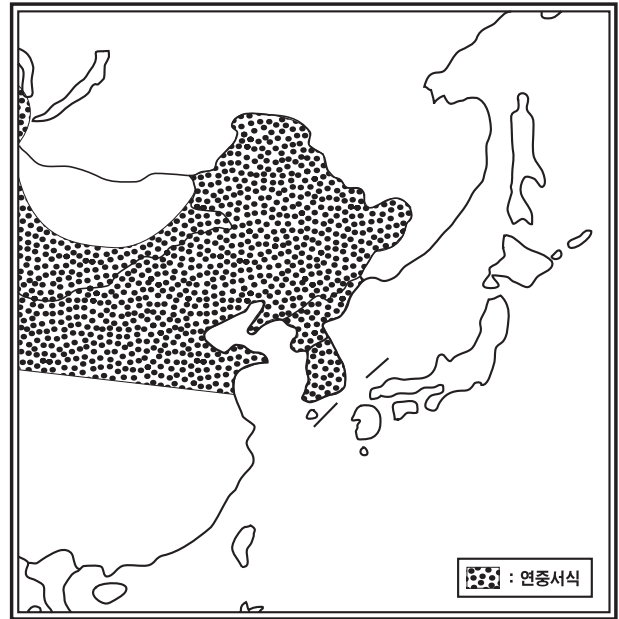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보기 드문 텃새로 과거에는 중부 이북의 평지, 개활지, 초지 등에서 흔히 번식했으나 최근에는 희귀해졌다. 천수만 간척지 내 대섬에서 번식기록이 있으며, 전세계 개체수는 현재까지 많은 실정이나 국내 개체군은 개발, 도로건설 등의 서식지 훼손으로 보호가 요구된다.

## ● 형태

암수가 비슷하며 등은 갈색 바탕에 어두운 반점이 있다. 배는 색이 연하고 가슴에는 세로로 된 무늬가 있다. 앉아있을 때는 머리 위에 깃이 뽕뽕하게 솟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날 때에는 폭이 넓고 둥근 날개와 짧은 꼬리가 보인다(원 1981; 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땅 위의 돌무덤 및 언덕 등의 움푹하게 파인 곳에 마른 풀을 이용해 둥지를 만들고 내부에는 가늘고 부드러운 풀잎을 깐다. 알은 흰색 바탕에 광택이 있고 자줏빛 도는 회색, 황갈색의 가느다란 무늬가 점으로 찍혀 있으며, 5개 정도 낳는다(원 1981).

## ● 분포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은 텃새이며, 충청남도 서산 천수만 간척지 등에서 관찰되었다.

## ● 번식지 동향

2003년 서해안의 천수만 간척지 내 대섬에서 번식기록이 있다.

## ● 서식지 동향

주로 평지, 개활지, 초지 등에 서식한다.

## ● 개체수 현황

우리나라 서해안의 천수만 간척지에서 소수 개체가 번식한 기록이 있으며, 1993년 백령도에서 4개체, 천수만

에서 1개체, 1997년 천수만에서 1개체, 2000년 천수만에서 6개체, 1999년 해남 간척지에서 2개체, 2000년 경주시 안강읍 칠평천에서 4개체, 2006년 천수만에서 3개체를 관찰한 기록이 있다(박 2002).

## ●국제 동향

유럽의 번식 집단은 3,600,000-7,600,000쌍으로 추정하며, 개체수는 10,800,000-22,800,000이다. 유럽의 생존 집단을 25-49%로 추정하며, 전 세계 생존 집단은 22,000,000-91,200,000개체로 추정하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del Hoyo *et al.* 2004).

## ●위협 요인

간척지, 농경지의 개발, 농약의 과도한 사용 등으로 인한 서식지의 축소 및 훼손이 주요 위협 요인이다.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I 급으로 지정·보호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 세계 생존 집단의 수가 많으나 점차 개체수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전국에서 번식했으나 최근에는 희귀해져 보호를 요한다.

## ●평가 결과: VU D(1)

우리나라에 국지적인 번식기록이 있으며, 관찰되는 개체수가 적다. 농지 개발, 간척지 개발 등으로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IUCN 적색목록 기준에 따라 취약종(VU) D(1)으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del Hoyo, J., A. Elliott and D.A. Christie. eds. 2004.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9. Lynx Edicions, Barcelona. pp.595-596.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pp.787-788.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198.

*Galerida cristata* breeds in Cheonsu bay South Korea. The population size is extremely large, and hence does not approach the thresholds for Vulnerable under the population size criterion. In Europe, the breeding population is estimated to number 3,600,000-7,600,000 breeding pairs, equating to 10,800,000-22,800,000 individuals. Europe forms 25-49% of the global range, so a very preliminary estimate of the global population size is 22,000,000-91,200,000 individuals, although further validation of this estimate is needed. It is presumably declining because of the loss and degradation of habitat within its breeding range. In South Korea, population size estimated about 1,000 mature individuals. It meets the criteria for VU D(1).

집필자: 채희영(국립공원철새연구센터), 김인규(한국환경생태연구소)

# 새매

*Accipiter nisus* Linnaeus, 1758

## 분류학적 위치

매목(Falconiformes) 수리과(Accipitridae)

영명: Eurasian Sparrowhawk

지정현황: 천연기념물 제323-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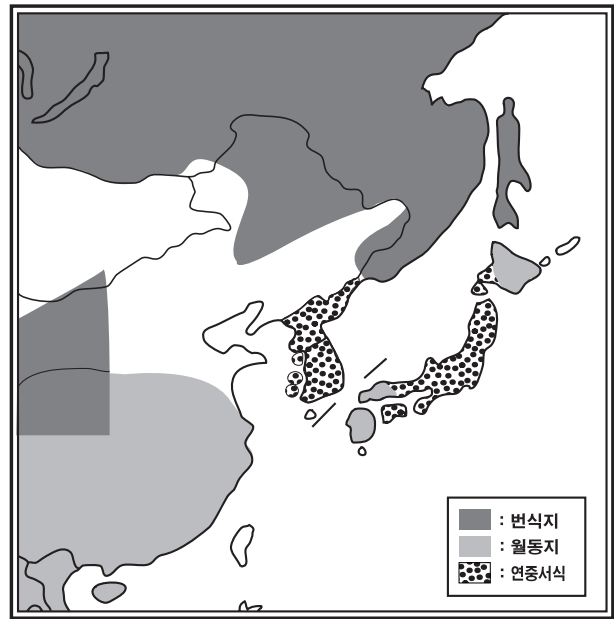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겨울철새이자 텃새로 농경지와 산림, 개활지 등에 서식한다.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번식에 대한 기록은 없다. 이동 시기에는 170여 개체 이상이 관찰되나 월동기에는 관찰되는 개체수가 적다.

## ● 형태

수컷은 앞이마가 회백색이며, 눈 위에 회백색 눈썹선이 지나간다. 머리꼭대기 뒷부분부터 위꼬리덮깃까지는 어두운 회색이다. 암컷은 전반적으로 갈색을 띠고, 눈 주위는 검은색이며, 턱밑과 턱 아래 부위는 흰색 바탕에 어두운 갈색 반점이 있다. 그 외의 아랫면은 흰색이며 황갈색과 어두운 갈색 가로띠가 있다(원 1981).



## ● 생물학적 특성

새매는 비번식기에 단독생활을 하며 개활지, 농경지, 하천, 도서 등에서 관찰된다. 둥지는 보통 잡목림의 4-8m이상 높은 가지에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접시모양으로 쌓아 만들며, 다른 조류가 만든 둥지를 사용하는 때도 있다. 5월경 알 4-5개를 낳는다. 알은 엷은 푸른색 바탕에 붉은빛 도는 갈색 큰 얼룩무늬와 엷은 보라색 무늬가 산재한다. 포란기간은 32-34일, 육추기간은 24-30일이다. 소형 조류나 작은 곤충, 쥐 등을 먹는다(원 1981).

## ● 분포 현황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이동 시기에 경유지로 판단되는 서해 도서지역과 부산시 등에서 관찰된다.

## ● 번식지 동향

1900년대까지 번식기에 관찰된 기록이 없으며, 2000년대 들어 번식기에 관찰기록이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검토가 요구된다.

## ● 서식지 동향

번식기에는 약간 높은 산지나 평지의 숲 속에 서식하나, 번식기 이외에는 산림, 평지, 도시 인근 농경지 등에서 관찰된다. 최근 각종 개발로 인한 산림 파괴로 서식지가 줄어들고 농경지 감소로 인한 먹이부족 등으로 개

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 ● 개체수 현황

2002년 인천광역시 소청도에서 170여 개체, 전라남도 홍도와 흑산도 등지에서 이동 시기에 2005년 20-60개체, 2006년 23개체, 2007년 67개체, 2008년 전라북도 어청도 등에서 47개체, 2009년 거제도에서 50여 개체 등 서해 도서지역과 부산시 등에서 비교적 많은 개체가 관찰되었다(김 2010). 1999년 4개체, 2003년 9개체, 2006년 17개체, 2008년 14개체, 2010년 34개체가 관찰되었다(환경부 1999-2010).

## ● 국제 동향

유럽, 아프리카 서북부, 러시아, 중국 북부, 사할린, 일본 등에 서식한다. 북부의 번식 집단은 겨울에 중국 남부, 인도 및 보르네오 등지에서 월동한다. 국제적인 개체수는 1990년대 초 오스트리아에 9,000개체, 벨로루시에 20,000개체, 러시아에 320,000개체 정도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el Hoyo *et al.* 1994).

## ● 위협 요인

각종 개발로 인한 산림과 농경지의 감소 등 서식지의 축소와 먹이의 부족이 주요 위협 요인이다.

## ● 특기 사항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323-4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통과시기에 주로 관찰되는 지역인 서해안 및 남해안 일대에 대한 보존이 필요하다.

## ● 평가 결과: VU D(1)

국내에 기록된 개체수는 34개체 정도로 소수가 도래하며, 이동 시기에는 170여 개체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서식지의 단편화 등으로 개체수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취약종(VU) D(1)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4.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2. Lynx Edicions, Barcelona. pp.158.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김성현. 2010. 멸종위기 수리목(Accipitridae) 조류의 분포와 이동 생태.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pp.503-505.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

*Accipiter nisus* is wintering bird in Korea. Wintering population size very small. Not globally threatened. The population size is extremely large, and hence does not approach the thresholds for Vulnerable under the population size criterion. It feeds on small birds, insects, rodents, etc. They have never been proved to breed in Korea. Nowadays, its habitats has been greatly reduced, The more observation and protection is required to conserve this species. International population size estimated about 350,000 mature individuals in early 1900's. It observed about 50-170 birds in Korea. It meets the criteria for VU D(1).

집필자: 박진영(국립환경과학원), 이한수(한국환경생태연구소)



# 새홀리기

*Falco subbuteo* Linnaeus, 1758

## 분류학적 위치

매목(Falconiformes) 매과(Falconidae)

영명: Eurasian Hobby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II급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암컷과 수컷 모두 머리꼭대기 뒷부분부터 위꼬리덮깃까지 어두운 회색을 띤 갈색이며,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분포한다. 주로 산림에서 번식하나 도시의 산림 및 까치의 빈 등지, 빌딩에서도 번식하는 종으로 번식기에 인간에 의한 까치등지 소실 등 인간의 간섭에 의해 위협받고 있어 취약종(VU)로 평가했다.

## ● 형태

암컷과 수컷 모두 머리꼭대기 뒷부분부터 위꼬리덮깃까지 어두운 회색을 띤 갈색이며, 각 깃털의 가장자리는 붉은 갈색으로 폭이 좁다. 앞이마에서 눈 위를 지나는 황백색 가는 띠가 있으며, 눈 아래, 귀깃 윗부분, 턱선 등은 어두운 갈색이다. 턱밑, 턱 아래 부위, 목옆은 황백색이며, 가슴, 배, 옆구리는 크림색 바탕에 어두운 갈색 세로 얼룩무늬가 있다. 아랫배, 아래꼬리덮깃은 붉은빛 도는 녹색이다. 부리는 어두운 회색으로 끝이 진하며, 다리는 황색이다.



## ● 생물학적 특성

평지의 작은 숲에 서식한다. 끝이 뾰족한 날개를 빠르게 펼치며 직선으로 날아가고, 날개를 심하게 움직이며 한 곳에 정지할 때도 있다. 작은 새를 습격할 때는 하늘에서 날개를 오므려 급강하해 잡는다. 둥지는 직접 만들지 않고, 나무 위에 있는 다른 새의 둥지를 이용한다. 알 낳는 시기는 5월 하순-6월 하순이다. 알은 엷은 황갈색 바탕에 작고 붉은 얼룩무늬가 있으며, 2-3개 낳아 28일 동안 품는다(원 1981).

## ● 분포 현황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한다.

## ● 번식지 동향

주로 산림에서 번식하지만 도시의 숲에서도 번식한다. 최근에 강원도 홍천, 충청남도 이사리 등 곳곳에서 번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원 1981). 조사 자료가 부족해 확인된 둥지는 많지 않지만, 전국 각지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 서식지 동향

산림지대, 도시의 숲, 개활지, 농경지 등에 서식한다(이 등 2000).

## ● 개체수 현황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 2006년에 43개체, 2007년에 114개체, 2008년에 91개체, 2009년에 98개체로 조사되었다(환경부, 2006-2009).

## ● 국제 동향

중국, 시베리아, 몽골, 일본 등지에서 번식해 동남아시아(인도, 말레이시아 등)에서 월동한다. 1980년대에 유럽에서 20,000여 개체가 확인되었으며, 1990년대 70,000여 개체가 유럽과 러시아 등지에서 확인되었다(del Hoyo *et al.* 1994).

## ● 위협 요인

주로 산림에서 번식하나 도시의 산림 및 까치의 빈 등지, 빌딩에서도 번식하는 종으로 번식기에 인간에 의한 까치둥지 소실 등 인간의 간섭에 위협받고 있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I 급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 ● 평가 결과: VU D(1)

골프장, 산업 및 주택 단지 조성으로 인한 개발로 산림이 감소 및 훼손되고 서식지가 단편화되고 있으며, 서식지 파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체수가 많지 않아 취약종(VU) D(1)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4.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2. Linx Edicions, Barcelona. pp.268.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pp.535-537.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104-105.

환경부. 1997-2007.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

*Falco subbuteo* has an extremely large range, and hence does not approach the thresholds for Vulnerable under the range size criterion. Despite the fact that the population trend appears to be decreasing, the decline is not believed to be sufficiently rapid to approach the thresholds for Vulnerable under the population trend criterion. The population size is very large, and hence does not approach the thresholds for Vulnerable under the population size criterion. It meets the criteria for VU D(1).

집필자: 박진영(국립환경과학원), 신용운(한국환경생태연구소)

# 섬개개비

*Locustella pleskei* Taczanowski, 1889

## 분류학적 위치

참새목(Passeriformes) 휘파람새과(Sylviidae)

영명: Styan's Grasshopper Warbler

지정현황: -

IUCN 범주: VU (취약종)

## ● 요약

우리나라의 서해와 남해 및 동해안의 도서에 번식하는 여름철새다. 번식 개체군의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도서지역에서의 번식지 감소와 월동지역의 습지 감소로 보호가 요구된다.

## ● 형태

몸 윗면은 올리브색을 띤 갈색이고 허리와 위 꼬리 덮기는 황갈색이다. 바깥 꼬리깃 끝에 회색빛이 도는 흰색 띠가 있고 아랫면은 흰색이다. (원 1981; 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섬개개비는 우리나라 동해, 서해, 남해의 섬에 번식하는 여름철새다. 대나무 숲이나 관목 또는 잡목 숲에 서식하며 가끔 밭이나 인가 주변까지 내려와 먹이를 찾는다. 대나무줄기 사이나 나뭇가지 사이에 동지를 틀고 5월 중순-6월 중순, 때로는 8월 상순에 한배에 알 4개를 낳는다. 먹이는 곤충류가 주식이며, 복족류 연체동물도 잡아먹는다(원 1981).



## ● 분포 현황

우리나라 서해안, 남해안 및 동해안의 유인도서 및 관목림과 초지가 있는 무인도서에 분포한다.

## ● 번식지 동향

울속도 남단, 마라도에서 번식이 확인되었고, 그 외 서해와 남해 및 동해안의 도서에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서식지 동향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 및 동해안의 무인도서 및 유인도서의 관목림이나 초지 등에 서식한다.

## ● 개체수 현황

번식 개체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며, 번식기에 관찰된 도서는 동해안의 울릉도, 서해안 인천시의 대가덕도, 소가덕도, 대령도, 소령도, 목덕도, 강화도의 소송도, 전라남도의 난도, 칠산도, 칠발도, 남해안의 흥도, 거

제도, 제주도, 사수도 등에서 소수 개체가 확인되었다(문화재청 2008; 국토해양부 2010).

## ●국제 동향

전 세계 개체수는 2,500-10,000개체로 추정하며, 개체수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 번식지인 Miyake-jima 이주(Izu) 섬의 경우 화산폭발 이후인 2003년에 300개체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홍콩의 마이포 습지는 월동지로서 중요해 보호지역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BirdLife International 2000; del Hoyo *et al.*, 2006).

## ●위협 요인

번식지인 도서지역에서의 번식지 감소와 월동지에서의 습지 감소가 주된 위협 요인이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의 두만강 개발계획은 이들의 서식지 감소에 주된 요인이며, 여러 가지 인간의 방해와 오염 등도 위협 요인이다 (del Hoyo *et al.*, 2006).

## ●특기 사항

환경부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보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해안의 도서지역에 도래해 번식하므로 번식지에 대한 보호가 요구된다.

## ●평가 결과: VU D(1)

국내 개체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며, 해안과 섬에 국한된 분포지역, 서식지의 감소 등으로 다양한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IUCN 적색목록 기준에 따라 취약종(VU) D(1)으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BirdLife International. 2000. Threatened birds of the world. Lynx Edicions. pp.478.

del Hoyo, J., A. Elliott and D.A. Christie. eds. 2006.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11. Lynx Edicions, Barcelona. pp.615-616.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국토해양부. 2010. 인천시·김포시 무인도서 실태조사 및 관리유형 지정방안 마련 연구. 국토해양부. 459pp.

문화재청. 2008. 천연기념물 무인도서 평가 및 보호·관리방안 연구.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 155pp.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pp.902-904.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236.

*Locustella pleski* is a localised breeder on small islands in Peter the Great Bay in the extreme south of far eastern Russia, the Izu Islands and islands of Kyushu, Japan, and islands of South Korea and probably North Korea. It has been recorded on passage along the coast of eastern China and presumably winters in coastal wetlands in south China, although the only confirmed records are from Hong Kong (China). The population is unlikely to be more than a few thousand individuals, although it is poorly known, as many offshore islands remain unsurveyed and it is relatively difficult to detect.

The main threat is likely to be habitat loss and degradation, although the extent to which this is affecting it is currently unclear. In Russia, and possibly North Korea, the large-scale Tumangan Project could lead to increased human disturbance and pollution, possibly affecting islands where it breeds. A camping ground or marine park is planned for Toga Point on Miyake-jima (Izu Islands), which would destroy an important area of habitat. There is continued extensive loss of wetlands in its wintering range and the reedbeds in Deep Bay, Hong Kong, may be one of the largest areas of such habitat left in south China. Its population has been estimated at 2,500-10,000 individuals, but could be fewer than 1,000 mature individuals. It meets the criteria for VU D(1).

집필자: 채희영(국립공원철새연구센터), 김인규(한국환경생태연구소)

# 솔개

*Milvus migrans* Boddaert, 1783

## 분류학적 위치

매목(Falconiformes) 수리과(Accipitridae)

영명: Black Kite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II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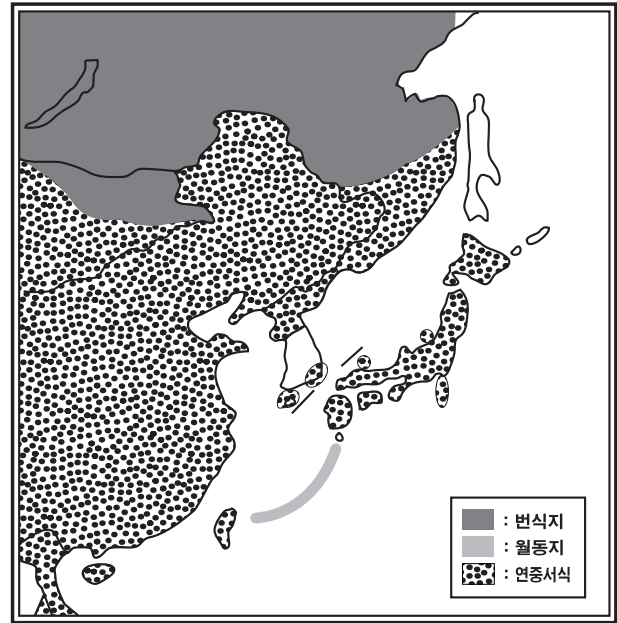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과거에는 흔한 텃새였으나 현재 일부는 텃새로, 일부는 드문 겨울철새로 남아있다. 해안, 도서지역 인근에 위치한 산림의 교목 위나 절벽 틈에 둥지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강 하구, 천수만, 낙동강 하구 등지와 소청도, 어청도, 홍도, 가거도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도서지역에서 관찰 빈도와 개체수가 집중되어 있다. 특히, 제주도와 낙동강 하구의 울속도에서는 연중 관찰되기도 한다.

## ● 형태

전체적으로 흑갈색이다. 날아오를 때 날개 아랫면 첫째날개깃 기부에 흰색 반점이 보인다. 꼬리가 길며, 꼬리 끝은 일직선이 되지만 접으면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다. 눈 뒤로 검은 선이 뚜렷하게 보인다. 어린 새는 전체적으로 적갈색 기가 약하며, 등과 날개덮깃 끝에 폭 넓은 흰색 반점이 흩어져 있다(채 등 2009).



## ● 생물학적 특성

해안, 도서지역, 호반에 인접한 산림의 교목 위 또는 절벽 등지에 둥지를 마련한다. 절벽의 경우 지상에서 약 30m 높이에 둥지를 만들며, 교목의 경우 흉고직경 34cm 이상인 나무의 높이 약 10m 지점에 둥지를 만드는 것이 보통이다. 관목 가지를 이용해 접시모양의 둥지를 틀며, 산란기에는 동물의 털, 실, 형겅 등을 주위 깔기도 한다. 산란기는 3월 중순에서 5월 중순까지이고, 한배에 알을 2-3개 낳으며, 포란 후 30-34일 지나면 부화한다. 부화 직후의 새끼는 온 몸에 넓은 황갈색을 띤 회색빛 솜털이 밀생한다. 쥐, 소형 조류, 양서류충류, 곤충, 버려진 고기, 생선 등을 먹는다(원 1981; 문화재청 2009).

## ● 분포 현황

낙동강 하구, 사천만 등 남해안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개체수가 보고되었고, 백령도, 소청도, 홍도, 가거도 등 서해안 도서지역 및 독도, 천수만, 칠원평야 등지에서도 적은 개체수가 분포하는 것이 보고되었다.

## ● 서식지 동향

외딴 섬의 숲속에서 드물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서식환경은 보고되지 않은 실정이다.

## ● 번식지 동향

1999년 거제도 인근 지심도에서 번식이 확인된 이후 2000년에는 부산시 남구 용호동에서도 번식이 확인되었다(김 2010).

## ● 개체수 현황

사천만에서 2007년과 2008년에 10여 개체가 보고된 바 있다. 봄 이동 시기의 경우, 1950년대를 전후해 수도권 인근과 부산시 을숙도에서 관찰한 기록이 있으나 2000년 이후로는 백령도, 대청도, 흑산도, 독도 등 도서지역과 강원도 고성, 부산시 일대에서만 관찰기록이 보고되었다. 가을 이동 시기의 경우, 과거 백령도, 독도 등 도서지역과 서울시 인근에서 관찰기록이 보고되었고, 2000년 이후로는 소청도, 어청도, 홍도, 가거도 등 서해안 도서지역 및 독도, 천수만 등지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낙동강 하구 등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100여 개체가 연중 관찰되고 있어 차후 번식지 관찰기록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환경부 2000-2009; 환경부 2000-2010).

## ● 국제 동향

극지와 사막을 제외한 유라시아대륙, 아프리카 대륙,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마다가스카르, 스리랑카, 일본, 대만, 하이난섬, 슬라웨시, 소순다열도, 뉴기니아 등지에 번식한다. 유럽과 북아프리카의 번식 집단은 대부분 열대 아프리카에서 월동하고, 시베리아, 몽골, 중국 북부의 번식 집단은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월동한다. 이외의 지역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년 내내 동일 지역에서 머문다. 전 세계 개체수는 1,000,000-6,000,000 사이로 추정하며, 동북아시아에 도래하는 개체수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del Hoya *et al.* 1994).

## ● 위협 요인

현재 규칙적인 도래지는 낙동강 하구를 비롯한 남해안 인근 섬 일대만 보고되고 있다. 대부분의 맹금류와 마찬가지로 행동권이 넓으며, 서식지 파편화 및 단편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볼 때, 지속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도래, 서식하는 개체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Sergio *et al.* 2003)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I 급으로 지정·보호하고 있으며, CITES 부속서 II 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적 보호종이다.

## ● 평가 결과: VU D(1)

낙동강 하구 인근에서 연중 관찰되고 있으며, 기타 지역의 관찰기록의 경우 특정 시기에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IUCN 적색목록 기준에 따라 취약종(VU) D(1)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4.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2. Lynx Edicions, Barcelona. 638pp.
- Sergio F., P. Pedrini & L. Marchesi. 2003. Adaptive selection of foraging and nesting habitat by black kites(*Milvus migrans*) and its implications for conservation: a multi-scale approach. *Biological Conservation* 112: 351-362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http://en.wikipedia.org/wiki/Black\\_Kite](http://en.wikipedia.org/wiki/Black_Kite)
- <http://www.birdlife.org/datazone/speciesfactsheet.php?id=112465>

- 김성현. 2010. 멸종위기 수리과(Accipitridae) 조류의 분포와 이동 생태.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진영. 2002. 한국의 조류 현황과 분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1,126pp.
- 채희영, 박종길, 최창용, 빙기창. 2009. 한국의 맹금류. 국립공원관리공단. 164pp.
-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 환경부. 1997-2009.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Milvus migrans* is a winter migratory bird. It is most often seen gliding and soaring on thermals as it searches for food. The flight is buoyant and the bird glides with ease, changing direction easily. Typically, it breeds in Siberia, Mongolia and northern China, and wintering area is India, eastern Asia, Japan and Korea Peninsula. Some individuals of this species tend to shown as a resident bird in South Korea. It meets the criteria for VU D(1).

집필자: 박진영(국립환경과학원), 김달호(한국환경생태연구소)

# 쇠검은머리쭈새

*Emberiza yessoensis* Swinhoe, 1874

## 분류학적 위치

참새목(Passeriformes) 멧새과(Emberizidae)

영명: Japanese Reed Bunting

지정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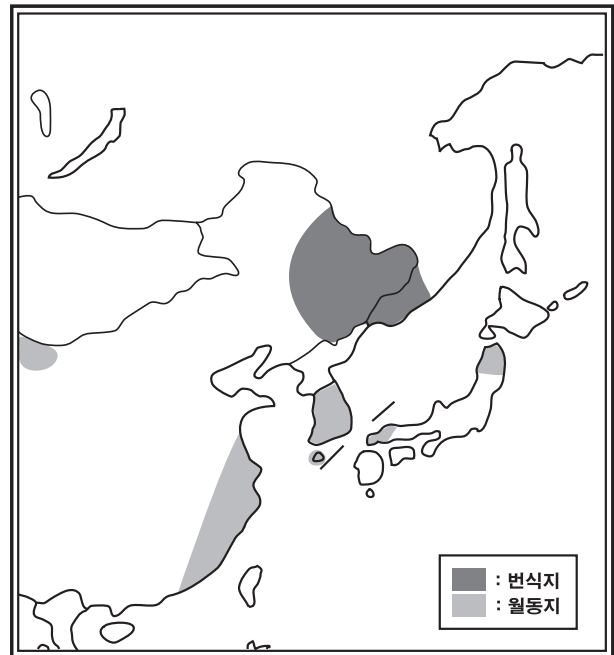
IUCN 범주: NT (준위협종)

## ● 요약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겨울철새이며, 전국의 평지와 개활지, 간척지 주변의 갈대밭에 서식한다. 소수가 관찰되고 있으며, 간척지의 개발과 하천의 정비나 개발 등으로 서식지가 점차 축소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취약종(VU)로 평가했다.

## ● 형태

수컷의 겨울깃은 머리 부분이 검은색이나, 머리꼭대기 깃털은 안쪽 가장자리는 갈색, 바깥쪽 가장자리는 황갈색이다. 뒷목과 목옆은 황갈색, 등과 어깨깃은 검은색이며, 머리꼭대기와 마찬가지로 안쪽 가장자리는 갈색, 바깥쪽 가장자리는 황갈색이다. 허리와 위꼬리덮깃은 황갈색이다. 턱밑, 턱 아래 부위의 각 깃의 끝은 황갈색이고, 가슴은 살색이다. 배는 흰색이며, 가슴 옆과 배 옆에는 얇은 갈색 세로 얼룩점이 있다. 봄철에 눈앞과 턱밑의 깃털이 검은색으로 털갈이해 여름깃으로 바뀐다. 수컷의 부리는 여름철에는 검은색, 겨울철에는 옅은 갈색이고, 암컷은 여름과 겨울 모두 윗부리는 어두운 갈색, 아랫부리는 옅은 갈색이다. 다리는 옅은 황갈색이다 (원 1981; 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키 작은 나무가 있는 초원에 서식한다. 둥지는 풀줄기나 풀뿌리에 식물의 줄기나 잎을 사용해서 밥그릇모양으로 만든다. 알 낳는 시기는 6월 상순-7월 중순이다. 알은 우중충한 흰색에 황갈색의 얼룩무늬가 있으며, 3-5개 낳는다(원 1981).

## ● 분포 현황

우리나라 전국의 평지와 개활지에 분포하며,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형성된 천수만, 영암호, 금호호, 고천암호 등과 비교적 큰 수계의 강이나 하천의 수변에 분포한다.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에서 번식하지 않고 겨울에 월동하는 겨울철새이며, 몽골 동부, 만주, 우수리지역, 중국 북부 등지에서 번식한다.



## ● 서식지 동향

우리나라 전국의 평지와 개활지, 간척지 주변의 갈대밭에 서식한다.

## ● 개체수 현황

우리나라 전국의 평지와 개활지, 간척지 주변의 갈대밭에 월동하며, 2006년 대산에서 2개체, 2008년 다목에서 3개체, 서화에서 6개체, 2009년 낙동강 하류에 15개체, 양양 남대천에 6개체의 총 21개체에 대한 기록이 있다(환경부 1999-2010).

## ● 국제 동향

전 세계 개체수나 월동지에서의 개체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으며, 절멸위기에 근접한 종으로 보호를 요한다(BirdLife International 2001; IUCN 2010).

## ● 위협 요인

간척지의 개발과 하천의 정비나 개발 등으로 서식지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 ● 특기 사항

현재 심각한 절멸위기는 아니지만 개체수가 적어 절멸위기에 근접한 종으로 취급해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있다(BirdLife International 2001).

## ● 평가 결과: VU D(1)

우리나라에 관찰된 개체수가 많지 않으며, 분포지역의 서식지 훼손으로 개체수 감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IUCN 적색목록 기준에 따라 취약종(VU) D(1)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BirdLife International. 2001. Threatened birds of Asia: the BirdLife International Red data Book. Cambridge, UK.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pp.968-970.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264.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Emberiza yessoensis* breeds in wetlands with tall grass and scrub in Primorye in extreme south-east Russia, Honshu, Kyushu and formerly Hokkaido, Japan, and Heilongjiang in north-east China, and it is a passage and/or winter visitor to North Korea (where it is also likely to breed), South Korea and the coast of eastern China. It is considered to be uncommon or rare in all parts of its range. It is presumably declining because of the loss and degradation of wetland habitat within its breeding range. It meets the criteria for VU D(1).

집필자: 채희영(국립공원철새연구센터), 김인규(한국환경생태연구소)

# 수리부엉이

*Bubo bubo* Linnaeus, 1758

## 분류학적 위치

올빼미목(Strigiformes) 올빼미과(strigidae)

영명: Eurasian Eagle-owl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Ⅲ급, 천연기념물 제324-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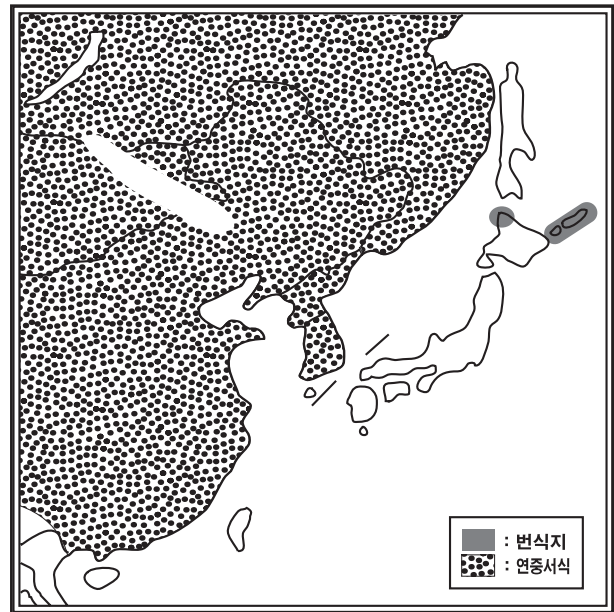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텃새이며, 암벽지대나 바위산을 선호하는 올빼미류 중 대형 조류다. 산림 가장자리의 도로 개설, 산림 면적의 감소 등이 종의 서식지 단절 및 단편화를 초래하는 등 종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취약종(VU)로 평가했다.

## ● 형태

몸길이는 약 70cm 이며 올빼미과의 조류 중 몸이 가장 크고 귀깃도 길다. 눈은 주황색을 띤 노란색이다. 머리꼭대기에서 목 뒤까지 그리고 등과 날개덮깃은 황갈색 바탕에 검은색과 진한 갈색 세로 줄무늬가 있다. 가슴과 배의 세로 줄무늬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다리와 발가락은 연한 갈색 깃털로 덮여있다(원 1996; 이 등 2000; 이와 이 2009).



## ● 생물학적 특성

산림만으로 이루어진 산지보다는 개활지가 인접한 암벽지대나 바위산을 선호한다. 무리를 짓지 않고 단독으로 생활하며, 낮에도 활동한다. 둥지를 만들지 않고 암벽의 선반처럼 생긴 곳, 바위의 평평한 곳, 바위 틈 사이를 이용해 산란한다. 한 번에 알을 2-3개 낳으며, 알 색깔은 흰색이다. 포란기간은 34-36일이며, 암컷이 포란을 전담하고, 수컷은 포란하고 있는 암컷에게 먹이를 공급한다. 먹이는 쥐, 두더지, 토끼, 개구리, 뱀, 비둘기, 꿩 등을 먹는다(원 1981, 1996; 이 등 2000; 최 등 2007; 이와 이 2009).

## ● 분포 현황

경상북도, 강원도, 경상남도, 울산, 충청남도, 충청북도, 부산, 전라남도, 제주도 등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 ● 번식지 동향

전국적으로 많은 번식지가 산재해 있으며, 산림지역으로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 위치한 국립수목원, 강원도 속초시 정동진읍의 야산, 개활지로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의 야산, 경기도 화성시 신외동 인근의 시화호 주변 등이 있다(문화재청 2007).

## ● 서식지 동향

저지대에서 고지대 바위산과 하천을 끼고 있는 절벽 등지에 서식하며, 비교적 산림과 개활지에서 먹이를 포획한다.

## ● 개체수 현황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에서 8개체 이하(1999년에 2개체, 2000-2004년에 각 0개체, 2005년에 3개체, 2006년에 3개체, 2007년에 4개체, 2008년에 5개체, 2009년에 8개체, 2010년에 3개체)가 관찰되었다(환경부, 1999-2010). 단독으로 생활하며 전국의 암벽이 있는 산림과 개활지에서 1-5개체의 소수가 관찰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철원평야, 연천, 한강 하구(오두산 전망대와 행주대교 사이), 진양호, 우포늪, 시화호 등에서도 소수가 관찰된다(함 1997; 이 2002; 조와 최 2002; 김 등 2010).

## ● 국제 동향

아프가니스탄,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홍콩, 인도, 중국, 일본 등 구북구 전역과 북아프리카에 널리 분포하며, 전 세계 집단은 약 250,000개체다(IUCN 2010).

## ● 위협 요인

숲 면적의 감소와 단편화, 숲 가장자리의 개발과 도로의 건설 등 서식환경의 변화는 정주성 맹금류인 수리부엉이의 먹이자원 선택에 변화를 주고 있다. 또한, 먹이 확보를 위한 서식지 이용 양상의 변화는 수리부엉이의 장거리 이동 및 익숙하지 않은 지역으로의 이동을 늘임으로써 차량 충돌 등 재난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또한 과거 약용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개체수가 급감했다. 산림 내 골프장 조성, 숲 가장자리의 개발 및 도로의 건설, 골재채취 등은 서식지 단편화 및 서식지 상실을 초래하고 있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I 급,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324-2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 ● 평가 결과: VU D(1)

우리나라 전역의 암벽 산림지대에 서식하는 종으로 국내 전체 서식 개체군에 대한 정확한 현황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겨울철새 동시센서스를 통해 최대 8개체가 관찰된 기록이 있으며 실제로는 더 많은 개체가 서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산림의 면적이 줄어들며, 숲 가장자리의 도로 건설과 같은 개발활동을 통해 서식지 단절 및 단편화로 종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IUCN 적색목록 분류 기준의 취약종(VU) D(1)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김창희, 강종현, 이윤경, 김동원, 서재화, 김명진. 2010.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멸종위기조류의 국내 분포현황. 한국조류학회지, 17: 67-137.
- 문화재청. 2007. 중장기 천연기념물(동물) 분포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 182pp.
- 이기섭, 이종렬. 2009. 새. 필드가이드. 288pp.
-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320pp.

-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1,126pp.
- 원병오. 1996. 한국의 조류. 교학사. 453pp.
- 이두표. 2002. 탐진댐 수몰예정지역 일대의 조류상. 호남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논문집, 10: 77-86.
- 조삼래, 최청일. 2002. 동강의 조류상. 한국하천호수학회지, 35(5): 337-343.
- 최창용, 남현영, 이우신. 2007. 서로 다른 환경에 서식하는 수리부엉이(*Bubo bubo*)의 먹이 이용.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1(1): 30-37.
- 함규황. 1997. 한국의 주남 · 동판저수지의 9년간('88-'96)의 천연기념물 현황. 경희대학교 한국조류연구소. 연구보고, 6(1) 63-71.
- 환경부. 1997-2009.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Bubo bubo* has an extremely large range. It is distributed widely on the Eurasian continent and the northern part of African continent. In Korea, it occurs rock forest near by open field the whole country. It hunts animals such as rodents, hares and birds. Since 1970 century, Forest was developed to make a road and building etc. Mountains and forests have been damaged extensively because of indiscriminate reclamation. It was a direct cause. Global population size is 250,000 individuals. It meets the criteria for VU D(1).

집필자: 백운기(국립중앙과학관), 송민정(한국환경생태연구소)

# 알락꼬리마도요

*Numenius madagascariensis* Linnaeus,  
1766

## 분류학적 위치

도요목(Charadriiformes) 도요과(Scolopacidae)

영명: Far Eastern Curlew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II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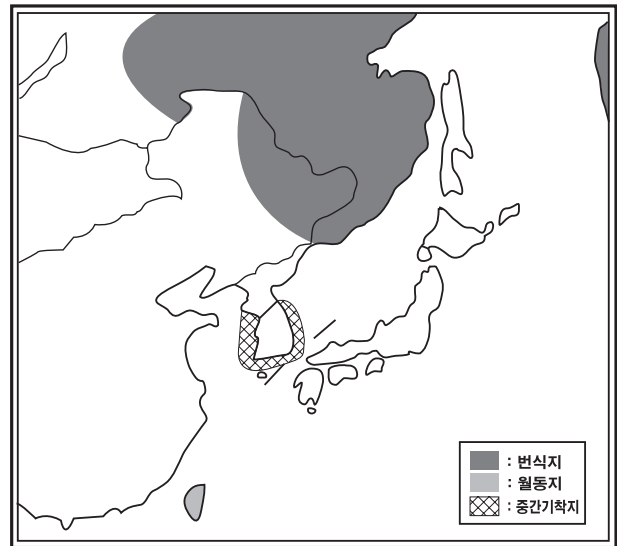
IUCN 범주: VU (취약종)

## ● 요약

알락꼬리마도요는 국내 서남해안의 갯벌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는 통과철새로서 번식지는 습지와 초지, 고원 등지이며, 비번식기에는 하구지역과 맹그로브 습지, 염습지, 갯벌이 있는 해안에서 주로 생활한다. 국내 서해안 매립으로 인한 갯벌의 축소로 중간기착지로서의 기능이 축소된 것이 차후 개체군에게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취약종(VU)으로 평가했다

## ● 형태

부리는 길고 아래로 휘어져 있으며, 수컷이 암컷보다 짧다. 날 때 등과 허리에 흰색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날개의 아랫면에는 갈색 기는 줄무늬가 뺨뺨이 있다. 몸 길이는 53-66cm이다(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고산의 초지나 고원 또는 툰드라 등지에서 작은 관목이 있는 풀밭 땅 위의 오목한 곳에 등지를 만든다. 녹색 바탕에 반점이 있는 알을 4개 정도 낳는다. 번식기에 딱정벌레 애벌레 및 기타 곤충류를 먹으며, 비번식기에는 게나 갑각류 등 해양 무척추동물들을 먹는다. 번식이 끝나면 동남아시아 및 호주 지역으로 이동한다(원 1996; del Hoyo *et al.* 1996).

## ● 분포 현황

봄·가을 이동 시기에 서남해 해안에서 주로 관찰되는 통과철새다. 봄에는 3-4월, 가을에는 7-8월에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집단이 확인된다(이 등 2000).

## ● 번식지 동향

통과새로 국내 번식기록이 없다.

## ● 서식지 동향

번식지는 습지와 초지, 고원 등지이며, 비번식기에는 하구지역과 맹그로브 습지, 염습지, 갯벌이 있는 해안에서 주로 생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동 시기에 주로 서남해안 지역에서 관찰된다(del Hoyo *et al.* 1996).

## ● 개체수 현황

경기도 지역에서는 주로 강화갯벌에서 확인되며, 1997년도에 1,700여 개체가 확인된 기록이 있다. 충청남도 지역에서는 아산만과 유부도 지역에서 주로 확인이 되며, 2000년 유부도에서 1,000여 개체가 확인된 바 있다. 전라북도지역에서는 동진강 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며, 1998년 1,200여 개체까지 확인된 기록이 있으며, 전라남도에서는 2000년 압해도 갯벌에서 300여 개체가 확인된 기록이 있다(박 2002).

## ● 국제 동향

국제적인 전체 개체수는 38,000여 개체로 추산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개체군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IUCN 2010).

## ● 위협 요인

국내 서해안 갯벌 매립으로 인해 중간기착지로서의 기능이 축소된 것이 차후 개체군에게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I급 종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 ● 평가 결과: VU A1c

현재 주요 관찰지역인 서남해안의 경우 갯벌 매립으로 인해 서식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어 개체군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어 취약종(VU) A1c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6.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3. Lynx Edicions, Barcelona. pp.500-505.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박진영. 2002. 한국의 조류 현황과 분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148-149.
- 원병오. 1996. 한국의 조류. 교학사. pp.181.

*Numenius madagascariensis* is breeding in northeastern Asia, including Siberia to Kamchatka, and Mongolia. Its breeding habitat is composed of marshy and swampy wetlands and lakeshores. International population size estimated about 38,000 individuals. The global population is declining, as indicated by reduced numbers at stopover points in South Korea and Japan, and a significant decline in the number of non-breeding individuals wintering in north-west Australia. It meets the criteria for VU A1c.

집필자: 김진한(국립생물자원관), 이시완(한국환경생태연구소)

# 올빼미

*Strix aluco* Pallas, 1771

## 분류학적 위치

올빼미목(Strigiformes) 올빼미과(strigidae)

영명: Ural Owl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Ⅲ급, 천연기념물 제324-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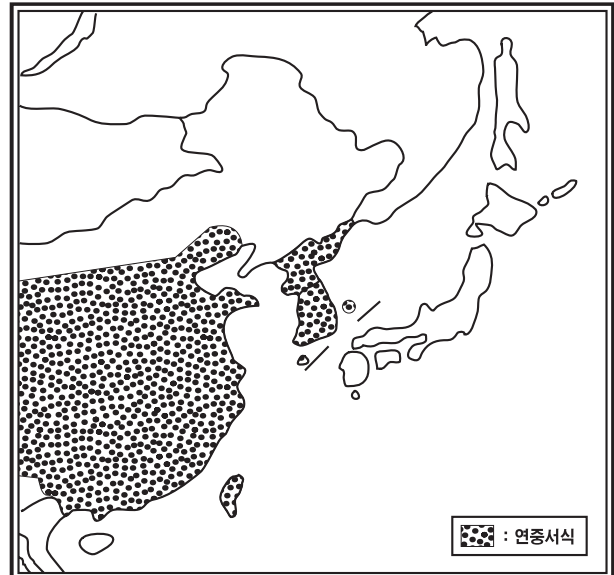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흔하지 않은 텃새로, 혼효림에서 번식하며, 단독으로 생활하는 야행성 조류다. 서식 개체가 많지 않고, 산림 개발활동이 종의 생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취약종(VU)으로 평가했다.

## ● 형태

몸길이 37-39cm로 머리가 둥글고 중형 크기에 속한다. 몸은 회색이며, 귀깃이 없다. 배와 등에는 세로 줄무늬에 가로줄이 섞여 있다. 눈은 검은색이며, 부리는 푸른빛을 띤 회색이다(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평지나 산지의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등에서 단독으로 생활한다. 낮에는 나뭇가지에 앉아 움직이지 않고, 밤에 활동한다. 올빼미류는 청각을 이용해 먹이를 잡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바람이 강한 날에는 낮에도 먹이를 잡는다. 둥지는 까마귀나 매의 낳은 둥지나 나무 구멍 등을 이용한다. 알은 흰색이며, 3월에 3-5일 간격으로 4개를 낳는다(원 1996; 이 등 2000; 이와 이 2009).

## ● 분포 현황

우리나라 전역의 참나무와 침엽수로 구성된 산림지역에 넓게 분포한다.

## ● 번식지 동향

경기도에서 1917년 4월 23일과 1397년 5월 13일 육추 중인 새끼가 채집된 기록이 있으며, 경기도 광릉에서 1964년 3월 18일에 둥지 내의 알 3개가 확인되었고, 4월 19일에 부화 후 2-3일된 새끼를 관찰한 자료가 있다. 최근에는 청원군 금관숲에서 2004년 1쌍이 번식하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박 2002; 문화재청 2007).

## ● 서식지 동향

침엽수와 활엽수가 복합적으로 밀생한 개활지를 낀 산림지역을 선호한다. 산림 내 간벌과 산림 개발 등에 의해 서식지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경상북도 민주지산, 오정산, 충청북도 증평, 청원, 충주 등 우리나라 각지의 산림부에서 불규칙적으로 적은 수가 관찰된다.



## ● 개체수 현황

지역적으로는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관찰기록이 있으며, 보통 1개체에서 가족군으로 최대 5개체가 관찰된 바 있다. 주요 관찰기록은 경기도 광릉에서 1964년 3월 2개체, 1989년 8월 3개체, 2001년 3월 2개체, 2003년 3개체가 관찰된 바 있다. 강원도에서는 점봉산에서 1994년 6월 4개체, 1997년 8월 2개체 등이 관찰되었으며, 충청도에서는 부여군 내산면 해치리에서 2000년 9월 1개체, 2004년 청원 금관숲에서 가족군 5개체가 확인되었다. 그 외 1999년 제주도에서 1개체가 관찰되었으며,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에서 2005년 2개체를 관찰한 기록이 있다 (박 2002; 문화재청 2007).

## ● 국제 동향

독일,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일본, 중국, 몽골 등 유라시아대륙의 온대지역에서 아한대지역까지 넓게 분포한다. 유럽에서는 53,000-140,000개체가 서식하고 있으며, 전 세계 집단은 500,000-8,000,000개체로 추정된다(IUCN 2010).

## ● 위협 요인

산림 간벌 및 고목 제거에 의한 서식지 파괴와 훼손으로 개체군 서식에 위협이 되고 있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I 급,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324-1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 ● 평가 결과: VU A1c

주로 고목에 등지를 틀기 때문에 산림 간벌 및 고목 제거에 의해 서식지가 쉽게 훼손될 수 있는 종으로 국내 산림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IUCN 적색목록 분류 기준의 취약종(VU) D(1)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김창희, 강종현, 이윤경, 김동원, 서재화, 김명진. 2010.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멸종위기조류의 국내 분포현황. 한국조류학회지, 17: 67-137.
- 문화재청. 2007. 중장기 천연기념물(동물) 분포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 182pp.
- 박진영. 2002. 한국의 조류 현황과 분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병오. 1996. 한국의 조류. 교학사. 453pp.
- 이기섭, 이종렬. 2009. 새. 필드가이드. 288pp.
-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320pp.
- 환경부. 1997-2009.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Strix uralensis* is a medium-large owl. It has an extremely large range in Europe and Asia, from Sakhalin, Japan and Korea in the east to Scandinavia in the west. In Korea, It is preferring deciduous woodland but avoiding dense areas. Mainly it was observed Gangwon Province and it occurs irregularly forest nearby open field the whole country. Mountains and forests have been damaged extensively because of indiscriminate reclamation. It was a direct cause. The global population size is 500,000-8,000,000 individuals. But in Korea, it's population size is smaller than 1,000. It meets the criteria for VU D(1).

집필자: 백운기(국립중앙과학관), 송민정(한국환경생태연구소)

# 저어새

*Platalea minor* Temminck & Schlegel, 1849

## 분류학적 위치

황새목(Ciconiiformes) 저어새과(Threskiornithidae)

영명: Black-faced Spoonbill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1급, 천연기념물 제205-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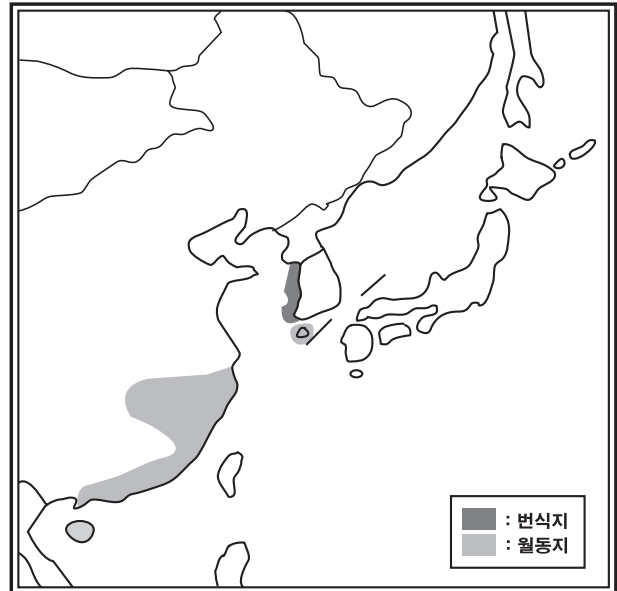
IUCN 범주: EN (위기종)

## ● 요약

여름철새이자 일부는 제주도에서 월동하기도 한다. 한강 하구와 서해안의 작은 바위섬에서 번식하는 국제적 보호조류로,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최대 710개체가 관찰된 바 있다. 번식기에는 주로 경기도만에 집중해 도래하며, 번식기 이후에는 해안과 갯벌, 하천에 넓게 분포한다. 조력발전소 건립, 갯벌의 매립, 공사에 따른 오염물질의 갯벌 유입 등이 이 종의 서식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취약종(VU)으로 평가했다.

## ● 형태

몸은 흰색이며 부리는 주걱모양으로 길고 검은색이다. 부리에 주름이 많으며 검은색이다. 눈 주변에 노란 선이 있거나 부리 끝이 노란개체도 있다. 번식기에는 노란색 가슴 띠와 머리 뒤에 긴 갈기(장식깃)가 생긴다. 어린 개체는 날개 끝이 검고 줄무늬가 있다(원 1996; 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3월 말부터 둥지를 짓기 시작해 5월 하순에 알 4-6개를 낳는다. 알은 흰색으로 흐린 자색과 갈색 얼룩점이 흩어져 있다. 작은 물고기, 개구리, 올챙이, 조개류 등을 잡아먹는다. 3월부터 11월까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서식하며, 일부 개체는 제주도에서 월동하기도 한다(원 1996; 이 등 2000).

## ● 분포 현황

임진강 하구에서부터 낙동강 하구, 제주도 성산포 일대에 이르기까지 해안과 갯벌, 하천을 따라 폭넓게 분포한다.

## ● 번식지 동향

한강 하구와 서해안의 작은 무인도서에서 번식한다. 주요 번식지는 강화남단 각시바위, 요도(역섬), 수리봉, 인천시 송도 남동유수지 등 주로 경기도만 일대의 면적이 넓지 않은 무인도서다. 2007년까지 김포시 유도는 100쌍 이상이 번식하는 국내 최대 저어새 번식지였으나, 외부 요인에 의해 번식지를 떠나는 개체들이 증가해 현재는 대부분이 강화남단의 작은 섬으로 흩어져 번식하고 있다. 그 외, 인천시 송도 남동유수지에서 2007년부터 소

규모의 무리가 새로 번식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에는 약 30쌍이 번식한 바 있어 인천시 송도갯벌 일원을 습지 보호지역(2009년 12월 31일)으로 지정한 바 있다(문화재청 2006, 2007; 문화재청 2009).

## ● 서식지 동향

봄철 물을 가둔 논, 강 하구, 얕은 해안이나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 작은 물웅덩이, 갈대밭 등지를 선호한다. 특히, 강화남단의 여차리, 선두리갯벌은 경기도만에서 번식하는 저어새의 먹이 활동지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해안 갯벌의 대규모 매립, 조력발전소 건설 등으로 서식지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 ● 개체수 현황

우리나라에서의 관찰기록은 1999년 142개체, 2000년 43개체, 2001년 253개체, 2002년 233개체, 2003년 310개체, 2004년 266개체, 2005년 475개체, 2006년 710개체, 2007년 31개체 등이 있다(강 등 2008). 국내 주요 번식지인 경기도만에서 확인된 개체 현황은 강화남단에서 약 280개체, 인천시 송도 일원에서 약 100개체, 시화호 일원 약 100개체, 새만금 일원 약 80개체 등이다. 그 외에도 한강 하구, 만경강, 천수만, 곰소만 등에서 소규모 무리가 서식한다. 우리나라에 월동하는 개체는 1979년 이후 제주도에 도래하기 시작해 1988년 이전까지 5개체 미만만 관찰되었으나 그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에서 월동하는 90% 정도가 성산포 지역에서 월동하며, 성산포 지역에 월동하는 저어새의 최대 개체수는 2003-2004년 월동기에 22개체, 2004-2005년 월동기에 21개체 관찰된 바 있다. 2010년 1월에는 제주도에 27개체가 확인되었다(환경부 1997-2009; 김 등 1998; 환경부 1999-2010; 최 2004; 노 2005; 문화재청 2006, 2007).

## ● 국제 동향

세계적으로 동아시아에서만 서식하는 종으로 한국, 홍콩, 대만,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 분포하고 있으며, 2010년 1월 국제 저어새 모니터링 결과 총 2,347개체가 관찰되었다. 그 중 대만 타이난 시쿠 보호구는 저어새의 최대 월동지로 알려져 있다. 시쿠 보호구에서는 2009년 11월에 최대 1,218개체가 관찰된 바 있으며, 2010년 1월에는 1,280개체가 관찰되었다. 그 외 홍콩과 심천 462개체, 중국 본섬과 하이난 234개체, 마카오 39개체, 일본 258개체, 베트남 46개체가 2010년 1월에 관찰되었다(IUCN 2010; 홍콩야조회).

## ● 위협 요인

갯벌의 매립, 해안도로 건설 및 확장, 공사에 따른 각종 오염물질의 갯벌 유입 등으로 번식지 및 먹이 활동지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경기도만 일대의 조력발전소 건설 등과 같은 서식지 감소와 환경변화를 예고하는 개발 계획이 추진 예정이므로 그 심각성이 크다. 그 외 각종 보호구역 설정 후 인간의 잦은 출입도 번식지 이탈, 번식 실패 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 급,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205-1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집단의 규모는 약 2,500개체로 동아시아 일대에 서식하는 특정종이다. 동아시아 주요국들은 저어새 국제네트워크 사무국을 통해 매년 1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이 자료는 홍콩야조회의 웹사이트를 통해 취합되며, 보고서로 출간되고 있다(IUCN 2010; 홍콩야조회).

## ●평가 결과: VU D(1)

전 세계 집단이 약 2,400개체이며 그 중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710개체가 관찰된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에 매년 소수가 번식하고 있으나 인간의 직접적인 위협과 갯벌의 매립을 통한 서식지 감소 등의 요인에 의해 번식지가 변경되거나 사라지고 있어 개체군의 변동이 크다. 여름철새이므로 우리나라 전역의 해안가에서 관찰되고는 있으나 주요 번식지가 경기도만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경기도만 일대의 갯벌 매립 및 개발 계획 등이 추진되고 있어 국내 최대 번식지 및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IUCN 적색목록 기준의 취약종(VU) D(1)으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강정훈, 김인규, 유승화, 강태한, 백운기. 2008. 한국의 천연기념물 조류의 현황과 서식실태. 한국조류학회지, 15(1): 73-84.
- 김완병, 오홍식, 박행신. 1998. 저어새 *Platalea minor*의 도래현황과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류학회지 5: 27-33.
- 노신애. 2005. 제주도 성산포에 도래하는 저어새(*Platalea minor*)의 월동생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화재청. 2006. 2006년 천연기념물 모니터링. 문화재청. 124pp.
- 문화재청. 2007. 중장기 천연기념물(동물) 분포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 182pp.
- 원병오. 1996. 한국의 조류. 교학사. 453pp.
-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320pp.
- 최창용. 2004. 제주도 성산포에 도래하는 저어새의 월동생태 및 관리방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콩야조회: <http://www.hkbws.org.hk/BBS/viewthread.php?tid=12641&extra=page%3D1>
- 환경부. 1997-2009.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Platalea minor* is large wetland species that visits southern Korea in summer. It has restricted distribution with a very small population, breeding only in Far East Asia. They feed on fish and crustaceans in the shallow waters of mudflats and estuaries, and breed in rock clefts on small oceanic island. Wintering flocks observed at several sites in southern Korea-Jeju Is.(Seongsan), Nackdong river. International population size estimated about 2,347 mature individuals in 2010. It observed more than 100pairs at U-do until in 2007, but lately bred about 30pairs at Song-do in 2010. It meets the criteria for VU D(1). Nowadays, its habitat has been greatly reduced,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required to conserve this species.

집필자: 이기섭(한국물새네트워크), 송민정(한국환경생태연구소)

# 조롱이

*Accipiter gularis* Temminck & Schlegel, 1844

## 분류학적 위치

매목(Falconiformes) 수리과(Accipitridae)

영명: Japanese Sparrowhawk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II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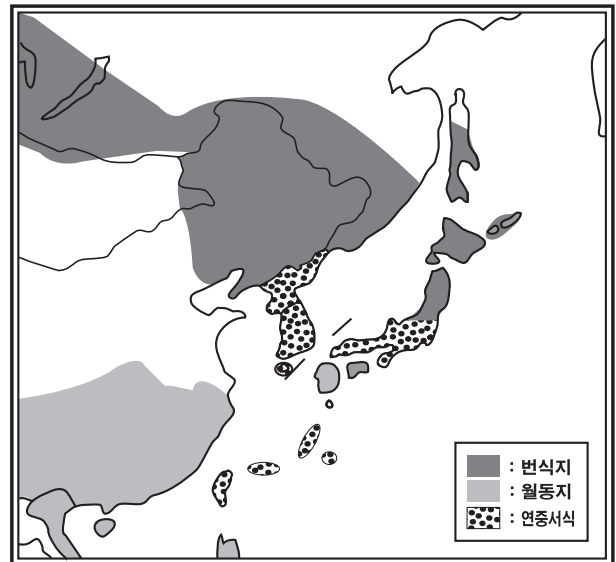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전국에서 관찰되는 텃새로서, 주로 해안가와 인접한 개활지 인근에서 적은 개체가 드물게 관찰된다. 삼림의 교목에 등지를 짓고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번식기보다는 봄·가을 이동 시기의 관찰기록이 많다. 산림의 소나무 숲 등지에 등지를 트는 생태적 특성상, 산지훼손에 의한 서식처 파괴가 개체군 존속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어 취약종(VU)로 평가했다.

## ● 형태

수컷은 몸 윗면이 청록색이며, 몸 아랫면은 흰색이다. 가슴과 옆구리는 옅은 주황색을 띤다. 꼬리는 어두운 청회색으로 두꺼운 흑색 띠가 3줄 있으며 꼬리 끝은 흰색이다. 홍채는 어두운 적색을 띤다. 암컷의 몸 윗면은 수컷보다 청색 빛깔이 옅다. 몸 아랫면은 흰색에 흑갈색 가로 줄무늬가 있으며 홍채는 노란색이다. 암컷과 수컷 모두 눈 주위에 명확한 노란 테가 있다. 어린 개체는 몸 윗면의 깃 가장자리가 황갈색으로 비늘모양을 이룬다. 가슴에 하트모양 세로 줄무늬와 옆구리에는 가로 줄무늬가 있다(채 등 2009).



## ● 생물학적 특성

단독으로 생활할 때가 많으나 이동 시기에는 큰 무리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숲 상공이나 숲 가장자리 또는 부근의 구릉지 또는 농경지 위를 날면서 먹이를 찾거나, 때로는 숲속에서 작은 새나 곤충의 유충을 찾기도 한다. 보통 울창한 숲 속에서 등지를 튼다. 등지는 지상 5-5.5m 높이의 교목 가지 위에 만들며, 나뭇가지를 쌓아 올려 접시모양으로 둥글고 두껍게 튼다. 산란기에는 푸른 나뭇잎을 깐다. 5월경 산란하고, 보통 알을 2개를 낳는다. 알은 옅고 푸른 흰색 바탕에 간혹 갈색 작은 얼룩무늬가 있다. 작은 조류나 포유류를 주식으로 하며 나비 유충이나 메뚜기, 잠자리 등 작은 먹이도 먹는다(원 1981; 문화재청 2009).

## ● 분포 현황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나 관찰 빈도는 높지 않으며, 현재까지 강원도와 경상북도 북부에서는 관찰기록이 보고되지 않고 있다.

## ● 번식지 동향

1948년 6월 경기도 남양주의 소나무 숲에서 등지 1개와 알 3개가 확인된 바 있다(Wolfe 1950). 2000년 이후

관찰기록은 주로 봄·가을 이동 시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번식기 관찰기록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 ● 서식지 동향

해안가를 중심으로 관찰회수가 많고, 번식 등지는 삼림지역에 만드는 것으로 볼 때, 수역을 낀 개활지 인근의 산림지대에 서식할 것으로 여겨진다.

## ● 개체수 현황

봄·가을 이동 시기를 중심으로 서해 인근 도서지역과 해안가에서 1-2개체가 간헐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간혹 수십 개체가 관찰되기도 했다. 소청도에서 2002년 10월 약 200개체, 2003년 10월 약 50개체, 2004년 8월과 10월 각각 30, 70여 개체가 관찰되었으며, 이후 2009년 9-10월 사이 하루에 적게는 1개체, 많게는 50여 개체가 관찰되었다. 번식기의 경우 우리나라 전역에서 1-2개체가 불규칙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월동기의 경우 주로 남부해안과 서남해안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적은 수가 관찰되고 있다(김 2010; 문화재청 2006; 환경부 2000-2009; 환경부 1999-2010).

## ● 국제 동향

전 세계적인 개체수는 10,000-100,000개체로 알려져 있으며, 몽골 북부에서 아무르, 우수리, 중국 동부, 한반도, 사할린 등에서 번식하고, 중국 남부, 동남아시아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el Hoya *et al.* 1994).

## ● 위협 요인

해당 종의 구체적인 위협 요인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산림의 소나무 숲 등지에 등지를 트는 생태적 특성상, 산지 훼손에 의한 서식처 파괴가 개체군 존속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I 급으로 지정·보호하고 있으며, CITES 부속서 II 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적 보호종이다.

## ● 평가 결과: VU D(1)

전국적으로 관찰되고는 있으나 개체수는 적은 편이며, 이동 시기의 경우 특정 지역에 관찰기록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위적, 자연적 요인 등에 의한 서식처 훼손의 우려가 높고 이에 따른 개체군의 급감의 우려되는 종이다. 따라서 IUCN 적색목록 기준에 따라 취약종(VU) D(1)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4.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2. Lynx Edicions, Barcelona. 638pp.

[http://en.wikipedia.org/wiki/Japanese\\_Sparrowhawk](http://en.wikipedia.org/wiki/Japanese_Sparrowhawk)

<http://www.birdlife.org/datazone/speciesfactsheet.php?id=3446>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Wolfe, L. R. 1950. Notes on the Birds of Korea. Auk 67: 433-455pp.

김성현. 2010. 멸종위기 수리새(Accipitridae) 조류의 분포와 이동 생태.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1,126pp.

채희영, 박종길, 최창용, 빙기창. 2009. 한국의 맹금류. 국립공원관리공단. 164pp.

문화재청. 2006. 2006년 천연기념물 모니터링. 문화재청. 124pp.

박진영. 2002. 한국의 조류 현황과 분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환경부. 2000-2009.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Accipiter gularis* is a resident bird. It breeds in China, Japan, Korea and Siberia, winters in Indonesia and Philippines, passing through the rest of Southeast Asia. It likes open and wooded area. Nest is made of twigs and branches at the pine forest, and breeding season, sometimes made of green leaves. It can rarely observed throughout the country of South Korea, and almost of them have seen at northern area and northwestern islands in the country. It lives alone generally, and make a group at migration season. It meets the criteria for VU D(1).

집필자: 박진영(국립환경과학원), 김달호(한국환경생태연구소)



# 참매

*Accipiter gentilis* Linnaeus, 1758

## 분류학적 위치

매목(Falconiformes) 수리과(Accipitridae)

영명: Northern Goshawk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II급, 천연기념물 제323-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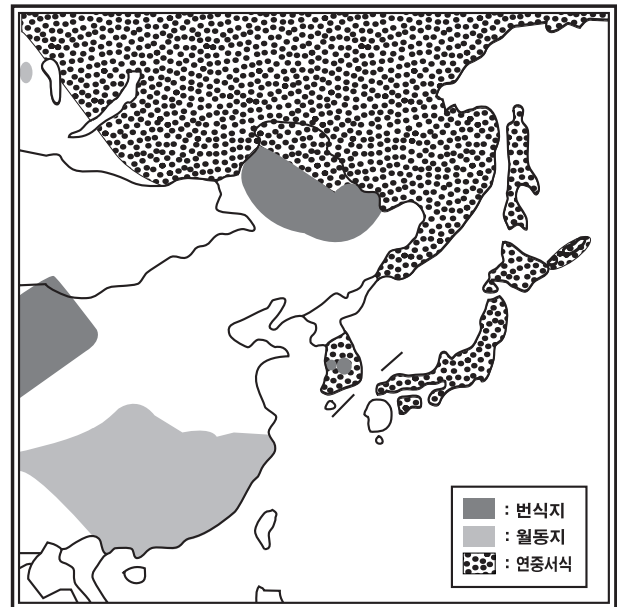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전국적으로 드물게 관찰되는 텃새 및 겨울철새다.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번식기에는 강원도, 충청북도 등의 산림에 분포한다. 이동 시기에는 40-120개체가 관찰되며, 월동기에 관찰되는 개체수는 적다. 최근 강원도와 충청남도 공주, 연기, 충청북도 남한강 인근 지역의 산림지대에서 번식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산림개발, 갯벌 매립 등이 종의 서식지 축소, 먹이원 고갈의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취약종(VU)로 평가했다.

## ● 형태

암수 형태가 유사하며, 흰색 굵은 눈썹선과 두꺼운 검은색 눈선, 노란색 홍채가 특징이다. 머리부터 등, 날개 윗면, 꼬리는 진한 청회색이고 가슴과 배에는 흰색에 흑갈색 가는 줄무늬가 있다. 날개는 짧으며 폭이 넓고, 날 때 보이는 긴 꼬리가 특징이다(원 1981).



## ● 생물학적 특성

암수 함께 생활하거나 단독으로 생활하며 산림, 야산 인근 농경지 및 하천변 등에서 관찰된다. 먹이는 주로 꿩, 비둘기, 오리 등과 같이 날아다니는 조류를 추적해 잡아먹으며 토끼, 청설모, 다람쥐 같은 소형 포유류도 먹는다. 혼효립의 교목 가지에 나뭇가지를 쌓아 접시모양의 둥지를 지상으로부터 4-8m 높이에 만든다. 산란은 5월-6월경 엷은 푸른색의 알을 2-4개 낳는다. 포란기간은 35-38일이며, 육추기간은 37-41일이다(원 1981).

## ● 분포 현황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번식기에는 강원도, 충청북도 등의 산림에 분포한다. 이동 시기에는 서해 도서지역인 소청도, 어청도, 홍도, 흑산도 등에서 비교적 많은 개체가 관찰된다.

## ● 번식지 동향

2006년 충청북도 충주에서 국내 최초 번식이 확인되고, 2009년 충청남도 공주에서도 번식이 확인되어 일부가 강원도와 충청남도 공주, 연기, 충청북도 남한강 인근 지역의 산림지대에서 번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김 2010).



## ● 서식지 동향

겨울철에는 우리나라 전역의 산야, 평지, 하천변 등에서 볼 수 있으며, 번식기에는 비교적 깊은 산림에 서식한다. 주로 낙엽송과 활엽수림이 혼재된 산림에 서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 개체수 현황

2000년대 들어 내륙의 산림지대와 서해 도서지역에서 적은 개체수지만 꾸준히 관찰되고 있다. 충청남도 서산의 간월호 부근에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5개체가 관찰되었으며, 가을 이동 시기에 소청도에서 2002년 97개체, 2004년 120개체, 2009년 40개체가 관찰되었다(김 2010). 1999-2000년에 각 1개체, 2003년에 5개체, 2006년에 8개체, 2008년에 13개체, 2010년에 15개체가 관찰되었다(환경부 1999-2010).

## ● 국제 동향

유라시아대륙과 북아메리카대륙 북부에 넓게 분포한다. 국제적으로 1990년대 초 러시아에 70,000쌍, 벨로루시에 4,500-5,000쌍, 불가리아 1,000-1,500쌍, 오스트리아 2,300쌍, 일본 600-960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el Hoyo *et al.* 1994).

## ● 위협 요인

각종 개발로 인한 산림과 농경지의 감소 등 서식지의 축소와 먹이의 부족, 서해 도서지역의 개발로 인한 해안 생태계의 변화 등이 위협 요인이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I 급,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323-1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 ● 평가 결과: VU D(1)

국내에 기록된 개체수는 이동 시기에는 최대 120개체, 월동기에는 15개체 정도로 소수가 도래한다. 서식지의 단편화 등으로 개체수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취약종(VU) D(1)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4.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2. Lynx Edicions, Barcelona. pp.162-163.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김성현. 2010. 멸종위기 수리목(Accipitridae) 조류의 분포와 이동 생태.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pp.497-499.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

*Accipiter gentilis* inhabits forests and is observed in countryside in winter. Except when nesting, it is generally solitary. Rarely breeds locally and observed in most areas in Korea. It feeds on small and medium-sized birds and mammals. It also kills mammals such as rabbits. A nest of twigs and branches, lined with bark and pine needles, is built in the fork of a large tree, although nests from previous years are often re-used. The number breeding in Korea is so small that almost every it requires special protection. The population size is extremely large, and hence does not approach the thresholds for Vulnerable under the population size criterion. It observed about 40-120 birds in Korea. It meets the criteria for VU D(1).

집필자: 박진영(국립환경과학원), 이시완(한국환경생태연구소)

# 큰고니

*Cygnus cygnus* Linnaeus, 1758

## 분류학적 위치

기러기목(Anseriformes) 오리과(Anatidae)

영명: Whooper Swan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Ⅲ급, 천연기념물 제201-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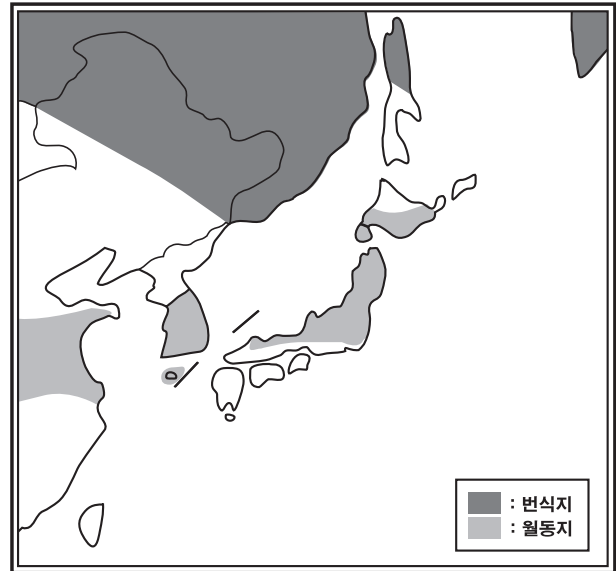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우리나라 전역의 호수와 해안 등지에서 월동하는 겨울철새다. 저수지, 물이 고인 논, 호소, 하구, 해안 등 수심이 얇은 수면을 선호한다. 동아시아에 60,000여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최대 4,800여 개체가 도래한 것이 확인되었다.

## ● 형태

암수의 깃털 색이 서로 비슷하며, 야외에서의 구별은 어렵다. 어미 새는 온몸이 흰색이며, 어린 새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때가 묻은 것 같은 회갈색이다. 다리는 검은색을 띠며, 부리는 노란색이나 끝은 검은색을 띤다(원 1981; 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10월경에 찾아와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 머무는 겨울철새다. 목을 곧게 세우고 부리를 수면과 평행하게 헤엄친다. 물이 깊지 않은 늪지대에서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듯이 자맥질을 해 각종 식물의 뿌리나 플랑크톤, 수서 곤충을 먹으며, 쉴 때는 땅 위에 가슴을 대고 앉아 머리를 날개에 묻는다. 번식기에는 암수 모두 목을 길게 뻗어 부리를 맞대면서 울어댄다(원 1981; 이 등 2000).

## ● 분포 현황

강원도 경포대, 경상남도 합천, 창녕, 창원, 낙동강 하구, 충청남도 서산, 홍성, 전라남도 진도, 해남 등지의 습지에서 월동한다.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에서 번식하지 않는 겨울철새다.

## ● 서식지 동향

저수지, 물이 고인 논, 호소, 소택지, 하구, 만입, 해안, 해만 등 수심이 얇은 수면에서 생활한다.

## ● 개체수 현황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큰고니는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1999년 1,927개체, 2000년 2,401개체, 2001년 3,248개체, 2002년 2,977개체, 2003년 4,069개체, 2004년 4,867개체, 2005년 4,259개체, 2006년 5,014개체, 2007년 4,628개체, 2008년 4,191개체, 2009년 4,857개체, 2010년 4,794개체가 관찰된 기록이 있다(환경부, 1999-2010; 백 등 2001).

## ● 국제 동향

스칸디나비아, 발트 해, 영국 제도에서 남쪽은 지중해, 흑해, 카스피 해, 소련평원, 중국의 신장성, 세이스탄, 코만도르 섬, 한국, 중국 양쯔강, 일본 등지에 서식한다. 세계적인 군집의 약 60%는 북서유럽에서 월동하고, 동아시아지역에는 60,000여 개체가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원병오 1981; Wetlands International 2002; IUCN 2010).

## ● 위협 요인

하구의 댐 건설이나 제방 축조, 준설, 하천정비, 도로개설, 갯벌과 습지의 매립으로 얕은 수심이 소실되고 서식지의 단편화가 진행됨에 따라 취식지와 먹이원이 줄어들고 있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I 급,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201-2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 ● 평가 결과: VU B1

동아시아 개체가 60,000여 개체에 이르며, 그 중 국내에 최대 4,800개체가 도래하고 있어 개체군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습지에 집중적으로 도래하므로 출현 범위가 국한되어 있어 취약종(VU) B1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백운기 외 12인. 2001. 천연기념물 조류의 월동실태조사 II. 문화재청. pp.72-75.
-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pp.426-428.
-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72-73.
-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 Wetlands International. 2002. Waterbird Population Estimates-Third Edition. Wetlands International Global Series No. 12, Wageningen, The Netherlands. pp.70.

*Cygnus cygnus* is large arable land that visit southern Korea in winter. It has redistribution with a very small population in south Korea. They feed on the water feeds the roots of plants. Wintering flocks observed at several sites in South coast, Jin-do, Cheonsu-bay, Nakdong-river. From 1999 to 2010, it's population has been increasing or to maintain more than 4,000. International population size estimated about 60,000 mature individuals in East Asia. It meets the criteria for VU B1.

집필자: 김창희(국립환경과학원), 이한수(한국환경생태연구소)

# 큰덤불해오라기

*Ixobrychus eurhythmus* Swinhoe, 1873

## 분류학적 위치

황새목(Ciconiiformes) 백로과(Ardeidae)

영명: Schrenck's Bittern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II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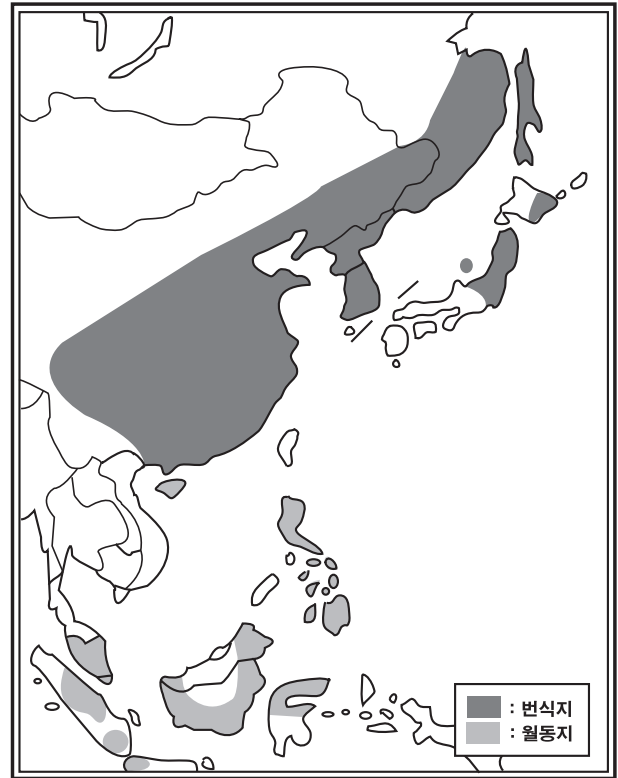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여름철새이며, 경기도와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지의 대규모 습지에 서식한다. 현재에는 일부 습지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관찰하기 어려워져 분포역 및 개체수와 개체군수가 모두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취약종(VU)으로 평가했다.

## ● 형태

수컷은 이마에서 어깨까지 어두운 밤색이다. 암컷의 이마와 머리꼭대기는 수컷과 같으나 등과 어깨는 어두운 밤색에 작고 둥근 흰색 무늬가 흩어져 있다. 허리와 위꼬리덮깃은 옅은 밤갈색이다. 귀깃, 목의 옆과 뒤는 진하고 붉은 밤색이다. 턱밑과 턱 아래 부위의 양 옆은 크림 빛이 도는 흰색이다. 턱 아래 부위의 중앙부터 앞목, 가슴, 배 사이는 황갈색이며 가슴 옆과 옆구리는 갈색이 돌고, 턱밑부터 가슴까지 어두운 갈색 세로줄이 1개 있다(원 1981; 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갈대밭, 작은 물웅덩이, 풀이 우거진 습지 등에서 생활한다. 물가의 갈대 줄기 위 또는 풀이 무성한 땅 위에 풀잎과 줄기를 이용해 둥지를 만들고 5-7월에 알 5-6개를 낳는다(원 1981; 이 등 2000).

## ● 분포 현황

우리나라 시화호, 천수만, 무안, 해남, 홍도 등지에서 관찰기록이 있다.

## ● 번식지 동향

현재까지 번식에 관해 알려진 바가 없으나 번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 서식지 동향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의 시화호, 충청남도의 천수만, 전라남도의 해남과 무안 등 대규모 간척지 및 습지에 서식한다.

## ● 개체수 현황

2000년 천수만에서 최대 62개체, 신안 하태도에서 1개체, 가거도에서 1개체를 관찰한 기록이 있으며, 2007년 천수만에서 1개체, 2008년 연천에서 1개체를 관찰한 기록이 있다. 시화호, 천수만, 해남간척지, 주남저수지 등 우리나라 주요 철새도래지에서 관찰기록이 있다. 전국적으로 통과시기에 더 빈번하게 관찰되며,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므로 문헌기록보다 더 많은 개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환경부 2007-2009; 국립공원관리공단 2007).

## ● 국제 동향

동아시아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개체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적다(Wetlands International 2002).

## ● 위협 요인

주로 습지에 서식하는 종으로 습지의 개발 및 인간의 접근에 따른 서식지 감소가 위협 요인이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I 급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 ● 평가 결과: VU A1c; D(1)

현재에는 일부 습지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관찰하기 어려워 분포역 및 개체수와 개체군수가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IUCN 적색목록 기준에 따라 취약종(VU) A1c; D(1)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2.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1. Lynx Edicions, Barcelona. 696pp.
- Wetlands International. 2002. Waterbird Population Estimates-Third Edition. Wetlands International Global Series No. 12, Wageningen, The Netherlands. pp.52.
- 국립공원관리공단. 2007. 2007조류조사·연구결과보고서.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
-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1,126pp.
-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320pp.
- 환경부. 2007-2008.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Ixobrychus eurhythmus* is summer visitor in Korea. Habitat is marshes with reedbeds, wet, grassy meadows, swamps in flat, open areas of river. Food is small fish, frogs, shrimps. Migration towards winter quarters starts in Aug, with main passage through Hong Kong, Malay Peninsula and returns to Thailand. International population size is about 25,000. It meets the criteria for VU A1c; D(1).

집필자: 이기섭(한국물새네트워크), 신용운(한국환경생태연구소)

# 팔색조

*Pitta nympha* Temminck & Schlegel, 1850

## 분류학적 위치

참새목(Passeriformes) 팔색조과(Pittidae)

영명: Fairy Pitta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II급, 천연기념물 제204호

IUCN 범주: VU (취약종)

## ● 요약

여름철새이며 남부지방 활엽수림 지역을 중심으로 서식한다. 우리나라에 번식지와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어 취약종(VU)으로 평가했다.

## ● 형태

암컷과 수컷 모두 머리꼭대기가 갈색이며, 검은색 머리 중앙선이 있다. 눈썹 선은 크림색이 도는 황갈색으로 뒷목에까지 이른다. 눈앞에서 뺨, 귀깃을 포함해 뒷목에 이르는 부분은 검은색이다. 등, 어깨, 허리의 윗부분은 푸른색을 띤 올리브색이며, 허리 아래 부분은 선명한 푸른색이다. 위꼬리덮깃은 검은색으로 각 깃털의 끝은 푸른색이다. 턱 아래 부위와 턱밑은 크림색이다. 가슴과 옆구리는 황갈색이며, 목옆과 가슴 옆은 녹색이다(원 1981; 이 등 2000; del Hoyo *et al.* 2003).

## ● 생물학적 특성

해안과 섬 또는 내륙의 경사지에 있는 잡목림과 활엽수림에서 주로 혼자 생활한다. 땅 위에서 걸어 다니면서 먹이를 찾는다. 경계심이 강해 접근하기가 어렵다. 짧은 꼬리를 상하로 까딱까딱 움직이는 습성이 있다. 바위틈을 둥지로 이용하거나 나무줄기 사이에 타원형으로 만든다. 알 낳는 시기는 5-7월이다. 알은 크림색에 옅은 자줏빛을 띤 갈색 얼룩무늬가 있으며, 4-6개 낳는다. 곤충을 먹는다(원 1981; 이 등 2000; del Hoyo *et al.* 2003).

## ●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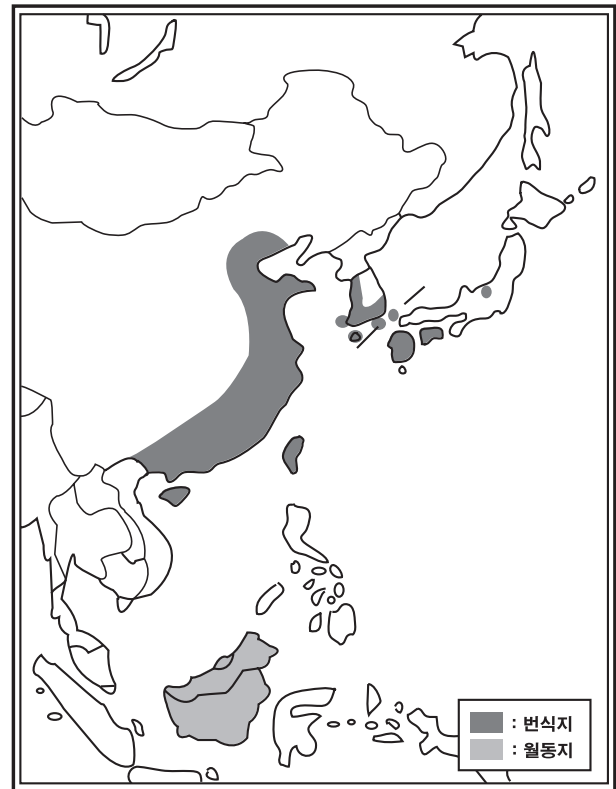
제주도, 거제도, 전라남도 진도 등 남해안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 ● 번식지 동향

제주도와 함평의 활엽수림이 있는 지역에서 소수가 번식한 기록이 있으며, 보길도, 금오도 등 남서해안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번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 서식지 동향

사람의 접근이 어렵고 어둡고 습한 계곡이나 원시림이 있는 지역에 서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해안과 섬 또



는 내륙의 경사지에 있는 잡목림이나 활엽수림의 밑림에 서식한다(원 1981; 이 등 2000; del Hoyo *et al.* 2003).

## ● 개체수 현황

제주도, 함평 등지에서 번식한 기록이 있으며, 2002년 제주도에 46개체가 확인되었다. 기타 남해안의 보길도, 금오도 등 도서지역에 소수의 개체가 서식한다(김 등 2003; 문화재청 2007).

## ● 국제 동향

한국, 일본, 중국 동부, 대만 등지에서 번식한다. 10월경에는 중국 남부와 대만을 거쳐 보르네오로 이동해 월동한다. 최근에는 중국 남부와 인도차이나에서도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적으로 2,500-10,000개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 위협 요인

농경지 확장, 목재 생산 및 기타 개발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벌목과 산림훼손에 의해 서식지가 축소되고 있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II급, 천연기념물 제204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거제 학동의 동백림 및 팔색조 번식지를 천연기념물 제233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CITES II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 ● 평가 결과: VU D(1)

분포지역이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관찰되는 개체수 적어 IUCN 적색목록 기준에 따라 취약종(VU) D(1)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del Hoyo, J., A. Elliott and Christie, D.A. eds. 2003.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8. Lynx Edicions, Barcelona. 845pp.

김은미, 오홍식, 김상범, 김원택. 2003. 제주도에서 팔색조(*Pitta nympha* Temminck & Schlegel)의 분포와 서식환경. 한국조류학회지 10(2): 77-86.

문화재청. 2007. 중장기 천연기념물(동물) 분포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 182pp.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1,126pp.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320pp.

환경부. 2006-2008.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Pitta nympha* is summer breeding visitor in Korea. In South Korea and Japan prefers moist lowland and foothill forest with thick undergrowth, especially near streams, but occasionally breeds in plantations in Japan. Food was beetles, ants, centipedes and snails reported. Long-distance migrant, non-breeders present in Borneo mid-Oct to Mar. Rare birds. International population size estimated about 2,500-10,000 individuals in 2003. In Korea, it occurred 46 individuals at Jeju in 2002. It meets the criteria for VU D(1).

집필자: 김진한(국립생물자원관), 송민정(한국환경생태연구소)



# 항라머리검독수리

*Aquila clanga* Pallas, 1811

## 분류학적 위치

매목(Falconiformes) 수리과(Accipitridae)

영명: Greater Spotted Eagle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II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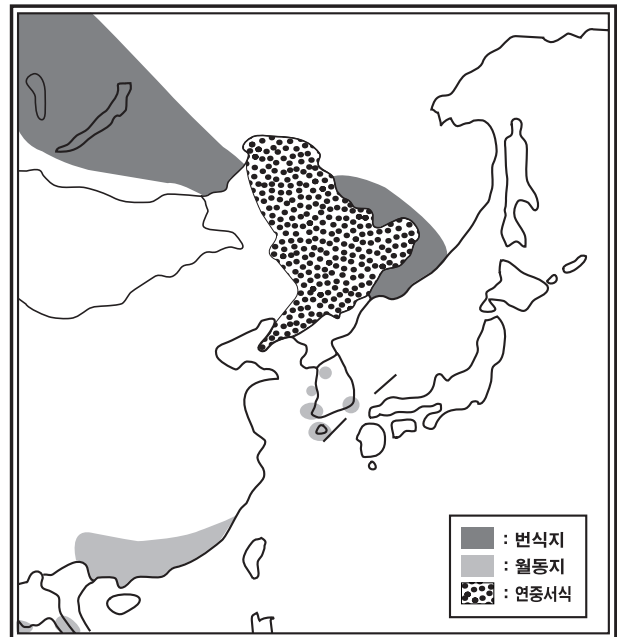
IUCN 범주: VU (취약종)

## ● 요약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에서만 관찰되는 겨울철새로, 2010년 3개체가 기록되었으며, 통과시기에는 최대 27개체가 관찰되었다. 월동하는 개체수는 안정적이지 않고 매년 도래하는 개체수에 변동이 크다. 각종 개발로 인한 서식지 축소로 보호가 요구됨에 따라 취약종(VU)로 평가했다.

## ● 형태

날개폭이 넓고 꼬리는 짧으며, 몸 전체가 흑갈색이다. 어린 새는 몸 윗면에 장방형의 연한 반점이 있다. 날갯짓을 하지 않고 미끄러지듯이 비행할 때 바깥쪽 첫번째날개깃이 아래로 처진다. 크기는 큰말뚝가리보다 약간 크다. 깃털이 발목까지 덮는다. 근거리에서는 머리와 목에 흰색 반점을 볼 수 있다(원 1981; 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말뚝가리와 비스듬한 모양이 비슷하며 주로 습지에서 원을 그리며 범상하면서 먹이를 찾는다. 쥐를 주로 먹으며 개구리, 뱀 등 양서류와 파충류, 수금류의 어린새끼, 죽은 물고기 등을 먹는다. 산림 속의 초원과 소택지의 독립수에 둥지를 튼다. 지상에서 12m 이상 되는 교목의 꼭대기에 나뭇가지를 쌓아올려 둥지를 만든다. 회색 바탕에 암갈색 얼룩무늬가 있는 알을 1-2개 낳는다(원 1981).

## ● 분포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소청도, 천수만, 해남, 제주도 등 비교적 국지적인 분포를 보인다.

## ● 번식지 동향

현재까지 번식에 관한 기록이 없으며, 우리나라에서 번식하지 않는 겨울철새다.

## ● 서식지 동향

평지의 습지, 하천, 호수 근처의 낙엽활엽수림이나 침엽수림 또는 초지에 주로 서식한다.

## ● 개체수 현황

2002년 소청도에서 통과시기에 27개체가 관찰 되었다(김 2010). 2000년 1개체, 2005년 3개체, 2008년 3개체, 2010년 3개체로 관찰되는 개체수가 소수이며, 안정적이지 않고 매년 도래하는 개체수의 변동이 크다(환경부 1999-2010).

## ● 국제 동향

1960년대에는 러시아에 1,000쌍이 있었으나 1990년대에는 700쌍으로 감소했다. 유럽 동부에서 서시베리아 남부, 중앙시베리아 남부, 중국 동북지방, 우수리지방까지 걸쳐진 지역과 이란 북부, 텐산 산지의 일부에서 번식한다. 겨울에는 아프리카 남부, 터키에서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남부에 걸쳐서 월동한다(del Hoyo *et al.* 1994).

## ● 위협 요인

각종 개발로 인한 산림과 농경지의 감소 등 서식지의 축소와 먹이의 부족, 밀렵 등이 주요 위협 요인이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I 급으로 지정·보호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개체수가 감소해 보호하고 있다.

## ● 평가 결과: VU A1ac; D(1)

국내에 정기적으로 도래해 월동하는 개체군이 적고, 매년 관찰되는 개체수의 변동이 크고, 도래 개체군의 크기가 안정적이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에도 IUCN의 적색목록 분류 기준에 따라 취약종(VU) A1ac; D(1)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4.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2. Lynx Edicions, Barcelona. pp.193.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김성현. 2010. 멸종위기 수리새(Accipitridae) 조류의 분포와 이동 생태.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pp.515-516.
-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96.
-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

*Aquila clanga* is uncommon winter visitor in Korea. Inhabits forest or forest-steppe and feeds on variety of rodents, small birds, Fishes, snakes, frogs, etc. Builds massive nests exclusively in trees. This species has a small population which appears to be declining owing to extensive habitat loss and persistent persecution. This species required that establish long-term monitoring schemes to improve understanding of population trends. The population is probably less than 10,000 mature individuals with Russia holding 2,800-3,000 pairs. The European population is probably no more than 900 pairs (with c.170 pairs in Belarus). Numbers appear to have declined in the western half of its range and in some parts of its Asian range. In winter 2010 census, 3 birds counted in South Korea. It meets the criteria for VU A1ac; D(1).

집필자: 박진영(국립환경과학원), 이한수(한국환경생태연구소)

# 흑기러기

*Branta bernicla* Linnaeus, 1758

## 분류학적 위치

기러기목(Anseriformes) 오리과(Anatidae)

영명: Brent Goose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Ⅲ급, 천연기념물 제352-2호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겨울철새로 주로 바닷가, 육지 깊숙이 바다가 들어온 곳, 해안의 얕은 곳에서 겨울을 지낸다. 매년 관찰되는 개체수의 변동이 크고, 도래 개체군의 크기가 안정적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취약종(VU)으로 평가했다.

## ● 형태

암수 모두 머리와 목은 검은색으로 흰색 목띠가 있으며 곳곳에 검은색 얼룩무늬가 있다. 등, 어깨, 허리, 위꼬리덮깃은 어두운 갈색으로 허리 양쪽과 위꼬리덮깃의 양쪽 끝 부분은 흰색이다. 가슴은 검은색이며 배는 어두운 갈색으로 아래로 갈수록 옅은 색을 띤다. 옆구리는 어두운 갈색이며 각 깃털의 가장자리는 흰색이다. 부리와 다리는 검은색이다(원 1981).



## ● 생물학적 특성

얕은 곳에서는 물속으로 머리를 넣어 먹이를 찾기도 하며 습한 이끼로 덮인 툰드라 지대의 호수, 갯벌의 강기슭, 강 하구에서 번식한다. 툰드라의 땅 위나 바위 사이에 이끼류를 이용해 접시모양으로 둥지를 만들고 6월 중순에 알을 3-8개 낳는다. 알은 회백색이다(문화재청 2009).

## ● 분포 현황

국내 남해안 지역과 동해안 지역, 시화호, 제주도 등지에서 확인된다(이 등 2000, 원 1981).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에서 번식하지 않는 겨울철새다.

## ● 서식지 동향

우리나라 남해안과 중국의 해안에서 월동하는 집단으로 추정된다. 이동 시기에는 동·서해안에서도 관찰되며 주로 해상, 해만, 해안의 거칠거나 얕은 곳에서 지내는 데 때로는 하천, 호소, 간척지에도 내려앉는다(문화재청 2009).

## ● 개체수 현황

1984년 1월 목포에서 진해 용원리에 이르는 곳에 700개체, 1987년 2월 부산시 다대포 해안에서 낙동강 하구 일원에 118개체, 남해안에서는 1,000개체 내외의 집단이 규칙적으로 도래했다. 강원도 속초 주변 해안(2000년 12개체, 2001년 20개체, 2003년 10개체, 2007년 1개체), 경기도 시화호(2001년 43개체, 2005년 4개체), 부산시 낙동강 하구(1999년 11개체, 2001년 328개체, 2004년 83개체, 2006년 2개체, 2007년 17개체), 제주도(1999년 1개체, 2001년과 2002년 각 2개체, 2004년 4개체) 등지에서도 불규칙하게 도래했다(문화재청 2009).

## ● 국제 동향

동아시아 지역에 1,700여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Wetlands International 2002).

## ● 위협 요인

해조류, 수생식물, 패류가 주식이며, 최근 해안의 오염 및 매립 등으로 인해 먹이원이 축소되고 있다(문화재청 2009).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I 급,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352-2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 ● 평가 결과: VU C2a(i)

과거에는 1,000개체 이상이 도래했으나 현재는 개체군 크기가 줄어들어 취약종(VU) C2a(i)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Wetlands International. 2002. Waterbird Population Estimates-Third Edition. Wetlands International Global Series No. 12, Wageningen, The Netherlands. pp.74-75.

문화재청. 2009. 문화재대관 천연기념물·명승 동물. 문화재청. pp.142-143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pp.413-414.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68-69.

*Branta bernicla* is large arable land that visit southern Korea in winter. It has redistribution with a very small population in south coast. They feed on rise seeds in arable land. Wintering flocks observed at several sites in South coast, Busan, Sokcho, Shihwaho, Jeju-do. Nowadays,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required to conserve this species. It observed more then 150pairs at South coast until in 2001. It meets the criteria for VU C2a(i).

집필자: 김창희(국립환경과학원), 신용운(한국환경생태연구소)

# 흑두루미

*Grus monacha* Temminck, 1835

## 분류학적 위치

두루미목(Gruiformes) 두루미과(Gruidae)

영명: Hooded Crane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II급, 천연기념물 제22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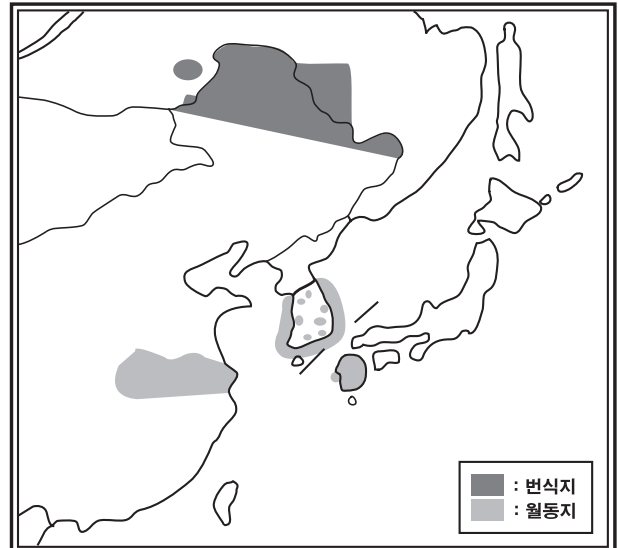
IUCN 범주: VU (취약종)

## ● 요약

흰 머리와 목을 제외한 전체가 검은색이다. 어미 새는 이마가 검고 머리꼭대기는 붉다. 넓은 초원, 간척 농경지 또는 갯벌이나 강변 등을 좋아한다. 우리나라에서 번식하지 않는 겨울철새이자 나그네새이며, 최근 순천만과 천수만 등지에서 300개체 이상의 비교적 큰 무리가 확인되고 있다. IUCN 분류군 위협 범위 평가 기준 및 국내 서식현황 적용 결과 취약종(VU)으로 평가했다.

## ● 형태

흰 머리와 목을 제외한 전체가 검은색이다. 어미 새는 이마가 검고 머리꼭대기는 붉다. 날 때 날개 전체가 검게 보인다. 몸은 검고 목의 흰색은 뚜렷하다(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넓은 초원, 간척 농경지 또는 갯벌이나 강변 등을 좋아한다. 번식지에서는 어류나 곤충류 같은 동물성 먹이를 먹지만 겨울을 나는 곳에서는 벼를 비롯한 낱알과 식물의 줄기나 뿌리를 먹는다. 러시아, 중국 북동쪽에서 번식하며 10월 중순경에 우리나라에 찾아와 겨울을 보내는 겨울철새다. 넓은 습지 및 초원에 둥지를 만들고 옅은 갈색 바탕에 검은색 반점이 있는 알을 2개 정도 낳는다(원 1981).

## ● 분포 현황

임진강 하구에서부터 경기도 북부, 서산, 전라남도 순천과 낙동강 하구까지 넓은 농경지가 있는 지역에 분포했다.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에서 번식하지 않는 겨울철새이자 나그네새다.

## ● 서식지 동향

구미 해평습지, 순천만, 주남저수지 등 대규모 농경지가 인접한 습지지역을 선호한다.

## ● 개체수 현황

봄가을 이동 시기에 우리나라는 일본 이즈미로 향하는 중간기착지로서 중요한 지역이다. 2007년 철원평야에서 5개체, 연천 1개체, 간월호 7개체, 순천만 227개체, 울진-원덕 해안에서 1개체로 총 241개체가 확인되었고, 2008년 철원평야에서 3개체, 연천 1개체, 임진강 하구 1개체, 여자만 4개체, 순천만 329개체로 총 338개체, 2009년 연천에서 1개체, 순천만 342개체로 총 343개체, 2010년 철원평야에서 1개체, 연천에서 1개체, 남한강에서 2개체, 여자만 2개체, 순천만 436개체, 주남저수지 10개체, 낙동강 하류 1개체로 총 453개체가 확인되었다. 최근 순천만과 천수만 등지에서 300개체 이상의 비교적 큰 무리가 확인되고 있다(문화재청 2009; 환경부 2007-2010).

## ● 국제 동향

중국 중부에서 약 1,000개체, 한국과 일본에서 약 8,500개체가 확인되었으며, 전 세계 약 11,500개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Wetlands International 2002).

## ● 위협 요인

준설 등 하천에서 행해지는 공사와 간척으로 인한 갯벌 축소 등으로 인해 곤충, 어류와 같은 먹이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농경지의 축소로 인해 해당 취식처 및 서식처가 동반 감소하고 있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I 급,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228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절멸위기에 있는 종이다.

## ● 평가 결과: VU D(1)

주로 순천만에서 월동 집단의 대부분이 서식하고 있으며, 월동 집단의 규모가 작어 취약종(VU) D(1)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Wetlands International. 2002. Waterbird Population Estimates-Third Edition. Wetlands International Global Series No. 12, Wageningen, The Netherlands. pp.104.
-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pp.558-561.
-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118-119.
- 문화재청. 2009. 문화재대관 천연기념물 명승 동물. 문화재청. pp.94-95.
- 환경부. 2007-2010. 겨울철새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Grus monacha* is large arable land that visit southern Korea in winter. It has redistribution with a very small population, in South Korea. They feed on rise seeds in arable land. Wintering flocks observed at several sites in Suncheon-bay, Cheonsu-bay. Nowadays,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required to conserve this species. International population size estimated about 11,500 mature individuals in 2010. It observed more than 300 mature individuals in Suncheon-bay, It meets the criteria for VU D(1).

집필자: 김진한(국립생물자원관), 이한수(한국환경생태연구소)

# 흑비둘기

*Columba janthina* Temminck, 1830

## 분류학적 위치

비둘기목(Columbiformes) 비둘기과(columbidae)

영명: Black Wood-pigeon

지정현황: 천연기념물 제215호

IUCN 범주: NT (준위협종)

## ● 요약

우리나라에 연중 서식하는 텃새이며, 울릉도와 남해안 일대의 해안도서지역에서 번식하고, 동백나무 숲이나 후박나무 숲이 있는 지역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산림훼손에 의해 쉽게 개체군이 감소될 수 있는 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취약종(VU)로 평가했다.

## ● 형태

몸길이는 약 40cm로 비둘기류 중에서 가장 크다. 암컷과 수컷이 색이 같고, 햇빛이 드는 곳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광택이 있는 보라색으로, 목 뒤쪽은 진줏빛이 나는 녹색이다. 그늘진 곳에서는 검은색으로 보인다. 다리는 붉은색이다. 어린 개체는 목 뒤에 녹색 광택이 없다(원 1996; 이 등 2000; 이와 이 2009).



## ● 생물학적 특성

2월 말부터 상록활엽수가 있는 숲에 둥지를 만들며, 둥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4-8.2m(평균 3.4m)이다. 주변의 나뭇가지를 이용해 조잡한 접시모양으로 둥지를 만들며, 크기는 직경 180mm-270mm(평균 220mm), 깊이 8-17mm(평균 12.8mm)이다. 둥지 자리로 선택하는 나무는 비교적 크고, 외부로부터 관찰이 쉽지 않은 곳을 이용한다. 알은 보통 1개를 낳으며, 알 색깔은 흰색으로 타원형이다. 암수가 교대로 포란하며, 수컷이 먼저 포란을 시작한다. 포란기간은 평균 18일, 육추기간은 평균 30일이다. 상록활엽수의 열매를 주로 먹으며 보통 마가목나무, 덧나무, 우묵사스레피, 보리밥나무, 후박나무 열매 등이다. 행동권은 둥지를 튼 나무에서 반경 약 150m 범위이며, 둥지로 접근할 때는 소리 없이 낮게 날아 들어온다(오 등 1994; 원 1996; 이 등 2000; 이와 이 2009).

## ● 분포 현황

1936년 8월 26일 울릉도에서 채집된 암컷 1개체의 표본이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된 이래 경상북도 울릉도, 전라남도 완도군 해안도서인 소안도, 청산도, 여서도, 자개도, 보길도와 외나로도, 제주도 추자군도, 마라도, 범섬, 대흑산도, 소흑산도, 홍도, 경상남도 거제도, 전라북도 군산 군도, 전라남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조도지구, 거문도 등 주로 우리나라 해안의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분포한다(오 등 1994; 문화재청 2009).



## ● 번식지 동향

주요 번식지는 경상북도 울릉도, 제주도의 사수도, 추자도, 호도, 거제도의 외도 등 남해안의 섬에서 국지적으로 번식한다. 1991년 제주도 호도에서 20개의 번식 동지가 관찰되었으며, 2008년 사수도에서는 번식한 70개체를 확인한 바 있다(오 등 1994; 문화재청 2009).

## ● 서식지 동향

덧나무(*Sambucus siboldiana*), 까마귀쪽나무(*Litsea japonica*), 후박나무(*Machilus thunbergii*), 동백나무(*Camellia japonica*), 보리밥나무(*Elaeagnus macrophylla*), 곰솔(*Pinus thunbergii*) 등 상록활엽수가 우거진 숲을 선호하며, 주로 해안 절벽과 초원이 일부 형성된 해안가의 섬을 선호한다. 제주도의 추자군도, 울릉도, 홍도, 흑산도 등 상록활엽수가 있는 일부 도서지역의 숲에서 생활한다(오 등 1994; 문화재청 2009).

## ● 개체수 현황

1956년과 1971년 울릉도에서 최소 100-200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969년 제주도 추자도에 서 5개체, 횡간도에서 1개체, 사수도에서 약 10개체, 소흑산도에서도 일부가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제주도의 사수도에서 30개체 정도가 꾸준히 관찰되었으며, 2003년도에는 울릉도에서 32개체가 관찰되었다. 2004년 전라남도 신안군 하태도에서 3개체, 2005년 홍도와 흑산도에서 각각 3개체와 13개체, 2006년 우이도에서 3개체, 2008년 사수도에서 70개체, 지귀도에서 4개체가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오 등 1994; 이 등 2002; 문화재청 2007; 강 등 2008; 김 2009; 김과 오 2009; 김 등 2010; 오 등 2010).

## ● 국제 동향

일본의 도서지역(혼슈, 시코쿠, 큐슈 등)과 러시아 동부, 산둥 지방, 타이완 등지에 분포한다. 일본의 오키나와에서는 1980년대 산림간벌 등으로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 ● 위협 요인

일부 도서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번식하며, 상록활엽수와 같은 숲의 보존 상태에 따라 개체수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번식지로 확인되는 도서지역의 산림보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흑비둘기 최대 번식지인 울릉도의 경우, 해안도로의 개설, 각종 관광자원의 개발로 인해 해안절벽 훼손, 산림의 개간에 따른 서식지 축소, 먹이자원의 감소 등이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 ● 특기 사항

종 자체를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215호로 지정·보호하고 있으며, 번식지는 1971년 12월 14일 울릉도 사동 7,851m<sup>2</sup>를 천연기념물 제 237호로, 1982년 11월 26일 제주도 추자면 사수도를 천연기념물 제333호로 지정되어 있다.

## ● 평가 결과: VU A1ac; D(1)

울릉도 및 제주도 해상의 일부 도서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번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00-200개체가 관찰되고 있으나 대부분 도서지역에 분포한다. 상록활엽수의 산림간벌, 해안 개발에 의해 서식지가 심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울릉도가 최대 번식지로 알려져 있었으나 각종 개발로 인해 최근에는 남해안 일대의 도서지



역에서 번식 집단이 관찰되는 등 서식지가 분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섬 내 산림과 해안 환경 보전이 철저히 요구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IUCN 적색목록 분류 기준에 의해 취약종(VU) A1ac; D(1)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강정훈, 강태한, 유승화, 조해진, 이시완, 김인규. 2008. 천연기념물 무인도서(칠발도, 사수도, 난도, 흥도)의 번식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조류학회지, 15(2): 169-175.
- 김동원. 2009. 봄철 하태도의 조류 번식 및 이동 양상. 한국조류학회지, 16(2): 93-106.
- 김영호, 강희만, 강창완, 김은미, 김화정, 지남준, 장용창, 오홍식. 2010. 봄철 마라도의 조류상. 한국조류학회지, 17(1): 27-35.
- 김완병, 오홍식. 2009. 지귀도의 조류상. 한국조류학회지, 16(2): 115-121.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2009. 천연기념물 명승-동물. pp.92.
- 문화재청. 2007. 중장기 천연기념물(동물) 분포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 182pp.
- 오장근, 박생신, 오홍식. 1994. 흑비둘기(*Columba janthina janthina Temminck*)의 번식생태에 관한 연구. 한국조류학회지, 1: 115-126.
- 오홍식, 김영호, 장민호, 김태욱, 박수곤. 201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범섬의 하계 조류상. 한국조류학회지, 17(1): 21-26.
-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1,126pp.
- 원병오. 1996. 한국의 조류. 교학사. 453pp.
- 이경규, 남기백, 이기섭, 이진원, 유정철. 2002. 사수도의 조류상. 한국조류학회지, 9(1): 13-22.
- 이기섭, 이종렬. 2009. 새. 필드가이드. 288pp.
-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320pp.

*Columba janthina* is a large wood pigeon species. Its global range is small- Japan, South Korea, China, Russia, Taiwan. This species occurs several Islands at Southern Korea-Ulleung Is., Sasoo Is., Ho Is., etc. It was found all the year over. It inhabits dense subtropical forest and warm temperate evergreen broadleaf forests, and is heavily dependent on mature forest. Forest activity is an indirect cause. It was thought to have declined on Okinawa during the 1980s because of forestry activities. It meets the criteria for VU A1ac; D(1).

집필자: 백운기(국립중앙과학관), 송민정(한국환경생태연구소)

# 흰꼬리수리

*Haliaeetus albicilla* Linnaeus, 1758

## 분류학적 위치

매목(Falconiformes) 수리과(Accipitridae)

영명: White-tailed Eagle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1급, 천연기념물 제243-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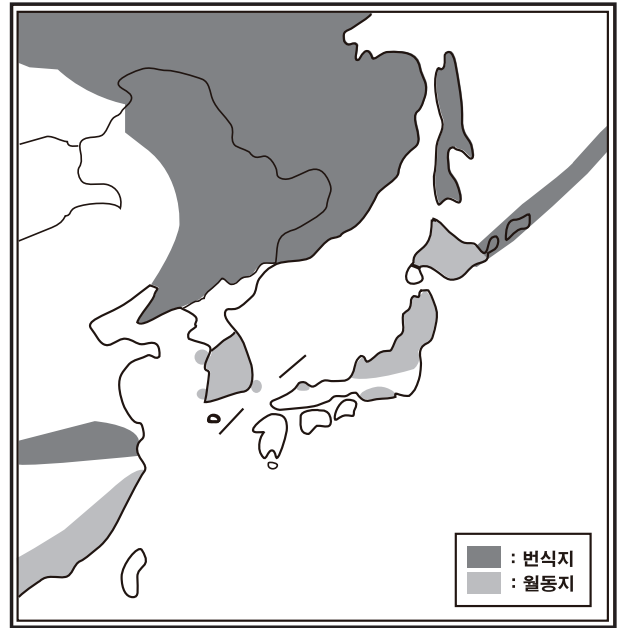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겨울철새로 주로 어류를 먹으며 소형 조류, 양서류, 파충류, 곤충류 등을 먹는다. 해안, 소택지, 호수, 하구 등 넓은 수면을 낀 지역을 선호한다. 천수만, 낙동강 하구, 한강 하구 등지의 관찰기록이 대부분이며, 내륙 지역의 관찰 빈도는 낮은 편이다. 대흑산도에서는 번식 중인 개체 및 둥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취약종(VU)로 평가했다.

## ● 형태

전체적으로 갈색을 띤다. 날개깃은 검은색이다. 머리는 황갈색이고 몸의 다른 부위에 비해 색이 옅다. 꼬리는 둥근 마름모꼴로 흰색을 띤다. 부리와 다리는 노란색이다. 날개 앞쪽과 날개 뒤쪽이 거의 평행선을 이루어 밑에서 보면 직사각형이다. 어린 새는 머리는 암갈색으로 가장 어둡고, 몸은 전체적으로 적갈색이 돌며, 꼬리깃에는 흰색과 검은색이 섞여 있다.



## ● 생물학적 특성

해안, 소택지, 호수, 하구 등 넓은 수면을 낀 지역을 중심으로 단독으로 생활하며, 때로는 3-4개체 혹은 큰 무리를 형성하기도 한다. 번식기는 3월 중순에서 5월경까지다. 둥지는 산림 교목의 가지 위에 나뭇가지를 올려 쌓아 만들거나, 해안가 절벽 등지에 만든다. 산란기에는 둥지에 동물의 깃털 등을 깔기도 한다. 한배에 산란 수는 1-4개로 보통 2개이며, 알은 흰색이다. 포란기간은 38일이며 육추기간은 70-90일이다. 번식이 끝난 후에는 어린새와 함께 다니기도 한다. 작은 동물, 조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곤충 등을 먹으며, 어류 중 연어와 송어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원 1981, 문화재청 2009).

## ● 분포 현황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되고 있으나 개체수는 적은 편이다.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종으로 일반적으로 일본 홋카이도 동부, 중국 양자강 하류 및 동부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번식지의 경우 1999년 여름 흑산도에서 어린 새 1개체와 새끼 2개체가 발견된 이후

2000년 봄 등지가 추가로 발견되어 번식이 확인되었다. 발견된 번식지는 지금까지 알려진 흰꼬리수리의 번식지 중 세계 최남단으로 기록되었다(박 2002; 김 2010).

## ● 서식지 동향

전국에서 관찰되나 개체수는 많지 않은 편이다. 한강 하구, 임진강 하구, 시화호, 천수만을 비롯해 낙동강 하구, 강릉 남대천 등 해안과 인접한 간척지 및 큰 하천 인근을 선호한다. 내륙지역인 철원평야, 충주, 아산, 안동 등지에서도 관찰되고 있으며 주로 댐호나 큰 물줄기 주변에서 관찰되고 있다.

## ● 개체수 현황

2000년 이후의 관찰기록을 살펴보면, 한강 하구의 경우 매년 1-2개체가 꾸준히 관찰되고 있으며, 임진강 하구도 1-6개체를 관찰한 기록이 있다. 또한 시화호, 천수만, 낙동강 하구 등지에서도 1-8개체가 꾸준히 관찰되며, 최근에는 철원, 연천 등 군사분계지역 인근과 팔당호 등 한강 중·상류 지역에서도 관찰기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외 강화도, 사천만, 남대천 등 해안지역과 안동, 구미 등 내륙지역에서도 간헐적으로 1-2개체가 관찰되고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7a;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b; 문화재청 2006; 문화재청 2007; 환경부 2000-2009; 환경부 2000-2010).

## ● 국제 동향

북유럽에서 북아시아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번식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남아있는 개체수는 9,000-11,000쌍으로 알려져 있다(del Hoya *et al.* 1994).

## ● 위협 요인

수역을 낀 개발지를 배경으로 생활하는 종 특성 상, 하천, 해안, 호수, 간척지 및 하구인 등지에 대한 개발행위에서 기인하는 환경변화가 서식처 감소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부러시아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임목생산을 위한 대규모 벌목과, 광물자원 등의 채취를 위해 실시되는 산림개발은 번식에 적합한 환경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 급,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243-4호로 지정되어 있는 법적보호종이다. CITES 부속서 I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적 보호종이다.

## ● 평가 결과: VU D(1)

전국적으로 해마다 관찰되고 있으나 개체수는 매우 적은 편이다. 또한 인위적, 자연적 요인에 의한 서식처 훼손 우려가 높고 이에 따른 개체군의 급감이 우려되는 종이다. 따라서 IUCN 적색목록 기준에 따라 취약종(VU) D(1)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4.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2. Lynx Editions, Barcelona. 638pp.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http://en.wikipedia.org/wiki/Haliaeetus\\_albicilla](http://en.wikipedia.org/wiki/Haliaeetus_albicilla)

<http://www.birdlife.org/datazone/speciesfactsheet.php?id=3364>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전국 천연기념물 분포지도. 국립문화재연구소. 184pp.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중장기 천연기념물(동물) 분포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182pp.

김성현. 2010. 멸종위기 수리족(Accipitridae) 조류의 분포와 이동 생태.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문화재청. 2006. 2006년 천연기념물 모니터링. 문화재청. 124pp.

문화재청. 2007. 중장기 천연기념물(동물) 분포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 182pp.

박진영. 2002. 한국의 조류 현황과 분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1,126pp.

채희영, 박종길, 최창용, 빙기창. 2009. 한국의 맹금류. 국립공원관리공단. 164pp.

환경부. 2000-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환경부. 2000-2009.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Haliaeetus albicilla* is a migratory bird that visits South Korea in winter season. It breeds in northern Europe and northern Asia, and the world population in 2008 stands at only 9,000-11,000 pairs. It can observe all over the country, but the number of individuals is small in number; from 1 to 8. Its preferred habitat is open area with waterside such as riverine, lakeside, seashore wetland, estuary and reclaimed land. It meets the criteria for VU D(1).

집필자: 박진영(국립환경과학원), 김달호(한국환경생태연구소)

# 흰목물떼새

*Charadrius placidus* Gray & Gray, 1863

## 분류학적 위치

도요목(Charadriiformes) 물떼새과(Charadriidae)

영명: Long-billed Plover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II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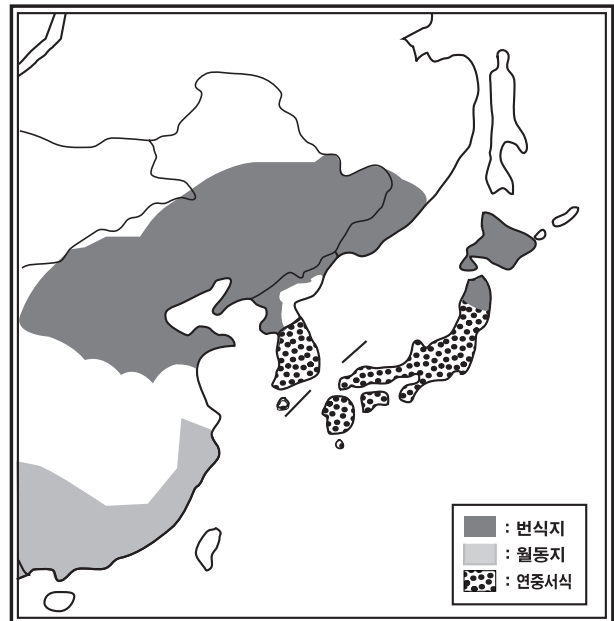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암컷과 수컷 모두 이마는 흰색이며 굵은 검은색 가로띠가 있어서 머리꼭대기와 경계를 이룬다. 하천과 냇가의 자갈밭, 논, 산지의 물가, 하구의 삼각지, 해안의 모래밭 등에 서식하는 텃새다. 주요 서식지인 하천 등의 개발과 연안갯벌 등의 매립으로 인해 서식지 축소가 불가피하며, 매년 관찰되는 개체수의 변동이 크고 안정적이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취약종(VU)으로 평가했다.

## ● 형태

암컷과 수컷 모두 이마는 흰색이며 굵은 검은색 가로띠가 있어서 머리꼭대기와 경계를 이룬다. 머리꼭대기와 뒷목은 회색빛 도는 갈색이며, 눈 위에 흰색 눈썹선이 있다. 눈앞부터 귀깃 윗부분까지 폭이 넓고 어두운 갈색 눈선이 있다. 턱밑, 턱 아래 부위는 흰색이며 뒷목에 폭이 넓은 흰색 목띠가 지나간다. 목띠 아래 부분에 앞목부터 뒷목까지 지나가는 폭이 넓고 어두운 갈색 띠가 있다. 등, 어깨깃, 허리, 위꼬리덮깃은 회색빛 도는 갈색이다(원 1981; 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하천과 냇가의 자갈밭, 논, 산지의 물가, 하구의 삼각지, 해안의 모래밭 등에 서식하는 텃새다. 3-5개체에서 15-20개체가 무리를 지어 개울가에서 먹이를 잡는다. 하천 중류 이상의 자갈밭이나 모래밭의 오목한 곳에 둥지를 만들고 안에 작은 돌, 조개껍데기, 마른 풀 등을 깐다. 알 낳는 시기는 3월 중순-7월 상순이며 3-4개를 낳는다. 알은 붉게 녹슨 색을 띤 크림색 바탕에 어두운 갈색과 작은 회색 얼룩점이 있다(원 1981).

## ● 분포 현황

임진강에서부터 금강, 순천만까지 전국에 걸쳐 넓게 분포한다.

## ● 번식지 동향

2002년 대전의 대전천에서 첫 번식기록이 확인되었으며, 최근에 전국의 일부 하천지역에서 소수가 번식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

## ● 서식지 동향

주로 돌과 자갈이 있는 강에 서식하며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의 국내 전 지역에서 확인된 바 있다.

## ● 개체수 현황

2007년 중랑천, 팔당호에서 1개체씩, 임진강에서 5개체, 충주호 8개체, 장항해안 1개체, 합평 대동댐 5개체, 부산-울산해안 3개체, 포항-영덕해안, 4개체로 총 28개체가 확인되었으며, 2008년 연천에서 1개체, 팔당호 1개체, 북한강 6개체, 충주호 10개체, 장항해안 1개체, 미호천 1개체, 금강 하류 4개체, 보성만 2개체, 금호강 1개체, 부산-울산해안 5개체로 총 32개체, 2009년 중랑천에서 1개체, 충주호 9개체, 미호천과 금강 상류에서 각 1개체, 순천만 1개체, 낙동강 2개체, 부산-울산해안 2개체, 형산강 2개체, 포항-영덕해안 1개체, 남대천 1개체로 총 25개체, 2010년 남한강에서 3개체, 섬강 2개체, 대청호 1개체, 충주호 10개체, 미호천 2개체, 금강상류 1개체, 경천저수지 1개체, 황강에서 12개체, 평해-울진해안 1개체, 삼척-강릉 2개체, 간성-대진해안에서 1개체로 총 36개체가 확인되었다(환경부 2007-2010).

## ● 국제 동향

러시아 동부와 중국 북부, 한국, 일본에서 번식하고 네팔과 인도, 부탄, 중국 남부, 대만,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 월동한다. 약 10,000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etlands International 2002).

## ● 위협 요인

주 서식지가 돌과 자갈, 모래가 있는 강으로 하천 공사와 강변의 모래톱의 소실로 번식지 및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I 급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집단의 규모는 약 10,000개체로 동아시아 일대에 서식하는 특정종이다.

## ● 평가 결과: VU D(1)

주요 서식지인 하천의 개발과 연안갯벌 등의 매립 등으로 인해 서식지 축소가 불가피하며, 매년 관찰되는 개체수의 변동이 크고 안정적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취약종(VU) D(1)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Wetlands International. 2002. Waterbird Population Estimates-Third Edition. Wetlands International Global Series No. 12, Wageningen, The Netherlands. pp.156.
-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pp.591-592.
-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122-123.
- 환경부. 2007-2010. 겨울철새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Charadrius placidus* is small wetland species that breeding southern Korea in summer. It has restricted distribution with a very small population. They feed on invertebrates in the shallow waters of river. Nowaday, its habitate has been greatly reduced,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required to conserve this species. International population size estimated about 10,000 mature individuals in 2010. It meets the criteria for VU D(1).

집필자: 김진한(국립생물자원관), 이한수(한국환경생태연구소)



# 흰이마기러기

*Anser erythropus* Linnaeus 1758

## 분류학적 위치

기러기목(Anseriformes) 오리과(Anatidae)

영명: Lesser white-fronted goose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II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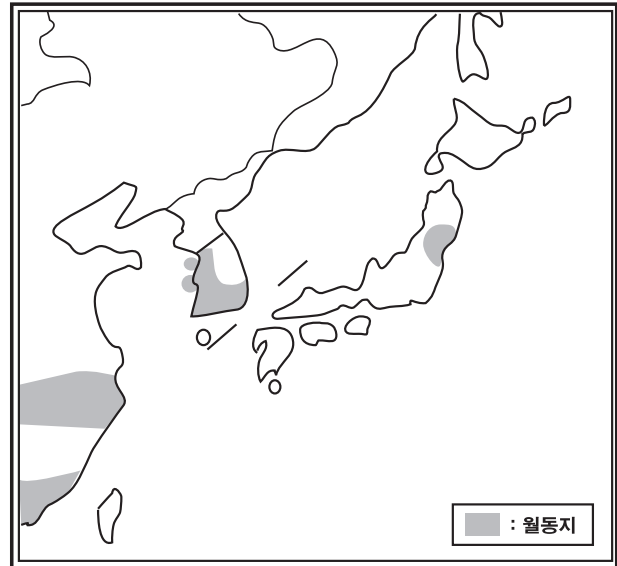
IUCN 범주: VU (취약종)

## ● 요약

전장 53-66cm이며, 이마의 백색 부분이 머리꼭대기까지 이른다. 희귀한 겨울철새로 소수가 다른 기러기류와 함께 도래한다. 한강 하구 일대와 주남저수지 등지에서 관찰기록이 있으며,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물 II급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매년 관찰되는 개체수의 변동이 크고 안정적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취약종(VU)으로 평가했다.

## ● 형태

전장 53-66cm의 크기이며, 이마의 백색 부분은 머리꼭대기에 이른다. 부리는 선명한 분홍색이며, 근거리에서 보이는 황색 눈 둘레가 특징이다. 다리는 주황색이 도는 황색이다(원 1981).



## ● 생물학적 특성

우리나라에 오는 희귀한 겨울철새로서 보통 쇠기러기 무리에 1개체 또는 소수가 섞여 도래한다. 주로 농경지에서 낙곡을 먹는다.

## ● 분포 현황

경기도 한강 일대, 경상남도 주남저수지 일대, 충청남도 서산시 천수만 등지에서 관찰기록이 있다(박 1993).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에서 번식하지 않는 겨울철새다.

## ● 서식지 동향

겨울철 넓은 농경지와 호수, 해안 등지를 선호한다. 특히 한강 하구와 주남저수지, 천수만 등 습지 지역의 농경지에서 관찰된다.

## ● 개체수 현황

경기도에 오래된 기록이 있으며, 경상남도 주남저수지에서 1992년 1-2월에 걸쳐 4개체 이상이 월동했다. 또

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천수만, 주남저수지, 한강 일대의 농경지에서 꾸준히 소수의 개체가 확인되고 있다 (박 1993).

## ●국제 동향

북극 북부의 고지대, 사할린, 쿠릴열도, 한국, 일본, 대만에서 기록되었다. 북유럽과 시베리아 서부에 8,000-13,000개체, 북아시아에 14,000여 개체가 서식한다(Wetlands International, 2002).

## ●위협 요인

농경지 감소와 해안 및 호수의 매립 등 각종 공사에 따른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월동지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I 급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 ●평가 결과: VU D(1)

국내에 기록된 개체수는 1-4개체로 소수가 도래하며, 매년 관찰되는 개체수의 변동이 크고 안정적이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에도 IUCN의 적색목록 분류 기준에 따라 취약종(VU) D(1)으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Wetlands International. 2002. Waterbird Population Estimates-Third Edition. Wetlands International Global Series No. 12, Wageningen, The Netherlands. pp.72.

박진영. 1993. 注南貯水池에 渡來하는 큰기러기와 쇠기러기의 越冬生態.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pp.418-419.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122-123.

*Anser erythropus* is large arable land that visit southern Korea in winter. It has redistribution with a very small population, in White-fronted geese. They feed on rice seeds in arable land. Wintering flocks observed at several sites in Nackdong river, Cheonsu-bay, Han river. Nowadays,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required to conserve this species. It observed more than 4 individual at Nackdong river, Cheonsu-bay, Han river until in 1992, It meets the criteria for VU D(1).

집필자: 김창희(국립환경과학원), 신용운(한국환경생태연구소)

# 흰죽지수리

*Aquila heliaca* Savigny, 1809

## 분류학적 위치

매목(Falconiformes) 수리과(Accipitridae)

영명: Imperial Eagle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II급

IUCN 범주: VU (취약종)

## ● 요약

우리나라의 강, 하구, 간척지 등 일부 지역에서만 관찰되는 겨울철새로, 1999년 16개체가 기록되었으며, 월동하는 개체수는 안정적이지 않고 매년 도래하는 개체수에 변동이 크다. 각종 개발로 인한 서식지의 축소로 보호가 요구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취약종(VU)로 평가했다.

## ● 형태

전체적으로 흑갈색을 띤다. 뒷머리는 황갈색을 띤다. 어깨 일부분이 흰색이다. 꼬리 끝에 두꺼운 암갈색 띠가 있다. 검독수리와 비슷하지만 꼬리가 짧다. 어린 새는 온몸에 황갈색 반점이 산재한다(원 1981; 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농경지의 중앙 또는 숲 가장자리의 나무에 앉아 장시간 휴식하며, 공중을 돌면서 땅 위의 먹이를 찾는다. 먹이는 작은 포유류, 도마뱀, 뱀, 그리고 작은 물새류 등이다. 산비탈의 낙엽활엽수림에 둥지를 틀며, 매년 같은 둥지를 보수해 사용하므로 둥지는 점차 커진다. 흰색 또는 황백색 바탕에 붉은 갈색 무늬가 있는 알을 2-3개 낳는다(원 1981).

## ● 분포 현황

경기도 파주, 강원도 철원, 충청남도 천수만,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 경상북도 형산강, 낙동강 하구 등 비교적 국지적으로 분포한다.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에서 번식하지 않는 겨울철새다.

## ● 서식지 동향

우리나라의 하구, 간척 농경지, 대규모 저수지, 강 등의 개활지 및 평지에 서식한다.

## ● 개체수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관찰지역이 극히 제한적이며 관찰 빈도도 낮다. 월동기의 경우 1999년 16개체, 2000년 2개체, 2003년 1개체, 2006년 2개체, 2008년에 2개체, 2010년 2개체로 관찰되는 개체수가 소수이며, 안정적이지 않고 매년 도래하는 개체수의 변동이 크다(환경부 1999-2010).

## ● 국제 동향

러시아를 포함한 아시아의 생존 집단은 1990년경에 최소한 800-1,200쌍으로, 유럽의 생존 집단은 약 350쌍으로 추정되었고, 서러시아에 130-150쌍 등으로 유럽과 러시아에 대부분이 분포한다(del Hoyo *et al.* 1994).

## ● 위협 요인

각종 개발로 인한 산림과 농경지의 감소 등 서식지의 축소와 먹이의 부족, 밀렵 등이 주요 위협 요인이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I 급으로 지정·보호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개체수가 감소해 보호하고 있다.

## ● 평가 결과: VU A1ac; D(1)

국내에 정기적으로 도래해 월동하는 개체군이 적고, 매년 관찰되는 개체수의 변동이 크고, 개체군 크기도 안정적이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에도 IUCN의 적색목록 분류 기준에 따라 취약종(VU) A1ac; D(1)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4.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2. Lynx Edicions, Barcelona. pp.194-195.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pp.517-518.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96.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

*Aquila heliaca* is uncommon winter visitor in Korea. Stays in plains with isolated trees, in pine forests, and small woods. Builds nests with thick boughs on trees, usually at the top. Feeds on small mammals, snakes, birds. Asia population which include Russia was about 800-1200 pairs in 1990. In Europe, the non-Russian population has been estimated 350 pairs. Most of breeding population lives in Russia and Europe. This species has a small global population, and is likely to be undergoing continuing declines, primarily as a result of habitat loss and degradation, adult mortality through persecution and collision with powerlines, nest robbing and prey depletion. Through the winter birds census from 1999 to 2010, it occurs 1-16 individuals in South Korea. It observed a few individual every year. It meets the criteria for VU A1ac; D(1).

집필자: 박진영(국립환경과학원), 이한수(한국환경생태연구소)

# 비둘기조롱이

*Falco amurensis* Radde, 1863

## 분류학적 위치

매목(Falconiformes) 매과(Falconidae)

영명: Amur Falcon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II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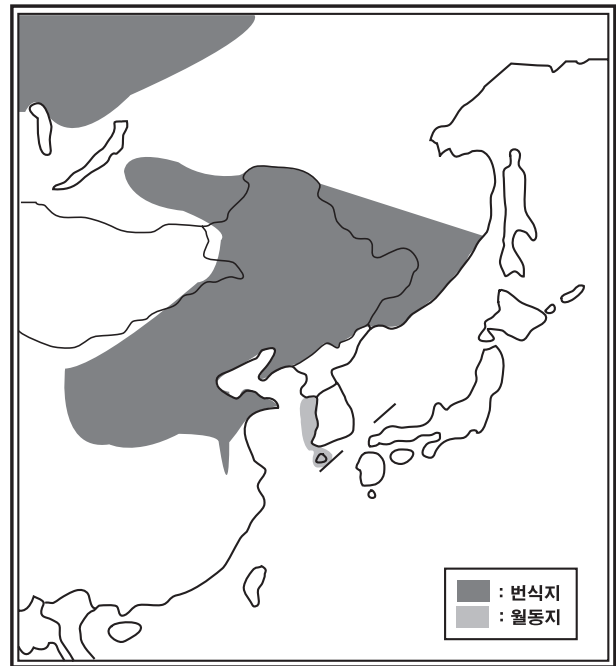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소형 맹금류로 납막과 다리가 주황색이다. 임진강 하구지역을 비롯한 전라남도 해남 등지에서 주로 확인되며 개발과 공사로 인해 습지 및 초지가 줄며 주 먹이원인 곤충도 사라져 먹이부족으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매년 관찰되는 개체수의 변동이 크고, 도래 개체군의 크기가 안정적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준위협종(NT)으로 평가했다.

## ● 형태

납막과 다리가 주황색이다. 수컷과 암컷은 깃털 색깔이 확실하게 다르다. 수컷은 전반적으로 검게 보이며 아랫배의 붉은색이 뚜렷하다. 암컷은 뺨이 희고, 가슴과 배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무늬가 있다(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희귀한 소형 맹금류다. 농경지, 목초지, 매립지(간척지) 등지에 서식하며 황조롱이처럼 정지비행을 한다. 땅 위에 있는 곤충이나 쥐 등을 주로 잡아먹는다(원 1981).

## ● 분포 현황

임진강 하구지역을 비롯한 전라남도 해남 등지의 서해안 간척지와 간석지에서 확인되었다.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에서 번식하지 않는 나그네새다.

## ● 서식지 동향

농경지와 간석지에 서식하며 북한의 고산지대에서 적은 수가 번식하고 남한에서는 서해안을 통과하는 드문 나그네새다.

## ● 개체수 현황

1962년 서울시 2개체, 1970년 인천시 1개체, 1970년 강화도 1개체, 천수만 2개체, 1996년 만경강 하구 1개체, 2000년 가거도 2개체, 2001년 3개체, 제주도 2개체가 확인되었다. 전국자연환경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도래 개체수는 30여 개체로 추정된다(환경부, 1997-2009; 환경부 2007-2010).

## ● 국제 동향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892개체가 확인된 바 있으며 이동 시기에는 4,000-5,000개체가 큰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것이 확인되기도 한다(del Hoyo *et al.*, 1994).

## ● 위협 요인

개발과 공사로 인해 습지 및 초지가 줄며 주 먹이원인 곤충이 사라져 먹이부족으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I 급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 ● 평가 결과: NT

매년 관찰되는 개체수의 변동이 크고, 도래 개체군의 크기가 안정적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준위협종(NT)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4.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2. Linx Edicions, Barcelona. pp.265-266.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pp.539-540.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106-107.

환경부. 2007-2010. 겨울철새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

환경부. 1997-2007.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

*Falco amurensis* has an extremely large range, and hence does not approach the thresholds for Vulnerable under the range size criterion. The population trend appears to be stable, and hence the species does not approach the thresholds for Vulnerable under the population trend criterion. The population size is extremely large, and hence does not approach the thresholds for Vulnerable under the population size criterion. In South Korea, population size estimated about 30 individuals. It meets the criteria for NT.

집필자: 박진영(국립환경과학원), 이한수(한국환경생태연구소)

# 쇠황조롱이

*Falco columbarius* Linnaeus, 1758

## 분류학적 위치

매목(Falconiformes) 매과(Falconidae)

영명: Merlin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II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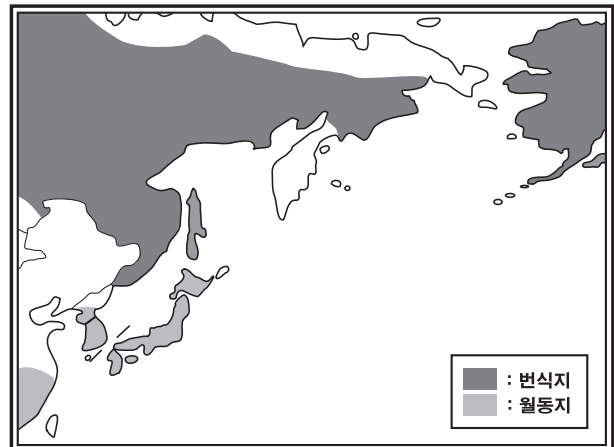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수컷 등은 흰빛을 띤 회색이고 꼬리 끝에 검은색 넓은 띠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넓게 트인 평지에 서식하는 겨울철새이며, 20여 개체가 도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관찰되는 개체수의 변동이 크고, 도래 개체군 규모가 안정적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준위협종(NT)으로 평가했다.

## ● 형태

수컷 등은 흰빛을 띤 회색이고 꼬리 끝에 검은색 넓은 띠가 있다. 배는 적갈색이며 연한 갈색 줄무늬가 있다. 턱 아래 부위는 크림색이며 줄무늬가 없다. 가까이에서 보면 얇은 뺨 선이 보인다. 등은 갈색이고, 꼬리는 크림색으로 갈색 띠가 있다(원 1981; 이 2000).



## ● 생물학적 특성

내륙이나 해안가의 넓게 트인 평지에 서식하는 겨울철새다. 둥지는 주로 땅 위에 지으며, 과일나무의 가지나 이끼류를 사용해서 만든다. 흰색 바탕에 적갈색 점이 흩어진 알을 3-6개 낳는다(원 1981).

## ● 분포 현황

임진강 하구, 시화호, 천수만, 무안, 해남 등 넓은 간척지와 습지 등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한다.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에서 번식하지 않는 겨울철새다.

## ● 서식지 동향

해안가의 넓은 들판이나 하구, 농경지 등을 선호한다.

## ● 개체수 현황

2007년 낙동강 하류에서 2개체가 확인되었고, 2008년 칠원평야 1개체, 임진강 하구 1개체, 고천암호 1개체, 순천만 1개체, 낙동강 하구 1개체로 총 5개체, 2009년 칠원평야 2개체, 연천 1개체, 한강 하구 1개체, 석모도 1개체, 동진강 1개체, 낙동강 하류 1개체, 낙동강 하구 1개체로 총 8개체가 확인되었다. 2010년 칠원평야 1개체, 연천 1개체, 한강 하구 2개체, 석모도 1개체, 영암호 1개체, 순천만 1개체로 총 7개체가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의 도

래 개체수는 20여 개체로 추정된다(환경부 1997-2009; 환경부 2007-2010).

## ●국제 동향

유라시아, 북아메리카 북부 등에서 번식하고, 아프리카 북부, 인도, 중국 동부, 아메리카 남부, 서인도제도 등에서 월동한다. 유라시아에서 약 10,000개체, 영국에서 약 800개체, 스웨덴에서 약 2,000개체, 핀란드 1600개체가 확인되었으며 유럽과 러시아 등지에서 약 30,000쌍 이상이 번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del Hoyo *et al.* 1994).

## ●위협 요인

개발과 공사로 인해 습지 및 초지가 줄어들며 주 먹이원인 곤충이 사라져 먹이부족으로 개체수가 줄고 있다.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I 급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 ●평가 결과: NT

매년 관찰되는 개체수의 변동이 크고, 도래 개체군의 규모가 안정적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준위협종(NT)으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4.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2. Linx Edicions, Barcelona. pp.267.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pp.537-539.
-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106-107.
- 환경부. 2007-2010. 겨울철새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
- 환경부. 1997-2007.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

*Falco columbarius* is small raptorial species that passage southern Korea in winter. It has restricted distribution with a very small population. They feed on small bird and insect in the arable land and grassland. Nowadays, its habitat has been greatly reduced,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required to conserve this species. In South Korea, population size estimated about 20 individuals. It meets the criteria for NT.

집필자: 박진영(국립환경과학원), 이시완(한국환경생태연구소)



# 알락쇠오리

*Brachyramphus perdix* Pallas, 1811

## 분류학적 위치

도요목(Charadriiformes) 바다오리과(Alcidae)

영명: Long-billed Murrelet

지정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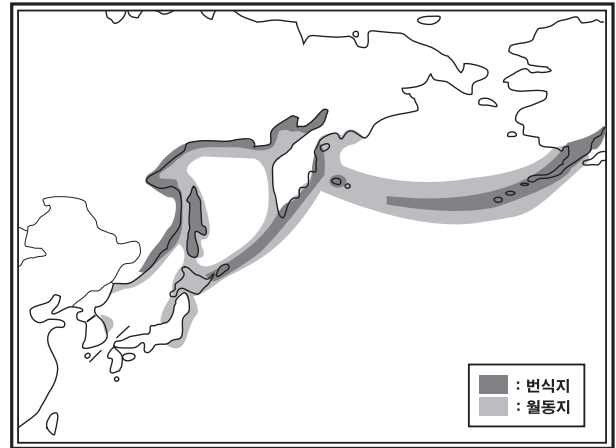
IUCN 범주: NT (준위협종)

## ● 요약

대표적인 바다 새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 동해안 지역에 드물지 않게 찾아오며, 바다쇠오리와 섞여 무리를 이룬다. 국내 관찰 개체군이 10개체 미만으로 매우 적으며, 동해안 일대의 정치망 어업, 기름유출에 의한 해양오염 등 외부 위협 요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준위협종(NT)로 평가했다.

## ● 형태

부리는 검은색이다. 여름깃의 경우, 몸 윗면은 어두운 갈색이며, 아랫면은 갈색과 흰색 얼룩무늬가 많다. 겨울깃은 어깨깃이 흰색이다. 몸 윗면은 검게 보이며, 몸 아랫면은 흰색이다(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단독 또는 10-15개체의 작은 무리를 짓는 것이 관찰된다. 잠수할 때는 날개와 다리를 움직이며, 위험을 느낄 때에는 잠수해서 도망가는 경우가 많으며, 날아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다. 날아오를 때에는 상당한 거리를 활주한다. 번식기는 4-6월이며, 한 번에 알 1개를 낳는다. 알은 옅은 황색 바탕에 붉은빛 도는 갈색 얼룩점과 회색 얼룩점이 여러 개 산재한다(원 1981).

## ● 분포 현황

우리나라의 동해안 먼 바다에 주로 분포한다.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에서 번식하지 않는 겨울철새다.

## ● 서식지 동향

산악의 고산지대에 번식하며, 땅 위에 직접 산란한다.

## ● 개체수 현황

1961년 부산시 다대포, 경상남도 진해 일대에서 관찰기록이 있으며, 최근에 동해안 일대에서 2009년에 8개체, 2010년에 2개체를 관찰한 기록이 있다(환경부 2009, 2010).

## ● 국제 동향

오호츠크 연안, 캄차카 반도 동부, 사할린, 쿠릴열도, 북아메리카의 캘리포니아 해안 등에 분포한다. 북아메리카에 약 300,000개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동러시아에 50,000-100,000개체가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del Hoyo *et al.* 1996; IUCN 2010).

## ● 위협 요인

별목 등에 의한 번식지 파괴, 동해안 일대 해안에 어업을 위해 설치해 놓은 정치망, 기름오염 등이 주 위협 요인이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먼 바다에 서식하므로 해안에서는 관찰이 어렵다.

## ● 평가 결과: NT

국내 관찰기록이 거의 없으며, 비정기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먼 바다에 서식하는 서식 특성으로 인해 종에 대한 관찰 자료가 부족하며, 국내 해안 일대의 어업 유형이 종의 서식에 많은 위협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IUCN 적색목록 분류 기준의 준위협종(NT)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6.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3. Lynx Edicions, Barcelona. 821pp.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1,126pp.

이기섭, 이종렬. 2009. 새. 필드가이드. pp.288.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320pp.

환경부. 200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Chunky alcid with slender, pointed blackish bill, and blackish brown iris; dusky dark brown crown and upperparts, back feather tipped with rusty brown. Habitat is Pelagic and along sea coasts, in summer usually offshore from coniferous forests along mainland coast and island. Breeding season longer and less synchronous than in other alcid species, with laying and incubation in North America from late Mar to late Aug. Not globally threatened. Total breeding population estimated at 300,000 individuals in North America, and probably 50,000-100,000 birds in E Russia. Currently considered Near-threatened. It meets the criteria for NT.

집필자: 백운기(국립중앙과학관), 이한수(한국환경생태연구소)

# 알락해오라기

*Botaurus stellaris* Linnaeus, 1758

## 분류학적 위치

황새목(Ciconiiformes) 백로과(Ardeidae)

영명: Eurasian Bittern

지정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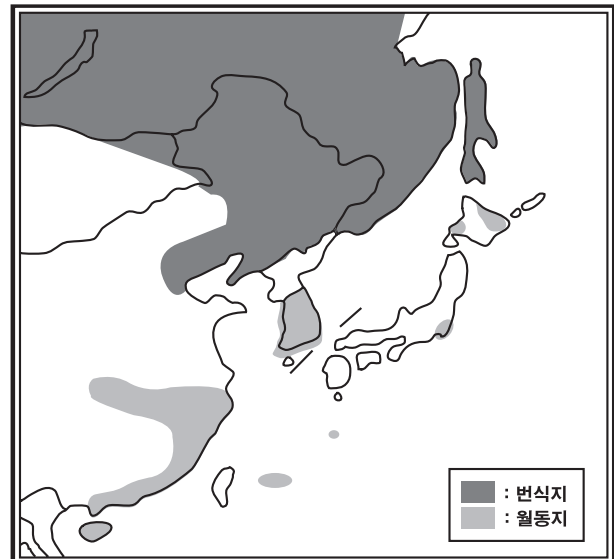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겨울철새이며, 전국의 강, 강 하구, 간척지 주변의 갈대밭에 서식한다. 주로 분포하는 지역은 충청남도의 대호, 천수만의 간월호, 부남호, 경기도 시화호, 순천만, 주남저수지, 낙동강 하류 등이다.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소수 개체가 관찰되었으며, 1999년에 충청남도의 대호에서 1개체 이후 2010년 10개체를 관찰한 기록이 있다.

## ● 형태

암컷과 수컷 모두 이마와 머리꼭대기는 검은색이고, 뒷머리와 뒷목은 검은색으로 깃 가장자리가 황갈색이며 가로무늬가 있다. 가늘고 어두운 갈색 턱밑 선이 있고 그 양쪽은 황갈색이다. 가슴에는 검은 갈색 세로무늬가 있다. 등과 어깨깃은 검은색이며 가장자리가 황갈색이고, 그 황갈색 부분이 불규칙한 톱니모양으로 검은색 부분과 서로 엇갈려 있다. 허리와 위꼬리덮깃은 옅은 황갈색으로 불규칙하고 옅은 검은색 가로띠가 있다. 다리는 노란색을 띤 녹색이다(원 1981; 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갈대밭, 풀이 우거진 습지, 호수 등에서 단독 생활한다. 주로 밤에 활동하나 때로는 낮에도 활동한다. 얕은 물에서 먹이를 찾으며, 경계할 때는 주위 환경과 비슷하게 위장한다. 둥지는 갈대 줄기에 줄기와 잎을 이용해 접시모양으로 만든다. 알 낳는 시기는 4월 상순-5월 하순이다. 알은 올리브 갈색으로 3-6개 낳는다(원 1981; 이 등 2000).

## ● 분포 현황

우리나라의 하천, 호수, 저수지, 초습지 등에 분포한다. 주로 분포하는 지역은 충청남도의 대호, 천수만의 간월호, 부남호, 경기도 시화호, 순천만, 주남저수지, 낙동강 하류 등이다.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에서 번식하지 않는 겨울철새이며, 유럽, 시베리아, 중국 북부, 일본 북부 등지에서 번식한다.

## ● 서식지 동향

우리나라의 하천, 호수, 저수지, 초습지 등 주로 물가의 갈대밭에 서식한다.

## ● 개체수 현황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소수 개체가 관찰되었으며, 1999년에 충청남도의 대호에서 1개체이후 2000년에 9개체, 2003년에 5개체, 2006년 7개체, 2008년 6개체, 2010년 10개체를 관찰한 기록이 있다(환경부 1999-2010).

## ● 국제 동향

유럽에서 시베리아, 중국 동부, 일본 북부에서 번식하고, 한국,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중국 남부 등에서 월동하는 비교적 넓은 범위에 분포하는 종이다. 1990년 겨울 조사에서 인도는 82개체, 중국이 892개체로 파악되었다. 전 세계 개체수에 대한 자료는 없으며, 현재까지 개체수가 많아 관심대상종으로 취급해 보호하고 있다(IUCN 2010).

## ● 위협 요인

간척지나 하천의 개발로 인한 갈대밭의 감소로 서식지의 축소 및 훼손과 일부 밀렵 등이 위협 요인이다.

## ● 특기 사항

환경부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보호하고 있는 종이며, 간척지의 갈대밭 등에서 주로 서식하므로 이 지역에 대한 보호가 요구된다.

## ● 평가 결과: NT

국내에 기록된 개체수는 2010년에 10개체로 소수가 도래하며, 매년 관찰되는 개체수의 변동이 크고, 도래 개체군의 규모가 안정적이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NT (준위협종)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pp.373-375.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60.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Botaurus stellaris* is wintering bird in South Korea. Its observation sites in Daeho, Cheonsu bay, Sihwa lake, Suncheon bay. Winter census yielded 82 birds in India and 892 in China, Jan 1990. In winter 2010 census, 10 birds counted in South Korea. The population size is extremely large, and hence does not approach the thresholds for Vulnerable under the population size criterion. Its diet varies depending on the site and season although it predominantly takes fish (particularly cyprinids and eels) and amphibians as well as adult and larval insects, spiders, crustaceans, molluscs, snakes, lizards, birds, nestlings and small mammals. The species is threatened mainly by the loss of *Phragmites* reed marshes owing to habitat alteration through drainage, direct destruction, changes in traditional management (e.g. changes to reed harvesting regimes), sea level rise and salt water intrusion, the effects of wave action from boat traffic at the edge of open water, and pollution. It meets the criteria for NT.

집필자: 이기섭(한국물새네트워크), 김인규(한국환경생태연구소)

# 큰논병아리

*Podiceps grisegena* Boddaert, 1783

## 분류학적 위치

논병아리목(Podocopediformes) 논병아리과(Podicipedidae)

영명: Red-necked Grebe

지정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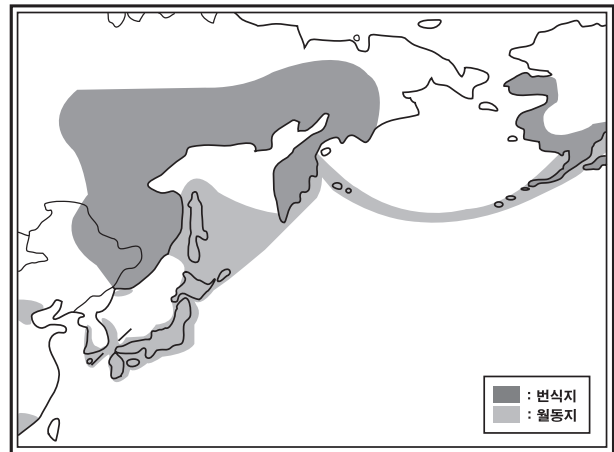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논병아리류 중 크기가 대형인 겨울철새로, 우리나라 동해안과 석호, 간척호수, 서해안의 저수지, 제주도 등에서 관찰된다. 국내에 도래하는 개체수는 약 1,600개체로 단독 또는 소수의 무리가 해안에 서식한다. 위협 요인으로는 어망에 걸려 익사하거나 기름 유출에 의한 오염 등이 있다.

## ● 형태

논병아리류 중에서 대형 종이다. 눈동자가 검고 부리는 어두운 갈색, 부리 기부는 노란색이다. 겨울깃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갈색이며, 목 부분의 짙은 밤색은 사라진다. 여름깃의 머리꼭대기부터 눈 밑까지는 검고 턱과 뺨은 회색, 목은 짙은 밤색이다(원 1981; 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에서 회색머리아비와 큰회색머리아비 무리에 간혹 1개체씩 섞여 겨울을 보낸다. 혼자 또는 암수가 함께 바다 위나 만에서 겨울을 지내며, 내륙의 호수나 강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번식지에서는 호수나 습지의 갈대밭에 둥지를 틀고 6월에서 8월 상순(보통 6-7월)에 알 3-6개를 낳는다. 어류(황어), 개구리, 갑각류, 연체동물, 수서곤충 등을 잡아먹는다(원 1981; 이 등 2000).

## ● 분포 현황

우리나라 동해안의 간성, 대진, 양양, 속초, 울진 등의 해안과 서해안의 태안 해안, 고흥의 해창만, 예당저수지, 낙동강 하류, 제주도 해안에 분포한다.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에서 번식하지 않고 겨울에 월동하는 겨울철새이며, 캄차카 반도, 시베리아 동부, 만주, 사할린, 홋카이도, 북아메리카 등에서 번식한다.

## ● 서식지 동향

우리나라 동해안과 석호, 간척호수, 서해안의 저수지, 남해안과 제주도 등에 서식한다. 동해안의 간성, 대진, 양양, 속초, 울진 등의 해안과 서해안의 태안 해안, 예당저수지, 낙동강 하류, 제주도 해안에 서식한다.

## ● 개체수 현황

과거에는 개체수가 적었으나 최근에는 1,600여 개체로 증가했다. 1999년의 경우 예당저수지에서 1개체 기록이 있으며, 2001년에는 동해안과 해창만 등에서 52개체, 2004년에 40여 개체, 2006년 300여 개체, 2008년 40여 개체, 2010년 1,600여 개체로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 개체수가 증가했다(환경부 1999-2010).

## ● 국제 동향

캄차카 반도, 시베리아 동부, 만주, 사할린, 홋카이도, 북아메리카 등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개체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으며, 현재까지는 개체수가 많아 관심대상종으로 취급해 보호하고 있다.

## ● 위협 요인

어망에 걸려서 익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름 유출에 의한 오염 등이 위협 요인이다. 특히 동해안과 서해안 일대에는 정치망 어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정치망에 있는 어류를 먹기 위해 들어갔다 혼획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 2007년 태안의 기름유출 사고와 같은 크고 작은 기름유출로 먹이원 고갈, 깃이 기름에 오염되어 날아오르지 못하는 문제 등이 죽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아메리카에서는 PCBs나 DDT 등의 오염에 의해 부정란 산란, 알 껍질이 얇아지는 등의 위협 요인이 있다.

## ● 특기 사항

환경부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보호하고 있는 종이며, 우리나라 동해안에 일부 무리가 월동하고 있다.

## ● 평가 결과: NT

국내에 도래하는 큰논병아리는 2010년 1,600여 개체로 1999년에 비해 많은 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매년 관찰되는 개체수의 변동 폭이 크고, 도래 개체군의 규모가 안정적이지 않다. 또한, 개체군의 분포지역이 육지와 거리가 먼 바다로 정기적인 조사 및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준위협종(NT)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pp.355-356.
-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46.
-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

*Podiceps grisegena* is wintering bird in South Korea. The population size is extremely large, and hence does not approach the thresholds for Vulnerable under the population size criterion. In winter 2010 census, c. 1,600 birds counted in E coast, South Korea. Its diet consists predominantly of invertebrates such as adult and larval aquatic insects (e.g. water beetles, water bugs and dragonfly larvae), crayfish and molluscs, although fish are also be important locally or seasonally. In North America the species is threatened by pollutants such as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and other pesticides (e.g. DDT) which cause reduced reproductive success due to egg sterility and eggshell thinning. The species is also threatened by the modification and degradation of lakes and by human disturbance from water-based recreational activities. It may also be threatened by future oil spills at sea during the winter (although during this season the species is widely scattered along coasts, so the effects of oil spills are likely to be small). It meets the criteria for NT.

집필자: 이기섭(한국물새네트워크), 김인규(한국환경생태연구소)



# 홍여새

*Bombycilla japonica* Siebold, 1824

## 분류학적 위치

참새목(Passeriformes) 여새과(Bombycillidae)

영명: Japanese Waxwing

지정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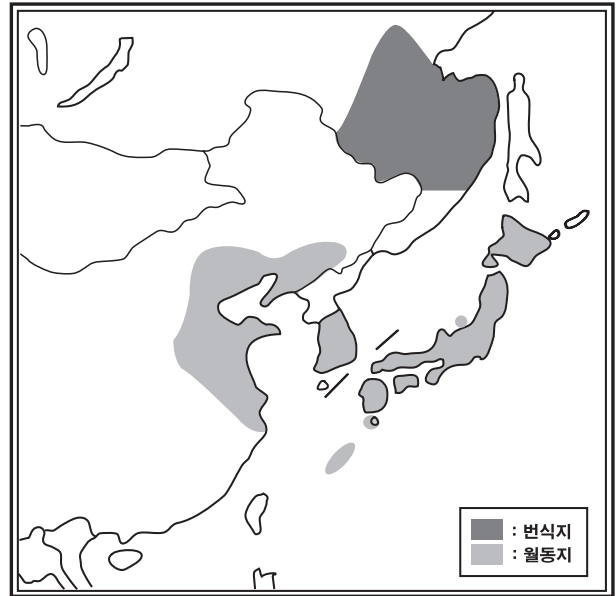
IUCN 범주: NT (준위협종)

## ● 요약

머리깃이 길고 전체적으로 회갈색이며, 꼬리 끝에는 붉은색 띠가 있다. 전국 산림지대에 도래하나 해마다 관찰되는 개체수의 차이가 크다. 주요 번식지는 러시아 동부지역(야쿠츠크, 아무르)의 산림지대이며,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월동하는 종으로, 국제적으로 정확한 개체수 산정은 되지 않고 있다.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IUCN 분류군 위협 범위 평가 기준 및 국내 서식현황 적용 결과 준위협종(NT)으로 평가했다.

## ● 형태

머리깃이 길며, 꼬리 끝에 붉은색 띠가 있다. 검은색 눈선은 뒤로 가며 넓어지며, 배 중앙은 흐린 노란색으로 보인다(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침엽수에 나뭇가지, 지의류, 풀 등으로 허술하고 평편한 접시모양의 둥지를 만든다. 엷은 청색에 검은색 반점이 있는 알을 4-6개 낳는다. 포란기간은 15-16일이며 육추기간은 약 16일이다(원 1996).

## ● 분포 현황

전국 산림지대에 도래하는 종이나 해마다 관찰되는 개체수의 차이가 크다.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에서는 번식하지 않는 겨울철새다.

## ● 서식지 동향

국내 산림지대 특히 숲 가장자리, 도시의 정원과 공원, 침엽수림 등지에 서식한다.

## ● 개체수 현황

전국적으로 드물지 않게 도래하나 황여새보다 도래 집단이 작고, 해에 따라 도래하는 개체수의 변화가 심하다. 1991년 속리산에서 20여 개체, 1996년 강원도 고성군에서 1개체, 1997년 해남에서 30개체, 순천만에서 6개

체, 1999년 완도 보길도에서 6개체, 2000년도 흑산도에서 3개체가 확인된 기록이 있다(박 2002). 최근 기록으로는 2010년 5월 광양지역에서 20여 개체가 관찰되기도 했다.

## ●국제 동향

주요 번식지는 러시아 동부지역(야쿠츠크, 아무르)의 산림지대이며,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월동하는 종으로, 국제적으로 정확한 개체수 산정은 되지 않고 있다(del Hoyo *et al.* 2005; IUCN 2010).

## ●위협 요인

개발로 인한 숲 서식지의 훼손 등으로 도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 ●특기 사항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1998년 이후 5,390개체를 중국에서 유럽지역으로 수출한 것이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했다(IUCN 2010).

## ●평가 결과: NT

IUCN 분류군 위협 범위 평가 기준 및 국내 서식현황 적용 결과 준위협종(NT)으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 del Hoyo, J., A. Elliott and Christie, D.A. eds. 2005.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10. Lynx Edicions, Barcelona. pp.316-317.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박진영. 2002. 한국의 조류 현황과 분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216-217.
- 원병오. 1996. 한국의 조류. 교학사. pp.287.

*Bombycilla japonica* is a fairly small passerine bird of the waxwing family found in north-east Asia. It feeds mainly on fruit and berries but also eats insects during the summer. The nest is a cup of twigs lined with grass and moss which is built in a tree. The species is listed in Annex D of the EU Wildlife Trade Regulations and therefore EU import levels are monitored. Since 1998, 5,390 wild individuals have been imported into EU countries alone, the majority exported from China, a level of trade that might be a significant threat to the species. It meets the criteria for NT.

집필자: 채희영(국립공원철새연구센터), 조해진(한국환경생태연구소)

# 흰기러기

*Anser caerulescens* Linnaeus, 1758

## 분류학적 위치

기러기목(Anseriformes) 오리과(Anatidae)

영명: Snow Goose

지정현황: -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겨울철새이며, 쇠기러기 무리에 섞여서 소수가 우리나라에 도래한다. 우리나라의 평야지대 및 강 하구, 간척 농경지인 철원, 천수만, 영암호, 한강 하구, 임진강, 만경강, 주남저수지 등에 분포한다. 우리나라에서 관찰된 개체수는 1-4개체로 소수가 도래한다.

## ● 형태

중형의 기러기류로 몸의 윗면과 아랫면은 흰색이지만 첫 번째 날개깃은 검은색이고 바깥 기부는 회색이다. 다 자란 것은 흰 것이 보이고, 날개 끝이 검은색이어서 다른 회색기러기와 쉽게 구별된다. 그러나 어린 새는 등이 회갈색이고 아랫면이 회색이어서 구별하기 어렵다. 부리와 다리는 분홍색이다(원 1981; 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흰기러기는 6월에 알을 4-8개 낳으며, 하루에 1개씩 낳고 암컷이 24-26일 동안 품는다. 새끼의 성장 기간은 40-50일이다. 먹이는 주로 밀, 보리, 감자, 고구마 등의 잎과 옥수수, 밀, 보리 등의 낱알을 먹으며 수생식물의 뿌리와 줄기, 물속 연체동물, 곤충, 조개류 따위도 먹는다. 농경지, 못, 호수, 습지, 간척지 등지에 서식하며 농경지에서 먹이를 찾는다(원 1981).

## ● 분포 현황

우리나라의 평야지대 및 강 하구, 간척 농경지인 철원, 천수만, 영암호, 한강 하구, 임진강, 만경강, 주남저수지 등에 분포한다.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에서는 번식하지 않는 겨울철새다.

## ● 서식지 동향

우리나라의 평야지대 및 간척지의 논과 하구 등에 서식한다.

## ● 개체수 현황

우리나라에서 기록된 개체수는 1-4개체로 소수가 도래한다. 1999년 철원에 4개체, 천수만의 부남호 2000년 1개체, 2001-2005년까지 간월호 1개체, 2000년 영암호 1개체, 2005년 경기도 연천, 한강 하구 1개체, 2006년 임진강 1개체, 강화도 1개체, 2007년 영종도 1개체, 2008년 한강 하구, 주남저수지 1개체, 2009년 만경강 3개체, 2010년 강화도 1개체의 기록이 있다(환경부 1999-2010).

## ● 국제 동향

시베리아 번식지에는 1987년 가을에 140,000개체가 있었으나 순록 농장의 설립, 포식자인 여우의 증가 등으로 개체수가 감소했다. 1988년 북아메리카에 1,358,000개체가 있었으며, 사냥이나 경주 등에 이용하기 위해 개체수를 증가시켜왔다. 과거에는 일본에 월동 집단이 많았으나 1895년경에 사라졌고, 1950년 이후에 회복되기 시작해 현재는 매년 소수 개체가 도래한다. 멕시코에서는 2,000-3,500개체가 월동한다(del Hoyo *et al.* 1992).

## ● 위협 요인

국제적으로는 개체수가 많고 인위적으로 개체수를 증가시키고 있어 위협 요인은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냥, 독극물 등의 위협 요인이 있다.

## ● 특기 사항

환경부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보호하고 있으나 도래하는 지역과 개체수가 적어 특별한 보호가 요구된다.

## ● 평가 결과: NT

국내에 기록은 4개체 정도로 소수가 도래하며, 매년 관찰되는 개체수의 변동이 크고, 도래 개체군의 규모가 안정적이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준위협종(NT)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2.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1. Lynx Edicions, Barcelona. pp.582-583.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pp.421-422.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68.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

*Anser caerulescens* is wintering bird in Korea. Not globally threatened. The population size is extremely large, and hence does not approach the thresholds for Vulnerable under the population size criterion. Numerous, with increase of nominate race in North America, from 424,600 in 1969 to 1,358,000 in 1988; increase may be due to more rigorous control of hunting. Only Siberian breeding grounds on Wrangel I held 140,000 birds in autumn 1987. Formerly abundant in winter in Japan, but wintering population suddenly disappeared around 1895, probably due to proliferation of firearms; since 1950's has started to recover and now recorded almost annually, though in very small numbers. Some birds winter in Mexico, with concentrations of up to 2,000-3,500 in favourable areas. In winter 1999 census, 4 birds counted in Cheorwon Basin, South Korea. It meets the criteria for NT.

집필자: 김창회(국립환경과학원), 김인규(한국환경생태연구소)

# 흰줄박이오리

*Histrionicus histrionicus* Linnaeus, 1758

## 분류학적 위치

기러기목(Anseriformes) 오리과(Anatidae)

영명: Harlequin Duck

지정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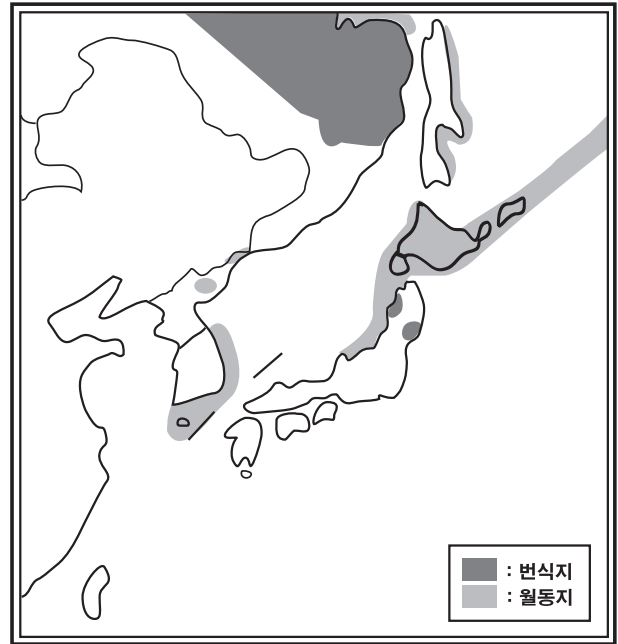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겨울철새이며, 우리나라 동해안과 석호, 남해안, 제주도 등에서 관찰된다. 국내에 기록된 개체수는 10-130개체로 적은 수가 도래하며, 매년 관찰되는 개체수의 변동이 크고, 도래 개체군의 크기가 안정적이지 않아 준위협종(NT)로 평가했다.

## ● 형태

수컷의 겨울깃은 이마, 머리꼭대기, 뒷머리 중앙은 검은색이며, 눈앞에는 크고 흰 얼룩무늬가 있다. 얼굴과 목은 회색빛을 띠고 눈 뒤의 아래 부분에는 작고 네모진 흰색 얼룩무늬가 있으며, 가늘고 긴 흰색 선이 목 옆을 지난다. 목 아래 부분에는 흰색 목 띠가 있고, 목 띠의 위아래에는 검은색 띠가 있다. 등, 허리, 위꼬리털깃은 검은색이다. 가슴과 배는 남색이며, 가슴 양 쪽에 반달모양의 가늘고 긴 흰색 얼룩무늬가 있고, 그 양 쪽으로 검은 선이 지나간다. 옆구리는 밤색이다. 부리는 회색빛이고, 다리는 갈색이다(원 1981; 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번식지에서는 물이 흐르는 산림에 서식하고, 월동지에서는 바닷가의 암석이 많은 곳에서 생활한다. 둥지는 흐르는 물의 물가, 바위틈, 풀 숲 속 땅 위에 마른 풀과 나뭇가지를 이용해 만든다. 알 낳는 시기는 5-8월이다. 알은 크림색으로 4-8개 낳아 28-29일 동안 품는다(원 1981).

## ● 분포 현황

우리나라 동해안의 간성, 대진, 양양, 속초, 울진, 포항 등의 해안과 남해안의 사천만, 부산-울산해안, 제주도 해안에 서식한다.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에서 번식하지 않는 겨울철새이며, 캄차카 반도, 시베리아 동부, 사할린, 쿠릴열도 북부, 알류산열도, 알래스카, 북아메리카 등에서 번식한다.

## ● 서식지 동향

우리나라 동해안과 석호, 남해안과 제주도 등에 서식한다. 동해안의 간성, 대진, 양양, 속초, 포항, 영덕 등의 해안과 남해안의 사천만, 부산, 울산해안, 제주도 해안에 서식한다.

## ● 개체수 현황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개체수가 적으며, 2000년 동해안에서 10개체, 2001년 동해안에서 37개체, 2004년에 60여 개체, 2006년 66개체, 2008년 130여 개체, 2010년 30여 개체로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 개체수가 증가했으나 불규칙적이다(환경부 1999-2010).

## ● 국제 동향

캄차카 반도, 시베리아 동부, 사할린, 쿠릴열도 북부, 알류산열도, 알래스카, 북아메리카, 홋카이도 등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전 세계 개체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으나 1970년대 중반 알류산열도의 번식 후 군집은 1,000,000개체 정도로 추정되었다. 현재까지는 개체수가 많아 관심대상종으로 취급해 보호하고 있다(del Hoyo *et al.*, 1992; IUCN 2010).

## ● 위협 요인

어망에 걸려서 익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름 유출에 의한 오염 등을 위협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 ● 특기 사항

환경부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보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동해안과 남해안에 일부 무리가 월동한다.

## ● 평가 결과: NT

국내에 기록된 개체수는 10-130으로 많지 않으며, 매년 관찰되는 개체수의 변동이 크고, 도래 개체군의 크기가 안정적이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NT(준위협종)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2.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1. Lynx Edicions, Barcelona. pp.622.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pp.471-473.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86.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

*Histrionicus histrionicus* is wintering bird in Korea. No global estimates of population size available, but bulk of it known to occur in Aleutian Is, where estimated 1,000,000 birds after breeding in mid-1970's. The population size is extremely large, and hence does not approach the thresholds for Vulnerable under the population size criterion. In winter 2010 census, c. 130 birds counted in South Korea. The species is commonly drowned accidentally in monofilament gill-nets (fishing nets) with mesh sizes greater than 5 cm. It may also be threatened by future coastal oil spills. The population size is extremely large, and hence does not approach the thresholds for Vulnerable under the population size criterion. It meets the criteria for NT.

집필자: 김창회(국립환경과학원), 김인규(한국환경생태연구소)



# 가창오리

*Anas formosa* Georgi, 1775

## 분류학적 위치

기러기목(Anseriformes) 오리과(Anatidae)

영명: Baikal Teal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II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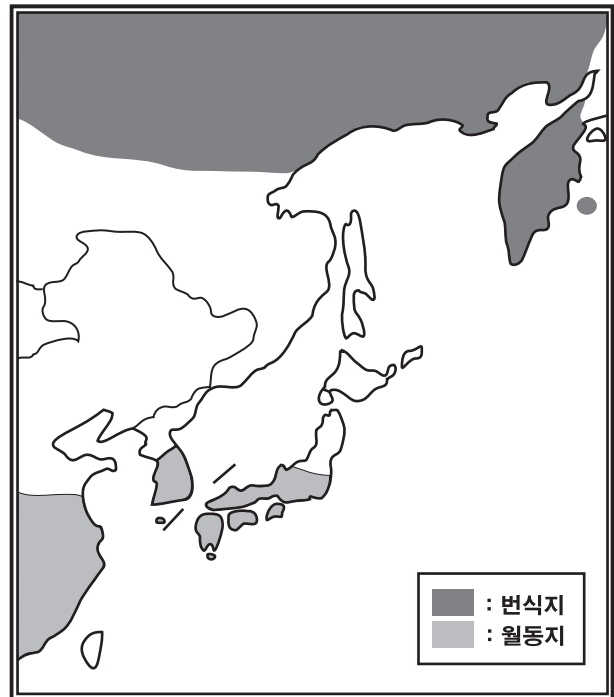
IUCN 범주: VU (취약종)

## ● 요약

겨울철새이며, 우리나라의 호소, 간척지 등에 대규모 무리를 이루어 도래한다. 전 세계 집단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며, 최근 10년간 평균 30만 개체 이상이 지속적으로 도래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관심대상종(LC)로 평가했다.

## ● 형태

부리는 검은색이다. 수컷의 얼굴에는 노란색, 녹색, 검은색의 독특한 바람개비모양의 무늬가 있으며, 부리와 접하는 부분부터 머리꼭대기까지는 검은색이다. 가슴 옆면에 흰색 세로줄이 있으며, 길게 늘어진 어깨깃이 뚜렷하다. 앞가슴 부분은 황갈색이며 몸의 옆면은 푸른빛을 띤 회색, 아래꼬리덮깃은 검은색이다. 암컷은 전체적으로 갈색을 띠며, 부리 기부에 둥근 흰색 점이 있고 목과 턱이 더 희다(원 1981; 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높지대나 초원 등에서 각종 식물의 열매나 작은 곤충 등을 먹으며, 겨울에는 주로 눈에 떨어진 벼 이삭이나 기타 식물의 열매, 잎과 줄기 등을 먹는다. 시베리아 평원지대에서 번식하며, 주변의 풀잎 등을 이용해 둥지를 만든다. 우리나라에서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겨울을 보낸다. 큰 무리를 이루어 행동하며, 일몰 직후 밤에 먹이를 먹으려고 무리 전체가 비상하는 것이 특징이다. 러시아의 시베리아 동부 등에서 번식하고,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겨울을 난다(원 1981; 이 등 2000).

## ● 분포 현황

우리나라의 아산만, 천수만, 금강 하구, 영암호, 고천암호, 금호호, 주남저수지 등 주요 철새도래지에 분포한다.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에서는 번식하지 않는 겨울철새다.

## ● 서식지 동향

우리나라의 넓은 농경지가 있는 평야지대, 호소, 강, 하구, 간척지, 대규모 저수지 등에 서식한다.

## ● 개체수 현황

월동 개체군의 경우 지난 10년간 점차적으로 증가했다. 겨울철새 동시센서스에서 1999년 213,080개체, 2000년 211,465개체, 2001년 185,838개체, 2002년 287,220개체, 2003년 303,165개체, 2004년 455,168개체, 2005년 337,588개체, 2006년 270,834개체, 2007년 819,563개체, 2008년 626,610개체, 2009년 1,063,280개체, 2010년 642,724개체를 관찰한 기록이 있다(환경부, 1999-2010). 우리나라의 주요 철새도래지 중 일부 지역에만 규칙적으로 도래하는 특징이 있다.

## ● 국제 동향

일본의 경우 과거 100,000개체에서 1980년대 말에는 2,000개체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2년에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전 세계 개체수를 300,000개체로 추정했으며, 1990년대 이후부터 한국의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개체군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Wetlands International 2002; IUCN 2010).

## ● 위협 요인

러시아 동부 및 사할린 등에서의 사냥과 우리나라에서의 밀렵 등이 위협 요인이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I 급으로 지정·보호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주요 휴식지 및 취식지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 ● 평가 결과: LC

전 세계 집단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월동하고 있으며, 도래 집단의 규모가 평균 300,000개체 이상으로 최근 10년간 안정적인 개체군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에서는 IUCN 적색목록 분류기준의 관심대상종(LC)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Wetlands International. 2002. Waterbird Population Estimates-Third Edition. Wetlands International Global Series No. 12, Wageningen, The Netherlands. pp.84.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1,126pp.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78.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

*Anas formosa* breeds in eastern Siberia, Russia and occurs on passage in Mongolia and North Korea. It winters mainly in Japan, South Korea, which held the largest wintering population during the 1990s, and mainland China, and it is a rare winter visitor to Taiwan and Hong Kong. In the early 20th century, it was one of the most numerous ducks in eastern Asia and flocks of many thousands were regularly reported. Since the 1960s and 1970s,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decline. Wintering counts in South Korea have however increased spectacularly from the c.20,000 first found overwintering in the 1980s to the latest reports of a single flock numbering 265,000 counted in the Haenam area on December 2001. In winter 2010 census, 642,724 birds counted in South Korea. It remains to be discovered whether increases in South Korea reflect real population increases or the relocation of birds from unknown sites in the region in response to wetland loss. It meets the criteria for LC.

집필자: 김창회(국립환경과학원), 이한수(한국환경생태연구소)

# 개구리매

*Circus spilonotus* Kaup, 1847

## 분류학적 위치

매목(Falconiformes) 수리과(Accipitridae)

영명: Eastern Marsh-harrier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II급, 천연기념물 제323-3호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우리나라를 드물게 통과하는 나그네새이자 겨울철새다. 들판, 갈대밭 등지를 느린 속도로 낮게 비행하며 소형 조류와 설치류, 양서류, 어류 등을 사냥한다. 날 때 날개는 V자 모양을 이룬다. 암컷과 수컷의 모양이 전혀 다르다. 시화호와 천수만, 해남 등 해안과 인접한 개활지에서 관찰되며 수는 적은 편이다.

## ● 형태

암컷과 수컷이 현저히 다르다. 날개와 꼬리가 가늘고 길며 들판, 갈대밭 등지를 낮게 비행하고, 날 때 날개를 위로 들어올려 V자 모양을 이룬다. 날개의 폭이 넓어 날갯짓이 느린 편이며, 개체에 따라 깃털 변이가 많다. 수컷의 머리는 검은색으로 회갈색 줄무늬가 있으며, 턱과 목옆은 회색으로 밝은 갈색 점무늬가 세로로 나 있다. 등과 날개 윗부분의 깃털에는 검은 반점이 있다. 암컷의 몸은 붉은색을 띤 갈색 또는 어두운 갈색이며, 머리와 가슴은 수컷보다 밝은 갈색이다(채 등 2009).



## ● 생물학적 특성

습지나 초원, 소택지, 넓은 갈대밭 등지에서 낮게 날면서 먹이를 찾는다. 주로 지상이나 초원에 앉아 쉬기도 하고, 나무 말뚝, 바위, 그리고 습지의 높지 않은 짙은 나무에 앉아 쉬기도 한다. 단독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고, 번식기 이외에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번식기는 4월에서 6월초로 알려져 있으며, 둥지는 습지나 소택지의 수초 위에 수초 줄기와 잎으로 만든다. 한배에 산란 수는 4-5개이며, 알은 푸른색을 띤 흰색이다. 포란기간은 33-48일이며, 육추기간은 35-40일이다. 설치류, 작은 조류의 알이나 새끼, 물고기, 개구리 등을 먹는다(원 1981, 문화재청 2009).

## ● 분포 현황

시화호, 천수만이나 해남의 고천암호 등 간척호 인근과 금강 하구, 영산강 하구, 낙동강 하구 등에서 관찰기록이 있으나 개체수는 적은 편이다.

## ● 번식지 동향

국내 번식지에 관한 기록은 없고, 번식기 동안 우리나라에 개체가 확인된 기록은 1995년 6월 울릉도에서 관

찰된 1개체의 기록만 있다(김 2010).

## ● 서식지 동향

천수만, 해남 인근 간척지와 영산강 하구, 낙동강 하구, 금강 하구, 시화호, 천수만 등 간척지를 중심으로 관찰 기록이 집중되어 있으며, 합천, 철원 등지에서도 관찰기록이 있으나 극히 드문 편이다.

## ● 개체수 현황

2000년대 이후 관찰기록을 살펴보면, 2000년과 2001년 천수만, 아산만과 무안 염습지에서 1-4개체가 관찰되었고, 2003년 안산 시화호와 해남에서 1개체, 2004년 금강 하구와 합천에서 각각 1개체, 2005년 제주도에서 1개체가 관찰되었다. 또한 2008년 봄 대청도에서 1개체, 2009년 경기도 양평 인근에서 1개체가 관찰되는 등 적은 수가 간헐적으로 관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7a;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b; 문화재청 2006; 문화재청 2007; 환경부 2000-2009; 환경부 2000-2010).

## ● 국제 동향

시베리아 동남부, 몽골, 우수리, 사할린, 중국 동남부, 홋카이도 등지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국, 일본, 중국 남부,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del Hoya *et al.* 1994).

## ● 위협 요인

해당 종의 구체적인 위협 요인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하지만 습지 또는 소택지의 물위에 떠 있는 수초 위에 줄기와 잎을 이용해 둥지를 만들고, 수면을 낀 개활지, 농경지, 초지 및 소택지 등을 주요 행동권으로 삼는 종 특성상, 먹이원의 대부분을 제공하는 습지의 훼손이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I 급,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323-3호로 지정·보호하고 있으며, CITES 부속서 II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적 보호종이다.

## ● 평가 결과: LC

IUCN 분류군 위협 범위 평가 기준 및 국내 서식현황 적용 결과 관심대상종(LC)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4.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2. Lynx Edicions, Barcelona. 638pp.

[http://en.wikipedia.org/wiki/Circus\\_spilonotus](http://en.wikipedia.org/wiki/Circus_spilonotus)

<http://www.birdlife.org/datazone/speciesfactsheet.php?id=3401>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전국 천연기념물 분포지도. 국립문화재연구소. 184pp.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중장기 천연기념물(동물) 분포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182pp.

김성현. 2010. 멸종위기 수리새(Accipitridae) 조류의 분포와 이동 생태.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진영. 2002. 한국의 조류 현황과 분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1,126pp.
- 채희영, 박종길, 최창용, 빙기창. 2009. 한국의 맹금류. 국립공원관리공단. 164pp.
- 문화재청. 2006. 2006년 천연기념물 모니터링. 문화재청. 124pp.
- 문화재청. 2007. 중장기 천연기념물(동물) 분포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 182pp.
- 문화재청. 2009. 문화재대관 천연기념물 · 명승-동물. 문화재청. 291pp.
- 환경부. 2000-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 환경부. 2000-2009.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Circus spilonotus* is a migratory bird that visits South Korea in winter season very rarely. It breeds from Siberia, northeast China, Mongolia, and northern Japan, the wintering range includes southern China, Indonesia, Philippines, Japan and South Korea. The numbers of individuals in the world did not quantified yet. Its preferred habitat is huge-opened areas including estuary, farmland, reclaimed land, grassland and seashore wetland. It meets the criteria for LC.

집필자: 박진영(국립환경과학원), 이시완(한국환경생태연구소)

# 검은목두루미

*Grus grus* Linnaeus, 1758

## 분류학적 위치

두루미목(Gruiformes) 두루미과(Gruidae)

영명: Common Crane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Ⅲ급, 천연기념물 제451호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세계적으로 개체수는 많지만, 초원을 선호하는 특성상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두루미 무리에 섞여 극소수가 도래한다. 국내 도래 개체수는 7개체 이하로 판단되며, 우리나라에서는 관심대상종(LC)으로 평가했다.

## ● 형태

몸은 대부분 회색이며, 머리꼭대기는 붉은색이다. 머리와 목 앞부분은 검은색, 눈 뒤에서 뒷목까지는 흰색이고, 부리는 비교적 짧으며, 다리는 검은색이다. 땅에 앉았을 때에는 내측 둘째날개깃이 길게 뻗어 꼬리를 덮고 처진다.

## ● 생물학적 특성

습지나 농경지, 호수 등에서 식물성인 농작물의 곡류, 풀, 뿌리, 수생식물 등과 동물성인 곤충류, 개구리, 작은 조류, 설치류, 지렁이, 복족류 등 동식물을 혼식한다. 습지, 호수, 소택지의 지상에 갈대와 같은 풀, 줄기, 잎, 이끼류 등을 다량으로 쌓아올려 큰 둥지를 만든다. 4-5월 갈색에 암갈색이나 적갈색 무늬와 반점이 산재한 타원형 알을 2개 정도 낳는다. 포란기간은 30-33일이며, 암수가 교대로 품는다.

## ●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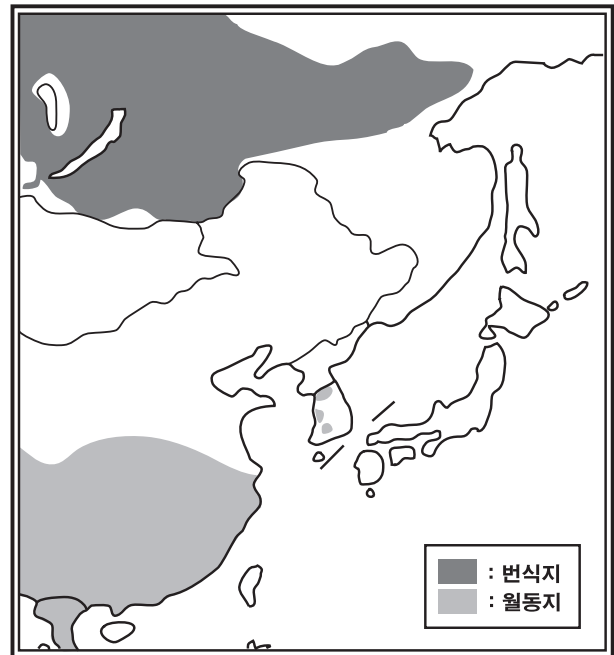
경기도 파주의 임진강 일대, 강원도 철원평야 일대, 충청남도 서산 천수만 일대, 전라남도 순천만 일대에서 극소수가 관찰된다.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에서는 번식하지 않는 겨울철새다.

## ● 서식지 동향

넓은 초원을 좋아하며 우리나라의 습지, 호수, 농경지, 개활지 등에서 주로 월동한다. 순천만에 도래하는 흑두루미 무리에 섞여 월동하기도 하고 경기도 파주, 강원도 철원, 충청남도 서산, 전라남도 순천 등지에서도 극소수가 관찰된다.



## ● 개체수 현황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에서 우리나라의 도래 개체수는 7개체 이하 또는 관찰되지 않은 해도 있다(환경부 1999-2010). 그 이외에도 1990년에 경상남도 고령과 경상북도 구미, 1993-1994년과 1997년에 강원도 철원, 1998년에 경기도 강화도와 한강-임진강 하구, 전라남도 순천만에서 확인되었다(박 2002).

## ● 국제 동향

중앙시베리아, 러시아의 극동부, 중국의 북동지역에 10,000-12,000개체가 서식하며, 월동기에는 중국, 한국, 일본, 대만 등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적으로는 250,000여 개체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유럽과 서러시아지역에 180,000여 개체, 북해와 터키에 500여 개체, 서시베리아와 카자흐스탄에 70,000여 개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 위협 요인

도시화에 따른 농경지와 습지, 갯벌 등의 감소, 논에서 추수 후 벼짚의 수거, 수로와 도로의 포장 등으로 인한 서식지 감소와 단편화, 먹이의 부족이 주된 위협 요인이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I 급,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451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CITES 부속서 II 에 수록되어 있다.

## ● 평가 결과: LC

IUCN 분류군 위협 범위 평가 기준 및 국내 서식현황 적용 결과 관심대상종(LC)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6.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3. Lynx Edicions, barcelona. 821pp.
- 문화재청. 2003. 천연기념물백서. 문화재청. 570pp.
- 문화재청. 2007. 중장기 천연기념물(동물) 분포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 182pp.
- 배성환. 2000. 비무장지대에 월동하는 두루미의 서식지이용에 관한 연구: 월동수용능력과 GIS를 이용한 공간분포분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진영. 2002. 한국의 조류 현황과 분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1,126pp.
-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320pp.
- 한국두루미네트워크. 2008. 2007-08 두루미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및 향후 두루미보전을 위한 워크숍. 111pp.
- 한국두루미네트워크. 2009. 제 4회 한국두루미네트워크 회의 겸 순천만 두루미 워크숍자료집. 152pp.
-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Grus grus* is winter visitor in Korea. It usually eat seeds, roots, insects, snails and small fishes in open grassland and wetlands in winter in Korea. Major migration route is from Scandinavia and N continental Europe through W Europe to wintering areas in France, Spain. International population size estimated about 220,000-250,000 individuals. In Korea, low density. It meets the criteria for LC.

집필자: 김진한(국립생물자원관), 이한수(한국환경생태연구소)

# 노랑때까치

*Lanius cristatus* Linnaeus, 1758

## 분류학적 위치

참새목(Passeriformes) 때까치과(Laniidae)

영명: Brown Shrike

지정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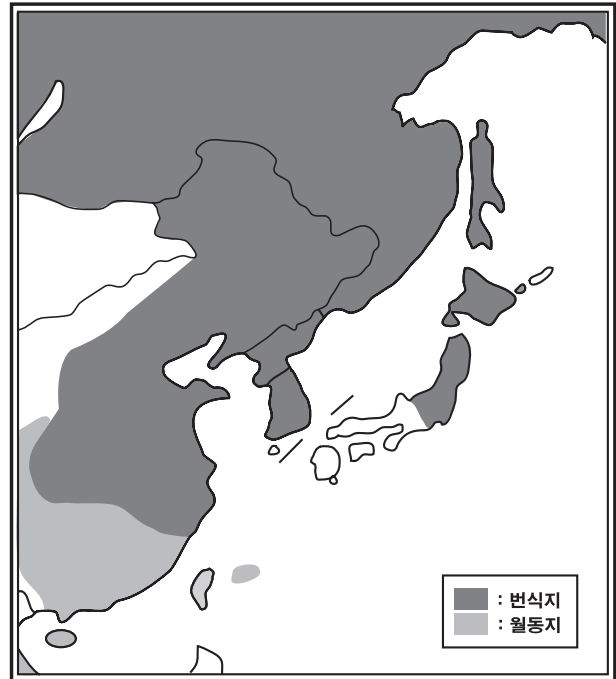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여름철새이며, 인가 주변의 개활지, 농경지 야산에서 번식한다. 번식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으나 국내 번식이 추정되는 종이며, 관찰된 개체군 또한 최대 48개체 이하로 적어 우리나라에서는 관심대상종(LC)으로 평가했다.

## ● 형태

암컷과 수컷 모두 이마에서 머리꼭대기까지 회색빛이다. 기타 몸 윗면은 회색빛에 갈색을 띠며, 등과 어깨는 황색과 회색빛을 띤 갈색이다. 눈선은 검은색이며, 눈썹선은 회색빛을 띤 흰색이다. 턱밑, 턱 아래 부위는 흰색이며, 기타 몸 아랫면은 크림색이 도는 황갈색이다. 2-3월에 여름깃으로 털갈이를 하지만 깃털 색은 겨울깃과 동일하다. 부리와 다리는 검은색이다.



## ● 생물학적 특성

암수가 함께 생활하며, 번식이 끝난 후에는 가족군을 형성한다. 둥지는 큰 나무 또는 키 작은 나무의 가지 위에 마른 잎, 풀, 나무껍질을 이용해 밥그릇모양으로 만든다. 알 낳는 시기는 5월 하순-6월이다. 알은 청록색과 회색빛을 띤 흰색 바탕에 회색빛 도는 갈색과 옅은 자색 얼룩짐이 있으며, 4-7개 낳는다. 먹이는 곤충류, 포유류, 조류 등이다.

## ● 분포 현황

우리나라 전역의 평지, 야산 임연부에 분포한다.

## ● 번식지 동향

번식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없으며 번식기에 번식 징후가 관찰된 정보가 있다.

## ● 서식지 동향

논촌의 경작지나 울창하지 않은 숲, 교외, 경작지나 소림지역 등에 찾아온다.

## ● 개체수 현황

2006년 태안, 당진, 가평 등지에서 10개체, 2007년 대청, 영주, 광주시 등지에서 48개체, 2008년 남원, 여수 등지에서 13개체를 관찰한 기록이 있다. 전국적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상세한 정보는 없다.

## ● 국제 동향

만주 남부, 한국, 일본의 큐슈, 중국 동부에서 번식한다. 중국 동부와 남부, 일본의 큐슈와 타이완을 지나 동남아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월동한다.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하지는 않지만 개체군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적다. 일본의 홋카이도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개체군의 80%가 감소했으며, 국지적으로 개체군이 사라진 지역도 있다.

## ● 위협 요인

먹이 및 서식지의 감소가 개체수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지정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 ● 평가 결과: LC

IUCN 분류군 위협 범위 평가 기준 및 국내 서식현황 적용 결과 관심대상종(LC)으로 평가 되었다.

## ● 참고문헌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del Hoyo, J., A. Elliott and Christie, D.A. eds. 2008.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13. Lynx Edicions, Barcelona. 879pp.
- 박진영. 2002. 한국의 조류 현황과 분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1,126pp.
-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320pp.
- 환경부. 2006-2008.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Lanius cristatus* is summer visitor in Korea. Habitat is generally in open areas with bushes and scattered small trees, but variable; sometimes in urban parks. Diet mainly insects, also other arthropods and small vertebrates. Orthoptera and beetles usually main prey; vertebrates taken are mostly small mammals, lizards, amphibians, and small passerine birds. Laying from late May to Jun. Not globally threatened. Few data on population levels. Possibly fairly common in much of range; uncommon to rare in Japan. Not globally threatened. Few data on population levels. In Japan, Population was declined drastically. It meets the criteria for LC.

집필자: 채희영(국립공원철새연구센터), 이한수(한국환경생태연구소)

# 말뚝가리

*Buteo buteo* Linnaeus, 1758

## 분류학적 위치

매목(Falconiformes) 수리과(Accipitridae)

영명: Common Buzzard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II급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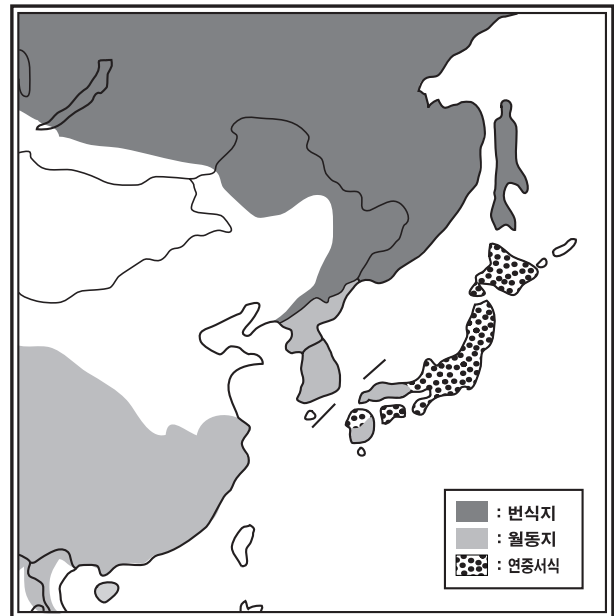
## ● 요약

겨울철새이며 전국의 산림, 개활지, 평지 등 우리나라 전역에 도래한다. 겨울철새 동시센서스 결과 최근 10년간 매년 월동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개체수가 100개체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 분포권역이 매우 넓은 점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에서는 관심대상종(LC)로 평가했다.

## ● 형태

날 때 날개 아랫면에 어두운 갈색 점이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개체에 따라 깃털 변이가 심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랫면은 전체적으로 밝은 갈색으로 보이며, 배와 옆구리, 날개 끝은 어두운 갈색이다. 어미 새의 눈은 어두운 갈색이지만, 어린 새는 노란색을 띤 갈색이다.

양쪽 날개를 약간 들어 각이 완만한 V자 모양으로 날며, 정지비행도 한다. 부리는 회색이며 끝만 검고 목 아래 부분도 검은색을 띠고 있다. 천천히 날며, 날개 끝에 날개깃이 5개로 갈라진다(원 1981; 이 등 2000; 이와 이 2009).



## ● 생물학적 특성

넓은 평지 및 간척 농경지 등에서 쥐나 행동이 둔한 육상동물을 잡아먹는다. 우리나라에는 10월경에 찾아오는 겨울철새다. 경사가 급한 산비탈이나 벼랑에 위치한 큰 나무 등 잡목림에 나뭇가지를 짊어 올려 둥지를 만들고, 엷은 청색 바탕에 적갈색 얼룩무늬가 있는 알을 3개 정도 낳는다. 유럽과 아시아의 북부 및 중국 동북지방을 거쳐 한국, 일본, 티베트 등에 분포한다(원 1981).

## ● 분포 현황

우리나라의 주요 철새도래지 및 평지, 산림, 해안 등에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에서는 번식하지 않는 겨울철새다.

## ● 서식지 동향

전국의 산림, 개활지, 평지, 하구 등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한다.

## ● 개체수 현황

지난 10년간 월동 개체군이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29개체, 2002년 70개체, 2004년 90개체, 2006년 113개체, 2008년 198개체, 2010년 342개체를 관찰한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철새도래지 외에 평지와 산림, 도시 외곽 등에도 서식하고 월동 개체수는 500개체 이상으로 추정된다(환경부 1999-2010).

## ● 국제 동향

유럽에 160,000-300,000쌍, 러시아에 400,000쌍, 벨로루시에 11,000쌍 등 개체수가 많았으나 20세기 들어오면서 개체수가 감소했으며, 특히 먹이인 토끼가 감소해 1983년에는 12,000-15,000쌍으로 추정했다. 동아시아 개체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환경부 1999-2010; IUCN 2010).

## ● 위협 요인

번식지에서의 서식지 소실과 먹이의 감소 및 우리나라에서의 밀렵 등이 위협 요인이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I 급으로 지정·보호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주요 서식지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 ● 평가 결과: LC

겨울철새 동시센서스 결과 최근 10년간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분포권역이 우리나라 전역으로 넓고 안정적인 개체군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IUCN 적색목록 분류 기준의 관심대상종(LC)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1,126pp.  
이기섭, 이종렬. 2009. 새. 필드가이드. 288pp.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101.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Buteo buteo* is wintering bird in Korea. The population size is extremely large, and hence does not approach the thresholds for Vulnerable under the population size criterion. Rough estimates of 160,000-300,000 pairs in Europe, 400,000 pairs in European Russia, and 8,000-11,000 pairs in Byelorussia. Race *japonicus* numerous and stable at present in Asian Russia. In winter 2010 census, 300 birds counted in South Korea. Decline during much of 20th century in Europe, but stabilization with local increase mainly from 1970's. Range much reduced in Britain by early 20th century. Most important casue of decline has been direct persecution, also affected by use of poisoned baits and pesticides, by habitat loss and increasing rarity of prey. It meets the criteria for LC.

집필자: 박진영(국립환경과학원), 이시완(한국환경생태연구소)

# 밀화부리

*Eophona migratoria* hartert, 1903

## 분류학적 위치

참새목(Passeriformes) 되새과(Fringillidae)

영명: Yellow-billed Grosbeak

지정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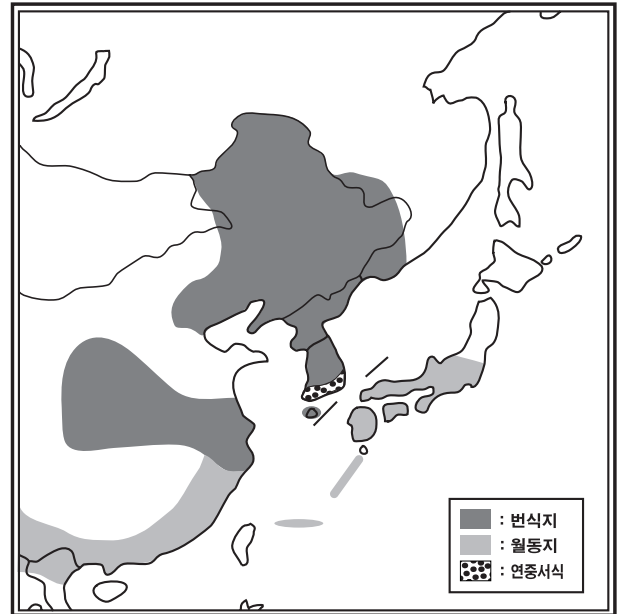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부리는 옅은 주황색이며 끝이 검은색이다. 수컷 머리와 뺨은 광택이 있는 검은색, 목 뒤와 등은 회갈색이고 날개는 광택이 있는 검은색이다. 여름철새로 아무르지역 남부, 우수리지역, 만주, 한국 등지에서 번식하며 우리나라 전역에 도래한다. 개발로 인한 숲 서식지의 훼손 등으로 도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어 관심대상종(LC)으로 평가했다.

## ● 형태

부리는 옅은 주황색이며 끝이 검은색이다. 수컷의 머리와 뺨은 광택이 있는 검은색이며, 목 뒤와 등은 회갈색이고 날개는 광택이 있는 검은색이다. 날개깃 끝과 첫째날개덮깃은 흰색이다. 가슴과 배는 담황색, 허리는 옅은 회색, 꼬리는 검은색이다. 암컷의 머리와 등은 회갈색이다(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둥지는 공원이나 산림의 교목에 만들며 비교적 높지 않고 수평으로 뺨은 가지 위에 가느다란 나뭇가지, 식물의 잎, 풀줄기 등을 이용해 밥그릇모양으로 만든다. 알은 푸른색에 어두운 갈색 반점이 있는 알을 3-5개 낳는다. 먹이는 교목과 관목의 다양한 씨앗과 열매를 주로 먹으며, 곤충을 먹기도 한다(원 1996).

## ● 분포 현황

아무르지역 남부, 우수리지역, 만주, 한국 등지에서 번식하며 우리나라 전역에 도래한다.

## ● 번식지 동향

동아시아지역에서 번식하며, 과거에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1980년도 군산시 야미도에서 번식한 개체를 확인했으며, 1976년 인천시에서 번식기록이 있다. 1991년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서 번식관찰이 있었으나, 그 이후 번식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 ● 서식지 동향

주로 서식하는 지역은 활엽혼효림이 있는 저지대의 숲 가장자리 및 수변, 경작지, 습지, 과수원, 공원, 정원 등

으로 알려져 있다.

## ● 개체수 현황

전국에 분포하는 조류로 최근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국내 관찰기록은 서울에서 1988년 30개체, 1990년 8개체, 경기도 영종도에서 1995년 3개체, 양평군에서 1993년 11개체, 백령도에서 8개체, 1998년 6개체가 확인되었다. 강원도는 1994년 인제군에서 2개체가 관찰되었으며, 충청남도는 1983년 태안에서 1개체가 관찰되었다. 전라북도는 만경강에서 1996년 1개체가 관찰되었으며, 군산에서 1980년 9개체가 확인된 바 있다. 전라남도는 흑산도에서 1997년 7개체, 1998년 3개체, 2000년 8개체, 칠발도에서 2000년도에 2개체, 여수에서 1983년 12개체가 확인되었다. 제주도에서는 2000년에 15개체가 관찰되었다. 최근 2010년에 포항 안계저수지에서 2개체가 확인된 기록이 있다(박 2002; 환경부 2010).

## ● 국제 동향

중국, 홍콩, 일본, 한국, 라오스, 미얀마, 러시아, 대만, 태국, 베트남 지역에 서식하며, 한국,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번식하고 동남아 및 일본 지역에서 월동한다. 전 세계 개체수를 정량화할 수 없다. 국지적으로 분포하며, 서식지가 불규칙한 종이다. 또한 최근 들어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IUCN 2010).

## ● 위협 요인

개발로 인한 숲 서식지의 훼손으로 도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또한 과거 1980년대 후반까지 조류 판매 시 밀화부리가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한 기록이 있으며, 이를 볼 때 종의 감소에 남획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del Hoyo *et al.* 2010; IUCN 2010).

## ● 특기 사항

환경훼손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종이 감소하고 있다.

## ● 평가 결과: LC

IUCN 분류군 위협 범위 평가 기준 및 국내 서식현황 적용 결과 관심대상종(LC)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del Hoyo, J., A. Elliott and Christie, D.A. eds. 2010.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15. Lynx Edicions, Barcelona. pp.612-613.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박진영. 2002. 한국의 조류 현황과 분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272-273.

원병오. 1996. 한국의 조류. 교학사. pp.386.

환경부. 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Eophona migratoria* is a species of finch in the Fringillidae family. It can be found in the following countries: China, Hong Kong, Japan, North and South Korea, Laos, Myanmar, Russia, Taiwan, Thailand, Vietnam. The population trend appears to be stable, and hence the species does not approach the thresholds for Vulnerable under the population trend criterion. The population size has not been quantified, but it is not believed to approach the thresholds for Vulnerable under the population size criterion. For these reasons the species is evaluated as Least Concern. It meets the criteria for LC.

집필자: 채희영(국립공원철새연구센터), 조해진(한국환경생태연구소)



# 붉은발도요

*Tringa totanus* Linnaeus, 1758

## 분류학적 위치

도요목(Charadriiformes) 도요과(Scolopacidae)

영명: Common Redshank

지정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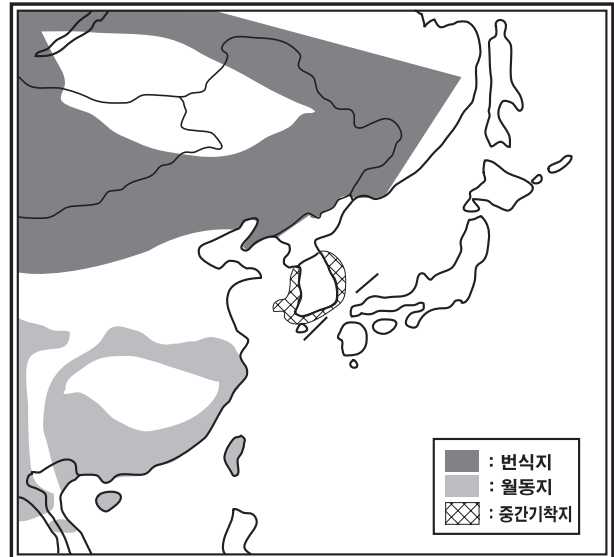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우리나라에 봄·가을에 도래하는 흔치 않은 나그네 새다. 해안가의 소택지, 간척지, 염전, 해안 가까운 초습지, 하구의 삼각주, 작은 못 등 물가에서 관찰된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몽골, 동중국, 홍콩, 한국을 통과해 이동한다. 국제적으로 1,000,000여 개체, 아시아에서는 100,000여 개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심대상종(LC)으로 평가했다.

## ● 형태

날 때 날개 뒷부분에 흰색 부분이 보인다. 몸 윗면은 갈색이며 검은색과 회색으로 얼룩무늬가 있다. 아랫면은 흰색 바탕에 갈색 세로무늬와 얼룩이 뺨뺨하다. 다리와 부리가 붉고 부리 끝은 검다.



## ● 생물학적 특성

강가 또는 호숫가 초원이나 툰드라 지대의 땅 위 오목한 곳에 마른 풀 줄기를 깔고 긴지름이 약 15cm 되는 둥지를 튼다. 3월 하순에서 5월 상순에 한배에 알을 4-5개 낳는다. 먹이는 곤충류가 주식이지만 연체동물이나 갑각류, 지렁이도 잡아먹는다.

## ● 분포 현황

봄에는 5월, 가을에는 8-10월에 한국의 서남부 해안을 중심으로 통과한다.

## ● 번식지 동향

소수가 서해안 간척지의 염생식물 군락지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와 이 2009).

## ● 서식지 동향

해안가의 소택지, 간척지, 염전, 해안 가까운 초습지, 하구의 삼각주, 작은 못 등 물가에 서식한다.

## ● 개체수 현황

2007년 무안만에서 12개체, 2007년 유부도에서 1개체, 2009년 새만금에서 10개체, 2009년 홍도에서 4개체, 흑산도에서 9개체 등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소수가 보고되고 있다.

## ●국제 동향

아시아 중앙 및 동부, 알타이에서 아무르까지, 남쪽은 히말라야와 일본 북부에서 번식하며, 겨울에는 인도, 실론, 미얀마, 말레이 반도, 필리핀 등지로 이동하고, 사할린, 한국, 일본, 타이완 등지를 거쳐 간다. 국제적으로 1,000,000개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동아시아에서는 100,000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위협 요인

갯벌 매립, 해안도로 건설 및 확장, 공사에 따른 각종 오염물질의 갯벌 유입으로 중간기착지의 먹이 활동지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 ●평가 결과: LC

IUCN 분류군 위협 범위 평가 기준 및 국내 서식현황 적용 결과 관심대상종(LC)으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6.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3. Lynx Edicions, Barcelona. 821pp.
- 국립공원관리공단. 2009 조류 조사 · 연구 결과 보고.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
- 국토해양부. 2008. 연안습지 생태계 조사. 382pp.
- 군산시. 2009. 금강 및 새만금 지역 조류변화상 연구. 180pp.
- 박진영. 2002. 한국의 조류 현황과 분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1,126pp.
- 이기섭, 이종렬. 2009. 새. 필드가이드. 288pp.
-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320pp.
- 환경부. 2006-2008.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Tringa totanus* is Passage Migrant in Korea. Habitat was wide diversity of coastal and inland wetlands, including coastal salt-marshes, inland wet grasslands, grassy marshes and swampy heathlands. Food was insects, spiders and annelids. In Asia, movements noted through Japan, Mongolia, E China, Hong Kong, and Korea. International population size estimated about 1,000,000 individuals. East Asia population size estimated about 100,000 individuals. It meets the criteria for LC.

집필자: 김진한(국립생물자원관), 강태한(한국환경생태연구소)

# 붉은뺨멧새

*Emberiza fucata* Pallas, 1776

## 분류학적 위치

참새목(Passeriformes) 멧새과(Emberizidae)

영명: Chestnut-eared Bunting

지정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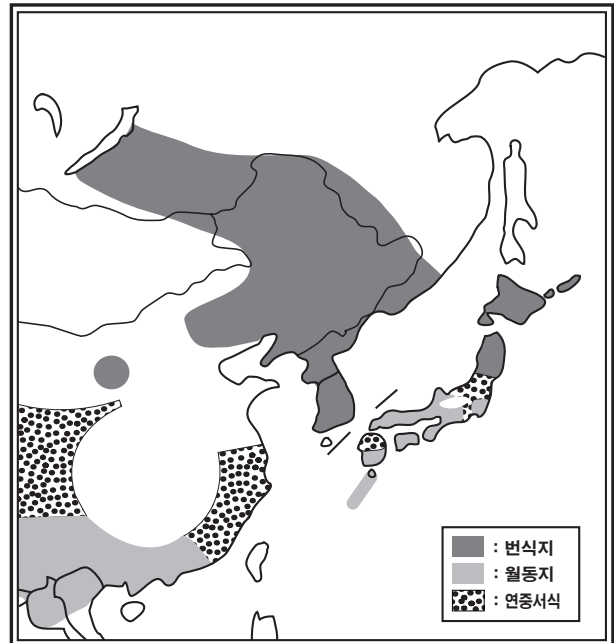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수컷은 머리에서 뒷목까지 회색이며 검은색 줄무늬가 있다. 뺨은 적갈색이다. 중국과 북한, 한국 등지에서 번식하고 동남아시아와 일본 등지에서 월동하는 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전역에서 확인된다. 과거 전국적으로 흔히 도래하던 여름철새였으나, 최근에는 개체수가 크게 감소해 현재는 흔하지 않은 여름철새로 판단된다. 하천 습지대의 개발 등으로 인한 서식지 축소로 인해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관심대상종(LC)으로 평가했다.

## ● 형태

수컷은 머리에서 뒷목까지 회색이며 검은색 줄무늬가 있다. 뺨은 적갈색이다. 먹은 흰색이며 가슴에는 검은색과 밤색띠 2개가 있다. 나머지 배는 흰색이다. 암컷은 전체적으로 색이 흐리고, 가슴의 띠도 뚜렷하지 않다(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가는 줄기와 뿌리, 칩 등으로 밥그릇모양의 둥지를 만든다. 얇은 푸른색에 갈색 반점이 있는 알을 3-6개 낳는다.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번식하는 흔한 여름새이며 적은 수가 겨울철에 보이기도 한다(원 1996).

## ● 분포 현황

중국과 북한, 한국 등지에서 번식하고 동남아시아와 일본 등지에서 월동하는 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전역에서 확인된다.

## ● 번식지 동향

몽골, 우수리, 중국(북동부), 일본 등지에서 번식하고 중국의 동부와 남부 및 홍콩, 인도차이나 등지에서 겨울을 난다. 우리나라에도 번식할 가능성이 높은 종이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 ● 서식지 동향

우리나라 전역의 숲, 개활지, 농경지 등지에 서식한다.

## ● 개체수 현황

과거 전국적으로 흔히 도래하던 여름철새였으나, 최근에는 개체수가 크게 감소해 현재는 흔치 않은 여름철새로 판단된다. 경기도지역은 1996년 광릉 3개체, 1995년 강화도 1개체, 백령도 1991년 1개체, 1993년 3개체, 1998년 1개체, 충청도 1998년 1개체가 확인된 바 있고, 충청북도에서는 속리산에서 1973년 1개체가 관찰되었다. 전라남도는 1999년 해남에서 1개체, 2000년 흑산도에서 2개체, 신안군 하태도에서 4개체가 관찰되었다. 경상북도는 1993년 대구 팔공산지역에서 5개체, 1995년 포항에서 2개체가 관찰되었다. 경상남도는 1995년 주남저수지에서 2개체, 1996년 우포늪에서 1개체가 확인되었다. 제주도는 1993년 1개체가 확인되었다. 최근 기록으로는 2008년 전라남도 영암호에서 1개체, 충청북도 충주호에서 2개체가 확인되었다. 2009년 제주 대정해안에서 2개체가 관찰되었으며, 2010년에는 전라북도 곰소만에서 2개체가 관찰된 바 있다(박 2002; 환경부 2008-2010).

## ● 국제 동향

중국과 북한,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지에 서식하며, 정확한 개체수는 알 수 없으나, 국지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IUCN 2010).

## ● 위협 요인

하천 및 습지의 개발로 인한 서식지 축소가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IUCN 2010).

## ● 특기 사항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종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 평가 결과: LC

IUCN 분류군 위협 범위 평가 기준 및 국내 서식현황 적용 결과 관심대상종(LC)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박진영. 2002. 한국의 조류 현황과 분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260-261.  
원병오. 1996. 한국의 조류. 교학사. pp.361.  
환경부. 2008-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Emberiza fucata* is a passerine bird in the bunting family Emberizidae. the breeding range extends from the Himalayas locally across China to south-eastern Siberia, Korea and northern Japan. Northern birds migrate south to winter in southern Japan, southern China, Taiwan, north-east India and south-east Asia. The species is a vagrant to Kazakhstan and in October 2004 the first European record occurred at Fair Isle in Scotland. Preferred habitats include scrub, fields and grassland. The global population size has not been quantified, but the species is reported to be common to locally common. It meets the criteria for LC.

집필자: 채희영(국립공원철새연구센터), 이시완(한국환경생태연구소)

# 빨논병아리

*Podiceps cristatus* Linnaeus, 1758

## 분류학적 위치

논병아리목(Podocopediformes) 논병아리과(Podicipedidae)

영명: Great Crested Grebe

지정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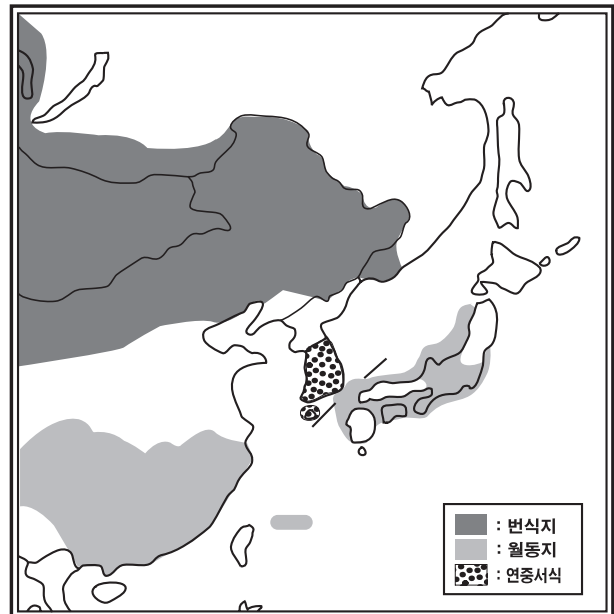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털새이자 겨울철새이며, 전국의 호소, 하천, 해안, 강 하구 등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한다. 1998년 충청남도 대호에서 번식하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 점차 번식 개체군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월동하는 9,660개체가 관찰된 바 있다.

## ● 형태

전체 몸길이는 약 55cm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논병아리 중 가장 크다. 목이 긴 것이 특징이며, 번식기의 경우 머리에 검은색 빨갛이 드러난다. 암수의 깃털 색이 비슷해 야외에서는 구별이 어렵다(원 1981; 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강 하구 및, 호수나 저수지 등에서 물속의 어류 등을 잡아먹는다. 물 위에 물풀이나 이끼류를 이용해 화산모양의 둥지를 만들며, 둥지를 비울 때는 알을 풀로 덮어 놓는다. 새끼는 부화한 후에 어미를 따라다니며, 때때로 어미의 등에 올라타고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갈퀴는 불완전하지만 잠수 능력은 뛰어나며 먹이를 잡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번식기 때는 큰 무리를 이루지 않지만 겨울에는 수백 개체로 구성된 무리를 짓기도 한다(원 1981; 이 등 2000).

## ● 분포 현황

우리나라 전역의 강 하구나 호소, 간척호수 등에 주로 분포하고 겨울철에는 해안이나 해안과 인접한 하구 등에 분포한다.

## ● 번식지 동향

1998년 충청남도 대호에서 번식하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이 등 2000) 우리나라의 대규모 간척호수 및 강 하구의 갈대밭이나 수초가 무성한 지역에서는 대부분 번식하고 있다.

## ● 서식지 동향

번식기에는 우리나라 전역의 강 하구나 호소에 주로 서식하고 겨울철에는 해안과 인접한 하구나 간척호수 등

에 무리를 이루어 서식한다.

## ● 개체수 현황

번식하는 개체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으며, 월동하는 개체수의 경우 1,000-9,000개체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개체수가 증가했다. 1999년의 경우 1,805개체였으며, 2002년에 2,147개체, 2006년 4,040개체, 2008년 5,370개체, 2010년 9,660개체를 관찰한 기록이 있다(환경부 1999-2010).

## ● 국제 동향

한국, 일본, 중국, 유럽, 호주 등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개체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 뉴질랜드, 이란 등에서는 식용으로 이용해 상업이나 여가 목적으로 사냥하고 있다(IUCN 2010).

## ● 위협 요인

어망에 걸려서 익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름 유출에 의한 오염이 위협 요인이다.

## ● 특기 사항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번식하지 않는 겨울철새였으나 1998년 충청남도 대호에서 번식하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 점차 번식 개체군이 증가하고 있다.

## ● 평가 결과: LC

IUCN 분류군 위협 범위 평가 기준 및 국내 서식현황 적용 결과 관심대상종(LC)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pp.353-355.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46.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Podiceps cristatus* of first breeding record in 1998 at Daeho in South Korea. The population size is extremely large, and hence does not approach the thresholds for Vulnerable under the population size criterion. In winter 2010 census, 9,660 birds counted in South Korea. Its diet consists predominantly of large fish as well as insects, crustaceans (e.g. crayfish, shrimps) and molluscs, occasionally also adult and larval amphibians. The species's invertebrate consumption is highest during the breeding season. The species is commonly drowned accidentally in monofilament gill-nets (fishing nets) with mesh sizes greater than 5 cm. It may also be threatened by future coastal oil spills, and is susceptible to avian influenza so may be threatened by future outbreaks of the virus. It meets the criteria for LC.

집필자: 김인규(한국환경생태연구소), 이기섭(한국물새네트워크)

# 소쩍새

*Otus sunia* Hodgson, 1836

## 분류학적 위치

올빼미목(Strigiformes) 올빼미과(strigidae)

영명: Oriental Scops Owl

지정현황: 천연기념물 제324-6호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소쩍새는 몸길이는 약 20cm이며 몸 전체가 회갈색으로 갈색이 흩어져 있다. 특히 번식기인 5월과 6월에는 밤새도록 운다.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며, 야행성 조류여서 정확한 개체수 산정이 어렵지만 비교적 적지 않은 수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심대상종(LC)으로 평가했다.

## ● 형태

몸길이는 20cm 정도이며 몸 전체가 회갈색이며 갈색이 흩어져 있다. 온몸이 회색빛이 도는 갈색인 회색형과 붉은빛이 도는 갈색인 적색형이 있다. 긴 귀깃이 있으며 발가락에는 깃털이 없다(문화재청 2009).



## ● 생물학적 특성

번식기인 5월과 6월에는 해질 무렵부터 새벽에 이르기까지 밤새도록 울며 흐린 날씨에는 낮에도 운다. 산란기는 5월 상순부터 6월 중순경이고 나무 구멍에 산란한다. 한배 산란 수는 3-6개이며, 보통은 3-4개를 낳는다. 알은 흰색이고, 포란기간은 24-25일, 육추기간은 21일이다. 주로 곤충을 잡아먹지만 작은 조류나 쥐도 잡아먹는다(이 등 2000, 문화재청 2009).

## ● 분포 현황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한다.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 전역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목의 나무 구멍에서 번식한다(이 등 2000).

## ● 서식지 동향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하며, 민가 주변의 야산, 공원, 산림, 사찰 등지에서 생활하며 번식하는 흔하지 않은 여름철새다. 산림이 발달한 숲 내부에서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개체수 현황

2002년 속리산에서 6개체, 2003년 경기도 광릉 4개체와 울릉도에서 2개체, 독도에서 1개체, 2006년 전라북도 진안군에서 8개체 등이 관찰된 기록이 있다. 하지만 로드킬 자료와 구조사례 등에 의하면 많은 수의 소쩍새가 신고 되고 있으며, 또한 전국자연환경조사 등에 의하면 매년 전국 각지에서 청음 및 번식이 확인되고 있다. 소쩍새는 야행성 조류여서 정확한 개체수 산정은 어려우며, 다만 전국 각지에서 확인된 것으로 미루어 비교적 적지 않은 수가 국내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문화재청 2009; 환경부 1999-2010; 환경부 2000-2006).

## ● 국제 동향

소쩍새는 북한, 일본 등지에 서식하는 조류로서 주변 지역에서는 시베리아와 중국지역에서 번식하고 겨울에 남부지역으로 이동하는 철새로 알려져 있다. 현재 개체수는 야행성 조류여서 정확히 산정할 수는 없으나, 국제적으로 비교적 많은 개체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IUCN 2010).

## ● 위협 요인

아직은 지역적으로 비교적 많은 수가 기록되고 있으나, 최근 서식지 훼손과 오염된 먹이에 의한 영향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 건설로 인한 로드킬 위험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특기 사항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제324-6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 ● 평가 결과: LC

IUCN 분류군 위협 범위 평가 기준 및 국내 서식현황 적용 결과 관심대상종(LC)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9.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5. Lynx Edicions, Barcelona. pp.162-164.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184-185.

문화재청. 2009. 문화재대관 천연기념물·명승 동물. 문화재청. pp.136-137.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

환경부. 2000-2006. 전국자연환경조사.

*Otus sunia* has an extremely large range, and hence does not approach the thresholds for Vulnerable under the range size criterion. The population trend appears to be stable, and hence the species does not approach the thresholds for Vulnerable under the population trend criterion. They prefer areas which contain old trees with hollows; these are home to their prey which includes insects, reptiles, small mammals such as bats and mice and other small birds. The global population size has not been quantified, but the species is reported to be very abundant regionally. It meets the criteria for LC.

집필자: 백운기(국립중앙과학관), 조해진(한국환경생태연구소)



# 쇠뚝부기사촌

*Porzana fusca* Linnaeus, 1766

## 분류학적 위치

두루미목(Gruiformes) 뚝부기과(Rallidae)

영명: Ruddy Crake[Ruddy-breasted Crake]

지정현황: -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여름철새이며, 일반적으로 소택지, 논, 강가의 풀숲 등지에서 생활한다. 경계가 심해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알려진 정보가 적다. 과거 아시아에 흔했던 종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심대상종(LC)로 평가했다.

## ● 형태

암컷과 수컷 모두 이마와 머리꼭대기는 붉은 갈색이며, 뒷머리부터 위꼬리덮깃까지는 어두운 갈색이다. 머리 옆, 귀깃, 눈앞은 붉은 갈색이며, 턱밑과 턱 아래 부위는 흰색이다. 가슴과 윗배는 붉은빛 도는 갈색이며, 아랫배는 회색빛을 띤 갈색으로 흰색 가로띠가 있다. 부리는 녹갈색이며, 다리는 붉은색이다.

## ● 생물학적 특성

걸을 때는 머리와 꼬리를 세우고 꼬리는 상하로 흔들면서 걷는다. 수면에 떠 있는 물풀 위를 가볍게 걸어 다니고, 머리를 앞뒤로 흔들면서 물 위를 헤엄치며 잠수하기도 한다. 둥지는 풀숲의 땅 위에 식물 잎이나 줄기를 이용해 접시모양으로 만든다. 알 낳는 시기는 5월 하순-8월 하순이다. 알은 크림색이 도는 갈색으로 붉은 갈색과 쥐색 얼룩점이 많으며, 5-9개 낳는다.

## ● 분포 현황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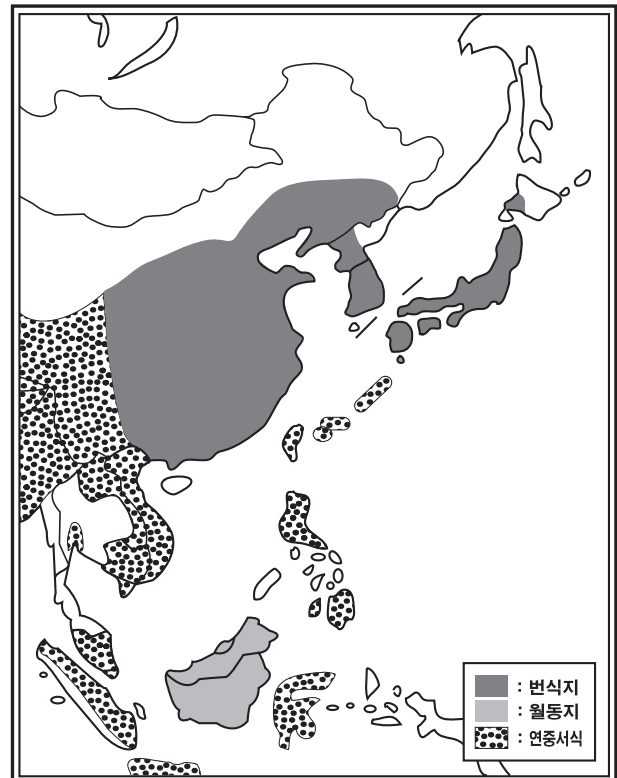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 전역의 강가나 호숫가의 풀숲, 또는 논·벼 포기 사이에 번식 둥지를 만든다.

## ● 서식지 동향

일반적으로 소택지, 논, 강가의 풀숲 등지에서 생활한다.

## ● 개체수 현황



2000년에 우포늪에서 1개체, 2001년에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양수리, 안산시 사사동에서 관찰기록이 있으며,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 2006년 경기도 포천에서 1개체, 2007년 전라남도 영광, 충청북도 오창, 경기도 김포 등지에서 8개체를 관찰한 기록이 있다(박 2002; 환경부 2007). 전국적으로 소수를 관찰한 기록이 있다.

## ●국제 동향

만주 남부, 중국 동부, 한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중국 동부, 미얀마, 시안 등지에서 월동한다.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자료가 부족하다.

## ●위협 요인

습지의 손실, 농약 등으로 인해 서식지가 감소하고 있다.

## ●특기 사항

환경부 지정 보호종이다.

## ●평가 결과: LC

IUCN 분류군 위협 범위 평가 기준 및 국내 서식현황 적용 결과 관심대상종(LC)으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6.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3. Lynx Edicions, Barcelona. 821pp.
- 박진영. 2002. 한국의 조류 현황과 분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1,126pp.
-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320pp.
- 환경부. 2007.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Porzana fusca* is summer breeding visitor to Korea. Habitat is reedy swamps, marshes and stream banks, reed beds, wet grassland at edges of lakes, ditches and canals, edges of rice paddies. Not globally threatened. Extremely shy and difficult to flush, thus poorly known, but formerly considered common to abundant for East Asia. It meets the criteria for LC.

집필자: 김진한(국립생물자원관), 강태한(한국환경생태연구소)

# 쇠부엉이

*Asio flammeus* Pontoppidan, 1763

## 분류학적 위치

올빼미목(Strigiformes) 올빼미과(strigid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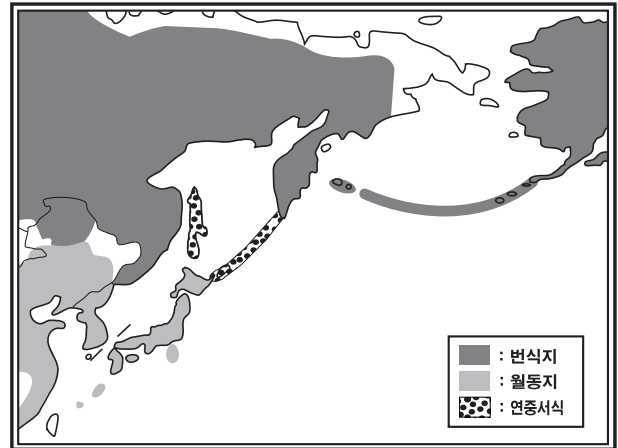
영명: Short-eared Owl

지정현황: 천연기념물 제324-4호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몸길이는 33-43cm이며, 귀깃이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짧다. 산란기는 4월 하순부터 5월 상순까지이며 우리나라 전역의 풀숲, 농경지, 개활지의 갈대밭, 습지에 분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의 비교적 규모가 큰 습지와 초지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다. 습지 및 개활지 등의 축소와 매립 등으로 인해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으며, IUCN 분류군 위협 범위 평가 기준 및 국내 서식현황 적용 결과 관심대상종(LC)으로 평가했다.



## ● 형태

몸길이는 33-43cm이며, 귀깃이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짧다. 가슴에는 굵은 세로줄만 있다. 날개 아랫면의 끝 부분이 검은색이며, 눈은 노란색이다. 꼬리에는 굵고 진한 갈색 줄무늬가 있다(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산란기는 4월 하순부터 5월 상순까지다. 한배 산란 수는 4-8개(때로는 3,9-14)이며 알은 흰색이다. 포란기간은 24-28일이며, 육추기간은 12-17일이다. 식성은 들쥐, 작은 들새, 곤충 등을 먹으며 소화되지 않은 먹이는 토해낸다(문화재청 2009).

## ● 분포 현황

우리나라 전역의 풀숲, 농경지, 개활지의 갈대밭, 습지 지역에 분포하며, 비교적 규모가 있는 습지와 초지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다.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에서 번식하지 않는 겨울철새다.

## ● 서식지 동향

습지, 초지, 대초원, 저지대 산림지역 등을 선호하며, 우리나라에는 일반적으로 초지, 평야지대 혹은 천수만, 낙동강 하구, 주남저수지 등 습지 지역에서 주로 확인된다.

## ● 개체수 현황

2010년도에 낙동강 하구, 대구 화원습지, 미호천, 칠원 등지에서 1-2개체씩 관찰기록이 있으며, 2009년도에 한강 하구 3개체, 낙동강 하류 지역 3개체, 낙동강 하구 지역 3개체, 청초호 1개체 등을 관찰한 기록이 있다. 매년 습지지역을 중심으로 5-15개체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문화재청 2009; 환경부 1999-2010).

## ● 국제 동향

구북구 일원의 한대와 온대 유럽, 시베리아, 북극의 툰드라, 우수리, 아무르, 캄차카반도, 키르기스 초원, 몽골 북부, 중국 동북지방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전 세계에 10,000개체 이하로 추정하며, 10년 내에 전체 개체수의 30%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IUCN 2010).

## ● 위협 요인

습지 및 개활지 등의 축소와 매립 등으로 인해 서식지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며,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del Hoyo *et al.* 1999; 문화재청 2009).

## ● 특기 사항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324-1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 ● 평가 결과: LC

IUCN 분류군 위협 범위 평가 기준 및 국내 서식현황 적용 결과 관심대상종(LC)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9.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5. Lynx Edicions, Barcelona. pp.238-242.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180-181.

문화재청. 2009. 문화재대관 천연기념물·명승·동물. 문화재청. pp.132-133.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

*Asio flammeus* occurs on all continents except Antarctica and Australia; thus it has one of the largest distributions of any bird. *A. flammeus* breeds in Europe, Asia, North and South America, the Caribbean, Hawaii and the Galápagos Islands. It is partially migratory, moving south in winter from the northern parts of its range. Its food consists mainly of rodents, especially voles, but it will eat other small mammals and some large insects. This species has an extremely large range, and hence does not approach the thresholds for Vulnerable under the range size criterion. Despite the fact that the population trend appears to be decreasing, the decline is not believed to be sufficiently rapid to approach the thresholds for Vulnerable under the population trend criterion. It meets the criteria for LC.

집필자: 백운기(국립중앙과학관), 조해진(한국환경생태연구소)

# 쇠제비갈매기

*Sterna albifrons* Pallas, 1764

## 분류학적 위치

도요목(Charadriiformes) 갈매기과(Laridae)

영명: Little Tern

지정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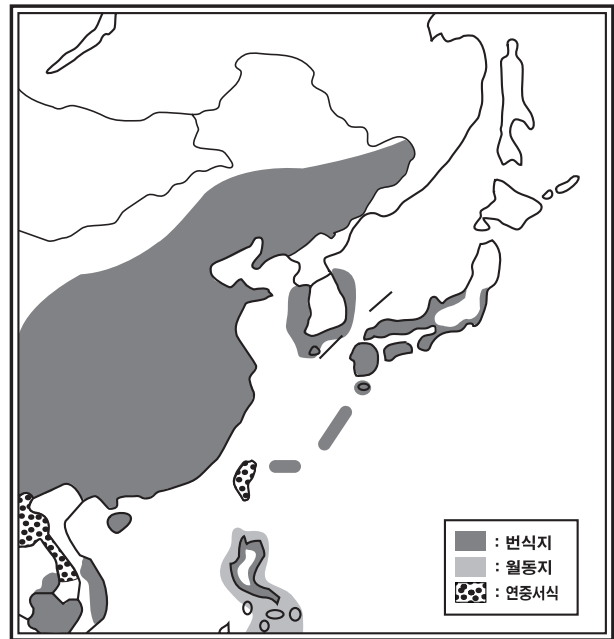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전국의 하천, 해안, 하구의 모래섬에서 국지적으로 번식하며, 봄가을에 주로 관찰된다. 둥지는 해안의 모래밭이나 자갈밭에 땅을 파서 만든다. 국제적으로 70,000-100,000쌍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심대상종(LC)으로 평가했다.

## ● 형태

여름깃은 암컷과 수컷 모두 이마가 흰색이며, 눈 위까지 짧은 흰색 선이 뻗어 있다. 머리꼭대기와 뒷머리는 검은색이며, 어깨깃, 등, 허리는 옅은 회색빛이다. 몸 아랫면은 흰색이다. 부리는 크림색이 도는 황색으로 끝이 약간 검으며, 겨울에는 모두 검은색으로 변한다. 다리는 오렌지 빛이 도는 황색이다. 어린 새의 머리꼭대기는 검은색으로 각 깃털 가장자리는 흰색이다. 몸 윗면은 크림색으로 각 깃털에는 검은색 반달모양 얼룩무늬가 있다. 몸 아랫면은 흰색이다.



## ● 생물학적 특성

해안과 강가의 모래밭, 자갈밭에서 생활한다. 비행 중에는 다리를 아랫배에 꼭 붙이지만, 먹이를 잡으려고 날 하할 때나 땅 위에 내려앉을 때는 다리를 편다. 둥지는 해안의 모래밭이나 자갈밭에 땅을 파서 만든다. 알은 푸른색과 회색빛이 도는 흰색으로 어두운 갈색 얼룩무늬와 얼룩점이 있으며, 2-3개를 낳는다.

## ● 분포 현황

한국의 서남해안에 위치한 시화호, 천수만, 새만금, 낙동강 하구 등 모래사장이 있는 해안이나 큰 강 하구를 중심으로 분포한다.

## ● 번식지 동향

해안과 강가의 모래밭이나 자갈밭에서 번식한다. 유부도, 시화호에서 번식기록이 있다.

## ● 서식지 동향

전국의 해안이나 강가 등에 서식한다.

## ● 개체수 현황

2006년 아산만에서 30여 쌍이 번식한 기록이 있으며, 2007년 간월도, 영종도 등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700여 개체, 2008년 서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청주, 조치원 등 내륙에서 500여 개체를 관찰한 기록이 있다. 2009년 시화호에 320여 쌍이 번식한 기록이 있으며, 2009년 새만금에 2개체, 2010년 천수만에 40여 개체, 2010년 유부도에 47개체를 관찰한 기록이 있다.

## ● 국제 동향

우수리, 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 인도, 실론 등지에 분포한다. 국제적으로 70,000-100,000쌍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 위협 요인

해안사구의 감소, 강의 준설로 인한 번식지 감소가 발생하고 있다.

## ● 특기 사항

해당사항 없음.

## ● 평가 결과: LC

IUCN 분류군 위협 범위 평가 기준 및 국내 서식현황 적용 결과 관심대상종(LC)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6.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3. Lynx Edicions, Barcelona. 821pp.
- 박진영. 2002. 한국의 조류 현황과 분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1,126pp.
-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320pp.
- 환경부. 2007-2008.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Sterna albifrons* is summer breeding visitor in Korea. Continental populations mainly coastal, but also inland along rivers, also on oceanic islands. Food was mainly small fish and crustaceans, also insects, annelids and molluscs. Nest usually bare, but in marshes builds on platforms of shell or vegetation. North breeders migrate south from late Aug. International population size estimated about 70,000-100,000 pairs, but many local population declining. It meets the criteria for LC.

집필자: 백운기(국립중앙과학관), 강태한(한국환경생태연구소)

# 알락개구리매

*Circus melanoleucos* Pennant, 1769

## 분류학적 위치

매목(Falconiformes) 수리과(Accipitrid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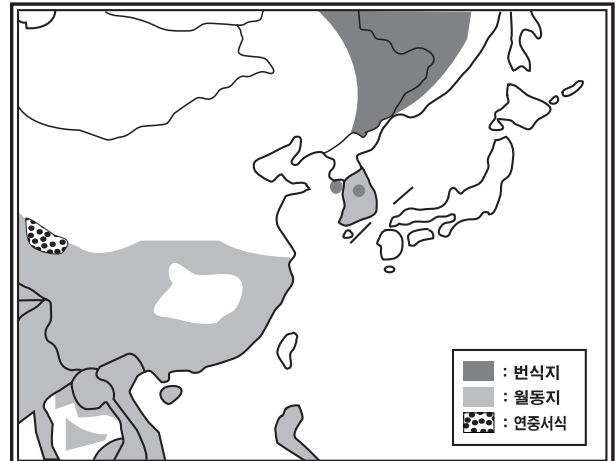
영명: Pied Harrier

지정현황: -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우리나라를 드물게 통과하는 나그네새다. 해안가 인근 농경지, 간척지, 강 하류 및 개활지 등에서 주로 관찰되며, 내륙지역에서는 관찰 개체수 및 관찰 빈도가 높지 않다. 날개를 위로 들어올려 V자 모양을 이룬 채 땅 위를 앓을 듯 낮게 천천히 날아다닌다. 소형 조류, 양서류, 파충류, 설치류, 곤충 등을 사냥하며, 일부 개체가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관찰기록은 매우 적다.



## ● 형태

수컷은 얼굴부터 가슴, 등, 날개 끝단까지 검은색이고, 배와 날개 아랫면은 흰색이다. 날개깃과 꼬리는 희백색이다. 등, 어깨, 날개덮깃의 일부가 검은색으로 활모양을 이룬다. 암컷은 전체적으로 갈색을 띤다. 몸 윗면은 흑갈색, 아랫면은 담갈색에 흑갈색 세로 줄무늬가 있다. 허리는 흰색이다. 날개덮깃과 꼬리는 청회색에 흑갈색 줄무늬가 있고, 날개 아랫면에 줄무늬가 있다. 어린 새는 몸 윗면이 전체적으로 균일한 흑갈색을 띠며, 눈 주위로 어두운 흰색 또는 옅은 황갈색 깃이 원형을 이룬다. 꼬리깃은 등과 비슷한 색으로 끝은 좁은 흰색을 띠며 그 안에 검은색 띠가 있다. 홍채가 노란 어린 새와 달리 홍채가 갈색이다(채 등 2009).

## ● 생물학적 특성

초습지, 개활지, 강 하류, 갈대밭, 소택지 등지에서 생활하며, 땅 위를 앓을 듯이 낮게 천천히 날아다닌다. 날 때 날개를 위로 들어올려 V자 모양을 이룬다. 4-5월에 번식하며, 둥지는 갈대숲의 땅 위에 긴 풀의 줄기나 갈대 줄기를 재료로 만든다. 한배에 산란 수는 4-5개로, 알은 푸른빛이 도는 흰색이며, 연한 갈색 점이 있다. 포란은 주로 암컷이 한다. 소형 조류, 양서류, 파충류, 설치류, 곤충류 등을 포식한다(원 1981; 문화재청 2009).

## ● 분포 현황

전체적으로 도래 규모나 분포가 크지 않다. 2000년대 들어 순천만을 포함한 천수만, 시화호 등 서남해안 인근과 낙동강 하구 등지에서 간헐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 ● 번식지 동향

1956년 6월 함경북도 고산지대인 장진호반에서 포란 중인 둥지가 발견되었고, 같은 해 7월 새끼 4개체를 포획한 기록이 있다. 번식기의 경우 1984년 8월 문산 판문점 부근과 2004년 8월 소청도, 2007년 7월 경기도 광주



에서 관찰한 기록이 있다. 정확한 국내 번식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원 1981; 김 2010).

## ● 서식지 동향

고천암호, 천수만, 시화호, 순천만 등 서남해안 인근과 구미 해평 등 강 주변에서 드물게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하천, 해안 등 수역을 낀 개활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 ● 개체수 현황

2001년 전국적으로 7개체가 관찰되었으나, 그 뒤로 해마다 1-4개체만 관찰되고 있다. 시화호, 당진, 천수만, 목포, 해남 등 해안 간척지 인근에서 관찰 빈도가 높은 편이었고, 내륙지역은 2000년 정선과 영월에서 각 1개체, 2001년 철원에서 1개체, 2007년 구미 해평 습지에서 1개체, 2009년 양평 인근에서 1개체 등 적은 개체가 간헐적으로 관찰되고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7a;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b; 문화재청 2006; 문화재청 2007; 환경부 2000-2009; 환경부 2000-2010).

## ● 국제 동향

중국 북동부, 우수리 등에서 번식하고 중국 남부, 동남아시아 등에서 월동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적으로 1만여 개체만 보고된 작은 집단이다(del Hoya *et al.* 1994).

## ● 위협 요인

해당 종의 구체적인 위협 요인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습지 또는 소택지 등지에서 번식하고 강 하류, 간척지, 농경지, 초지 및 소택지 등을 주요 행동권으로 삼는 종 특성상 개발행위에 의한 훼손이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I 급,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323-5호로 지정·보호하고 있으며, CITES 부속서 II에 포함 되어 있는 국제적 보호종이다.

## ● 평가 결과: LC

IUCN 분류군 위협 범위 평가 기준 및 국내 서식현황 적용 결과 관심대상종(LC)으로 판정했으며, IUCN 적색 목록 역시 LC로 평가되어 있다.

## ● 참고문헌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4.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2. Lynx Edicions, Barcelona. 638pp.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http://en.wikipedia.org/wiki/Pied\\_Harrier](http://en.wikipedia.org/wiki/Pied_Harrier)

<http://www.birdlife.org/datazone/speciesfactsheet.php?id=3410>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전국 천연기념물 분포지도. 국립문화재연구소. 184pp.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중장기 천연기념물(동물) 분포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182pp.

김성현. 2010. 멸종위기 수리목(Accipitridae) 조류의 분포와 이동 생태.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문화재청. 2006. 2006년 천연기념물 모니터링. 문화재청. 124pp.



- 문화재청. 2007. 중장기 천연기념물(동물) 분포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 182pp.
- 문화재청. 2009. 문화재대관 천연기념물 · 명승-동물. 문화재청. 291pp.
-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1,126pp.
- 채희영, 박종길, 최창용, 빙기창. 2009. 한국의 맹금류. 국립공원관리공단. 164pp.
- 환경부. 2000-2009.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환경부. 2000-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Circus melanoleucos* is an asian species in the family Accipitridae. It is a passenger bird that going through the South Korea in winter season, and some of them are rarely staying in wintering season. It breeds from Amur valley in eastern Russia and northeastern China to North Korea. Wintering individuals can be found in a wide areas from Pakistan to Philippines. The population consists of approximately 10,000 individuals and the number is thought to be in moderate decline. It meets the criteria for LC

집필자: 박진영(국립환경과학원), 김달호(한국환경생태연구소)

# 양비둘기

*Columba rupestris* Pallas, 1811

## 분류학적 위치

비둘기목(Columbiformes) 비둘기과(columbidae)

영명: Hill Pigeon

지정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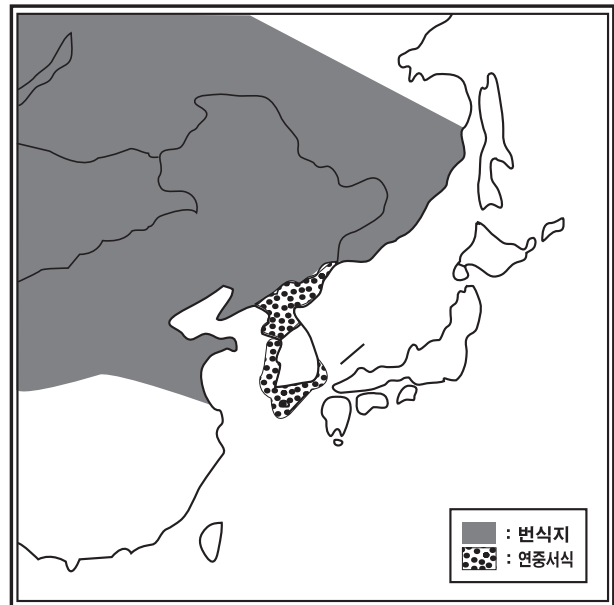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우리나라에서 국지적으로 번식하는 텃새다. 집비둘기와 유사하다. 아시아 동부 및 북부에서 중국 북부, 한국에 분포한다. 최근에는 도심으로 유입되어 자연 서식지에 서식하는 개체들이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심대상종(LC)으로 평가했다.

## ● 형태

전체적으로 회색을 띤다. 허리는 흰색이고 날개에는 넓고 검은 띠가 2줄 있다. 날개 아랫면은 흰색이고 꼬리 중간은 흰색을 띠나 끝에는 검은색 띠가 있다. 부리는 검은색이며 다리는 붉은 산호색이다.



## ● 생물학적 특성

집비둘기와 같이 건물에서도 번식하며 바닷가의 바위절벽, 내륙의 바위산, 바위 낭떠러지, 교각에서 번식한다.

## ● 분포 현황

한국에서 번식하는 종으로 과거 많은 수가 관찰되었으나, 현재 서해안의 해안가에서 소수가 관찰된다.

## ● 번식지 동향

제주도와 거제도 등 서남해안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번식한다.

## ● 서식지 동향

산간계류, 강, 호수 등 물가, 바위벼랑, 석회암 동굴 등에 살며 보통 10-30개체 이상 무리를 지어 다닌다.

## ● 개체수 현황

전라남도 구례 화엄사에서 2001년 50여 개체를 관찰한 기록이 있으며, 2006년 거창에서 3개체를 관찰한 기록이 있다. 서남해안의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소수를 관찰한 기록이 있다.

## ● 국제 동향

아시아 동부 및 북부에서 중국 북부, 한국에 분포한다. 최근에는 도심으로 유입되어 자연 서식지에 서식하는 개체들이 감소하고 있다.

## ● 위협 요인

도시 내 유입으로 집비둘기와 잡종화 되어 야생종의 개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 ● 특기 사항

집비둘기와 잡종화 되고 있다.

## ● 평가 결과: LC

IUCN 분류군 위협 범위 평가 기준 및 국내 서식현황 적용 결과 관심대상종(LC)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7.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4. Lynx Edicions, Barcelona. 679pp.
- 박진영. 2002. 한국의 조류 현황과 분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1,126pp.
-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320pp.
- 환경부. 2006-2008.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Columba rupestris* is similar in appearance to nominate form of *C. livia*, But paler grey. Habitat is open rugged country, where lives in flocks around cliffs and gorges. Food is mainly granivorous, feeding on seeds of weeds; also takes grain, green shoots of crop, leaves and some snails. Builds a nest platform of twigs and plant items placed in crags or cliffs. Although no long-distance migrations undertaken. Not globally threatened. It meets the criteria for LC.

집필자: 백운기(국립중앙과학관), 강태한(한국환경생태연구소)

# 왕새매

*Butastur indicus* Gmelin, 1788

## 분류학적 위치

매목(Falconiformes) 수리과(Accipitridae)

영명: Grey-faced Buzzard

지정현황: -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우리나라를 지나는 통과새이며, 번식기록이 있다. 이동 시기에 1,000개체 이상 무리를 형성하기도 한다. 일본의 태평양 해안을 따라 필리핀까지 이동한다. 숲, 농경지, 개활지 등에서 관찰된다. 국제적인 개체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관심대상종(LC)로 평가했다.

## ● 형태

암컷과 수컷의 이마에서 위꼬리덮깃까지는 갈색이며, 머리꼭대기에는 흰색이 약간 있다. 뒷머리와 뒷목의 깃털 뒷부분은 흰색이다. 윗가슴은 녹색 갈색으로 각 깃의 끝은 어두운 흰색이다. 아랫가슴, 배, 옆구리에는 붉은 녹색을 띤 갈색과 흰색으로 된 넓은 가로띠가 있다. 부리의 뒷부분은 황색이고 끝은 검은색이며, 다리는 어두운 황색이다.



## ● 생물학적 특성

낮은 산이나 언덕의 숲 속에서 혼자 또는 암수가 함께 생활하며, 이동할 때는 매우 큰 무리를 형성한다. 나무 위에서 아래를 응시하다 먹이를 발견하면 즉시 뛰어 내려와서 발톱으로 잡는다. 번식기에는 자기 영역의 상공에서 급강하와 급상승을 되풀이하는 구애행동을 한다. 둥지는 큰 나무의 가지 위에 마른 나뭇가지를 이용해 접시 모양으로 만든다. 알 낳는 시기는 5-6월이다. 알은 푸른빛이 도는 흰색으로 2-4개 낳아 30일 정도 품는다.

## ● 분포 현황

2000년대 이전에는 서울, 강원도, 거제도 등 전국적으로 몇 차례의 관찰기록만이 있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강원도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관찰기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해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홍도, 흑산도, 가거도 등 신안군 도서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통과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 ● 번식지 동향

1948년 5월 경기도 안양에서 번식한 기록이 있으며, 1967년 7, 8월 경기도 파주 휴전선 부근에서 번식한 기록이 있다. 2000년도에는 2004년 파주 초평도, 2006년 충청북도 남한강변에서 번식한 기록이 있다(김 2010).

## ● 서식지 동향

봄가을에 한국을 통과하는 통과새이며, 드물게 번식한다. 숲, 농경지, 개활지에서 관찰된다.

## ● 개체수 현황

서해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홍도, 흑산도, 가거도 등新安군 도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확인된다. 특히 가거도는 수백 개체로 구성된 집단이 규칙적으로 통과하며, 2002년에는 1,500개체, 2009년에는 1,650개체의 이동을 관찰한 기록이 있다(김 2010).

## ● 국제 동향

아시아 동부 온대, 아무르 남부, 우수리, 한국, 일본, 만주 및 중국에 분포한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 반도, 보르네오, 자바, 뉴기니, 티모르 등지에서 월동한다. 국제적으로 개체수에 대해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다. 우수리지역과 일본에서는 비교적 흔하게 관찰된다.

## ● 위협 요인

서식지 감소, 사냥에 의해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지정 보호종이다. 국제적으로 CITES 부속서 II에 수록되어 있다.

## ● 평가 결과: LC

IUCN 분류군 위협 범위 평가 기준 및 국내 서식현황 적용 결과 관심대상종(LC)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4.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2. Lynx Edicions, Barcelona. 638pp.
- 김성현. 2010. 멸종위기 수리과(Accipitridae) 조류의 분포와 이동 생태.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진영. 2002. 한국의 조류 현황과 분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1,126pp.
-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320pp.
- 환경부. 2006-2008.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Butastur indicus* is known migratory in Korea. The time of moving, flocks of thousands of birds sometimes gather. Major migration route is along Pacific coast of Japan, through Ryukyu Is to Taiwan and S to Philippines. Habitat was wooded areas in proximity of open country. Not globally threatened. Size and trends of population very poorly known. It meets the criteria for LC.

집필자: 박진영(국립환경과학원), 강태한(한국환경생태연구소)

# 원앙

*Aix galericulata* Linnaeus, 1758

## 분류학적 위치

기러기목(Anseriformes) 오리과(Anatidae)

영명: Mandarin Duck

지정현황: 천연기념물 제32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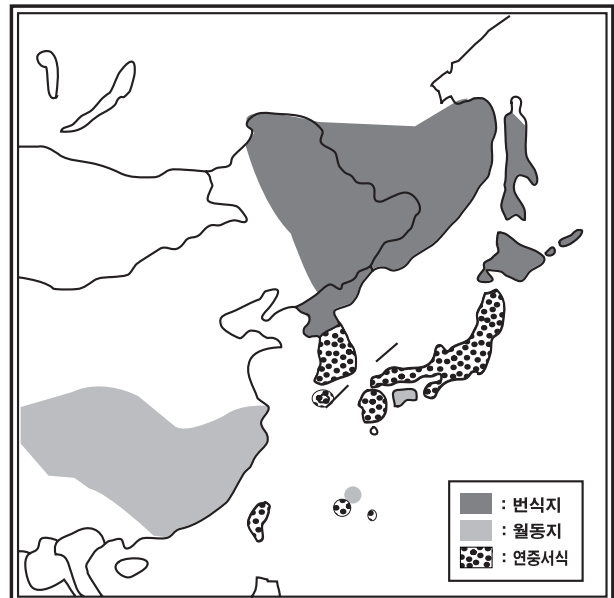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털새이자 겨울철새이며, 전국의 호소, 하천, 해안 등 우리나라 전역에서 서식한다. 참나무가 울창한 숲과 마을의 고목에서 번식하며, 경기도 광릉, 충청북도 속리산, 청원군의 금관 숲 등이 알려져 있다. 번식 개체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며, 월동 개체군은 지난 10년간 감소했다. 최근 2010년에는 1,213개체를 관찰한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철새도래지 외에 소하천, 계곡의 저수지 등에도 서식하므로 2,000여 개체가 이상이 월동할 것으로 추정된다.

## ● 형태

겨울깃 또는 번식기의 암수의 깃 색은 서로 다른데, 수컷의 머리는 평평하고 꼭대기는 짙은 녹색이며 뒷머리 부위에는 길게 늘어진 적갈색 깃털이 있다. 또한, 눈 주위의 흰색 깃털과 어깨를 포함한 옆구리의 넓은 황백색 부분 그리고 위로 솟은 주홍색 깃은 은행잎처럼 생긴 것이 특징이다. 암컷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회색 바탕에 배 부위에 흰색 얼룩점이 있다. 번식 후 깃털은 암수가 매우 비슷하다(원 1981; 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산림 주변의 늪지대나 계곡, 냇가 등에서 각종 식물의 열매나 작은 동물들을 먹는다. 냇가와 인접한 오래된 나무 위나 바위틈에서 번식하며 우리나라 텃새다. 알 품기와 새끼 기르기는 암컷이 주로 하며, 알은 7-12개 낳는다. 번식기에는 암수 외에 무리를 형성하지 않지만 비번식기인 겨울에는 북쪽에서 번식하는 무리와 합류해 큰 무리를 이룬다(원 1981).

## ● 분포 현황

우리나라 전역의 하천, 호소, 계곡, 해안 등에 분포하며 최근에는 산림이 우거져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의 울창한 숲과 마을의 고목에서 번식하며, 경기도 광릉, 충청북도 속리산, 청원군의 금관 숲 등 대부분 지역에서 번식한다.

## ● 서식지 동향

번식기에는 울창한 숲에서 주로 서식하고, 비번식기인 겨울철에는 전국의 호소, 하천, 해안 등에 서식한다.

## ● 개체수 현황

번식 개체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며, 월동 개체군은 지난 10년간 감소했다. 1999년 2,143개체, 2002년 1,754개체, 2004년 1,103개체, 2006년 777개체, 2008년 634개체, 2010년 1,213개체를 관찰한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철새도래지 외에 소하천, 계곡의 저수지 등에도 서식하므로 월동 개체수는 2,000개체 이상으로 추정된다(환경부 1999-2010).

## ● 국제 동향

1990년 조사에 의하면 일본이 13,361개체, 중국 일부지역이 2,332개체였으며, 영국은 1988년에 야생화 된 개체가 약 7,000개체였다. 전 세계 개체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며, 전반적으로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del Hoyo *et al.* 1992; IUCN 2010).

## ● 위협 요인

러시아 동부 및 사할린 등에서의 사냥과 우리나라에서의 밀렵, 산림개발 등으로 인한 번식지 감소 등을 위협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지정 보호종,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327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일부 동물원 등에서는 인공사육하고 있으며, 사육장 내에서 번식도 가능하다.

## ● 평가 결과: LC

IUCN(2010) 분류군 위협 범위 평가 기준 및 국내 서식현황 적용 결과 관심대상종(LC)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2.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1. Lynx Edicions, Barcelona. pp.598.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pp.436-438.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74.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Aix galericulata* is wintering or resident bird in Korea. The population size is extremely large, and hence does not approach the thresholds for Vulnerable under the population size criterion. Decline of recent decades continues, so considered near-threatened. At present, majority of Asian population (estimated at 6,100-6,600 pairs in mid-1980's) occurs in Japan. In winter 1990 census, 13,361 birds counted in Japan, and 2,332 in partial count in China. In winter 2010 census, c. 1,200 birds counted in South Korea. British feral population of c. 7,000 in 1988 significant. Decline in continental Asia related to habitat destruction and exportation in vast numbers during many years. It meets the criteria for LC.

집필자: 김창회(국립환경과학원), 김인규(한국환경생태연구소)



# 잣빛개구리매

*Circus cyaneus* Linnaeus, 1766

## 분류학적 위치

매목(Falconiformes) 수리과(Accipitridae)

영명: Hen Harrier

지정현황: 환경부 멸종위기 II급, 천연기념물 제323-6호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우리나라 전역에서 비교적 흔하게 관찰되는 겨울철 새다. 날 때는 날개를 위로 올려 V자 모양을 이루며 농경지, 간척지, 갈대밭 등 개활지 인근을 낮게 비행하며 먹이를 찾는다. 설치류, 곤충, 소형 조류 등을 먹는다. 많은 수가 관찰되지는 않으나 비교적 관찰 빈도가 높은 편이다. 주로 해안과 인접한 농경지, 간척지, 하구, 하천 등지에서 관찰되며 간헐적으로 내륙지역에서도 관찰된다.

## ● 형태

암수 형태가 현저히 다르다. 수컷은 머리, 등, 꼬리, 날개 윗면은 흐린 청색이 있는 밝은 회색이며, 복부 및 날개 아랫면은 흰색이다. 허리에는 반달모양의 흰색 반점이 있고 날개 끝을 따라 어두운 줄무늬가 있다. 암컷은 전체적으로 갈색을 띠며, 몸 아랫면은 어두운 흰색에 갈색 세로 줄무늬가 있다. 날 때 날개 아랫면에 회색에 흑갈색 줄무늬가 보인다. 꼬리깃에 갈색 가로 줄무늬가 있으며, 꼬리 끝의 줄무늬가 두껍다. 어린 새는 홍채 색깔이 갈색으로, 홍채가 노란 어른 새와 구분되며, 암컷 어른 새에 비해 가슴 부분의 갈색이 더 진하다(채 등 2009).



## ● 생물학적 특성

습지나 농경지, 평지 등에서 대부분 단독으로 생활한다. 양 날개를 V자 모양으로 올리고 천천히 날면서 간혹 일시 정지한 채 먹이를 찾는다. 일부다처제로 번식기에는 암컷 2-3마리가 있다. 둥지는 초원이나 우거진 덩굴, 초습지 등의 땅 위에 작은 나뭇가지와 풀로 암컷이 만든다. 번식기는 4월 중순부터 7월 초순까지이나 대부분 5월까지 산란한다. 한배에 산란 수는 3-6개이며, 알은 푸른색이 도는 흰색이다. 포란기간은 29-30일이며, 육추기간은 35-42일이다. 포란은 암컷만 하고, 수컷은 둥지에 있는 암컷에게 먹이를 운반한다. 주로 포유류와 조류를 먹으며, 포유류는 설치류가 대부분, 조류는 어린 멧비둘기, 오리류를 많이 먹는다(원 1981, 문화재청 2009).

## ● 분포 현황

적은 개체수가 도래하나 전국에서 비교적 흔하게 관찰된다. 낙동강 하류, 천수만, 동진강 하류 등지에서는 매년 적은 수가 갈대숲 위를 비행하는 것이 관찰되기도 한다.

## ● 번식지 동향

북반구의 늪지대, 습지, 이탄습지, 해안습지의 지면에 등지를 틀고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번식지에 대한 기록은 보고되지 않았다(김 2010).

## ● 서식지 동향

우리나라 전역의 습지 주변이나 농경지, 갈대밭 등지에서 관찰된다.

## ● 개체수 현황

비교적 흔하게 관찰되는 겨울철새로, 많은 개체는 아니나 매년 꾸준한 수가 관찰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전국적으로 매년 26-48개체가 관찰되고 있으며, 특히 당진의 간척지, 서산 천수만, 시화호, 동진강 하구, 해남, 천수만 등 해안지역과 강 하구, 간척지를 중심으로 1-5개체가 매년 관찰되고 있다. 낙동강의 경우 2009년 하류지역에서 9개체가 관찰되기도 했다. 울진, 삼척, 강릉, 양양 등 동해안과 양평, 괴산, 영월, 양구 등 내륙지방에서도 간헐적으로 1-2개체가 관찰되고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7a;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b; 문화재청 2006; 문화재청 2007; 환경부 2000-2009; 환경부 2000-2010).

## ● 국제 동향

유라시아대륙과 북미 등지에서 번식하고,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우리나라 등지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300,000개체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역별 개체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del Hoya *et al.* 1994).

## ● 위협 요인

해당 종의 구체적인 위협 요인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과거 사냥 혹은 독성 먹이에 의한 맹금류 개체수 감소가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범세계적인 조류보호 운동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습지 또는 소택지 등지에서 번식하고 강 하류, 간척지, 농경지, 초지 및 소택지 등을 주요 행동권으로 삼는 종 특성상, 행동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에 의한 훼손이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I 급,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323-6호로 지정·보호하고 있으며, CITES 부속서 II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적 보호종이다.

## ● 평가 결과: LC

IUCN 분류군 위협 범위 평가 기준 및 국내 서식현황 적용 결과 관심대상종(LC)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4.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2. Lynx Edicions, Barcelona. 638pp.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http://en.wikipedia.org/wiki/Pied\\_Harrier](http://en.wikipedia.org/wiki/Pied_Harrier)

<http://www.birdlife.org/datazone/speciesfactsheet.php?id=3407>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전국 천연기념물 분포지도. 국립문화재연구소. 184pp.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중장기 천연기념물(동물) 분포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182pp.
- 김성현. 2010. 멸종위기 수리목(Accipitridae) 조류의 분포와 이동 생태.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화재청. 2006. 2006년 천연기념물 모니터링. 문화재청. 124pp.
- 문화재청. 2007. 중장기 천연기념물(동물) 분포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 182pp.
- 문화재청. 2009. 문화재대관 천연기념물 · 명승-동물. 문화재청. 291pp.
- 박진영. 2002. 한국의 조류 현황과 분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1,126pp.
- 채희영, 박종길, 최창용, 빙기창. 2009. 한국의 맹금류. 국립공원관리공단. 164pp.
- 환경부. 2000-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 환경부. 2000-2009.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Circus cyaneus* is a migratory bird that visits South Korea in winter season. It can find all over the country at winter season. It breeds in the northern hemisphere; from Europe to North America, and wintering individuals can be found in India, Indonesia, China, Japan, and South Korea. Its preferred habitat is huge-opened areas including estuary, farmland, reclaimed land, grassland and seashore wetland. It meets the criteria for LC.

집필자: 박진영(국립환경과학원), 김달호(한국환경생태연구소)

# 종다리

*Alauda arvensis* Linnaeus, 1758

## 분류학적 위치

참새목(Passeriformes) 종다리과(Alaudidae)

영명: Eurasian Skylark

지정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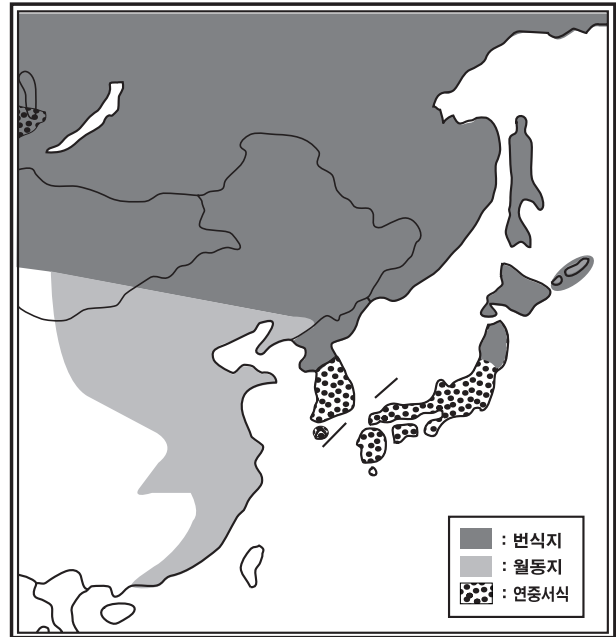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몸은 옅은 황갈색이고, 머리, 등, 작은 날개덮깃과 가운데날개덮깃은 적갈색으로 무늬가 없다. 강가의 풀밭, 보리밭, 밀밭 등 지상에 둥지를 틀며,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한다. 최근 농경지의 개발, 농약의 과도한 사용 등으로 서식지의 축소 및 훼손이 주요 위협 요인이며, IUCN 분류군 위협 범위 평가 기준 및 국내 서식현황 적용 결과 관심대상종(LC)으로 평가했다.

## ● 형태

몸은 옅은 황갈색이고, 머리, 등, 작은 날개덮깃과 가운데날개덮깃은 적갈색으로 무늬가 없다. 날개, 가슴에는 검은색 줄무늬가 있다. 머리깃은 짧고 둥글다. 날 때 둘째 날개깃 끝 부분은 흰색, 바깥꼬리깃도 흰색이다(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강가의 풀밭, 보리밭, 밀밭 등 지상에 둥지를 튼다. 마른 풀이나 가는 뿌리로 밥그릇모양의 둥지를 틀며 알이 놓일 자리에는 가는 뿌리나 가는 마른 풀을 깐다. 푸른색 및 회색빛이 도는 흰색 바탕에 쥐색과 어두운 갈색의 작은 반점이 뺨뺨하게 산재하는 긴 타원형 알을 3-6개 낳는다(원 1996).

## ● 분포 현황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한다.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 전역 저지대에 걸쳐 경작지 및 초지 등에서 번식하는 흔한 텃새다.

## ● 서식지 동향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습지와 초지지역에 흔히 분포한다.

## ● 개체수 현황

철새도래지 위주로 조사한 환경부 겨울철새 동시센서스에 의하면 2008년 688개체, 2009년 674개체, 2010년 1,173개체가 확인되었으며, 번식지와 철새도래지 이외 지역을 포함하면 더 많은 개체수가 국내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환경부 2008-2010).

## ● 국제 동향

영국에서 일본까지 북위 30° 이북의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분포한다. 유럽의 번식 집단은 40,000,000-80,000,000쌍으로 추정하며, 평균 개체수는 120,000,000-240,000,000개체다. 유럽의 집단을 25-49%로 추정하며, 전 세계 집단은 245,000,000-960,000,000개체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del Hoyo *et al.*, 2004, IUCN 2010).

## ● 위협 요인

농경지의 개발, 농약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서식지의 축소 및 훼손이 주요 위협 요인이다(IUCN 2010).

## ● 특기 사항

우리나라에서는 서식 개체수가 많지만, 다양한 위협 요인으로 인해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 ● 평가 결과: LC

IUCN 분류군 위협 범위 평가 기준 및 국내 서식현황 적용 결과 관심대상종(LC)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del Hoyo, J., A. Elliott and Christie, D.A. eds. 2004.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9. Lynx Edicions, Barcelona. pp.594-598.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박진영. 2002. 한국의 조류 현황과 분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198-199.

원병오. 1996. 한국의 조류. 교학사. pp.260.

환경부. 2008-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Alauda arvensis* is a small passerine bird species. This lark breeds across most of Europe and Asia and in the mountains of north Africa. It is mainly resident in the west of its range, but eastern populations are more migratory, moving further south in winter. In Europe, the breeding population is estimated to number 40,000,000-80,000,000 breeding pairs, equating to 120,000,000-240,000,000 individuals. Europe forms 25-49% of the global range, so a very preliminary estimate of the global population size is 245,000,000-960,000,000 individuals, although further validation of this estimate is needed. It meets the criteria for LC.

집필자: 채희영(국립공원철새연구센터), 강태한(한국환경생태연구소)

# 청머리오리

*Anas falcata* Georgi, 1775

## 분류학적 위치

기러기목(Anseriformes) 오리과(Anatidae)

영명: Falcated Duck

지정현황: -

IUCN 범주: NT (준위협종)

## ● 요약

겨울철새이며, 우리나라 전역의 강과 하천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습지지역에서 관찰되며, 특히 남부지역(낙동강, 영산강)에서 비교적 많은 개체가 월동한다. 1982년에서 1988에 일본에서 실시한 모니터링에 의하면 개체수는 5,162-8,113으로 추정하며, 한국과 남중국으로 이동하는 개체는 7,000-9,000으로 추정된다. 국내 도래 개체수 및 광범위한 월동 지역을 감안해 관심대상종(LC)으로 평가했다.

## ● 형태

머리에는 특이한 형태의 긴 녹색 땀가 있다. 흰색 목, 검은색 목테, 이마의 흰점, 검은색 띠가 있는 노란색 엉덩이 등이 특징이다. 가슴의 깃털은 가장자리가 검은색으로 비닐무늬처럼 보이며, 둥글고 길게 늘어진 셋째 날개깃은 꼬리를 가린다(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알은 6-7월에 6-9개 낳으며 크림색 또는 옅은 황갈색을 띤다. 우리나라의 겨울철새로 강, 하구, 저수지, 해안에서 볼 수 있다. 초식성이며, 특히 다양한 형태 씨앗(벼씨와 곡물)과 수생식물 등을 선호한다. 또한 가끔 수서곤충 등을 먹기도 한다(del Hoyo *et al.* 1992).

## ● 분포 현황

우리나라 전역의 강과 하천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습지지역에서 관찰되며, 특히 남부지역(낙동강지역, 영산강)에서 비교적 많은 개체가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번식지 동향

시베리아와 툰드라지역에서 번식하며, 우리나라에는 번식기록이 없다.

## ● 서식지 동향

호수, 저수지, 연못 등 물풀이 많은 곳을 선호하며, 전국 각지의 규모가 비교적 큰 습지지역에서 관찰되고 있다.

## ● 개체수 현황

환경부 겨울철새 동시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2008-2010년에 매년 4,000-5,000개체가 확인되고 있으며, 그 중 매년 낙동강 하류, 하구에서 500-800개체 이상, 전라남도지역(영산호, 함평 무안 등지)에서 500여 개체 이상이 확인되고 있다. 2009년에는 시화호에서 2,530개체, 화원지역에서 554개체가 확인된 기록이 있다(환경부 1999-2010).

## ● 국제 동향

러시아, 중국 동북 지방, 몽골, 한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1982년에서 1988년에 일본에서 실시한 모니터링에 의하면 개체수는 5,162-8,113으로 추정하며, 한국과 남중국으로 이동하는 개체는 7,000-9,000으로 추정된다. 문헌에 따라 다르지만 전 세계의 개체수는 약 35,000개체로 추정하며, 최근 연구에 따르면 89,000여 개체까지 기록된 바 있다(IUCN 2010).

## ● 위협 요인

최근 조사에 의하면 중국 등지에서 식량 및 깃털을 이용하기 위한 사냥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IUCN 2010).

## ● 특기 사항

현재 우리나라에는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서식지 축소와 사냥 등으로 인해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IUCN 2010).

## ● 평가 결과: LC

IUCN 분류군 위협 범위 평가 기준 중 준위협종(NT)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국내 도래 개체수 및 광범위한 월동지역을 감안해 관심대상종(LC)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2.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1. Lynx Edicions, Barcelona. pp.600-602.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78-79.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Anas falcata* breeds in eastern Asia. It nests in eastern Russia, in Khabarovsk, Primorskiy, Amur, China, Buryatia, Irkutsk, Tuva, eastern Krasnoyarsk, south central Sakha Sakhalin, extreme northeastern North Korea and northern China, in northeastern Inner Mongolia, and northern Heilongjiang, and in northern Japan, Hokkaido and the Kuril Islands. It is widely recorded well outside its normal range, but the popularity of this beautiful duck in captivity clouds the origins of these extralimital birds. Although the global population was previously estimated to be 35,000 individuals, recent counts indicate that it is considerably higher, with perhaps as many as 89,000 in total. It meets the criteria for LC.

집필자: 김창희(국립환경과학원), 조해진(한국환경생태연구소)



# 취부엉이

*Asio otus* Linnaeus, 1758

## 분류학적 위치

올빼미목(Strigiformes) 올빼미과(strigidae)

영명: Long-eared Owl

지정현황: 천연기념물 제324-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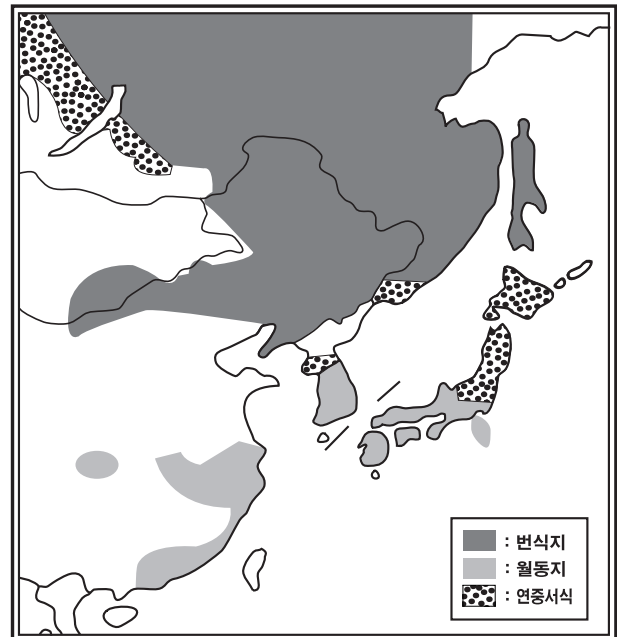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취부엉이는 귀깃이 길며, 눈은 주황색이다. 배에는 가로줄이 섞인 붉은 세로 줄무늬가 있다.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드물게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산림훼손 등으로 인해 서식지가 축소되고 있으며, 먹이 활동을 하는 농경지와 개활 초지, 산림의 임연부 등이 훼손되어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IUCN 분류군 위협 범위 평가 기준 및 국내 서식현황 적용 결과 관심대상종(LC)으로 평가했다.

## ● 형태

귀깃이 길며, 눈은 주황색이다. 배에는 가로줄이 섞인 붉은 세로 줄무늬가 있다. 깃털색의 변화가 비교적 심하다. 꼬리는 연한 갈색이며 끝 부분에 얇고 진한 갈색 줄무늬가 있다(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번식기는 5월 중순에서 하순이며 둥지는 잡목 숲속에 있는 매나 말뚝가리 등의 옛 둥지를 이용한다. 한배 산란 수는 4-6개이며, 알은 흰색이다. 포란기간은 26-28일이며, 육추기간은 23-24일이다. 포란은 암컷이 하며, 수컷은 암컷에게 먹이를 운반한다. 주로 들쥐를 먹으며, 작은 들새, 곤충도 먹는다(문화재청 2009).

## ● 분포 현황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드물게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 번식지 동향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번식하며, 우리나라에는 번식사례가 없다.

## ● 서식지 동향

주로 전국의 소나무 숲에서 여러 개체를 관찰할 수 있으며, 낮에는 거의 활동하지 않으며, 밤에 활발히 활동한다. 초지, 습지, 과수원 등을 둘러싸고 있는 작은 숲과 잡목림이 있는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문화재청 2009).



## ● 개체수 현황

우리나라에는 드문 겨울철새로서 1999년과 2000년도에 충청남도 서산 간월호 지역에서 5개체, 3개체가 관찰된 기록이 있으며, 2005년도에 낙동강 하구에서 3개체,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 지역에서 1개체가 관찰된 기록이 있다. 또한 과거 19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경희대 교내의 소나무 숲에 매년 규칙적으로 20-30개체가 도래해 월동한 기록이 있다. 야행성 조류여서 정확한 개체수 산정은 어려우며, 우리나라에는 아주 드물게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문화재청 2009; 환경부 1999-2010; 환경부 2000-2006).

## ● 국제 동향

유라시아대륙의 온대지역, 북아메리카 등 신북구와 구북구에 넓게 분포하며, 전 세계 번식 개체수는 380,000-810,000쌍, 개체수는 1,140,000-2,430,000로 추정하고 있다(del Hoyo *et al.* 1999; IUCN 2010).

## ● 위협 요인

최근 산림훼손 등으로 인해 서식지가 축소되고 있으며, 먹이 활동을 하는 농경지와 개활 초지, 산림의 임연부 등이 훼손되어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IUCN 2010).

## ● 특기 사항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324-5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 ● 평가 결과: LC

IUCN 분류군 위협 범위 평가 기준 및 국내 서식현황 적용 결과 관심대상종(LC)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9.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5. Lynx Edicions, Barcelona. pp.238-241.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180-181.

문화재청. 2009. 문화재대관 천연기념물·명승·동물. 문화재청. pp.134-135.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

*Asio otus* is a species of owl which breeds in Europe, Asia, and North America. This species is a part of the larger grouping of owls known as typical owls, family Strigidae, which contains most species of owl. The other grouping of owls are the barn owls, family Tytonidae. This species has an extremely large range, and hence does not approach the thresholds for Vulnerable under the range size criterion. The population trend appears to be stable, and hence the species does not approach the thresholds for Vulnerable under the population trend criterion. The global population size has not been quantified, but the species is reported to be very abundant regionally. It meets the criteria for LC.

집필자: 백운기(국립중앙과학관), 조해진(한국환경생태연구소)

# 큰기러기

*Anser fabalis* Latham, 1787

## 분류학적 위치

기러기목(Anseriformes) 오리과(Anatidae)

영명: Bean Goose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II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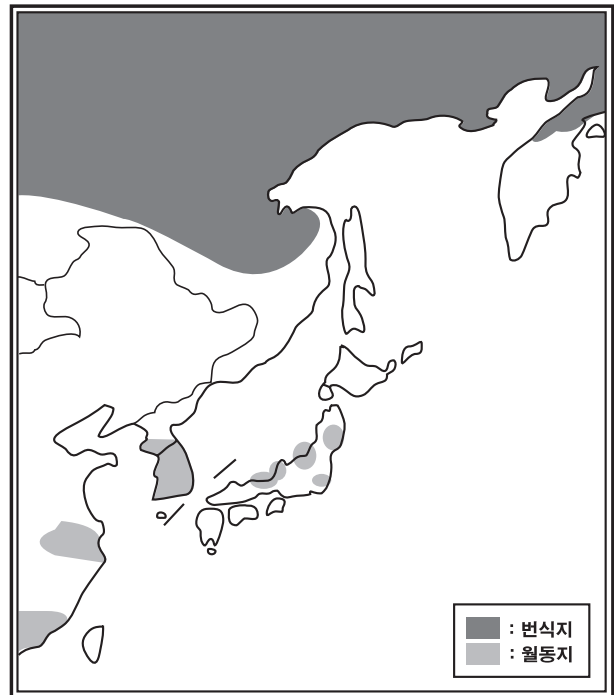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전국의 호소, 간척지, 하구 등 우리나라 전역에 도래하는 겨울철새다. 1999년부터 2010년까지 겨울철새 동시센서스를 통해 평균 30,000개체 이상이 지속적으로 도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05년에 최대 86,116개체가 관찰되는 등 많은 수가 월동하고 있어 관심대상종(LC)로 평가했다.

## ● 형태

암수의 깃털 색이 서로 비슷하다. 몸 전체가 회갈색이며, 등을 비롯한 위쪽이 진하다. 부리는 검은색이나 끝에는 황색 띠가 있다. 날개 끝과 꽂지는 검은색이고, 꽂지깃의 가장자리에는 흰색 띠가 있다. 위아래꼬리털 깃은 흰색이며, 다리는 주황색을 띠고 있다(원 1981; 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유라시아대륙 및 아시아 북쪽의 건조하고 약간 움푹 들어간 풀밭에 둥지를 만들며, 무리를 지어 번식한다. 겨울에는 남쪽의 온대지역으로 이동한다. 번식지에서는 각종 식물의 열매나 줄기 그리고 작은 동물을 먹지만 겨울에는 주로 눈에 떨어진 벼 이삭이나 물풀과 풀뿌리 등을 먹는다. 우리나라에는 10월 초에 찾아와 이듬해 2월 말 또는 3월 초까지 겨울을 보낸다. 이동할 때는 줄지어 나는 것이 특징이다(원 1981; 이 등 2000).

## ● 분포 현황

우리나라의 철원평야, 시화호, 천수만, 금강 하구, 영암호, 고천암호, 주남저수지, 낙동강 하구 등 주요 철새도래지에 분포한다.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에서는 번식하지 않는 겨울철새다.

## ● 서식지 동향

우리나라의 넓은 농경지가 있는 평야지대, 호소, 강, 하구, 간척지, 대규모 저수지 등에 서식한다.

## ● 개체수 현황

월동 개체군의 경우 지난 10년간 점차 증가했다. 1999년 34,399개체, 2000년 33,033개체, 2001년 19,144개체, 2002년 31,826개체, 2003년 30,828개체, 2004년 37,996개체, 2005년 86,116개체, 2006년 66,603개체, 2007년 68,233개체, 2008년 55,328개체, 2009년 74,761개체, 2010년 51,516개체를 관찰한 기록이 있다(환경부 1999-2010).

## ● 국제 동향

국제적으로 아직까지는 폭 넓게 분포하며, 네덜란드의 경우 겨울 개체수가 100,000-200,000으로 기록되었다.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종은 최대 86,000여 개체로 기록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Wetlands International 2002; IUCN 2010).

## ● 위협 요인

러시아 동부 및 사할린 등에서의 사냥과 우리나라에서의 독극물을 사용한 밀렵과 월동기 동안 먹이의 부족 등이 위협 요인이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I 급으로 지정·보호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서식지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 ● 평가 결과: LC

겨울철 우리나라 전역에 폭 넓게 분포하며, 최근 10년간 평균 30,000개체 이상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어 IUCN 적색목록 분류 기준에 의해 우리나라에서는 관심대상종(LC)으로 평가했다. IUCN 적색목록에도 관심대상종(LC)으로 평가되어 있었다.

## ● 참고문헌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Wetlands International. 2002. Waterbird Population Estimates-Third Edition. Wetlands International Global Series No. 12, Wageningen, The Netherlands. pp.71.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1,126pp.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70.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Anser fabalis* is wintering bird in Korea. The population size is extremely large, and hence does not approach the thresholds for Vulnerable under the population size criterion. Winter counts indicate 100,000-200,000 birds in Netherlands. During 10 years, it's population has been increasing or to maintain above 30,000 in Korea. Recently, in winter 2010 census, 51,516 birds counted in Korea. It meets the criteria for LC.

집필자: 김창희(국립환경과학원), 이한수(한국환경생태연구소)

# 큰각도요

*Gallinago hardwickii* Gray, 1831

## 분류학적 위치

도요목(Charadriiformes) 도요과(Scolopacidae)

영명: Latham's Snipe

지정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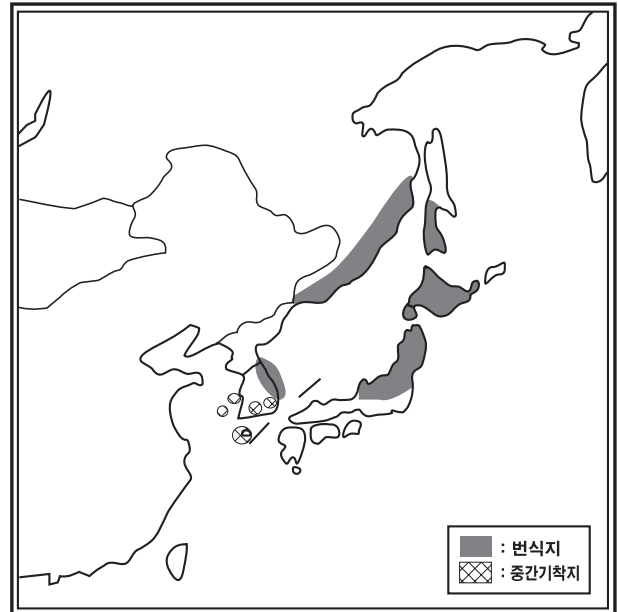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드문 통과 철새로 관찰이 어렵고 동정하기 어려운 면도 있어 관찰기록이 많지 않다. 농경지, 목초지, 소택지 등 키 작은 풀이 있는 지역에서 번식한다. 국제적으로 36,000개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일본의 번식개체는 27,900개체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심대상종(LC)으로 평가했다.

## ● 형태

등에는 세로로 노란 빛이 도는 어두운 갈색 줄과 무늬가 있다. 목과 윗가슴은 붉은 빛이 도는 갈색이다. 옆구리에는 각도요와 달리 가로무늬가 없다. 부리 기부는 노란빛이 도는 녹색이고, 끝 부분은 어두운 갈색이다. 다리는 노란 빛이 도는 어두운 녹색이다.



## ● 생물학적 특성

산악의 풀숲에서 번식한다. 4월 말-6월까지 알을 낳는다. 지상의 식물이 모여 나는 곳에 흙을 파고 둥지를 틀며, 나뭇잎과 마른 풀을 깔아놓는다. 알을 4개 낳으며, 노란빛 도는 갈색 바탕에 어두운 붉은색 점무늬가 섞여 있다.

## ● 분포 현황

우리나라의 제주도, 어청도, 흑산도 등 남해안 도서지역 일대와 강릉에서 관찰기록이 있다.

## ● 번식지 동향

번식기에 강원도 강릉비행장에서 꾸준히 관찰되어 번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조사된 자료가 없다. 국제적으로는 동 프리모스키, 남 사할린, 쿠릴열도, 홋카이도 등의 농경지, 목초지, 소택지 등 키 작은 풀이 있는 지역에서 번식한다.

## ● 서식지 동향

논, 연못, 습지, 강가에서 관찰되며, 남해안을 중심으로 규칙적으로 소수의 개체가 통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 ● 개체수 현황

1988년 강릉에서 2개체, 1996년 주남저수지에서 2개체, 1999년 제주도에서 1개체, 2000년 광양만에서 1개체, 2001년 신안군 가거도에서 1개체, 2006년, 2007년, 2009년 홍도와 흑산도에서 관찰기록이 있다.

## ● 국제 동향

동 프리모스키, 남 사할린, 쿠릴열도, 홋카이도에서 번식하고 겨울에는 오스트레일리아, 타스마니아, 뉴기니아 등지에 분포한다. 국제적으로 36,000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일본에서는 27,900개체로 추정된다.

## ● 위협 요인

번식지와 월동지에서의 사냥이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

## ● 특기 사항

관찰과 동정이 어려워 기타 유사종과의 혼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분포권, 도래실태, 동정 등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 ● 평가 결과: LC

IUCN 분류군 위협 범위 평가 기준 및 국내 서식현황 적용 결과 관심대상종(LC)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6.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3. Lynx Edicions, Barcelona. 821pp.
- 국립공원관리공단. 2006-2010. 조류조사·연구결과보고서.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
- 박진영. 2002. 한국의 조류 현황과 분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1,126pp.
-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320pp.
- 환경부. 2006-2008.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Gallinago hardwickii* is known migratory in Korea. Breeding habitat consists of farmland, such as meadows, pastures, fallow fields, and areas of firing and reforestation, from coast up to 1400m. Food was mainly earthworms, also beetles, crane fly larvae and pupae, spiders and freshly fallen seeds. Strongly migratory. Not globally threatened. Currently considered near-threatened. International population size estimated about 36,000 individuals. Estimated 27,900 birds breed on Japan. It meets the criteria for LC.

집필자: 김진한(국립생물자원관), 강태한(한국환경생태연구소)

# 큰말뚝가리

*Buteo hemilasius* Temminck & Schlegel, 1844

## 분류학적 위치

매목(Falconiformes) 수리과(Accipitridae)

영명: Upland Buzzard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II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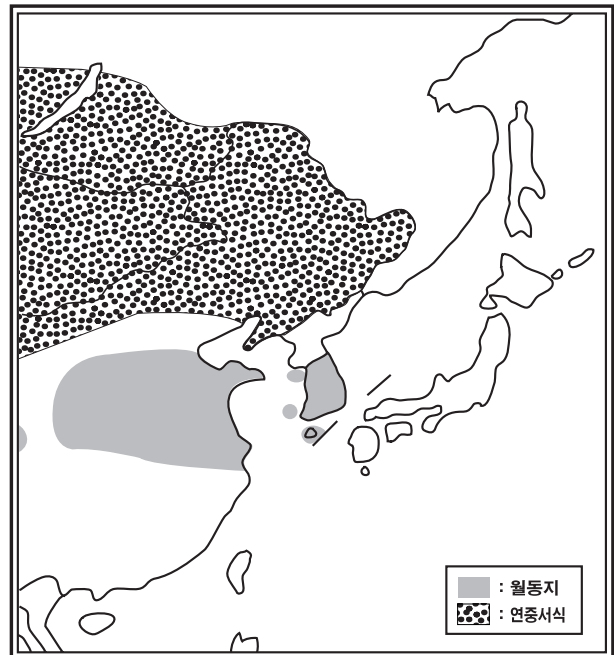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우리나라에 소수의 개체가 도래해 월동하는 겨울철새다. 경기도 시화호, 충청남도 천수만, 등 간척지 및 개활지 등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2010년 27개체가 기록되었으며 점차 관찰되는 개체수가 증가했으나 안정적인지 않고 매년 도래하는 개체수에 변동이 크다. 각종 개발로 인한 서식지 축소로 보호가 요구된다.

## ● 형태

머리는 흰색 바탕에 흐린 갈색 줄무늬가 있고, 몸 윗면은 진한 갈색이며 날개덮깃의 가장자리는 연한 색이다. 몸 아랫면은 흰색 바탕에 가슴과 아랫배에 갈색 굵은 무늬가 흩어져 있다. 옆구리와 넓적다리는 진한 갈색이다. 꼬리는 갈색이 섞인 흰색이며 흑갈색 가는 가로 줄무늬가 5-8줄 있다. 날 때 날개 위, 아랫면의 첫째날개깃 기부가 폭 넓은 흰색으로 보인다. 부척에 짧은 암갈색 깃털이 덮여 있다. 말뚝가리보다 날개와 꼬리가 길며, 앉아있을 때 날개는 거의 꼬리 끝까지 이른다. 어린 새 홍채는 밝은 노란색, 어린 새는 노란색을 띤다(원 1981; 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유연한 날갯짓으로 천천히 날며 넓은 농경지 등 개방된 환경에서 쥐, 곤충, 작은 새 등을 먹는다. 암벽과 산지의 사면에 튀어나온 수목의 가지에 등지를 틀며, 나뭇가지를 쌓아올려 접시모양의 등지를 만든다. 황백색 바탕에 붉은빛 도는 갈색 거친 큰 얼룩무늬와 회색 얼룩무늬가 산재한 알을 2-4개 낳는다(원 1981).

## ● 분포 현황

경기도 시화호, 충청남도 천수만 등 간척지 및 개활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분포한다(김 2010).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에서 번식하지 않는 겨울철새다.

## ● 서식지 동향

우리나라 전역의 농경지, 평지, 간척지, 개활지, 산림 임연부 등에 서식한다.

## ● 개체수 현황

2000년 2개체, 2003년 4개체, 2006년 6개체, 2008년 12개체, 2009년 17개체, 2010년 27개체로 점차 관찰되는 개체수는 증가했으나 안정적이지 않고 매년 도래하는 개체수가 변동이 크다(환경부 1999-2010).

## ● 국제 동향

구체적인 개체수에 대한 자료는 없으며, 티벳, 러시아, 몽골 등의 설치류의 풍부성과 개체수와 관련이 있다(del Hoyo *et al.* 1994).

## ● 위협 요인

각종 개발로 인한 산림과 농경지의 감소로 인한 서식지의 파괴, 먹이의 부족이 주요 위협 요인이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I 급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 ● 평가 결과: LC

IUCN 분류군 위협 범위 평가 기준 및 국내 서식현황 적용 결과 관심대상종(LC)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4.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2. Lynx Edicions, Barcelona. pp.187-188.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김성현. 2010. 멸종위기 수리과(Accipitridae) 조류의 분포와 이동 생태.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pp.507-509.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100.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

*Buteo hemilasius* is wintering bird in Korea. Wintering population size very small. Not globally threatened. The population size is extremely large, and hence does not approach the thresholds for Vulnerable under the population size criterion. Lives mostly on trees. It feeds on small and medium-sized mammals. Nowadays, its habitats has been greatly reduced, The more observation and protection is required to conserve this species. In winter 2010 census, 27 birds counted in South Korea. It meets the criteria for LC.

집필자: 박진영(국립환경과학원), 이한수(한국환경생태연구소)



# 큰소쩍새

*Otus bakkamoena* Pennant, 1769

## 분류학적 위치

올빼미목(Strigiformes) 올빼미과(strigidae)

영명: Collared Scops Owl

지정현황: 천연기념물 제324-7호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흔하지 않은 텃새이며,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슴의 세로 줄무늬에 약간의 가로 줄무늬가 섞여 있다. 주로 평지나 산지의 민가 부근, 산림 또는 사찰 주변의 숲, 침엽수림 등지에 서식하며, 국내에 적지 않은 수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IUCN 분류군 위협 범위 평가 기준 및 국내 서식현황 적용 결과 관심대상종(LC)으로 평가했다.

## ● 형태

가슴의 세로 줄무늬에 약간의 가로 줄무늬도 섞여 있다. 발가락은 깃털로 덮여 있으며, 뒷목에 회색 띠가 보이기도 한다. 홍채는 붉은색이며, 드물지만 눈동자가 노란 개체도 있다(문화재청 2009).



## ● 생물학적 특성

번식기는 5~6월이고 한배 산란 수는 3-5개이며, 알은 흰색이다. 포란기간은 25-27일이다. 포유류, 작은 조류, 파충류, 양서류, 개류 및 곤충 등을 먹는다(이 등 2000, 문화재청 2009).

## ● 분포 현황

정확한 분포지역은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개체 중 대다수가 우수리지역에서 번식하고 난 뒤 가을에 유입되는 개체가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등 2000).

## ● 서식지 동향

주로 평지나 산지의 민가 부근, 산림 또는 사찰 주변의 숲, 침엽수림 등지에 서식한다. 둥지는 노거수의 나무 구멍을 이용하지만 때로는 건물 처마 밑을 이용한다.



## ● 개체수 현황

야행성 조류로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가 미흡한 상태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제주도 대정해안에서 3개체, 성산에서 1개체, 하도리에서 1개체가 확인된 바 있으며, 이후 충청남도 공주, 청양 칠갑산, 김제 청호저수지 등 전국 산림지대 및 하천 주변에서 불규칙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야행성이어서 정확한 개체수 산정은 어려우며, 과거 3년간 실시된 지리산 권역의 로드킬 조사에서 겨울철 49개체 및 기타 지역에서 확인된 로드킬 수를 보아 올빼미류 중에서는 비교적 많은 수가 서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문화재청 2009; 환경부 1999-2010; 환경부 2000-2006).

## ● 국제 동향

동아시아지역의 방글라데시, 부탄, 보르네오 섬, 캄보디아,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북한, 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러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타이완, 태국, 베트남 등지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 개체수는 정확히 산정할 수 없으나, 10,000개체 이하로 추정하며, 특히 10년 내에 약 10%이상 개체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IUCN 2010).

## ● 위협 요인

산림훼손과 오염된 먹이에 의한 영향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 건설로 인해 로드킬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특기 사항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324-7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 ● 평가 결과: LC

IUCN 분류군 위협 범위 평가 기준 및 국내 서식현황 적용 결과 관심대상종(LC)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9.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5. Lynx Edicions, Barcelona. pp.156-158.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184-185.

문화재청. 2009. 문화재대관 천연기념물·명승·동물. 문화재청. pp.138-139.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

환경부. 2000-2006. 전국자연환경조사.

*Otus bakkamoena* has an extremely large range, and hence does not approach the thresholds for Vulnerable under the range size criterion. The population trend appears to be stable, and hence the species does not approach the thresholds for Vulnerable under the population trend criterion. The Collared Scops Owl is a small (23–25 cm) owl, although it is the largest of the scops owls. Like other scops owls, it has small head tufts, or ears. This species is nocturnal but it can often be located by the small birds that mob it while it is roosting in a tree. It feeds mainly on insects. The global population size has not been quantified, but the species is reported to be widespread and locally common. It meets the criteria for LC.

집필자: 백운기(국립중앙과학관), 조해진(한국환경생태연구소)

# 털발말뚝가리

*Buteo lagopus* Pontoppidan, 1763

## 분류학적 위치

매목(Falconiformes) 수리과(Accipitridae)

영명: Rough-legged Buzzard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II급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우리나라 전역에서 월동하는 비교적 드문 겨울철새다. 경기도 시화호, 충청남도 천수만 등 간척지 및 개활지에 분포한다. 2010년 23개체가 기록되었으며 점차 관찰되는 개체수가 증가했으나 안정적이지 않고 매년 도래하는 개체수에 변동이 크다. 각종 개발로 인한 서식지의 축소로 보호가 요구된다.

## ● 형태

배와 옆구리는 암갈색, 흰색 꼬리 끝에 폭이 넓은 암갈색 띠가 있다. 전체적으로 암갈색 반점이 있으며, 특히 몸 윗면에 많고, 부척은 가는 깃털로 덮여있다. 전체적으로 흰색 기운이 강하고 갈색 줄무늬가 있다. 날개덮깃은 담갈색으로 깃 가장자리는 때 묻은 듯한 흰색이다. 가슴은 흰색 바탕에 갈색 세로 줄무늬가 있다. 날 때 몸 윗면의 첫째날개깃 기부에 불명확한 흰색이 보이며, 몸 아래면의 첫째날개깃 기부의 명확한 흰색이 보인다. 다리의 긴 깃이 특징이다(원 1981; 이 등 2000).



## ● 생물학적 특성

평지의 구릉, 농경지, 하천변 등에서 정지 비행으로 땅 위의 설치류나 작은 조류를 잡아먹는다. 북반구의 한대 툰드라 지대 및 아한대 북부의 침엽수림대에서 툰드라 지대로 넘어가는 지역에서 번식한다. 겨울철에는 보다 온난한 지역, 즉 유라시아대륙에서는 거의 북위 40-55도 지역, 북아메리카대륙에서는 거의 북위 35-50도 지역에서 월동한다. 해안의 암벽 위, 툰드라의 구릉지대 나무위에 둥지를 튼다. 5-6월 푸른색을 띤 흰색 알을 3-4개 낳는다. 포란기간은 31일 정도이며, 육추기간은 41일 정도다(원 1981).

## ● 분포 현황

경기도 시화호, 충청남도 천수만 등 간척지 및 개활지를 중심으로 전국에 분포한다(김 2010).

##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에서 번식하지 않는 겨울철새다.

## ● 서식지 동향

우리나라 전역의 농경지, 평지, 간척지, 개활지, 산림 임연부 등에 서식한다.

## ● 개체수 현황

1999년 4개체, 2003년 5개체, 2005년 5개체, 2007년 3개체, 2008년 22개체, 2010년 23개체로 점차 관찰되는 개체수는 증가했으나 안정적이지 않고 매년 도래하는 개체수의 변동이 크다(환경부 1999-2010).

## ● 국제 동향

구체적인 개체수에 대한 자료는 없으며, 1986년 북미 일부 지역의 월동 개체수 조사에서 약 50,000개체, 1990년대 초 러시아지역에 약 200,000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del Hoyo *et al.* 1994).

## ● 위협 요인

각종 개발로 인한 산림과 농경지의 감소 등 서식지의 축소와 먹이의 부족이 주요 위협 요인이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II 급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 ● 평가 결과: LC

IUCN 분류군 위협 범위 평가 기준 및 국내 서식현황 적용 결과 관심대상종(LC)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4.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2. Lynx Edicions, Barcelona. pp.188.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김성현. 2010. 멸종위기 수리목(Accipitridae) 조류의 분포와 이동 생태.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pp.505-507.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pp.100.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Buteo lagopus* is uncommon winter visitor and migrant in Korea. Wintering population size very small. Not globally threatened. The population size is extremely large, and hence does not approach the thresholds for Vulnerable under the population size criterion. It lives on a tree alone or as a couple, and rarely comes down to the ground. It feeds on small and medium-sized mammals. Nests mostly in river valleys, building nests on precipices, slopes, in raised places. In winter 2010 census, 23 birds counted in South Korea. It meets the criteria for LC.

집필자: 박진영(국립환경과학원), 이한수(한국환경생태연구소)

# 호사도요

*Rostratula benghalensis* Linnaeus, 1758

## 분류학적 위치

도요목(Charadriiformes) 호사도요과(Rostratulidae)

영명: Painted Snipe

지정현황: 천연기념물 제449호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매우 희귀한 나그네새이자 겨울철새로 알려져 있으며, 천수만에서 번식한 기록이 있다. 논, 물가의 풀숲, 연못 호반가, 초습지 등 물가에 서식한다. 아시아, 이집트에 서식하며, 지역적으로 서식 개체수의 차이가 크지만 정확한 개체수를 파악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심대상종(LC)로 평가했다.

## ● 형태

수컷의 이마에서 머리꼭대기와 뒷머리까지 갈색을 띤 황색의 폭 넓은 머리 중앙선이 지나고 그 양쪽은 어두운 올리브색이며, 각 깃털에는 가는 흰색 가장자리가 있다. 눈 위는 다소 옅은 갈색을 띤다. 눈 주위에는 옅은 황갈색을 띤 흰색 고리모양 얼룩무늬가 있고 눈 뒤에는 짧은 선이 지나간다. 눈앞은 어두운 갈색이며, 얼굴은 어두운 갈색으로 흰색 작은 얼룩무늬가 있다. 턱밑과 멍은 어두운 흰색을 띤다. 뒷목은 회색빛 도는 갈색이며 검고 가는 갈색 가는 가로띠가 있고 목옆은 옅은 갈색으로 각 깃 가장자리에는 작은 흰색 얼룩무늬가 있다. 등과 어깨깃은 녹색 광택을 띤 올리브 갈색이고 가는 흰색 가로 얼룩무늬 또는 어두운 올리브색과 황갈색 얼룩무늬가 있다. 등 양쪽에는 어두운 갈색 가로 얼룩무늬로 된 선이 1개 있어 어깨깃과 연결되고 어깨깃 안쪽에는 불규칙한 선이 2개 있다.



## ● 생물학적 특성

논, 물가의 풀숲, 연못, 호반가, 초습지 등 물가에 살며, 암수 또는 작은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 암컷은 구애와 과시 행동을 하며, 지상에서 날개를 위로 뻗어 마치 나비가 날개를 펼치듯이 날갯짓을 하며 몸을 좌우로 움직이고, 때로는 방향을 바꾸어가며 도약도 하고 꼬리를 상하로 움직인다. 수컷이 포란을 전담하며 포란기간은 19일이다. 일처다부로 생활하며 암컷은 산란 후 다른 수컷과 교미해 다른 둥지에서 알을 낳는다. 부화 직후의 새끼는 온 몸에 어린 솜털이 밀생한다. 부화한 새끼는 반나절이 지나면 곧 둥지를 떠난다. 어린 새는 성숙한 수컷과 비슷하다. 어린 암컷은 몸집이 크다. 곤충류, 연체동물의 부족류, 지렁이, 벼, 기타 풀씨 등을 먹는 잡식성이다.

## ● 분포 현황

우리나라에 충청남도 천수만, 대호저수지, 연기군, 경상북도 달성습지, 화원, 부산시 낙동강 등지에서 관찰 기록이 있다.

## ● 번식지 동향

2000년 천수만에서 최초로 번식이 확인되었으며, 2001년 번식 등지 4개를 관찰한 기록이 있다.

## ● 서식지 동향

논, 물가의 풀숲, 연못 호반가, 초습지 등 물가에 서식한다.

## ● 개체수 현황

1994년 충청남도 연기군에서 2개체, 대호저수지에서 1개체, 1995년 부산시 낙동강에서 1개체, 1999년 충청남도 대호저수지에서 2개체, 경상북도 달성습지에서 6개체, 2000년 천수만에서 2개체, 경상북도 화원에서 1개체, 2001년 천수만에서 3개체, 충청남도 대호저수지에서 2개체를 관찰한 기록이 있다. 2003년 1개체, 2006년 1개체를 관찰한 기록이 있다.

## ● 국제 동향

일본, 중국, 남쪽은 타이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아프리카, 일본은 혼슈 이남에서 큐슈까지 걸쳐 번식한다. 국제적으로 희귀하나 국지적으로 개체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정확한 정보는 없다.

## ● 위협 요인

서식지인 습지의 감소와 사냥이 위협 요인이다.

## ● 특기 사항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449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 ● 평가 결과: LC

IUCN 분류군 위협 범위 평가 기준 및 국내 서식현황 적용 결과 관심대상종(LC)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6.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3. Lynx Edicions, Barcelona. 821pp.
- 문화재청. 2007. 중장기 천연기념물(동물) 분포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 182pp.
- 박진영. 2002. 한국의 조류 현황과 분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1,126pp.
- 조삼래, 김정훈, 김현태, 강희영. 2001. 서산 A, B 지구의 하계조류상 및 번식실태. 한국조류학회지 8(1): 11-22.
- 환경부. 2006-2008.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Rostratula benghalensis* is summer breeding visitor to Korea. In Korea, to breed is first recorded in 2000. Habitat was wetlands in tropical and subtropical lowlands. Mainly sedentary in Asia, and in Egypt. Short migrations reported from NE China, NW India and Japan. Not globally threatened. Generally uncommon to frequent and even locally common. Few population estimates available, and population trends difficult to establish. It meets the criteria for LC.

집필자: 김진한(국립생물자원관), 강태한(한국환경생태연구소)

# 흰눈썹황금새

*Ficedula zanthopygia* Hay, 1845

## 분류학적 위치

참새목(Passeriformes) 딱새과(Muscicapidae)

영명: Yellow-rumped Flycatcher

지정현황: -

IUCN 범주: LC (관심대상종)

## ● 요약

전국적으로 번식하는 흔하지 않는 여름철새다. 극동 러시아, 중국에 비교적 흔하며, 러시아 우수리지역에서는 100쌍/km<sup>2</sup>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심대상종(LC)으로 평가했다.

## ● 형태

수컷은 몸 윗면이 검은색이다. 눈썹선은 흰색이며 분명하다. 암컷의 눈썹선은 짧고 선명하지 않다. 몸 아랫면은 황색이다. 부리는 검은색이며, 다리는 어두운 갈색이다.



## ● 생물학적 특성

도시의 공원 및 정원, 평지, 활엽수림, 활엽수와 침엽수가 함께 자라는 숲 등 도처에 서식한다. 둥지는 주로 전나무 가지 위에 만들거나 나무 구멍, 인공 둥지 상자를 이용한다. 알 낳는 시기는 5월경이며, 알 5-6개를 낳는다.

## ● 분포 현황

전국의 도시 공원, 정원, 평지와 구릉의 소림이나 활엽수 및 혼효림이 있는 지역에 분포한다.

## ● 번식지 동향

전국의 도시 공원, 정원, 평지와 구릉의 소림이나 활엽수 및 혼효림 등에 번식한다.

## ● 서식지 동향

도시 공원, 정원, 평지와 구릉의 소림이나 활엽수 및 혼효림 등에 서식한다.

## ● 개체수 현황

2006년 서산, 천안, 충주 등에서 15개체, 2007년 대청도, 연평도, 경기도 고양시 등지에서 30개체, 2008년 경기도 파주, 강원도 인제 등지에서 100여 개체, 2009년 흑산도에서 42개체, 홍도에서 15개체를 관찰한 기록이 있다. 정밀조사가 수행된다면 전국적으로 더 많은 개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 동향

구북구 동부, 바이칼 호수 인근, 몽골 동부에서 아무르 분지까지, 우수리지역, 만주, 한국, 중국 동부에 분포한다. 겨울에는 남하 이동해, 말레이 반도, 수마트라 등지에서 월동한다. 극동 러시아, 중국에 비교적 흔하며, 러시아 우수리지역에서는 100쌍/km<sup>2</sup>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위협 요인

개발에 의해 풀숲, 관목림, 초지 등이 훼손 및 감소되고, 이에 따라 서식밀도도 낮아지고 있다.

## ●특기 사항

환경부 지정 보호종이다.

## ●평가 결과: LC

IUCN 분류군 위협 범위 평가 기준 및 국내 서식현황 적용 결과 관심대상종(LC)으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del Hoyo, J., A. Elliott and Christie, D.A. eds. 2006.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11. Lynx Edicions, Barcelona. 798pp.
- 국립공원관리공단. 2009. 2009 조류 조사 · 연구 결과 보고.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
-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1,126pp.
-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320pp.
- 환경부. 2006-2008.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Ficedula zanthopygia* is summer visitor in Korea. Food includes small invertebrates. Breeding season late May to Jul. Nest a cup of moss, dry grasses and plant fibres, placed in hole in tree or on branch or in trunk. Not globally threatened. Generally common in Russian Far East and China In Ussuriland, density up to 100pairs/km<sup>2</sup> of forest. It meets the criteria for LC.

집필자: 채희영(국립공원철새연구센터), 이시완(한국환경생태연구소)

# 시베리아흰두루미

*Grus leucogeranus* Pallas, 1773

**분류학적 위치**

두루미목(Gruiformes) 두루미과(Gruidae)

영명: Siberian Crane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II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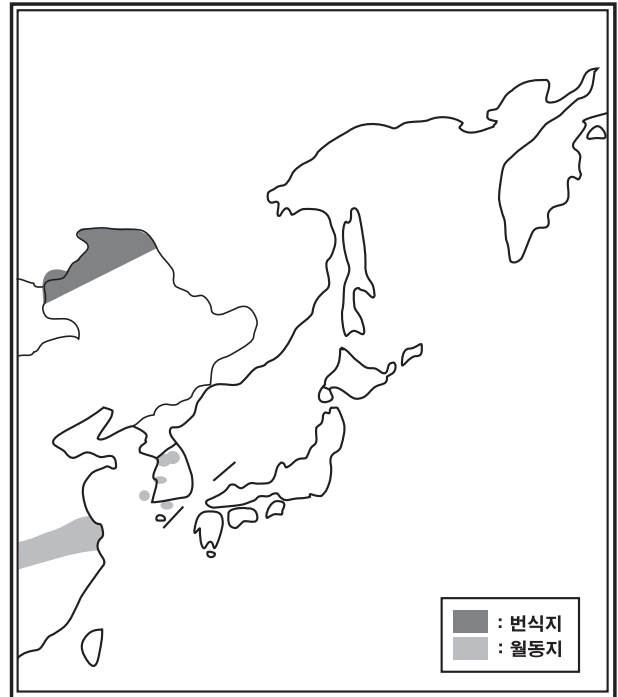
IUCN 범주: CR (위급종)

**● 요약**

순천만, 고흥습지, 파주 등에 비정기적으로 도래하는 겨울철새이자 국제적 보호조류다. 다른 두루미 무리에 섞여 1-2개체가 드물게 관찰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집단의 규모가 작고, 국지적으로 격리되어 서식하는 점 등을 고려해 미적용(NA)으로 평가했다.

**● 형태**

몸길이는 약 135cm이며, 두루미류 중 큰 편에 속한다. 부리는 길고 굽으며, 어두운 붉은색이다. 눈 주변은 피부가 드러나 어두운 붉은색이다. 몸 색깔은 흰색이며, 첫째날개깃과 첫째날개덮깃은 검은색이다. 첫째날개덮깃의 끝은 흰색이며, 둘째날개깃 및 셋째날개깃은 흰색으로 길게 늘어져서 꼬리깃을 덮는다. 다리와 발은 연한 붉은색이다. 어린 새는 머리, 목, 등, 날개덮깃, 셋째날개깃이 황갈색이어서 온 몸이 흰색과 황갈색으로 얼룩져 보인다(원 1996; 이 등 2000; 이와 이 2009).



**● 생물학적 특성**

툰드라와 산림 툰드라 지대에 서식하고 이동 시기에는 큰 호숫가에 머문다. 호숫가의 습기와 이끼가 가득 찬 곳, 언덕이나 물 가운데 작은 섬에 암수가 함께 크고 평평한 둥지를 만든다. 번식기는 5월 말부터 6월이며, 보통 알을 2개 낳지만 번식 성공률은 1개체 이상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원 1996; 배 2000; 이 등 2000; 이와 이 2009).

**● 분포 현황**

경기도 파주, 칠원평야, 천수만, 순천만갯벌, 고흥습지 등 하구갯벌과 인적이 드문 넓은 평야지대에 일부 분포한다.

**● 번식지 동향**

우리나라에서는 번식하지 않으며 겨울철에 비정기적으로 도래한다.

## ● 서식지 동향

습지의 수변부 및 사람의 접근이 없는 낙곡이 떨어진 농경지 등을 선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동 중에 잠시 머무르거나 다른 두루미류와 섞여서 소수가 철원평야나 천수만, 순천만, 고흥 등에서 먹이 활동하는 모습이 관찰된 바 있다(배 2000).

## ● 개체수 현황

1992년 11월 2일 경기도 과주군 탄현면 대동리에서 재두루미 무리와 섞여 있는 1개체가 관찰되었으며, 1995년 2월과 1999년 11월에 철원 비무장지대에서도 각각 1개체의 어린 새가 관찰되었다. 2004년 11월 19일 충청남도 서산 천수만에서 어린 새 1개체가 관찰되었으며, 천수만에서 비상한 동일 개체가 6시간 뒤 흑산도 모래갯벌 해안에서 재확인 되었다. 2008년 12월 11일 순천만에서 1개체, 같은 해 12월 17일 고흥만 인공습지에서 어린 새 1개체가 관찰되었다. 또한, 2008년 12월 21일에는 천수만 농경지에서 어린 새 1개체가 관찰된 바 있다(Pae *et al.* 1996; 환경부 1997-2009; 환경부. 1999-2010; 배 2000; 문화재청 2006, 2007).

## ● 국제 동향

오브 강 저지와 야나(Yana) 및 콜리마(Kolyma) 강 사이에 자리하는 야쿠티아, 시베리아 서부의 격리된 두 무리가 지구상 생존 집단의 전부이며, 인도, 이란 및 중국 동남부에서 월동한다. 인도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남부, 중국, 한국, 일본 등에서 매우 드물게 월동하며, 2008년 야나와 콜리마 강 사이의 동부 집단 조사를 통해 3,750개체 정도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개체들은 전체 개체군의 약 9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IUCN 2010).

## ● 위협 요인

사냥이 큰 위협 요인이다.

## ● 특기 사항

환경부 멸종위기 II 급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 ● 평가 결과: NA

국제적으로 생존 집단이 매우 적고, 지역적으로 격리되어 서식되는 IUCN에서는 위급종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비정기적으로 극소수가 도래하는 미조로 전체 생존 집단의 1% 미만이 도래하고 있어, 미적으로 평가했다.

## ● 참고문헌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Pae, Seong-Hwan Kaliher, Frances T. Lee, Jae-Bum Won, Pyong-Oh Yoo, Jeong-Chil. 1996. 한국에 도래하는 두루미류의 월동현황. 경희대학교 한국조류연구소. 연구보고, 5: 13-20.

문화재청. 2006. 2006년 천연기념물 모니터링. 문화재청. 124pp.

문화재청. 2007. 중장기 천연기념물(동물) 분포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 182pp.

배성환. 2000. 비무장지대에 월동하는 두루미의 서식지이용에 관한 연구: 월동수용능력과 GIS를 이용한 공간분포분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기섭, 이종렬. 2009. 새. 필드가이드. 288pp.  
이우신, 구태회,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320pp.  
원병오. 1996. 한국의 조류. 교학사. 453pp.  
환경부. 1997-2009.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Grus leucogeranus* is a large crane which winters in southern Korea. In Korea this species occur irregularly in Cheolwon, Suncheon bay, Cheonsu bay, Goheung bay etc. It recorded very small group(1-2 individuals) in winter. It breeds in arctic Russia in Yakutia and western Siberia. The global population is about 3,750, of which over 95% belongs to the eastern population and winters at Poyang Hu in 2008. It meets the criteria for CR D(1).

집필자: 김진한(국립생물자원관), 송민정(한국환경생태연구소)

## 5. 연구진

### 5.1. 참여 연구진

성명	소속	참여 업무
이한수	한국환경생태연구소	총괄
이시완	한국환경생태연구소	집필
백운기	국립중앙과학관	집필
이기섭	한국물새네트워크	집필
채희영	국립공원철새연구센터	집필
박진영	국립환경연구원	집필
김창희	국립환경연구원	집필
김진한	국립생물자원관	집필
김인규	한국환경생태연구소	집필
강태한	한국환경생태연구소	집필
송민정	한국환경생태연구소	집필
조해진	한국환경생태연구소	집필
김달호	한국환경생태연구소	집필
신용운	한국환경생태연구소	집필

### 5.2. 집필진

#### 강태한 KTH 한국환경생태연구소

(우) 305-509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754번지  
Tae-Han Kang, Team Manager, Korea Institute of Environmental Ecology,  
754 Gwanpyungdong Yusunggu Daejeon, 305-509, Republic of Korea

#### 김달호 KDH 한국환경생태연구소

(우) 305-509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754번지  
Dal-Ho Kim, Researcher, Korea Institute of Environmental Ecology,  
754 Gwanpyungdong Yusunggu Daejeon, 305-509, Republic of Korea

#### 김인규 KIK 한국환경생태연구소

(우) 305-509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754번지  
In-Kyu Kim, Vice Director, Korea Institute of Environmental Ecology,  
754 Gwanpyungdong Yusunggu Daejeon, 305-509, Republic of Korea

#### 김진한 KJH 국립생물자원관

(우) 404-708 인천시 서구 난지로 42  
Jin-Han Kim, Senior 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42 Nanjiro Seogu Incheon, 404-708, Republic of Korea

**김창희 KCH** 국립환경과학원

(우) 404-708 인천시 서구 난지로 184  
Chang-Hoe Kim, Senior 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184 Nanjiro Seogu Incheon, 404-708, Republic of Korea

**박진영 PJY** 국립환경과학원

(우) 404-708 인천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Jin-Young Park, Senior 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184 Nanjiro Seogu Incheon, 404-708, Republic of Korea

**백운기 PWK** 국립중앙과학관

(우) 305-705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11  
Woon-Kee Paek, Senior Researcher, National Science Museum,  
511 Daedeokdaero Yuseongu Daejeon, 305-705, Republic of Korea

**송민정 SMJ** 한국환경생태연구소

(우) 305-509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754번지  
Min-Jung Song, Team Manager, Korea Institute of Environmental Ecology,  
754 Gwanpyungdong Yuseongu Daejeon, 305-509, Republic of Korea

**신용운 SYU** 한국환경생태연구소

(우) 305-509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754번지  
Yong-Un Shin, Researcher, Korea Institute of Environmental Ecology,  
754 Gwanpyungdong Yuseongu Daejeon, 305-509, Republic of Korea

**이기섭 LKS** 한국물새네트워크

(우) 110-776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운현궁SK허브빌딩 101동 804호  
Ki-Sup Lee, Director, Korea Waterbird Network, #101-804 Unhyeongung SK Herb Building  
Kyungundong Jongrogu Seoul, 110-776, Republic of Korea

**이시완 LSW** 한국환경생태연구소

(우) 305-509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754번지  
Si-Wan Lee, Director, Korea Institute of Environmental Ecology,  
754 Gwanpyungdong Yuseongu Daejeon, 305-509, Republic of Korea

**이한수 LHS** 한국환경생태연구소

(우) 305-509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754번지  
Han-Soo Lee, President, Korea Institute of Environmental Ecology,  
754 Gwanpyungdong Yuseongu Daejeon, 305-509, Republic of Korea

**조해진 CHJ** 한국환경생태연구소

(우) 305-509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754번지  
Hae-Jin Cho, Team Manager, Korea Institute of Environmental Ecology,  
754 Gwanpyungdong Yuseongu Daejeon, 305-509, Republic of Korea

**채희영 CHY** 국립공원철새연구센터

(우) 535-916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흥도리  
Hee-Young Chae, Chief, National Park Migratory Birds Center,  
Hongdori Heuksanmyeon Sinangun Jeollanamdo, 535-916, Republic of Korea

## 6. 적색목록 분류체계

학명	국명	범주	집필자
PODICIPEDIFORMES 논병아리목			
<i>Podiceps grisegena</i> (Boddaert, 1783)	큰논병아리	NT	LKS, KIK
<i>Podiceps cristatus</i> (Linnaeus, 1758)	빨논병아리	LC	KIK, LKS
CICONIIFORMES 황새목			
ARDEIDAE 백로과			
<i>Egretta eulophotes</i> (Swinhoe, 1860)	노랑부리백로	EN	LKS, SMJ
<i>Gorsachius goisagi</i> (Temminck, 1835)	붉은해오라기	EN	LKS, SMJ
<i>Ixobrychus eurhythmus</i> (Swinhoe, 1873)	큰덤불해오라기	VU	LKS, SYU
<i>Botaurus stellaris</i> (Linnaeus, 1758)	알락해오라기	NT	LKS, KIK
CICONIIDAE 황새과			
<i>Ciconia nigra</i> (Linnaeus, 1758)	먹황새	EN	LKS, SYU
<i>Ciconia boyciana</i> (Swinhoe, 1873)	황새	EN	LKS, SMJ
THRESKIORNITHIDAE 저어새과			
<i>Nipponia nippon</i> (Temminck, 1849)	따오기	RE	LKS, SMJ
<i>Platalea leucorodia</i> (Linnaeus, 1758)	노랑부리저어새	VU	LKS, SYU
<i>Platalea minor</i> (Temminck & Schlegel, 1849)	저어새	VU	LKS, SMJ
ANSERIFORMES 기러기목			
ANATIDAE 오리과			
<i>Cygnus olor</i> (Gmelin, 1789)	흑고니	EN	KCH, SMJ
<i>Cygnus cygnus</i> (Linnaeus, 1758)	큰고니	VU	KCH, LHS
<i>Cygnus columbianus</i> (Ord, 1815)	고니	VU	KCH, SYU
<i>Anser cygnoides</i> (Linnaeus, 1758)	개리	EN	KCH, CHJ
<i>Anser fabalis</i> (Latham, 1787)	큰기러기	LC	KCH, LHS
<i>Anser erythropus</i> (Linnaeus, 1758)	흰이마기러기	VU	KCH, SYU
<i>Anser caerulescens</i> (Linnaeus, 1758)	흰기러기	NT	KCH, KIK
<i>Branta bernicla</i> (Linnaeus, 1758)	흑기러기	VU	KCH, SYU
<i>Tadorna cristata</i> (Kuroda, 1917)	원앙사촌	RE	KCH, KIK
<i>Aix galericulata</i> (Linnaeus, 1758)	원앙	LC	KCH, KIK
<i>Anas falcata</i> (Georgi, 1775)	청머리오리	LC	KCH, CHJ
<i>Anas formosa</i> (Georgi, 1775)	가창오리	LC	KCH, LHS
<i>Aythya baeri</i> (Radde, 1863)	붉은가슴흰죽지	EN	KCH, KIK

<i>Histrionicus histrionicus</i> (Linnaeus, 1758)	흰줄박이오리	NT	KCH, KIK
<i>Mergus squamatus</i> (Gould, 1864)	호사비오리	EN	KCH, SMJ
FALCONIFORMES 매목			
ACCIPITRIDAE 수리과			
<i>Pandion haliaetus</i> (Linnaeus, 1758)	물수리	VU	PJY, KDH
<i>Pernis ptilorhyncus</i> (Temminck, 1821)	벌매	VU	PJY, KDH
<i>Milvus migrans</i> (Boddaert, 1783)	솔개	VU	PJY, KDH
<i>Haliaeetus albicilla</i> (Linnaeus, 1758)	흰꼬리수리	VU	PJY, KDH
<i>Haliaeetus pelagicus pelagicus</i> (Pallas, 1811)	참수리	EN	PJY, LHS
<i>Aegypius monachus</i> (Linnaeus, 1766)	독수리	VU	PJY, KDH
<i>Butastur indicus</i> (Gmelin, 1788)	왕새매	LC	PJY, KTH
<i>Circus cyaneus</i> (Linnaeus, 1766)	젓빛개구리매	LC	PJY, KDH
<i>Circus melanoleucos</i> (Pennant, 1769)	알락개구리매	LC	PJY, KDH
<i>Circus spilonotus</i> (Kaup, 1847)	개구리매	LC	PJY, LSW
<i>Accipiter soloensis</i> (Horsfield, 1821)	붉은배새매	VU	PJY, KTH
<i>Accipiter gularis</i> (Temminck & Schlegel, 1844)	조롱이	VU	PJY, KDH
<i>Accipiter nisus</i> (Linnaeus, 1758)	새매	VU	PJY, LHS
<i>Accipiter gentilis schvedowi</i> (Linnaeus, 1758)	참매	VU	PJY, LSW
<i>Buteo buteo</i> (Linnaeus, 1758)	말뚝가리	LC	PJY, LSW
<i>Buteo lagopus menzbieri</i> (Pontoppidan, 1763)	털발말뚝가리	LC	PJY, LHS
<i>Buteo hemilasius</i> (Temminck & Schlegel, 1844)	큰말뚝가리	LC	PJY, LHS
<i>Aquila clanga</i> (Pallas, 1811)	항라머리검독수리	VU	PJY, LHS
<i>Aquila heliaca</i> (Savigny, 1809)	흰죽지수리	VU	PJY, LHS
<i>Aquila chrysaetos</i> (Linnaeus, 1758)	검독수리	EN	PJY, LSW
FALCONIDAE 매과			
<i>Falco amurensis</i> (Radde, 1863)	비둘기조롱이	NT	PJY, LHS
<i>Falco columbarius</i> (Linnaeus, 1758)	쇠황조롱이	NT	PJY, LSW
<i>Falco subbuteo</i> (Linnaeus, 1758)	새홀리기	VU	PJY, SYU
<i>Falco peregrinus</i> (Tunstall, 1771)	매	VU	PJY, LHS
GRUIFORMES 두루미목			
GRUIDAE 두루미과			
<i>Grus grus</i> (Linnaeus, 1758)	검은목두루미	LC	KJH, LHS
<i>Grus monacha</i> (Temminck, 1835)	흑두루미	VU	KJH, LHS
<i>Grus japonensis</i> (Müller, 1776)	두루미	EN	KJH, KIK
<i>Grus vipio</i> (Pallas, 1811)	재두루미	EN	KJH, LSW
<i>Grus leucogeranus</i> (Pallas, 1773)	시베리아흰두루미	NA	KJH, SMJ



RALLIDAE 뜰부기과			
<i>Porzana fusca</i> (Linnaeus, 1766)	쇠뜰부기사촌	LC	KJH, KTH
<i>Gallicrex cinerea</i> (Gmelin, 1789)	뜰부기	VU	KJH, LSW
OTIDIDAE 느시과			
<i>Otis tarda</i> (Linnaeus, 1758)	느시	EN	KJH, LHS
CHARADRIIFORMES 도요목			
ROSTRATULIDAE 호사도요과			
<i>Rostratula benghalensis</i> (Linnaeus, 1758)	호사도요	LC	KJH, KTH
HAEMATOPODIDAE 검은머리물떼새과			
<i>Haematopus ostralegus</i> (Linnaeus, 1758)	검은머리물떼새	VU	KJH, LHS
CHARADRIIDAE 물떼새과			
<i>Charadrius placidus</i> (Gray & Gray, 1863)	흰목물떼새	VU	KJH, LHS
SCOLOPACIDAE 도요과			
<i>Numenius madagascariensis</i> (Linnaeus, 1766)	알락꼬리마도요	VU	KJH, LSW
<i>Tringa totanus</i> (Linnaeus, 1758)	붉은발도요	LC	KJH, KTH
<i>Tringa guttifer</i> (Nordmann, 1835)	청다리도요사촌	EN	KJH, KIK
<i>Gallinago hardwickii</i> (Gray, 1831)	큰각도요	LC	KJH, KTH
<i>Eurynorhynchus pygmeus</i> (Linnaeus, 1758)	넓적부리도요	CR	KJH, SMJ
LARIDAE 갈매기과			
<i>Larus relictus</i> (Lönnerberg, 1931)	고대(적호)갈매기	EN	PWK, LHS
<i>Larus saundersi</i> (Swinhoe, 1871)	검은머리갈매기	EN	PWK, LHS
<i>Sterna albifrons</i> (Pallas, 1764)	쇠제비갈매기	LC	PWK, KTH
ALCIDAE 바다오리과			
<i>Brachyramphus perdix</i> (Pallas, 1811)	알락쇠오리	NT	PWK, LHS
<i>Synthliboramphus wumizusume</i> (Temminck, 1835)	빨쇠오리	EN	PWK, SMJ
COLUMBIFORMES 비둘기목			
COLUMBIDAE 비둘기과			
<i>Columba rupestris</i> (Pallas, 1811)	양비둘기	LC	PWK, KTH
<i>Columba janthina</i> (Temminck, 1830)	흑비둘기	VU	PWK, SMJ
STRIGIFORMES 올빼미목			
STRIGIDAE 올빼미과			
<i>Otus sunia</i> (Hodgson, 1836)	소쩍새	LC	PWK, CHJ
<i>Otus bakkamoena</i> (Pennant, 1769)	큰소쩍새	LC	PWK, CHJ
<i>Bubo bubo</i> (Linnaeus, 1758)	수리부엉이	VU	PWK, SMJ
<i>Strix aluco</i> (Pallas, 1771)	올빼미	VU	PWK, SMJ
<i>Strix uralensis</i> (Pallas, 1771)	긴점박이올빼미	EN	PWK, LSW

<i>Asio otus</i> (Linnaeus, 1758)	쇠부엉이	LC	PWK, CHJ
<i>Asio flammeus</i> (Pontoppidan, 1763)	쇠부엉이	LC	PWK, CHJ
PICIFORMES 딱다구리목			
PICIDAE 딱다구리과			
<i>Dryocopus javensis richardsi</i> (Tristan, 1879)	크낙새	RE	PWK, SMJ
<i>Dryocopus martius</i> (Linnaeus, 1758)	까막딱다구리	VU	PWK, KTH
PASSERIFORMES 참새목			
PITTIDAE 팔색조과			
<i>Pitta nympha</i> (Temminck & Schlegel, 1850)	팔색조	VU	CHY, KTH
ALAUDIDAE 종다리과			
<i>Galerida cristata</i> (Linnaeus, 1758)	빨종다리	VU	CHY, KIK
<i>Alauda arvensis</i> (Linnaeus, 1758)	종다리	LC	CHY, KTH
LANIIDAE 때까치과			
<i>Lanius cristatus</i> (Linnaeus, 1758)	노랑때까치	LC	CHY, LHS
BOMBYCILLIDAE 여새과			
<i>Bombycilla japonica</i> (Siebold, 1824)	홍여새	NT	CHY, CHJ
SYLVIIDAE 휘파람새과			
<i>Locustella pleskei</i> (Taczanowski, 1889)	섬개개비	VU	CHY, KIK
MUSCICAPIDAE 딱새과			
<i>Ficedula zanthopygia</i> (Hay, 1845)	흰눈썹황금새	LC	CHY, LSW
MONARCHIDAE 긴꼬리딱새과			
<i>Terpsiphone atrocaudata</i> (Eyton, 1839)	긴꼬리딱새(삼광조)	VU	CHY, KTH
EMBERIZIDAE 멧새과			
<i>Emberiza yessoensis</i> (Swinhoe, 1874)	쇠검은머리쭈새	VU	CHY, KIK
<i>Emberiza fucata</i> (Pallas, 1776)	붉은뺨멧새	LC	CHY, LSW
<i>Emberiza aureola</i> (Pallas, 1773)	검은머리쭈새	VU	CHY, LHS
<i>Emberiza sulphurata</i> (Temminck & Schlegel, 1848)	무당새	VU	CHY, KIK
FRINGILLIDAE 되새과			
<i>Eophona migratoria</i> (Hartert, 1903)	밀화부리	LC	CHY, CHJ

## 7. 참고문헌

- 강승구. 2004. 참수리의 연령에 따른 날개깃 꼬리깃 변화의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정훈, 강태한, 유승화, 조해진, 이시완, 김인규. 2008. 천연기념물 무인도서(칠발도, 사수도, 난도, 홍도)의 번식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조류학회지, 15(2): 169-175.
- 강정훈, 김인규, 유승화, 강태한, 백운기. 2008. 한국의 천연기념물 조류의 현황과 서식실태. 한국조류학회지, 15(1): 73-84.
- 강태한. 2009. 한강 하구에 도래하는 재두루미(*Grus vipio*)의 서식지 이용에 관한 연구. 전라남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화군. 2003.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서식실태와 관리방안 연구. 612pp.
- 국립공원관리공단. 2006-2010. 조류조사·연구결과보고서.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전국 천연기념물 분포지도. 국립문화재연구소. 184pp.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중장기 천연기념물(동물) 분포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182pp.
- 國務院. 1988. 中國國家重點保護野生動物名簿. <http://zh.wikipedia.org>.
- 국토해양부. 2008. 연안습지 생태계 조사. 382pp.
- 국토해양부. 2010. 인천시·김포시 무인도서 실태조사 및 관리유형 지정방안 마련 연구. 국토해양부. 459pp.
- 군산시. 2009. 금강 및 새만금 지역 조류변화상 연구. 180pp.
- 권영수, 유정철. 2005. 경상북도 독도에서 확인된 뿔쇠오리의 번식기록. 한국조류학회지, 12(2): 83-86.
- 권영수, 정훈. 2009. 서해안 송도매립지에서 번식하는 검은머리갈매기의 현황과 번식생태. 한국해양학회지 vol.31(3):277-282.
- 김동원. 2009. 봄철 하태도의 조류 번식 및 이동 양상. 한국조류학회지, 16(2): 93-106.
- 김성현. 2006. 칠산도 일대에 도래하는 멸종위기종 노랑부리백로(*Egretta eulophotes*)의 번식생태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현. 2010. 멸종위기 수리과(Accipitridae) 조류의 분포와 이동 생태.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수경, 김남신, 정석환, 김영훈, 성하철, 박시룡. 2008. GIS를 이용한 황새(*Ciconia boyciana*) 번식지의 환경특성-1970년대의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1(1): 125-137.
- 김수경. 2009. GIS 기반 다기준평가 기법을 이용한 황새(*Ciconia boyciana*) 재도입 적합지 평가.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호, 강희만, 강창완, 김은미, 김화정, 지남준, 장용창, 오홍식. 2010. 봄철 마라도의 조류상. 한국조류학회지, 17(1): 27-35.
- 김영호, 오홍식, 장용창, 최수산. 2010. 삼광조(*Terpsiphone atrocaudata*)의 둥지 장소 선택 환경. 한국조류학회지 17(1): 11-19.
- 김완병, 오홍식, 박행신. 1998. 저어새 *Platalea minor*의 도래현황과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류학회지 5: 27-33.
- 김완병, 오홍식. 2009. 지귀도의 조류상. 한국조류학회지, 16(2): 115-121.
- 김은미, 오홍식, 김상범, 김원택. 2003. 제주도에서 팔색조(*Pitta nympha* Temminek & Schlegel)의 분포와 서식 환경. 한국조류학회지 10(2): 77-86.
- 김정희. 2009. 먹이 밀도와 수심의 변화에 따른 황새(*Ciconia boyciana*)의 섭식행동 특성. 한국교원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현. 2006. 서산 A,B지구 간척지에 도래하는 황새(*Ciconia boyciana*)의 월동 생태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희, 강중현, 이윤경, 김동원, 서재화, 김명진. 2010.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멸종위기조류의 국내 분포현황. 한국조류학회지, 17: 67-137.
- 김창희, 강중현, 이윤경, 김동원, 서재화, 김명진. 2010.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멸종위기조류의 국내 분포현황. 한국조류학회지, 17: 67-137.
- 노신애. 2005. 제주도 성산포에 도래하는 저어새(*Platalea minor*)의 월동생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화재청. 2003. 천연기념물백서. 문화재청. 570pp.
- 문화재청. 2003. 천연기념물조류서식·번식지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문화재청. 150pp.
- 문화재청. 2006. 2006년 천연기념물 모니터링. 문화재청. 124pp.
- 문화재청. 2007. 중장기 천연기념물(동물) 분포과약을 위한 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 182pp.
- 문화재청. 2008. 2008년 전국 독수리 월동실태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51pp.
- 문화재청. 2008. 천연기념물 무인도서 평가 및 보호·관리방안 연구.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 155pp.
- 문화재청. 2009. 2009-2010년 전국 독수리 월동실태 조사 1차 보고서. 문화재청. 69pp.
- 문화재청. 2009. 문화재대관 천연기념물·명승-동물. 문화재청. 291pp.
- 문화재청. 2010. 2010-2011년 전국 독수리 월동실태 조사 2차 보고서. 문화재청. 67pp.
- 박진영. 1993. 注南貯水池에 渡來하는 큰기러기와 쇠기러기의 越冬生態.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진영. 2002. 한국의 조류 현황과 분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헌우. 2003. 한국에서 검은머리갈매기(*Larus saundersi*)의 번식생태 특성 및 보전방안.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성환. 2000. 비무장지대에 월동하는 두루미의 서식지이용에 관한 연구: 월동수용능력과 GIS를 이용한 공간 분포분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운기 외 12인. 2001. 천연기념물 조류의 월동실태조사Ⅱ. 문화재청. pp.72-75.
- 백인환, 김세빈, 백운기. 2004. 천연기념물 황새의 중복원과 지역활성화에 대한 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지, pp.100-102.
- 성하철, 김정희, 정석환, 김수경, 조지연, 정미라, 최유성, 박시룡. 2009. 먹이 밀도와 수심에 따른 황새(*Ciconia boyciana*)의 섭식 행동에 대한 사례연구. 환경생물학회지, 27(2): 155-163.
- 성하철, 정석환, 김정희, 김수경, 박시룡. 2008. 자연상태에서 황새의 섭식 행동과 서식지 선택에 대한 사례연구. 환경생물학회지, 26(2): 121-127.
- 소문숙. 2007. 우리나라 문헌에 나타난 황새(*Ciconia boyciana*)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장근, 박생신, 오홍식. 1994. 흑비둘기(*Columba janthina janthina* Temminck)의 번식생태에 관한 연구. 한국조류학회지, 1: 115-126.
- 오태훈, 오수길, 백충렬, 조삼래. 2008. 진우도의 동계 조류상. 한국조류학회지, 15(1): 61-71.
- 오홍식, 김영호, 장민호, 김태욱, 박수곤. 201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범섬의 하계 조류상. 한국조류학회지,

- 17(1): 21-26.
- 오홍식. 2004. 제주도에 도래하는 물새류 현황과 철새도래지 보호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조류학회지, 11: 11-32.
- 우용태, 이종남, 허위행. 1997. 낙동강 하구일대에서 기록된 조류. 경희대학교 한국조류연구소. 연구보고, 6(1): 21-34.
- 원병오. 1971. 천연기념물로 된 새들. 새가정사. pp.25-29.
- 원병오. 1981. 한국동식물도감 제25권 동물편(조류생태). 문교부. 1,126pp.
- 원병오. 1992. 여름철새도래지, 번식지 및 해조류 번식지 학술조사 보고서. 경희대학교 한국조류연구소, 연구보고 pp.16-17.
- 원병오. 1992. 천연기념물: 동물편. 대원사. 392pp.
- 원병오. 1993. 한국의 새. 교학사. 447pp.
- 원병오. 1996. 한국의 조류. 교학사. 453pp.
- 윤여창, 장호찬. 1994. 광릉 크낙새의 보존가치 평가. 한국환경경제학회지. pp.87-105
- 이경규, 남기백, 이기섭, 이진원, 유정철. 2002. 사수도의 조류상. 한국조류학회지, 9(1): 13-22.
- 이기섭, 이종렬. 2009. 새. 필드가이드. 288pp.
- 이두표. 2002. 탐진댐 수몰예정지역 일대의 조류상. 호남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논문집, 10: 77-86.
- 이시완, 송민정, 이한수, 최종인. 2004. 시화간척지에 도래하는 물새류 현황 및 보전 방안. 한국습지학회지, 6(1): 73-87.
-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2000.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320pp.
- 이종남, 이시완. 2003. 울산시 태화강 하류의 철새 도래 양상. 한국조류학회지, 10(2): 87-95.
- 自然環境研究センター. 2002. 改正・日本の絶滅のおそれのある(レッドデータブック)野生生物: 鳥類. 環境省. 日本. 278pp.
- 정석환. 2005. 황새(*Ciconia boyciana*)의 복원 및 보전을 위한 사육증식 기술개발 행동 생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삼래, 김정훈, 김현태, 강희영. 2001. 서산 A, B 지구의 하계조류상 및 번식실태. 한국조류학회지 8(1): 11-22.
- 조삼래, 최청일. 2002. 동강의 조류상. 한국하천호수학회지, 35(5): 337-343.
- 조해진, 이영석, 강태한, 김인규, 우희철, 이한수. 2009. 벌매(*Pernis ptilorhynchus*)의 번식보고. 한국조류학회 2009 가을 학술발표대회.
- 창녕군. 2008. 우포늪 따오기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한국환경생태연구소. 135pp.
- 채희영, 박종길, 최창용, 빙기창. 2009. 한국의 맹금류. 국립공원관리공단. 164pp.
- 최영복, 채희영, 김성현. 2009. 전라남도 흥도를 통과하는 벌매(*Pernis ptilorhynchus*)의 이동 양상.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3(1): 50-55.
- 최창용, 남현영, 이우신. 2007. 서로 다른 환경에 서식하는 수리부엉이(*Bubo bubo*)의 먹이 이용.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1(1): 30-37.
- 최창용. 2004. 제주도 성산포에 도래하는 저어새의 월동생태 및 관리방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두루미네트워크. 2008. 2007-08 두루미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및 향후 두루미보전을 위한 워크숍. 111pp.
- 한국두루미네트워크. 2009. 제 4회 한국두루미네트워크 회의 겸 순천만 두루미 워크숍자료집. 152pp.

- 함규황. 1982. 크낙새 생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함규황. 1997. 한국의 주남·동판저수지의 9년간('88-'96)의 천연기념물 현황. 경희대학교 한국조류연구소. 연구보고, 6(1) 63-71.
- 홍콩야조회: <http://www.hkbws.org.hk/BBS/viewthread.php?tid=12641&extra=page%3D1>
- 환경부. 1997-2009.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
- 환경부. 1999-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
- 환경부. 2000-2009.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환경부. 2010.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
- Austin, O. L. 1948. The Birds of Korea. Bulletin of the Museum of Comparative Zoology at Harvard College Vol. 101, No. 1, pp.301.
- BirdLife International. 2000. Threatened birds of the world. Lynx Edicions, 852pp.
- BirdLife International. 2001. Threatened birds of Asia: The BirdLife International Red Data Book, Cambridge UK.
- del Hoyo, J., A. Elliott and Christie, D.A, eds. 2003.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8. Lynx Edicions, Barcelona, 845pp.
- del Hoyo, J., A. Elliott and Christie, D.A, eds. 2004.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9. Lynx Edicions, Barcelona, pp.594-598.
- del Hoyo, J., A. Elliott and Christie, D.A, eds. 2005.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10. Lynx Edicions, Barcelona, pp.316-317.
- del Hoyo, J., A. Elliott and Christie, D.A, eds. 2006.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11. Lynx Edicions, Barcelona, 798pp.
- del Hoyo, J., A. Elliott and Christie, D.A, eds. 2008.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13. Lynx Edicions, Barcelona, 879pp.
- del Hoyo, J., A. Elliott and Christie, D.A, eds. 2010.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15. Lynx Edicions, Barcelona, pp.612-613.
-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2.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1. Lynx Edicions, Barcelona, 696pp.
-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4.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2. Lynx Edicions, Barcelona, 638pp.
-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6.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3. Lynx Edicions, Barcelona, 821pp.
-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7.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4. Lynx Edicions, Barcelona, 679pp.
-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1999. Handbook of the Birds of the World, Vol. 5. Lynx Edicions, Barcelona, 759pp.
- del Hoyo, J., A. Elliott and J. Sargatal, eds. 2002. Handbook of the Birds of th World, Vol. 7. Lynx Edicions, Barcelona, 613pp.



- Hongshik OH, Youngho KIM, Namkyu KIM. 2010. First Breeding Record of Japanese Night Heron *Gorsachius goisagi* in Korea. Ornithological Science, Vol. 9, No. 2, pp.131-134.
- <http://en.wikipedia.org>
- <http://www.birdlife.org>
- IUCN. 2010.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www.iucnredlist.org>
- Kim, J. H., O. C. Chung, W. S. Lee and Y. Kanai, 2007. Migration Routes of Cinnereous Vulture (*Aegypius monachus*) in Northeast Asia, J. Raptor Res. 41(2): pp.161-165.
- Pae, Seong-Hwan, Kalihher, Frances T. Lee, Jae-Bum Won, Pyong-Oh Yoo, Jeong-Chil, 1996. 한국에 도래하는 두루미류의 월동현황. 경희대학교 한국조류연구소. 연구보고, 5: 13-20.
- R. Morán-lópez, J.M. Sánchez, E. Costillo, C. Corbacha, A. Villegas, 2006. Spatial variation in anthropic and natural factors regulating the breeding success of the cinereous vulture (*Aegypius monachus*) in the SW Iberian Peninsula. Biological conservation, Vol. 130, pp.169-182.
- Sergio F., P. Pedrini & L. Marchesi, 2003. Adaptive selection of foraging and nesting habitat by black kites (*Milvus migrans*) and its implications for conservation: a multi-scale approach. Biological Conservation 112: 351-362
- Stroke, D. W. & L. Q. Stroke. 1989. A Guide to Bird Behavior. Vol. III. Little, Brown and Company. Boston.
- Wetlands International, 2002. Waterbird Population Estimates-Third Edition. Wetlands International Global Series No. 12, Wageningen, The Netherlands. 226pp.
- Wolfe, L. R. 1950. Notes on the Birds of Korea. Auk 67: 433-455pp.

## 8. 찾아보기

### 8.1. 국명 찾아보기

가창오리	191	빨논병아리	211
개구리매	194	빨쇠오리	59
개리	29	빨종다리	115
검독수리	32	새매	117
검은머리갈매기	34	새홀리기	119
검은머리물떼새	81	섬개개비	121
검은머리축새	84	소쩍새	213
검은목두루미	197	솔개	124
고니	87	쇠검은머리쭉새	127
고대(적호)갈매기	37	쇠뚝부기사촌	215
긴꼬리딱새(삼광조)	89	쇠부엉이	217
긴점박이올빼미	40	쇠제비갈매기	219
까막딱다구리	92	쇠황조롱이	173
넓적부리도요	26	수리부엉이	129
노랑때까치	200	시베리아흰두루미	256
노랑부리백로	42	알락개구리매	221
노랑부리저어새	94	알락꼬리마도요	132
느시	46	알락쇠오리	175
독수리	96	알락해오라기	177
두루미	49	양비둘기	224
따오기	18	올빼미	134
뜸부기	99	왕새매	226
말뚝가리	202	원앙	228
매	102	원앙시촌	21
먹황새	52	채두루미	62
무당새	105	젓빛개구리매	231
물수리	107	저어새	137
밀화부리	204	조롱이	140
벌매	110	종다리	234
붉은가슴흰죽지	54	참매	143
붉은발도요	207	참수리	65
붉은배새매	113	청다리도요사촌	68
붉은뺨멧새	209	청머리오리	236
붉은해오라기	56	취부엉이	238
비둘기조롱이	171	크낙새	23



큰고니	146
큰기러기	240
큰각도요	242
큰논병아리	180
큰덤불해오라기	148
큰말뚝가리	244
큰소쩍새	246
털발말뚝가리	249
팔색조	150
항라머리검독수리	152
호사도요	251
호사비오리	71
흑고니	74

홍여새	183
황새	77
흑기러기	154
흑두루미	156
흑비둘기	158
흰기러기	185
흰꼬리수리	161
흰눈썹황금새	254
흰목물떼새	164
흰이마기러기	167
흰죽지수리	169
흰줄박이오리	188

## 8.2. 학명 찾아보기

<i>Accipiter gentilis</i>	143
<i>Accipiter gularis</i>	140
<i>Accipiter nisus</i>	117
<i>Accipiter soloensis</i>	113
<i>Aegypius monachus</i>	96
<i>Aix galericulata</i>	228
<i>Alauda arvensis</i>	234
<i>Anas falcata</i>	236
<i>Anas formosa</i>	191
<i>Anser caerulescens</i>	185
<i>Anser cygnoides</i>	29
<i>Anser erythropus</i>	167
<i>Anser fabalis</i>	240
<i>Aquila chrysaetos</i>	32
<i>Aquila clanga</i>	152
<i>Aquila heliaca</i>	169
<i>Asio flammeus</i>	217
<i>Asio otus</i>	238
<i>Aythya baeri</i>	54
<i>Bombycilla japonica</i>	183
<i>Botaurus stellaris</i>	177
<i>Brachyramphus perdix</i>	175
<i>Branta bernicla</i>	154

<i>Bubo bubo</i>	129
<i>Butastur indicus</i>	226
<i>Buteo buteo</i>	202
<i>Buteo hemilasius</i>	244
<i>Buteo lagopus</i>	249
<i>Charadrius placidus</i>	164
<i>Ciconia boyciana</i>	77
<i>Ciconia nigra</i>	52
<i>Circus cyaneus</i>	231
<i>Circus melanoleucos</i>	221
<i>Circus spilonotus</i>	194
<i>Columba janthina</i>	158
<i>Columba rupestris</i>	224
<i>Cygnus columbianus</i>	87
<i>Cygnus cygnus</i>	146
<i>Cygnus olor</i>	74
<i>Dryocopus javensis richardsi</i>	23
<i>Dryocopus martius</i>	92
<i>Egretta eulophotes</i>	42
<i>Emberiza aureola</i>	84
<i>Emberiza fucata</i>	209
<i>Emberiza sulphurata</i>	105
<i>Emberiza yessoensis</i>	127

<i>Eophona migratoria</i>	204	<i>Mergus squamatus</i>	71
<i>Eurynorhynchus pygmeus</i>	26	<i>Milvus migrans</i>	124
<i>Falco amurensis</i>	171	<i>Nipponia nippon</i>	18
<i>Falco columbarius</i>	173	<i>Numenius madagascariensis</i>	132
<i>Falco peregrinus</i>	102	<i>Otis tarda</i>	46
<i>Falco subbuteo</i>	119	<i>Otus bakkamoena</i>	246
<i>Ficedula zanthopygia</i>	254	<i>Otus sunia</i>	213
<i>Galerida cristata</i>	115	<i>Pandion haliaetus</i>	107
<i>Gallixrex cinerea</i>	99	<i>Pernis ptilorhyncus</i>	110
<i>Gallinago hardwickii</i>	242	<i>Pitta brachyura</i>	150
<i>Gorsachius goisagi</i>	56	<i>Platalea leucorodia</i>	94
<i>Grus grus</i>	197	<i>Platalea minor</i>	137
<i>Grus japonensis</i>	49	<i>Podiceps cristatus</i>	211
<i>Grus leucogeranus</i>	256	<i>Podiceps grisegena</i>	180
<i>Grus monacha</i>	156	<i>Porzana fusca</i>	215
<i>Grus vipio</i>	62	<i>Rostratula benghalensis</i>	251
<i>Haematopus ostralegus</i>	81	<i>Sterna albifrons</i>	219
<i>Haliaeetus albicilla</i>	161	<i>Strix aluco</i>	134
<i>Haliaeetus pelagicus</i>	65	<i>Strix uralensis</i>	40
<i>Histrionicus histrionicus</i>	188	<i>Synthliboramphus wumizusume</i>	59
<i>Ixobrychus eurhythmus</i>	148	<i>Tadorna cristata</i>	21
<i>Lanius cristatus</i>	200	<i>Terpsiphone atrocaudata</i>	89
<i>Larus relictus</i>	37	<i>Tringa guttifer</i>	68
<i>Larus saundersi</i>	34	<i>Tringa totanus</i>	207
<i>Locustella pleskei</i>	121		



Red Data Book 1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적색자료집

## 조류

Red Data Book of  
Endangered Birds in Korea

발행일 | 2011년 4월 5일

발행인 | 국립생물자원관장 김종천

발행처 | 국립생물자원관

주소 | 인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우편번호 404-170)

전화 | 032)590-7118

팩스 | 032)590-7040

편집·제작 | 자연과생태

©국립생물자원관 2011

정부간행물번호 11-1480592-000107-01

ISBN 978-89-94555-68-3 94470(세트)  
978-89-94555-70-6 94470

# Red Data Book of Endangered Birds in Korea

정부간행물번호 11-1480592-000107-01



9 788994 555706  
ISBN 978-89-94555-68-3 94470(세트)  
978-89-94555-70-6 94470